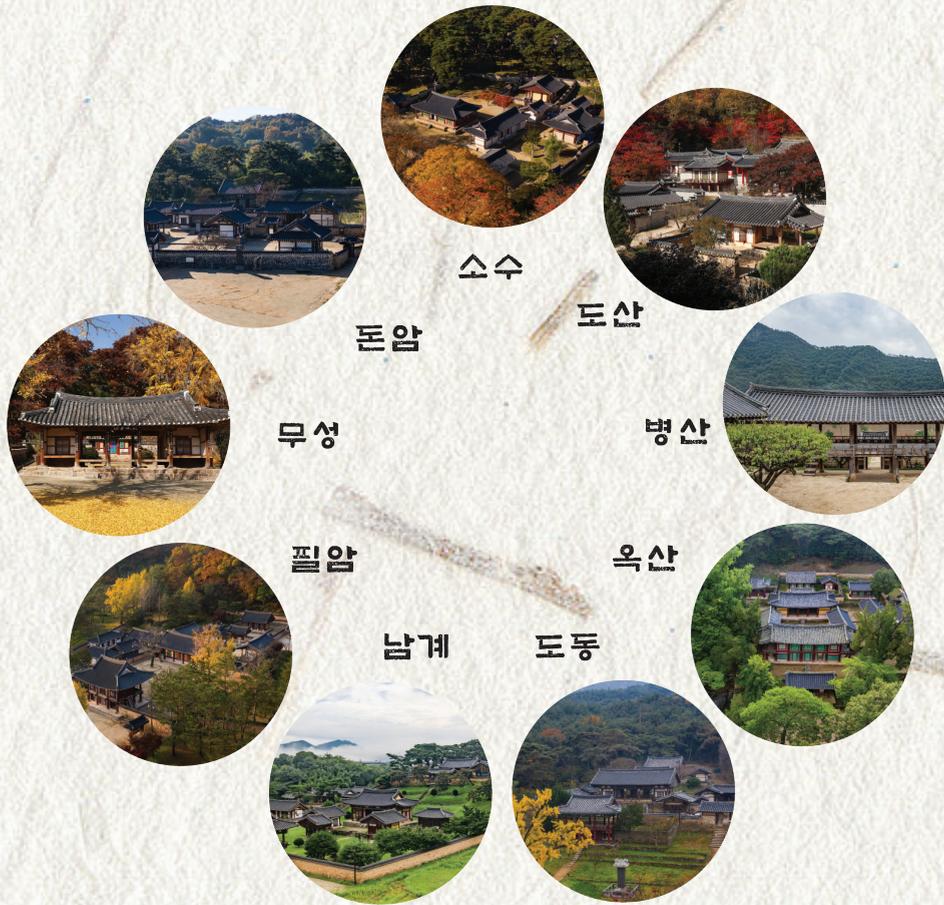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학술포럼



일시 2023년 8월 30일 (수) 13:00~18:00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강당 (소강당)

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최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후원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달성군  논산  정읍시  장성군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함양군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및 학술 포럼 중간발표회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학술포럼

일시: 2023.08.30.(수) 13:00-18:00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강당(소강당)

※ 본 발표 자료집은 학술 포럼 용이며 추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함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학술포럼

일시: 2023.08.30.(수) 13:00~18:00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강당(소강당)

등록 사회 : 박성진((재)세계유산 한국의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장)		
12:40~13:00	등록 및 자료집 배포	
개회		
13:00~13:20	환영사	이배용((재)세계유산 한국의서원 통합관리센터 이사장)
	축사	안병우(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주제 발표 사회 : 김인경(선문대학교)		
13:20~13:40	기조발표	세계유산 목록 등재 서원의 아카이브적 성격 및 특성에 대한 진단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주제 1: 한국의 서원 문헌의 현황과 가치		
13:40~14:40	발표 1	가장 오래된 서원의 기록 ‘소수서원이 품은 자료의 가치’ 채광수(영남대학교)
	발표 2	남계서원 장서 수집의 내력과 소장 고문헌의 성격 : 사림시대의 기증문고 박소희(영남대학교)
	발표 3	경주 옥산서원 아카이브의 성격과 가치: 옥산진장(玉山珍藏) 이병훈(한국국학진흥원)
14:40~14:50	휴식	
14:50~16:10	발표 4	도산서원(陶山書院) 문헌자료의 현황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언: 광명(光明)한 인간과 세상 임근실(단국대학교)
	발표 5	필암서원 기록유산의 현황과 가치 및 활용방안 모색: 호남도학의 연수(淵藪) 김소희(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6	대출과 열람의 자율성, 공공 도서관의 역사적 모델: 도동서원 김정운(경북대학교)
	발표 7	병산서원 소장 고문헌 기초 연구: 서애학의 지식문화적 자취 강문식(숭실대학교)
16:10~16:20	휴식	
16:20~16:40	발표 8	남겨진 문헌과 서원의 위상-기호예학의 산실 돈암서원과 호남 유림의 거점 무성서원 이선아(전북대학교)
주제 2: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 방안		
16:40~17:00	발표 1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설계와 운영방안 김하영(한국학중앙연구원)
종합토론 사회: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17:00~17:50	발표자 상호 토론	
17:50~18:00	폐회	

목 차

환영사	1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이사장 이배용	
축사	3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우	
기조발표	
세계유산 목록 등재 서원의 아카이브적 성격 및 특성에 대한 진단	7
발표: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주제 1 한국의 서원 문헌의 현황과 가치	
발표 1	
가장 오래된 서원의 기록 ‘소수서원이 품은 자료의 가치’	39
발표: 채광수(영남대학교)	
발표 2	
남계서원 장서 수집의 내력과 소정 고문헌의 성격 : 사림시대의 기증문고	61
발표: 박소희(영남대학교)	
발표 3	
경주 옥산서원 아카이브의 성격과 가치 : 옥산진장(玉山珍藏)	85
발표: 이병훈(한국국학진흥원)	
발표 4	
도산서원(陶山書院) 문헌자료의 현황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언 : 광명(光明)한 인간과 세상	111
발표: 임근실(단국대학교)	
발표 5	
필암서원 기록유산의 현황과 가치 및 활용방안 모색 : 호남도학의 연수(淵藪) · 127	
발표: 김소희(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6	
대출과 열람의 자율성, 공공 도서관의 역사적 모델: 도동서원	143
발표: 김정운(경북대학교)	

|| 발표 7

병산서원 소장 고문헌 기초 연구: 서애학의 지식문화적 자취 163

발표: 강문식(숭실대학교)

|| 발표 8

남겨진 문헌과 서원의 위상-기호예학의 산실 돈암서원과 호남 유림의 거점 무성서원 173

발표: 이선아(전북대학교)

| 주제 2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 방안

|| 발표 1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설계와 운영방안 193

발표: 김하영(한국학중앙연구원)

환영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서서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시는 청량한 계절에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학술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한국의 서원 국내학술포럼」이 진행되는 이곳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제가 꼭 10년 전인 2013년에 원장으로 부임했던 곳이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국문화의 본질을 연구하고, 그 결과로써 세계 속에서 한국학이 가지는 위상을 높여, 한국학과 한국문화 전파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학문의 전당에서 ‘한국의 서원’에 대한 연구와 포럼을 진행하는 것은 더욱 뜻깊은 일로 여겨집니다.

지난 2019년 7월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된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등재된 이후에도 해마다 서원의 의미를 기리는 학술행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9곳의 서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그리고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는 범고창신의 정신으로 본연의 마음을 잊지 않고 서원의 역사와 본질을 연구하고 미래로 계승해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들을 국내학술포럼과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하면서 ‘한국의 서원’에 대한 위상을 국내·외에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회는 학교폭력의 근절과 교권회복이라는 가장 근본적 교육개혁의 과제를 풀어가야 할 시점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해결방안도 서원에서 실시했던 교육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국내 학술포럼은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중 유일한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9곳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헌들의 현황과 가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 문헌들의 미래지향적인 활용방안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9개 서원의 문헌연구에 동참해주신 연구자분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이 문헌들에 새겨진 ‘한국의 서원’의 아름다운 정신이 미래를 향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8. 30.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이사장 이배용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우입니다.

한국서원학회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학술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포럼을 준비하신 김학수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럼에 참가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포럼은 (재)세계유산 한국의서원 통합관리센터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과제를 기획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주신 이배용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서원은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비록 9개 서원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한국의 서원이 글로벌 문화유산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의 서원 연구는 국민대학교 정만조 명예 교수님이 지속적 관심과 열정을 갖고 시작하였고, 한국서원학회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은 물론 유럽 학자들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안목을 더욱 확대하며, 동서양 비교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학문적 도전이며, 서원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과감한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원 연구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서원에서 생산, 유통, 소장되었던 문헌들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아카이브가 잘 구축되면, 연구자들이 연구에 큰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쉽게 서원에 관한 귀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문헌의 현황 조사, 문헌의 내용 파악과 가치 부여, 문헌의 형태적 구분과 유형화, 관리시스템의 설계와 운영 등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오늘 포럼은 서원 연구사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대장정에 나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포럼을 통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의견이 많이 취합되기를 기대하며, 옥고를 발표해주실 10명의 연구자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았고, 딱딱한 의자가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소통하고 공감하는 포럼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30일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우

기조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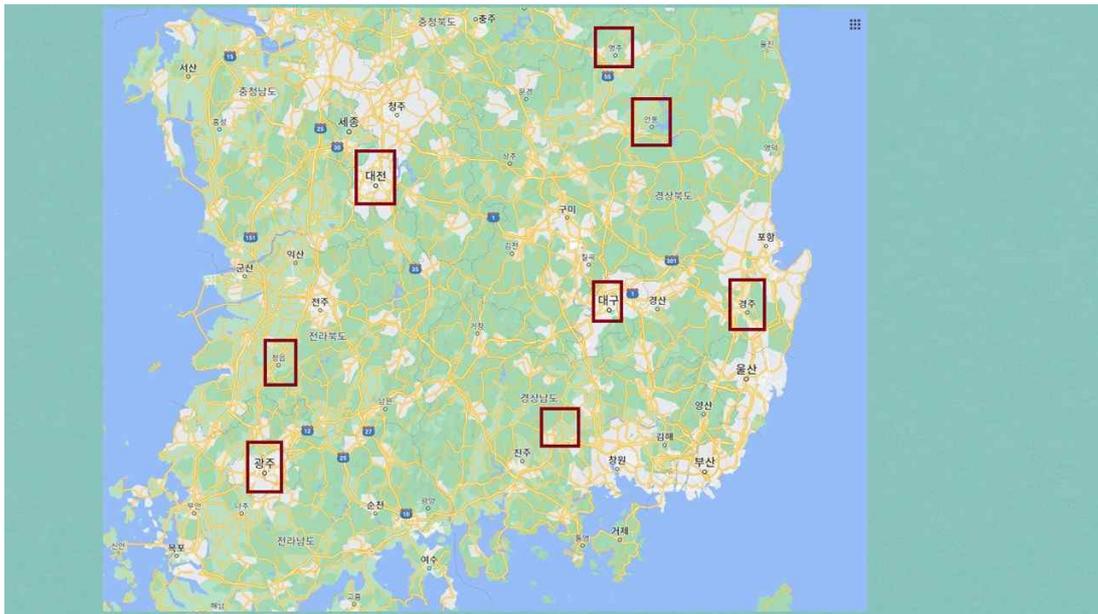
세계유산 목록 등재 9개 서원의
아카이브적 성격과 특성에 대한 진단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기조발표

세계유산 목록 등재 9개 서원의 아카이브적 성격과 특성에 대한 진단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책임자)



<p>한국의 서원</p> <p>지식문화적 가치</p> <p>및</p> <p>인문성</p>	- 朱子學 시대 文治 및 禮治의 상징적 공간
	- 文明化 된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 공간
	- 知識의 집단체 및 계승성을 추구하는 學術 공간
	- 지식의 수합·생산 및 보급 : 아카이브
	- 醫學 및 文化行事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공익 기관

서원 문헌의 구성 : 문(文)과 헌(獻)

1) 고서류 : 공간된 책	
- 경사자집류	
2) 고문서류 : 개별 문서류	
- 개별고문서	
- 성책고문서	
3) 금석문류 : 비석 및 각자	
- 신도비/묘정비 등	
4) 액서류	
- 편액/시액 등	_이상(文)의 영역
5) 구비 전승 :	_헌(獻)의 영역



소수서원 암각 : '敬'



옥산서원 : '회재신도비'



병산서원 : 만대루

서원 문헌의 내용적 범주 : 고문서/성책고문서

- 1) 연혁 및 운영 : 원지/원임안 등
- 2) 교육 및 강학 : 강안/거접안/유생안 등
- 3) 의례 및 제향 : 봉안록/집사록/분향록 등
- 4) 재정 및 경영 : 노비/전답안 등
- 5) 소통 및 교류 : 통문/서관
- 6) 기타 : 시문류 등

서원 아카이브의 3대 구성 요소 : 제안

- 1단계) 문헌 : 생산/유통/취득/축적한 제 문헌
- 2단계) 인간 : 제왕/권립/운영/지적 활동에 참여한 제 유형의 인간
- 3단계) 공간 : 서원이 위치한 자연/인문지리적 환경 등의 장소성

세 영역의 융복합적 구성 : 아카이브의 학습/효율/실용성 담보

서원 아카이브 : 유의점

-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문헌 : 장서목록 등을 통해 구현
- 현존 문헌 : 실물을 통해 구현
 - 1) 생산
 - 2) 구입
 - 3) 수증 : 군왕/사림
- 타저 소장 문헌 : 정상/비정상적 이관
 - 1) 정상적 이관 : 통문류 (조사 및 수집의 영역)
 - 2) 비정상적 이관 : 피향인의 후손가 또는 원임 수행자 집안으로의 이관

세 요소를 아우르는 학문/기술적 방안 필요 : 과거+현재의 병존성

서원 아카이브의 구축 방식과 방향 : 어떻게 할 것인가?

-보편성과 특수성의 점점에 대한 모색-

- 일괄적 적용

- 지역별 구분

- 학파적 구분

서원별 아카이브적 성격과 특성 개관

남계 / 도동 /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9개 서원의 아카이브적 특성 : 예시

- 소수서원 : 한국서원의 기초적 모델
- 도산서원 : 광명한 세상
- 병산서원 : 서애학 확충의 본산
- 도동서원 : 개방형 도서관의 역사적 모델
- 옥산서원 : 영남학의 지적 수원(水源)
- 남계서원 : 사림시대의 기증문고
- 둔암서원 : 예학의 본산
- 무성서원 : 글로벌지식
- 필암서원 : 호남문헌의 보고

남계서원(함양_정여장)

사림시대의 기증문고 : 책의 전략적 수집



남계서원
-함양



남계서원 장서 규모(1555-1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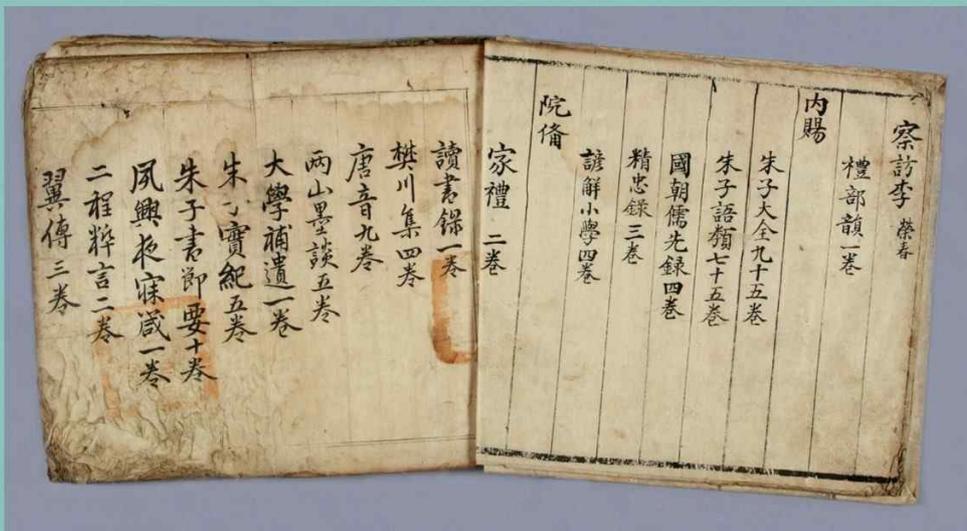
약 1,000질

古文書集成 24- 濫溪書院篇, 「哀實錄」(2), “已上千秩, 萬曆丁酉, 爲倭奴所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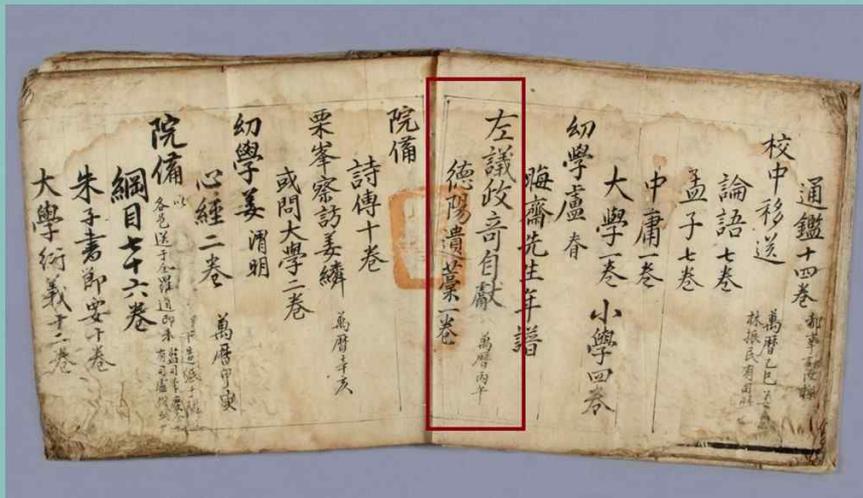
□ 재물 담당 : 양홍택(梁弘澤)

□ 서책 담당 : 노 관(盧 禎)

내사본 및 서원 자체 구비[院備]



기증 _기자현 _덕양집(1606간행)



정구 기증 _벼루



구분	성명	비고
咸陽郡守	徐九淵·金應祥·曹又新·尹確·金壽·金宇弘·郭趙·李長榮·鄭姬龍·鄭姬蕃·李軸·金潤國·趙宗道·安大垣·洪德元·李天樞·柳舜懋·高尚顏·尹認	
慶尙監司	李戡·洪景·朴大立·任說·盧禎·金繼輝·尹根壽·朴謹元·李邊·崔顯·鄭芝衍·洪聖民·柳垣·權克禮·李山甫·權克智·金晔·韓致謙·柳永詢	
慶尙都事	崔湜·宋廷荀·魚雲海·李惟誠·權緝·南復圭	
官人層 (합양 출신)	盧禎(知禮縣監/潭陽府使/晉州牧使)·梁喜(扶安縣監)·鄭宗懋(僉正)	
官人層 (일반 관료)	徐九淵(淳昌郡守)·田胤武(山陰縣監)·朴永漢(安陰縣監)·鄭復始(丹城縣監)·陳翼(雲峯縣監)·曹忠彥(居昌縣監)·李求仁(全羅都事)·朴汝珩(忠義衛)·金清(宜寧縣監)·禹世臣(淳昌郡守)·李元常(山陰縣監)·崔稀壽(知禮縣監)·鄭大民(雲峯縣監/谷城縣監)·吳長(鎮安縣監)·鄭起龍(兵使)·李光庭(督餉使)·金弘遠(金山郡守)·鄭述(安東府使)	

1550-70년까지	· 伊洛淵源錄_鄭復顯(贈呈)
李湜/李楨01	· 讀書錄_陳克興(贈呈)
편찬한	· 伊洛續錄_都希寧(贈呈)
24종	· 朱子詩集_李俊民(贈呈)
가운데	· 醫無閭集_盧禎(贈呈)
瀋溪書院에	· 孔子通紀_林希茂(贈呈)
증정된	· 程氏遺書_李楨(贈呈)
책은 16종	· 唐鑑_趙惟誠(贈呈)
옥산(6)/도산(11)/임고(3)	· 朱子感興詩_盧禎(贈呈)
	· 延平答問_盧禎(贈呈)
	· 朱文公家禮儀節_盧禎(贈呈)
	· 二程粹言_院備
	· 皇明名臣言行錄_院備
	· 讀書錄_院備
	· 朱子書節要_院備
	· 朱子實紀_院備

전란과 책 _ 정경운의 고대일록(1)

· 1595년 6월 10일

나는 서원(書院)에 갔다. 지부(支夫) · 군술(君述) · 위서(渭瑞)와 함께 서책을 실어 오는 일을 의논해서 결정하였다. 매 질 무렵에 가서 공간(公幹)을 만났다가 황혼에 집으로 도착했다.

· 1595년 8월 28일

나는 서원(書院)에 가서 여러 차례 서적을 조사하였는데, 임금께서 마사마신 《주자대전(朱子大全)》 6권이 분실되었다. 탄식할 만하다. 노덕부(盧德夫) 어른과 계시(啓時)가 또한 와서 이야기하였다. 군술(君述)과 서원(書院)에서 잤다.

· 1596년 7월 10일

서원(書院)으로 가서 서책을 벌에 맡겼다. 지부(支夫:노사상_노관 아들) · 군술(君述:진경운) · 위서(渭瑞:강응황)와 만나서 이야기하였다. 사고(士古)도 와서 이야기하였다.

전란과 책 _ 정경운의 고대일록(2)

· 1597년 8월 7일

진군술(陳述)과 함께 서원에 가서 서책을 옮기고 신판(神版)을 물었다.

· 1597년 9월 11일

서원(書院)으로 와서 유허(遺墟)를 보았다. 서책이 불에 타서 남은 것이 없으니, 안타깝다.

· 1599년 1월 28일

서원(書院)의 책을 점검해보니, 단지 무시(杜詩)만 전질(全袂)이 있을 뿐이고, 기타 어류(語類)나 성리대전(性理大全)은 반 이상 흩어져 없어졌고, 그 나머지는 전부 불에 타버렸으니, 너무 통탄스럽다.

· 1599년 4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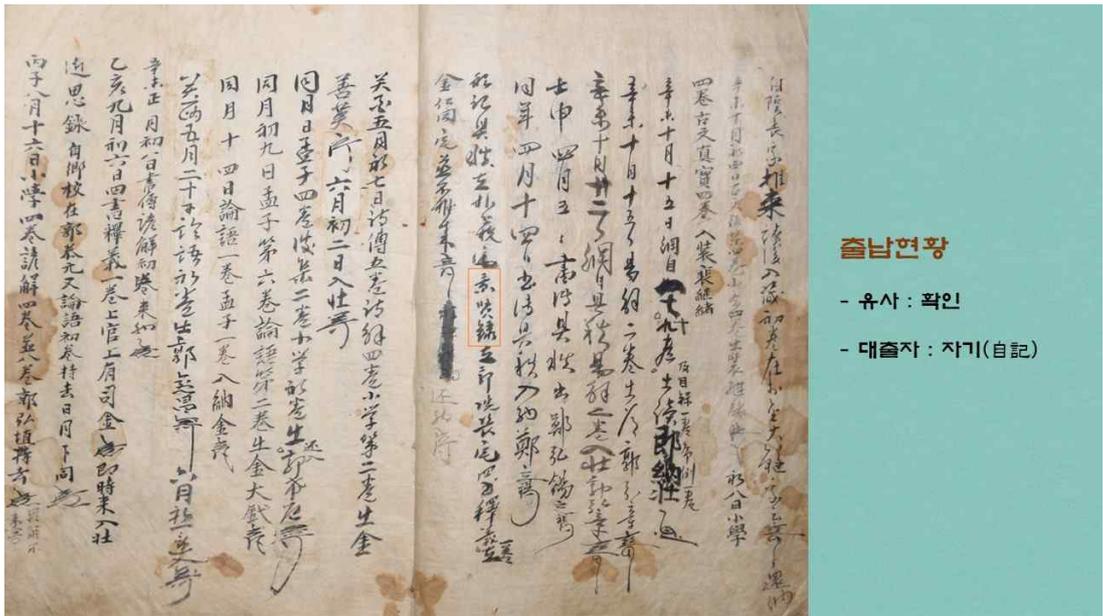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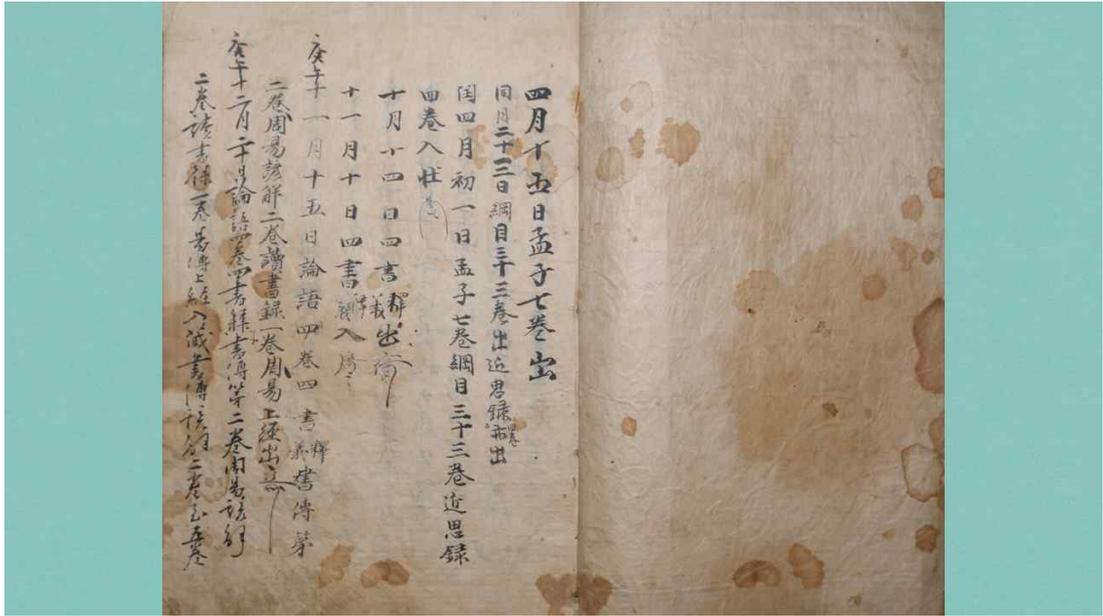
서원(書院)에 가서 진술(陳述)과 함께 문적들을 펴서 조사하였다. 보존된 것은 기록하였는데, 파책(破冊)이 오십여 권이 남아 있을 따름이었다.

도동서원(현풍 _김굉필)

개방형 도서관의 역사적 모델

서책출납
(1629-1671)





출납현황

- 유사 : 확인
- 대출자 : 자기(自記)

禮記二十卷正月十日郭院長朱納卷
 陸希錫一卷在御校朱納卷
 涉陽集一卷西屋以系卷上於抄東屋
 同年初卷至第廿卷持去時以無李友
 同年六月廿五日獨目上卷西屋以系卷卷
 和抄半
 同年七月十六日涉陽集初
 己卯三月十五日西崖甚急如陸七郭院
 己卯五月初五日郭院學與涉陽集卷朱納卷
 上同郭院卷元涉陽初卷朱納卷
 唐辰二月十日
 涉陽集初秋持去郭院涉陽集
 唐辰初五日涉陽集初秋持去郭院涉陽集
 辛巳九月池寒宮集郭卷九選內
 辛巳十月初五日涉陽集初秋持去郭院涉陽集
 金碑甲吉釋表選納
 壬午二月十六日涉陽集初秋持去郭院涉陽集
 癸未二月十三日寒宮集羅以監持去
 癸未二月十三日涉陽集初秋持去郭院涉陽集
 癸未三月十日周易文全書校讀郭院涉陽集初秋持去郭院涉陽集
 二月十八日
 甲申十二月初三日西崖祥春出金碑甲吉釋表選納
 二月十三日

- ### 주요 대출서적
- 덕양집 (奇邊, 1606년 간행)
 - 서애집 (柳成龍)
 - 안양집 (鄭述)
 - 경언록 (金宏弼)
 - 퇴계집 (李滉)
 - 학봉집 (金誠一)
 - 심경발휘 (心經發揮, 鄭述)

乙酉二月十五日個日景秋郭子九持去友
 景秋集全剛伯持去慶同年七月初三日選入
 乙酉十月初旬論孟具秩出郭院
 丁未二月十四日孟子具秩及論語三卷初卷朱納
 右郭院納
 上月十六日禮記二十卷其秩郭院納寒宮集五卷內四卷
 羅以賢納一卷朱納
 上月十九日羅以賢寒宮集一卷納同月同日
 郭院論語一卷納上右司金大猷持
 同月同日 郭院寧詩涉陽集卷三卷朱納金大猷持
 三月十日 寒宮集郭院後龜持去
 六月晦日寒宮集五卷郭院後龜納上右司金大猷持
 八月十六日個日八十一卷納上右司金大猷持
 同月十九日涉陽集二卷納一卷在郭院魏家持
 戊子二月十二日涉陽集一卷小學涉陽集四卷納上右司金大猷持
 戊子三月初三日景賢錄德陽集納上右司金大猷持
 戊子三月十日金大猷景賢錄德陽集納上右司金大猷持
 己丑二月十六日金碑小學第三卷持去
 同年三月十日郭院一詩涉陽集其秩持去
 同年十月十日 退溪集十卷及四書詳義郭院持去
 癸寅年五月初九日金碑小學第三卷納上右司金大猷持

甲午年正月十五日朱文酌海鄭經世... 推求諸解... 上卷具快書... 乙未四月十六日... 乙未六月十六日... 乙未十月... 丙申正月... 丙申四月... 乙未十月...

- 주문작애
- 관정 남부
- 서책의 매입
- 수령의 대출
- 주문작애(朱文酌海_鄭經世)
- 주문작애 : 1648년 간행
- 간행 후 2년 뒤 소장

乙未正月... 乙未三月... 乙未四月... 乙未五月... 乙未六月... 乙未七月... 乙未八月... 乙未九月... 乙未十月... 乙未十一月... 乙未十二月...

주요대졸인

- 배계서 : 낙전 배신 손자 _1664년 정구의 도통서원 추향 정원
- 광홍장 : 1607-1673 _진사(1651) _조임도 등과 교유
- 김선영 : 1605년생 _문과(1636)
- 김대익
- 광홍식
- 광홍제 : 재정기반 확충 상서(1644)
- 김저중 : 원장 _재정기반 확충 상서
- 광유변 : 1594-1668 _묘갈명(광중석 찬술)
- 광태원 : 김세렴 교유
- 김 홀

주요대졸인

- 나이현 : 배응경(정구 교유인)의 외손
- 광홍지 : 이언영(한강고제) 교유
- 광연숙 : 문과 _박사 _한강문인 상이성 교유
- 광세구 : 1618년생 _1660 생원 _김홀 질서
- 김저중
- 임태장 : 1618년생 _정구의 저질 이당의 손서 _생원(1660)
- 광태제
- 나수중 : 나확전 부진

壬其三月十日詩傳全枝請解 四卷金允基借去有司羅
 同月日心經上下心經發輝下卷郭鑑借去有司羅
 同年月日西庄集十一卷羅壽宗借去有司羅
 壬寅十月初四日唐音十卷郭進士借去有司羅
 同年同月日詩解四卷郭進士借去有司羅
 癸卯三月十日宋同舟一卷郭進士借去有司羅
 癸卯四月十六日小學法解四卷官寄借去有司羅
 甲辰三月十日古文前集三卷潘去金特振借去有司羅
 同年八月十八日論語四卷郭希英借去有司羅
 乙巳三月初六日周易法解 官家具枝借去有司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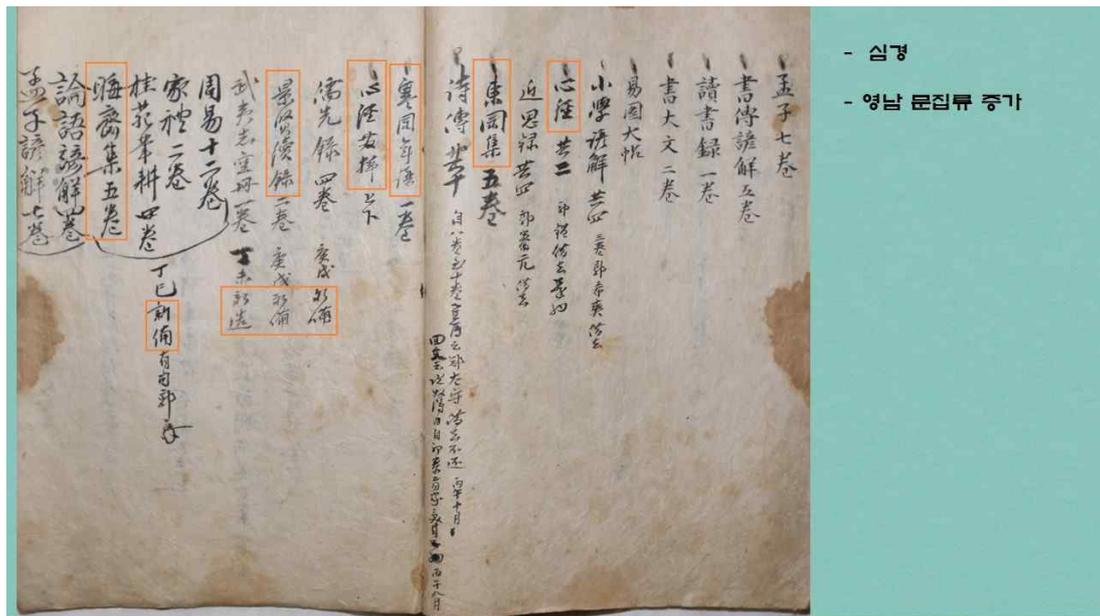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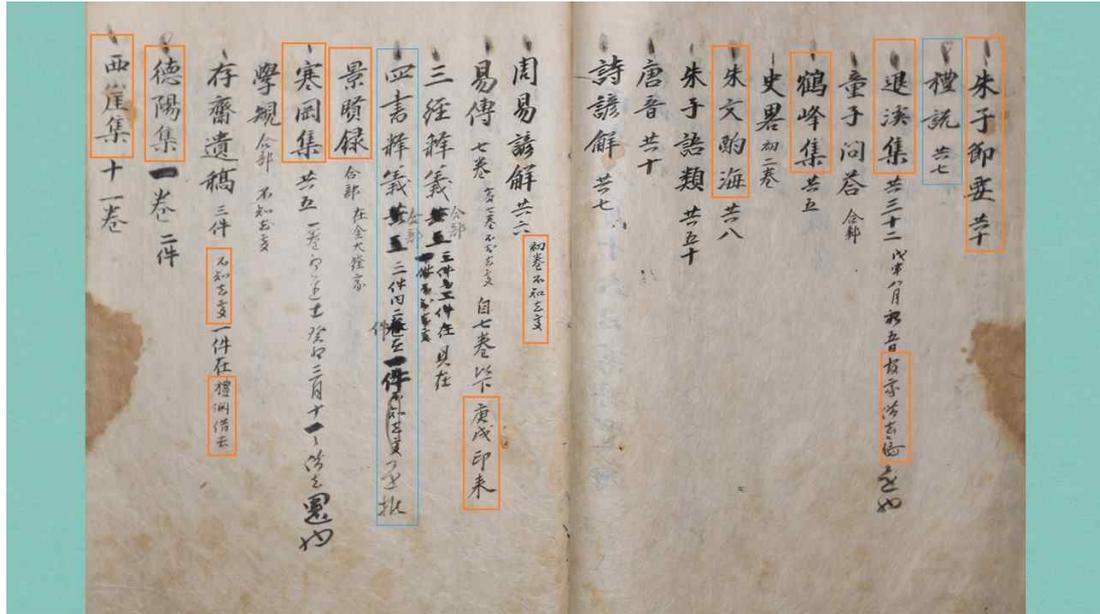
丙午七月十九日 自郭祭訪家
 丙午二月十六日 孟字具枝借去 朴廷煥也
 丙午十月二日 孟字具枝還御 朴廷煥也
 丙午同月同日 孟字具枝十一卷請 朴廷煥也
 丙午十月二日 詩解四卷 潘去金借去 潘去金
 同年月日 文後集全枝羅壽宗借去 羅壽宗
 上下卷內 孟字具枝借去 孟字具枝
 丁未二月初十日 孟字具枝借去 孟字具枝
 丁未閏四月初十日 德陽集一卷郭鑑借去
 庚戌六月十日 孟字具枝借去 孟字具枝
 辛亥正月十日 孟字具枝借去 孟字具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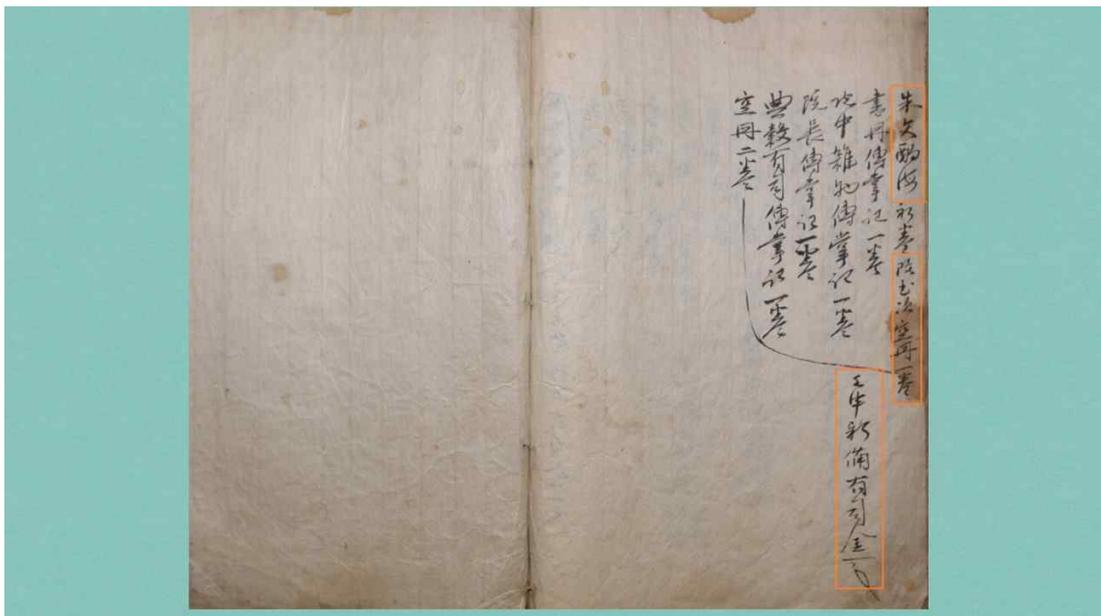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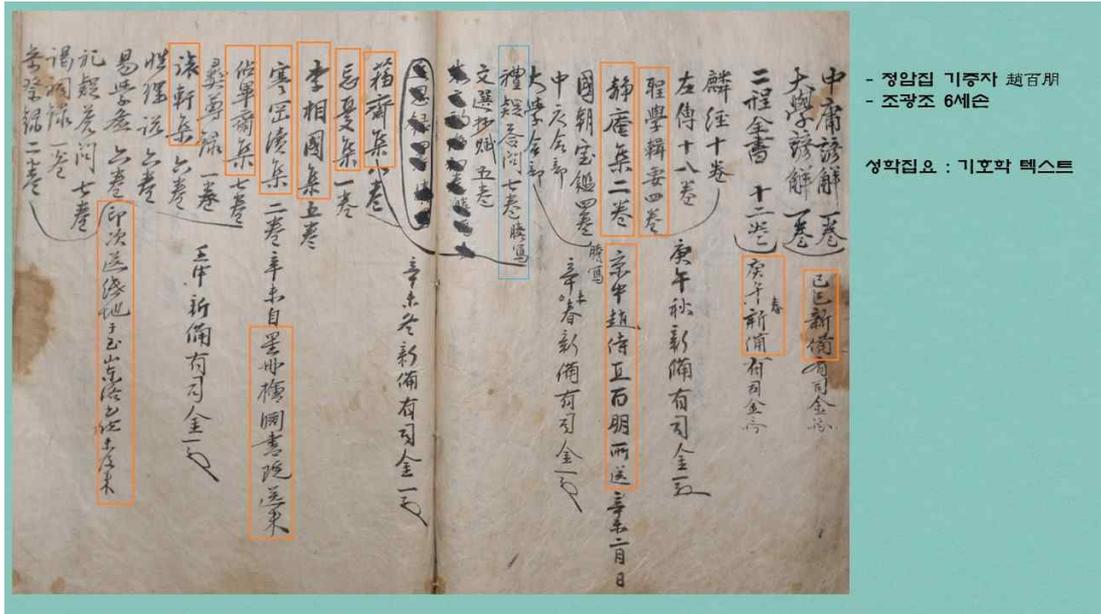
丙午八月十六日書冊置簿

書傳 全枝
 古文前集 共三 四向天宮傳射表美信也 乙巳
 小學 共四三件
 通鑑 共十五
 夙興夜寐 歲令并
 禮記 共二十
 大學衍義 共十三
 綱目 共八十一
 論語大註 共四

辛亥七月廿五日 孟字具枝借去 孟字具枝
 同年九月日 孟字具枝借去 孟字具枝

三石上十卷內
 十三卷內 孟字具枝





병산서원(안동 _류성룡)

서애학의 사회적 확장

병산서원 대학통독회(1781)

서애학이라는 가정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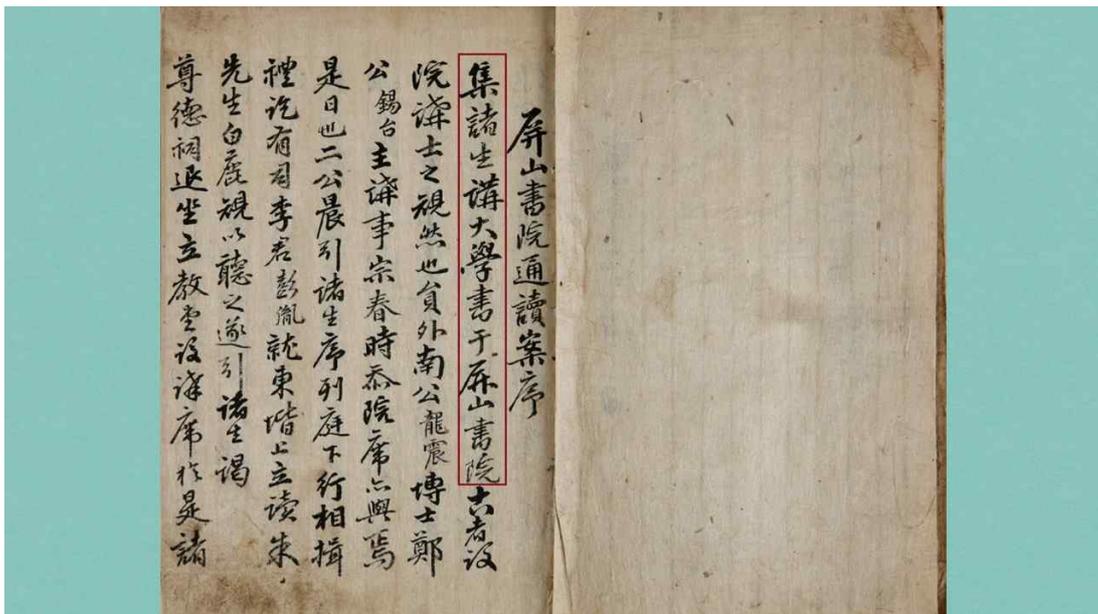


서원이라는 지식문화 인프라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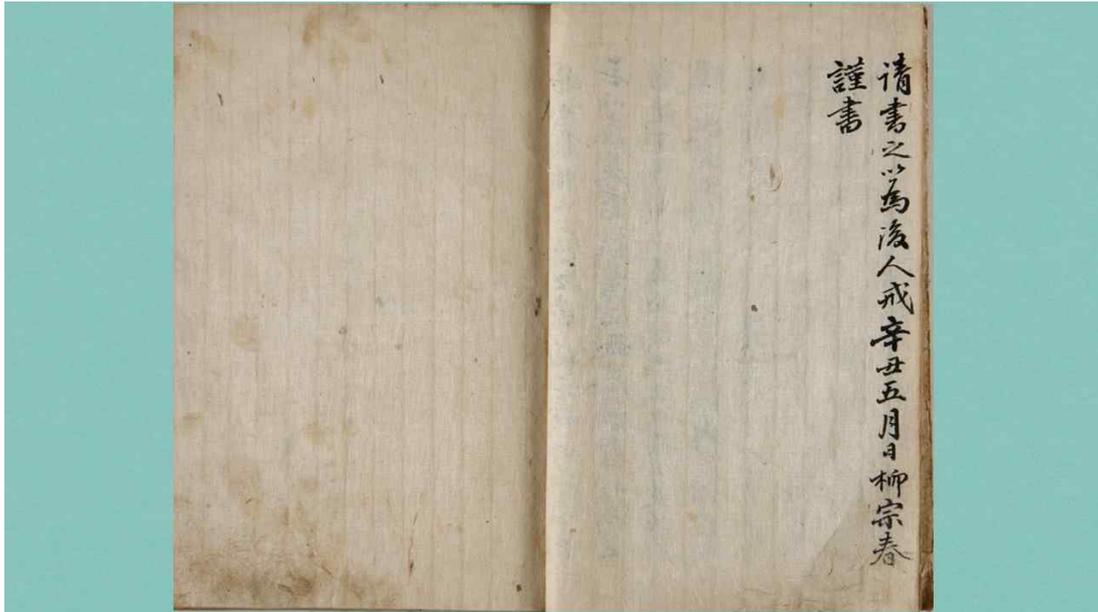
사회학으로 확장

<병산서원통독안>(1781) : 대학강독회(大學講讀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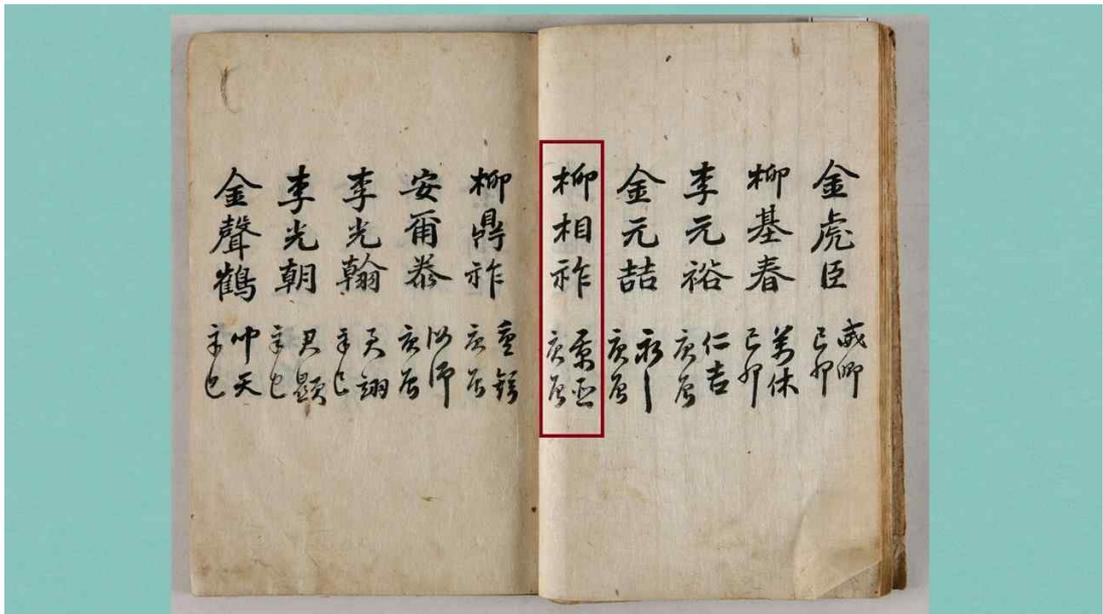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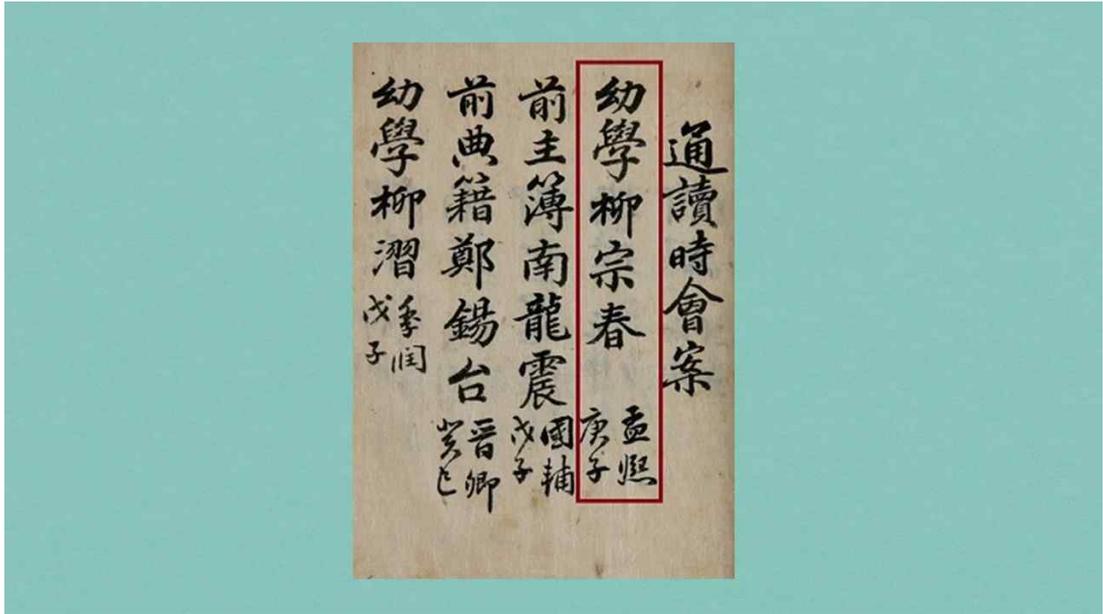
生戴中園博者僅六十餘頁各持大學
一部以次而坐儀甚肅然也坐既定一人
進詣二公前拜跪讀首章一過遂於
義大畧坐中諸君各隨其解而及相反
復必次焉然後次者又進讀以章降降
義必心之自是月終未幾越四日而成而畢
此講事之顛末也後仍寫稿念書攻之
作亦在在詳盡也先生也直為 儒賢
尸祝而已以故古之書院莫不以經學為
重春秋真嶺藻也儀招集諸生而序
之四子之經治達序書切於心身者及
之日夜博學歷四序而不撤其任士之
卷擇術之精有如此者古之書院必反
是焉而重春秋嶺藻也至於經法鍊
業性本有之高率不出於科場切好之
末而經學詳討之事則亦亦也嗚呼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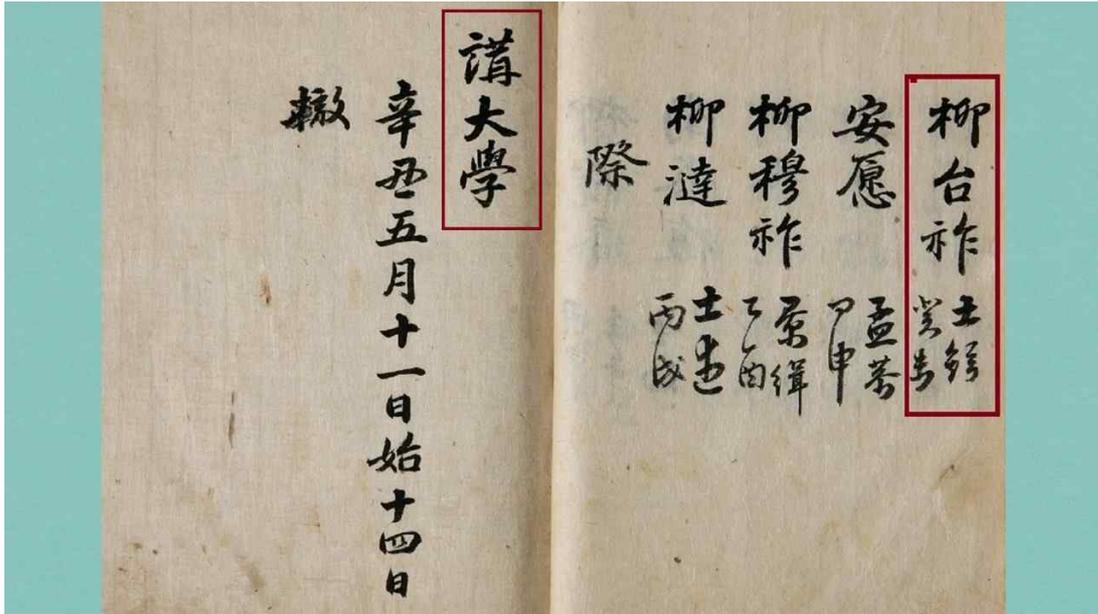
癸巳酒矣 述陶先生四理漢人心術如
柱闌而差之固者不幸而近之矣然則今日
之舉其可已乎一縣同心多士齊聲而云
以文相親以善有進退揖讓之節焉有
尊賢尚德之儀焉有切思遐廢之道
焉況其所講之書即修己治人之方乃吾
儒本分內事豈維於後漢士之視不敢
妄議而抑可謂儒宮之當務吾輩之集
集也猶恨夫不佞之蒙陋之淺陋而願詳求
無以沒是書蘊奧之趣答諸賢叩問之
勤徒有詳士之名而無詳士之實是其可
愧也哉其可懼也哉會將罷先少諸君子
各記姓名字年以為辛丑詳讀案且曰
此事之廢墜久矣今日而幸於舉焉子盍
書之以為後人勅不佞懼然作而曰有詳
士之名而無詳士之實則何以為後人勅



1781년 병산서원 대학강독회

- 일 시 : 1781.5.11 - 5.14 (4일간)
- 주관자 : 류중준(류성룡 7세 宗孫)
- 참가인원 : 107명
 - 회원(45) : 강독회 정규 회원
 - 유생(62) : 강독회 참관 유생
- 강장
 - 남용진(1777년 원장)
 - 정석태(1778년 원장)





대학강독회의 의미

- 류성룡의 사당 존덕사(尊德祠)를 참배하고 강당 입교당(立教堂)에서 이루어진 '대학강론'의 명분은 본령 공부의 회복
- 과거에 빠져드는 풍조의 개선책으로서 경학(經學) 공부를 통한 유자의 본분 확립
- 수기(修己)·치인(治人)의 대방이 집약된 <대학>을 재택함으로써 류성룡의 훈회론(訓誨論)을 서원교육에 접목

(김학수_서애가학 연구_2015)

감사합니다

주제 1

한국의 서원 문헌의 현황과
가치

발표 1

가장 오래된 서원의 기록
‘소수서원이 품은 자료의 가치’

채광수(영남대학교)

가장 오래된 서원의 기록 ‘소수서원이 품은 고문헌의 가치’

채광수*

<목 차>

- I. 머리말
- II. 한국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
- III. 소수서원 藏書의 구축과 전승
- IV. 소수서원 고문서 현황과 가치
- IV. 맺음말

I. 머리말

첫째 제사를 경건히 봉행할 것, 둘째 어진 이를 예우할 것, 셋째 사당을 잘 보수할 것, 넷째 물자를 비축할 것, 다섯째 **서책**을 점검할 것.¹⁾

위 문구는 주세붕[1495-1554]이 백운동서원을 창건 후 제정한 院規의 1條로, 1조에 서책 점검의 중요성을 특서해 둔 점이 주목된다. 서원은 교육과 교화 못지않게 지역 사회에서 지식 창고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장서로 대표되는 서원 아카이브가 그것이다. 서적을 수집·생산·유통시키는 장서제도는 강학의 보조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서원이 지역의 도서관적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지식 확산에 기여했다. 책이 귀했던 전통사회에서 다수의 장서를 보유한 서원은 일종의 도서관으로서 지식인들의 서원 출입을 유도하였던 것이다. 또한 院儒들은 강회·시회 통해 지식을 교류하며 문학작품을 남겼고, 원임들은 서원을 운영하면서 다종의 기록물인 고문서를 생산하여 전승시켰다.

현재 서원의 장서와 출판·도서관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서지학과 역사학 분야에서 서원의 문고설치, 서적 수집 및 관리, 간행과 판본, 개별 서원의 장서제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제법 해명이 된 상태이다.²⁾ 이중 배현숙의 논문은 본고와 직결되는 소수서원 장서 전반에 대해 精緻하게 분석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또 고문서를 활용한 서원 논저는 하나하나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나, 서원에 소장된 고문서 자체를 소개하고 분석한 연구는 보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corhkdt911@ynu.ac.kr

1) 영남고문헌연구소, 「院規」 『소수서원지』, 소수서원, 2007, 275쪽.

2) 이춘희, 『조선조의 教育文庫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1984. ; 배현숙, 「소수서원 收藏과 刊行 書籍考」 『서지학연구』 제31집, 2005. ; 김윤식, 「조선조 서원 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제41집, 2008. ; 배현숙,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大東漢文學』 제46집, 2016.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 『역사학보』 186, 2005. ; 옥영정, 「竹溪志」의 編纂과 版本에 관한 書誌의 研究」 『서지학연구』 제31집, 2005. ; 이병훈, 「경주 玉山書院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제58집, 2016. ;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제4호, 2017. ; 옥영정, 「엄격한 서책 관리와 도서관 역할」,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2012. ; 옥영정, 「한국 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 배현숙, 「陶山書院 刻板活動 研究」 『한국서원학보』 제12호, 2021. ; 이병훈,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한국서원학보』 제12호, 2021.

고서 또는 자료집을 제외하면 많지 않은 편이다.³⁾

1543년(중종 38) 창건된 백운동서원 곧 소수서원은 한국서원의 시초이며 典範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소수서원에서는 지역 선현을 선정하는 전통, 교육과 제향 규정, 사액 제도 등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는 이후 건립된 서원의 기준으로서 한국서원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소수서원에서 전승되어 온 가장 오래된 서원의 고문헌은 현재 소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 서원의 역사 자체를 함축하고 있는 소수서원 고문헌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의 일환으로 고서의 구축과 전승, 고문서의 현황과 가치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소수서원의 고문헌의 사료적 가치를 확인하고, 本院의 특성을 재조명하여 향후 콘텐츠를 구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한국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

조선의 서원제도는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설립으로 출현했지만, 이후 서원을 조선사회에 보급·정착시키고 그 성격을 규정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이황이었다. 이황은 당시 집권층의 권력을 이용한 私利 추구를 배제하고 公道를 회복하는 것을 조선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관료사회의 부패는 사습士習의 부정不正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고, 이는 수기를 통한 ‘正人心’ 한 인간형의 창출로서만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황은 이와 같이 治人の 전제로서 위기치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서원이라는 새로운 학제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황은 서원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관학인 성균관과 향교는 변화가에 위치해 있어 차별하게 공부할 수 없고, 과거와 관련되고 學습에 구애받기 때문에 출세·공리주의를 떠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⁴⁾

즉 그는 당시의 정치현실에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는 의욕적인 신진사람에게 희망을 걸었다. 따라서 그는 향촌의 사자士子에게 주자학적 정치이념과 학문체제를 혼도하고 수련시킴으로써 성리학적 향촌질서를 구축해, 이를 발판으로 다가올 사람의 시대를 준비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송대 주자에 의해서 창안된 지방사학인 서원을 강조하였다. 이 새로운 교학체제의 확립은 선초 이래 있어온 중앙통제방식의 관학적 교화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향촌사립 위주로 전개될 새로운 교화체제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황은 신진사람의 강학·장수처로서 서원제에 주목해, 풍기군수 시절 백운동서원의 사액과 확충에 힘썼다. 나아가 고향 예안에서 향촌사람과 제자를 총동원해 직접 서원 건립을 주관하는 등 그 창설 보급운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院規를 직접 제정해 유생들의 공부 영역과 학문에 임하는 자세 및 운영방향 등을 간명하게 제시하였다. 이황의 문인들이 이러한 스승의 서원론에 공감하고 서원보급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서원은 빠르게 하나의 교

3) 이수환, 「영남서원의 자료 현황과 특징」 『대구사학』 제65집, 2001. ;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제52집, 2012. ; 이병훈, 「도동서원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제2호, 2013. ; 김순환, 「상주 玉洞書院 소장 자료의 유형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제9호, 2019.

4) 정만조, 「退溪 李滉의 書院論-그의 教化論과 관련하여-」, 『韓洙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육제도로 자리 잡았다.

백운동서원은 한국 최초의 서원으로 고려 후기 유학자 안향을 제향하는 祠廟에서 서원으로 발전하였다. 이 서원은 16세기 중엽 이래 향사를 계속하여 한국 서원의 제향 의식과 서원에서 행해지는 일상 의례를 대표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곳이다. 1542년(중종 37) 8월 풍기군수로 임명된 주세붕은 순흥 출신으로 주자학을 수용한 선구자이자, 1319년(충숙왕 6) 문묘에 종사되었던 안향을 제향하는 사우인 ‘文成公廟’의 설립공사를 시작해 1543년(중종 38) 2월 준공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설립자 주세붕은 『竹溪志』 서문에서 “무릇 가르침은 반드시 존현에서부터 비롯되므로 이에 사묘를 세워 덕을 높이고, 서원을 두어 배움을 두터이 하게 되는 것이니 진실로 가르침이란 어지러움을 수습하고 굽주림을 구하는 것보다 급하다”고 하였다. 즉 그는 서원건립의 동기로 교화를 내세웠으며, 교화는 반드시 존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설파하면서, 이를 풍기에 적용했다. 즉 풍기의 교화를 위해서 이 지역 출신인 안향을 존봉하는 사묘와 儒生藏修를 위한 서원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그는 이 시기 가장 시급한 과제가 교화라고 인식하여 사묘·서원을 세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세붕은 백운동서원 건립에서 사묘와 서원을 별개로 간주하였고, 서원은 사묘의 부수적인 존재에 그쳤다. 사묘는 교화를 위한 존현처요, 서원은 단순한 유생의 독서처였던 것이다.

이후 서원이 명실상부한 유생의 장수 및 강학소로 발전한 것은 상술한 이황에 의해서였다.⁵⁾ 이황은 안향을 제향하는 것은 그가 진실로 동방 도학의 祖로서 삼한의 목은 때를 한번 씻어내었고, 이제현·정몽주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에 들어와 천리를 밝히고 문풍이 크게 일어나도록 해서, 실로 사문에 막대한 공을 남긴 선현이라 했다. 그러므로 안향이 살던 풍기의 교화를 위해서는 이곳 출신인 안향을 존봉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그를 제향하는 사묘를 세우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향의 종손 安斑의 후의로 서울 대종가에 봉안되어 있던 안향의 遺像을 가져와 새로운 사묘에 봉안하였다. 그러면서 「奉安安文成公遺像跋」에서 다음과 같이 그가 세운 祠院이 사문 흥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뒤에 군수로 와서 오늘을 잇는 사람은 진실로 내가 세운 바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한마음으로 문성공의 사묘에 정성을 다하고 어진 선비들로 하여금 즐겨 이 서원에서 공부하고 덕을 닦게 한다면 반드시 회현과 마음이 회합할 터이니 그것이 斯文을 일으키는데 또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안 된다고는 못할 것이다.⁶⁾

1543년 4월에는 유생들의 교육을 위한 강당과 동·서재를 짓기 시작하여 8월에 완공하고, 같은 달 유생들의 유식처로서 ‘景濂亭’을 건립하였다. 경험정은 성현을 경모하고, 북송의 연계학과처럼 많은 후학을 길러내라는 뜻으로 명명한 것이다. 이처럼 서원의 외형이 갖추어지자 1543년 8월 안향의 영정을 봉안한 후 ‘백운동서원’이라 하였다. 주세붕이 소백산 아래 죽계천 변에 터를 잡고 서원을 지어 그 이름을 ‘백운동’이라고 한 것은 주희가 재흥시킨 백록동서원이 있는 廬山에 못지않게 구름, 산, 언덕, 강물이 항상 서원을 세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백운동서원은 자연경관에 비추어 명명한 것이었다.

백운동서원은 건립 당시부터 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 당시 경상도 관찰사 임백령[1498-1546]과 후임관찰사 이언적[1491-1553]의 어염·鹽藿의 施措가 있었

5) 정만조, 「朝鮮 書院의 成立過程」, 『韓國史論』 8, 1980 ;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6) 주세붕, 『武陵雜稿』 권8, 原集, 跋, 「奉安安文成公遺像跋」.

고,⁷⁾ 또 서원을 건립함으로써 향촌민을 교화하여 교육진흥을 꾀한다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독지가의 희사가 상당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었다. 그 예로 읍인 진사 황빈은 서원운영에 필요한 租米 75석을 희사하였다. 그는 서원뿐 아니라 향교를 이건설 때도 많은 협조를 한 사림이었다.⁸⁾ 이렇게 볼 때 백운동서원은 지방관과 향촌사림의 공동협력 하에 건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서원건립에 당시 풍기사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많은 풍기사림들은 기존의 유향소·사마소를 통하여 이미 지위와 세력을 굳건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원이라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자기들의 세력기반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당시 전국적인 기근 현상을 들어 이를 반대하였다.⁹⁾ 한편 정권담당자인 훈구파의 입장에서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면서까지 사림들의 향촌자치적인 성격을 띤 서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향촌민 또한 서원설립이 노동력 동원 등 그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백운동서원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공공기관의 신설은 될 수 있으면 한유한 寺院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점 또는 승유억불의 이중효과를 노리겠다는 국가의 정책적인 의도에 발맞추어 당시 폐사화되어 있었던 宿水寺 廢址에 설립되었다.¹⁰⁾

주세붕은 안향의 영정을 봉안하고 서원의 규모가 일정부분 갖추어지자 1544년(중종 39) 순흥 출신으로 안향의 후손이었으며, 각각 고려 충렬왕과 충목왕 대의 유학자로 알려진 安軸과 安輔를 제향하였다. 같은 해에 주세붕은 서적을 구비하여 서원에 비치하고, 원규를 제정하여 서원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1633년(인조 11) 순흥 사림들에 의해 주세붕이 소수서원에 추향되었다.

주세붕은 자주 서원에 와서 머물면서 유생과 더불어 經義를 강론했으며, 그의 노력으로 풍기 일대의 교화가 크게 떨쳐서 유생이 존중되었다. 또한 入院한 유생들이 불과 4-5년 만에 名士가 되고 과거에 급제하여 백운동서원의 명성은 날로 높아갔다.¹¹⁾ 이는 백운동서원에 대한 주세붕의 열의가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당시 서원 교육이 修己보다는 과거 위주로 운영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주세붕의 이런 시책은 1545년(인종 1)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안향의 후손 安玠 [1501-1560]에 의해 더욱 진흥되었다. 그는 토지와 서적을 기부하고 서원 건물을 증축하는 한편, 「斯文立議」를 제정하여 서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리를 관에서 관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백운동서원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²⁾

「사문입의」는 모두 19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의성·홍해·진주 등지에서 屬公奴婢 3~4구씩 모두 12구를 서원노비로 차정하고, 4~5인의 院直에 대한 면역과 구휼 및 院役人 부족 시 풍기군 僧人 환속자의 차정 등을 수령에게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궤를 위하여 유생의 어물 반찬용으로 熊川 소산의 靑魚基 3곳을 확보했다. 서원 근처에 있는 민간 전답 30결은 경작인들에게 잡역을 면제하는 대신 오로지 서원을 수호하고, 공궤 시 땀감

7) 『雲院雜錄』 紹修院史.

8) 『죽계지』 권2, 順興白雲洞紹修院學田記.

9) 윤희면, 「白雲洞書院의 設立과 豊基士林」, 『震檀學報』 49, 1980, 66-73쪽. 백운동서원에 뒤이어 설립된 함양의 남계서원의 예를 보면, 서원건립 자체에 반대하는 사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초기 서원에 한정되었으며 사림세력이 중앙정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선조연간 이후의 상황은 이와 판이하였다.

10) 『죽계지』 권2, 順興白雲洞紹修院學田記.

11) 『紹修書院臚錄』, 「順興文成公廟白雲書院斯文立議」.

12) 구체적 내용은 『소수서원등록』, 「白雲洞書院加造成 及讀書儒生常養雜物 分定行移臚錄」 참조.

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생 공궤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과 물품은 그때그때 각 읍에서 조달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서원 전답에 대해서는 재입 시 논 29부 5속, 밭 13부 9속을 추가로 매입하도록 하고, 寶米 長利의 운용에 대한 군수의 감독과 협조를 지시하였다.

백운동서원이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고 나라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548년(명종 3) 10월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의 노력에 의해서였다. 이황은 1549년(명종 4) 12월 당시 경상도 관찰사 심통원에게 계문하여 백운동서원을 사액서원으로 발전시켜줄 것을 청원하였다.¹³⁾ 여기에서 이황은 중국의 예를 들어 사액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인 후원 및 관찰사·수령 등 지방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지방관의 지원은 경제적인 것에만 한정시키고, 이외의 서원 운영은 사림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직접 사액을 요청하지 않고 경상도 관찰사를 통한 것은 당시 사화가 계속되는 불안정한 정세를 고려한 것이었으며, 권신계가 서원을 또 다른 사림 탄압의 구실로 삼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講明道學과 藏修를 위해서라고 해도 유생이 취회하는 장소를 권신계가 좋게 볼 리 없었다. 그래서 이황은 일체의 정치적 혐의가 있는 표현은 피하고 다만 서원이 교학진흥을 위한 방책의 하나이며, 중국에서도 이를 장려하고 있다는 논리로 일관하여 관찰사를 통해 이루고자 한 것이다.¹⁴⁾ 실제 당시 관찰사 심통원은 좌의정 沈連源의 친동생이자, 명종의 외척이었다. 심통원을 통한다면 조정의 동의를 받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서원이 당시 관학의 부진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일단 인정하고, 유생을 고무·진작시키기 위해 그 청을 대개 수락하되, 전토와 노비는 주세붕과 안현이 이미 조처했으므로 이는 不給하였다. 이후 대제학 申光漢이 명을 받아, 上啟한 ‘紹修’와 ‘興慶’의 명칭을 올렸다. 이에 명종은 서원의 이름을 “이미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 닦게 했다[既廢之學 紹而修之]”는 뜻을 담은 ‘소수’로 낙점하였다. 서원의 이름에 성리학의 이념과 정신세계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신광한에게 명명하게 된 뜻을 기록한 書院記를 짓게 하고, 교서관에서 편액을 刻造頒降하도록 했으며, 1550년(명종 5) 2월에는 ‘소수서원’이라고 쓴 현판을 내렸다. 또한 『사서오경』, 『성리대전』 각 1건씩도 함께 내렸다.¹⁵⁾

이로써 서원은 단순한 사설 교학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공인 하에 발전하고 보급되었다. 또한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은 이후 서원 사액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 뒤이어 설립되는 남계·임고서원 등에 대한 사액은 소수서원의 예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후 신진사림의 강학·장수처로서 서원제에 주목한 이황은 서원 건립과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황의 서원론에 공감한 그의 문인들이 서원보급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서원은 단기간에 하나의 교육제도로서 자리 잡았다.

소수서원이 최초의 사액서원으로서 국가의 공인을 받게 되자 입학을 원하는 유생들이 늘어났다. 소수서원은 1543년 첫 입원유생이 들어온 후 353년간 약 4천여 명의 인재를 배출하였다. 특히 초기에는 이황의 문인을 비롯해 경향 각지에서 찾아온 유생들이 운집하여 명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는 소수서원이 초창기 서원 중 대표적 교육기관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3) 『退溪全書』 권9, 「上沈方伯」.

14) 정만조, 『앞의 책』, 1997, 39쪽.

15) 『명종실록』 권10, 명종 5년 2월 병오.

소수서원을 필두로 서원 건립이 사람들과 위정자들에 의해 장려되자 선조 대부터는 건립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서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여기에는 교육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보다는 지방관들도 쉽게 간섭할 수 없는 자치 기구라는 점이 사족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였던 것 같다. 이후 각 고을의 사족들이 경쟁적으로 서원을 건립해 나갔던 것이다. 더구나 17세기 이후 정치적으로 붕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각 붕당은 자파세력 확보를 위해 서원 건립을 장려하였고, 이는 서원의 남설과 첩설을 일으켰다. 18~19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조상 추숭사업의 일환으로 각 문중이 서원 건립을 주도하며 남설과 첩설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런 와중에 조선 후기 서원은 점차 정치·사회적 폐해를 드러내게 되었고, 이에 국가에서는 서원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책을 추진해 나갔다.

홍선대원군은 1864년(고종 1)부터 1871년(고종 8)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서원철폐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47개소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원사가 훼손되었다. 소수서원은 이때 훼손되지 않은 47개소 서원 중 하나였다. 문묘에 제향된 안향의 위패를 제향하는 대표적인 서원이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였기 때문에 훼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수서원은 역사적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1월 21일에 사적 제55호로, 201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Ⅲ. 소수서원 藏書의 구축과 전승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이었던 만큼 서원 연구에 있어서 특수한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서원의 역사가 긴 까닭에 다른 영남 지역의 유력한 서원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었다. 서원에 서적의 필요성을 인지한 주세붕은 서원 창건 후 원생들의 강학 교재로 활용할 서적들을 구비했다. 마침 서원 공사 개도 작업 과정에서 銅器 300여근을 얻었고¹⁶⁾ 이것을 밀천 삼아 서울에서 필수 성리서인 『二程全書』·『주자대전』·『대학연의』·『통감강목』 등을 구입했다. 당시 구입한 서적의 목록은 『藏書錄』에 수록되어 있다.¹⁷⁾ 또한 성리학서와 경서 몇 질을 인쇄하여 비치했다.¹⁸⁾ 나아가 주세붕은 다른 성리서들을 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아래 주세붕이 안향의 후손 注書 安挺然에게 보낸 서신에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난다.

(중략) 『주자전서』 『주자어류』를 아직까지 사오지 못하여 자나 깨나 갈망하고 있고, 『주자강목』 또한 갖추기를 바라지만 값이 폭등하여 다른 책에는 미치지 어렵지 않을까 여깁니다. 오직 당신께서 더욱 힘써 조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¹⁹⁾

이같이 집적된 서적들은 1543년(중종 38)에 지은 藏書閣에 보존하여 장서각이 도서관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백운동서원 시절의 소장 전적 자료는 창건 이듬해인 1544년(중종 39) 간행된 『죽계지』에 그 목록이 반영되어 있다. 『죽계지』 권4 「白雲洞書院藏書錄」에는 43종 525책의 책자가 소장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²⁰⁾

16)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17) 배현숙, 「앞의 논문」 『大東漢文學』 제46집, 2016, 279쪽.

18) 옥영정, 「앞의 논문」 『서지학연구』 제31집, 2005, 315쪽.

19) 영남고문헌연구소, 『앞의 책』, 소수서원, 2007, 73쪽.

20) 『죽계지』 권4 「藏書錄 - 백운동서원 藏書」.

<표.1> 1544년 소수서원 장서 목록

분류	서적 목록
經[24종]	주역대전(14권), 예기대전(16권), 唐板小全(10권), 시대전(9권), 大文(5권), 서대전(9권), 주례(7권), 대학(1부), 或問(1부), 중용(1부), 논어대전(2건 14권), 맹자대전(2건 14권), 근사록(2건 8권), 성리대전(36권), 대학연의(12권), 소학(2건 10권), 眞西山心經(2권), 伊洛淵源錄(2권), 주자어류(59권)
史[7종]	춘추부록대전(17권), 胡傳大全(7권), 호전소전(4권), 통감(15권), 좌전대전(23권), 宋鑑(16권)
子[9종]	명신언행록(16권), 自警編(7권), 文選(15권), 초사(2권), 문장계범(2권), 儷語編錄(20권), 운부군옥(10권), 박물지(1권), 속박물지(1권)
集[4종]	韓昌黎誌(16권), 柳子厚集(13권), 樊川集(1권), 宛陵集(1권),

위의 표를 살펴보면 성리학 경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초기 서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서원이 지향하였던 교육 기능을 대변하는 것이다.²¹⁾ 또한 향촌사회에 성리학이 한창 보급되던 시대를 장서 분위기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주세붕이 구입한 서적은 모두 525권에 달한다. 이를 주제별로 세분하면 총 43종 중 經部 20종, 史部 5종, 子部 10종, 集部 8종으로 경부가 가장 많았다.²²⁾ 한국 서원 문고의 기틀은 주세붕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목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장서 목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안향의 또 다른 후손 안현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해 49책을, 榮川郡에서 43책의 서적을 기증했다. 이렇게 구비된 서적에 관해서는 院外 반출 엄금, 표지 손상 시 郡에서 보수, 完帙 여부를 연말 보고 등의 관리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²³⁾ 이러한 소수서원의 장서의 관리 규정은 다른 서원에서도 차용되어 일반화 되어 갔다.

한편 1550년(명종 5) 사액을 받은 소수서원은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 나라에서 인출된 『四書』·『五經』·『성리대전』을 하사 받았다. 조정에서 사액을 줄 때 책을 함께 내리는 전통의 시작이었다. 1552년(명종 7) 說經 安璫가 조정에서 새로운 서적을 인출할 때 소수서원에도 반질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강목』과 『사문유취』를 특명으로 반질해 주었다. 이처럼 소수서원은 사액을 전후하여 구입·하사·기증 등의 방법으로 총 620책 이상의 서적을 소장할 수 있었고, 그 뒤에도 서적 기증이 계속되면서 최초의 서원이라는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²⁴⁾ 이후에도 소수서원에는 이러한 기조가 유지된다. 이렇게 축적된 장서는 규칙을 제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서원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되었다.²⁵⁾

21) 임근실, 「앞의 논문」 『한국서원학보』 제4호, 2017, 85쪽.

22) 배현숙, 「앞의 논문」 『大東漢文學』 제46집, 2016, 316쪽.

23) 배현숙, 「앞의 논문」 『大東漢文學』 제46집, 2016, 273쪽.

24) 1581년(선조 15) 12월 원장 黃訥과 유사 許繼李등이 『주자절요』 19권을, 영천군수 周博이 『武陵雜稿』 8권을 기증했다. 배현숙, 「앞의 논문」 『大東漢文學』 제46집, 2016, 282쪽.

25) 『죽계지』 「雜錄後」

·서책을 점검할 것【서책을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흩어져 없어지게 된다.】

·재계하는 날 헌관이 장서를 점검하여 햇볕을 쬐이고【사마소 유사는 반드시 계절마다 점검하고, 서원 유사는 달마다 점검한다.】

·수령의 자제가 서적을 마음대로 다루게 해서는 안 된다【서적을 제멋대로 다루게 하면 반드시 이로 인한 절취의 폐단이 생길 것이다. 자제의 마음을 부형이라도 어찌 모두 알 수 있겠는가? 만일 서원 밖으로 가지고 나가 유실하게 되면 사람들이 반드시 절취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수치를 남겨 죽계수와 함께 영원히 전해질 것이니 어찌 부형으로서 경계하지 않으며 자제로서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내가 수령 자제들을 여기에 머물지 못하게 함은 그 근원을 막고자 함이다. 그러

이후 서적의 증가 양상은 1602년(선조 35) 7월에 작성된 『紹修書院書冊置簿』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책자는 107종 1,678책을 수록하고 있으며, 장서를 ‘內賜’와 ‘道上院備’로 구분하고 있다.²⁶⁾ 전자는 사액 후 국가로부터 반질 받은 것이고, 후자는 경상감영에서 기증한 서적을 수록한 것이다. 당시 내사본 중에서는 『續綱目』, 『주자대전』, 『精忠錄』, 『주자어류』, 『사서연해』 등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임란 이전 국왕의 하사본은 21종 663책으로, 전체 하사본의 20%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비율이라 하겠다. 1984년 출판된 이춘희의 『조선조의 교육문고에 관한 연구』에는 서술되어 있으나, 현재 이 목록의 행방은 알 수 없다.

조선 후기 소수서원 장서의 추이는 서원에서 작성된 여러 종의 書目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2> 조선 후기~현대 소수서원 장서 추이²⁷⁾

순	작성연대	書目	장서 수량
①	1653년(효종 4) ~ 1697년(숙종 23)	『院中書冊置簿』 ²⁸⁾	122종, 追錄 21종
②	1698년(숙종 24) ~ 1761년(영조 37)	『서책목록』	서적 136종, 화상·碑銘 25종, 서원 기록류 7종, 책판 7종, 추록 27종
③	1762년(영조 38) ~ 1785년(정조 9)	『紹修書院冊錄』 ²⁹⁾	서적 209종, 책판 7종, 추록 27종
④	1796년(정조 20) ~ 1810년(순조 10)	『丙辰八月三十日修整紹修書院冊都錄』	서적 163종, 추록 39종 책판 3종
⑤	1875년(고종 12) ~ 1891(고종 28)	『乙亥七月三日曝曬書冊現存目錄』	181종
⑥	1917년	『丁巳九月日現存書冊目錄』	129종, 책판 6종
⑦	1951년	『辛卯五月十六日書冊引受現存目錄』	94종 574책
⑧	1969년	이춘희 조사	141종 563책

서원 측에서는 이러한 서원 소장 서책의 관리를 위해 각 책의 앞 面紙에 “來讀院中 勿出院門” 이라 墨書해 서원 밖으로 반출을 금했다. 또한 書目에 대출관련 기록을 해두거나 傳掌記 등을 작성하여 그 보관과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했다. 그래서 서적의 종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653년에 작성된 ①에 수록된 서적은 122종이며, 권말에 다른 서체로 추록된 서적이 21종이다. 1697년까지 143종이 증대되었다. 1698년부터 1761년 사이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②에는 서적 168종, 책판 7종, 추록 서적 14종이 수록되어 있다. 표지와 앞부분 몇 장이 탈락된 상태이다. 1759년 제정한 院中완의에 서적 운용 규정을 재차 강조되는 것으로 미루어 서적의 유실과 훼손이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나 큰 뜻을 가졌으나 공부할 책이 없어 지성으로 와서 공부하려는 군자라면 또한 일체 이 규례에 얽매어서는 안 될 것이다.】

26) 다만 서목의 행방은 알 수 없다. 이춘희, 『앞의 책』, 경인문화사, 1984, 22쪽.

27) 배현숙, 「앞의 논문」 『서지학연구』 제31집, 2005, 275쪽의 내용을 도표로 재 작성한 것이다.

28) 현재 계명대학교 도서관 소장.

29) 현재 계명대학교 도서관 소장.

30) 영남고문헌연구소, 「院中完議 己卯三月日」 『앞의 책』, 소수서원, 2007, 288쪽.

본원의 서책을 문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한 것은 선배들이 정한 좋은 규약이다. 그러나 지금 보면 서책의 유실과 훼손이 매우 심하다. 이는 서원의 임원이 직접 점검하지 않고 오로지 城上의 손에 맡겨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관가에서 시도 때도 없이 빌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앞으로는 서책책임이 전담하여 수장고의 개폐를 직접 처리하여, 성상으로 하여금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라. 관가에서 간혹 빌려달라고 독촉하는 일이 있으면 성상은 반드시 책임에게 보고하여 개폐하여 내보내고 받아들이게 하되, 반드시 예방 아전이 官帖과 冊褙를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린 뒤에 잘 싸서 보내고, 그것을 다 본 뒤에는 때를 맞춰 돌려받도록 하라.

1762년에 작성된 ③에는 서적 209종, 책판 7종에 ②처럼 권말에 다른 서체로 추록된 서적 27종이 수록되어 있다. ④에서는 1796년 8월에 서적 163종이 수록되어 있고, 1810년까지는 서적 39종이 추록되어 202종으로 증대되었다. 이 시기 서적의 증대는 문중의식 강화로 문집류 간행, 기증이 활발해짐에 따른 것이다.³¹⁾ 책판의 경우 3종 450판이 추록되어 있으며, ‘丙辰八月三十日院長權益休’의 주기가 있다. 참고로 권익휴는 1796년에 원장에 취임한 인물이다. ⑤에는 181종이, 1891년까지 16종이 추가되어 197종으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④·⑤ 시기에 양적으로는 증가하는 모습이나 ①과 교차 검증해보면 서적의 종수는 감소되었다. 아마 지방관 또는 지역 명망가의 서적 대출이 많았을 것인데 소수서원은 한국의 다른 서원에 비해 官權과 지역 유력 가문과 깊은 밀착성을 보인 서원이었던 만큼 현실적으로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았을 터이다. ⑤에는 포쇄가 5차례 이루어진 가운데 당시 담당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³²⁾ 소수서원의 포쇄는 치제일에 연 1회로 규정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수장되었다가 환수한 서목인 ⑦에는 서적 129종과 책판 6종이 수록되어 있다. 94종 574책이 수록된 ⑧은 6.25전쟁 뒤 다른 곳에 보관했다가 복귀하여 남은 책을 인수인계한 것이라는 後記가 있다. 바로 소수서원 장서의 가장 큰 산실의 요인은 6.25전쟁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장서 대출 후 회수하지 못하거나 타처로 유출이 되면서 분실이 심화 되었다. 그 같은 실상은 1969년 이춘희의 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①에 등재되어 있는 서적 대비해 불과 32종 243책만 수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약 85%를 분실한 것이다. 더욱이 임란 이전 내사본 21종 663책이 안타깝게도 4종 123책으로 급감했다. 배현숙은 적어도 2,600책 이상을 분실한 것으로 분석했다.³³⁾ 이러한 결과는 6.25전쟁의 피해와 관리 소홀에 기인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1997년 이루어진 조사에서 30종 145책만 수장되었다는 보고에서 알 수 있듯 이후에도 장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³⁴⁾ 2022년 진행된 조사 결과 소수박물관 소장 소수서원의 장서는 총 114책이었고 이를 분류하면 경서류 11책, 문집·실기류 66책, 사서류 12책, 선집류 9책, 잡저류 7책, 기타 9책으로 파악되었다.³⁵⁾ 이에 대한 상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중 4종[진한 이탤릭체]이 내사본이다.

31) 이병훈,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과 역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193-194쪽.

32) 1875년 金輝鍵·申錫履, 1876년 鄭麒燁·黃震夏, 1879년 李承奎, 1886년 朴明鍾·徐相鏞, 1891년 安聖淵·權相濟.

33) 배현숙, 「앞의 논문」 『서지학연구』 제31집, 2005, 276쪽.

34) 남권희, 『소수서원 소장 고서 및 고문서 해제』, 소수서원, 1998.

3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소수박물관 소장 소수서원 고문헌』, 소수박물관, 2022.

〈표.3〉 2022년 소수박물관 소장 소수서원 장서 목록

분류	서적 목록
경서류 [11종]	근사록, 논어집주대전, 孟子大文, 心經附註(乾), 주역언해, 周易傳義大全[2], 易解, 書傳, 書傳彥解[2]
문집 · 실기류 [66종]	주자대전[3], 퇴계선생문집(목록), 白沙先生集, 嘯臯先生文集, 嘯臯文集[2], 庸窩寢藁, 葛川先生文集, 敬亭先生集, 溪西先生逸稿, 溪村先生文集, 久菴集, 蘿山世稿, 楠溪文集, 訥隱先生文集, 訥軒文集, 唐柳先生集, 大山文集, 東渠集, 杜詩, 遯庵先生逸集, 藤巖先生逸稿, 梅潭集, 孟巖集, 牧隱集, 霧隱先生文集, 文節公金先生逸稿, 朴正字遺稿, 白沙先生集, 樊川文集, 四佳詩集, 沙村先生文集, 西原世稿, 松巖先生文集[2], 松巖先生續集, 松隱先生文集, 松坡集, 梧峯先生文集, 六臣遺稿, 一松集(貞), 田園文集, 槽巖集(乾), 竹南文集, 瞻慕堂先生文集, 秋江集, 沖齋先生逸稿, 沖齋先生文集, 癡巖逸稿, 澤堂先生集, 澤堂先生續集, 澤堂先生別集, 八斯遺稿, 湖陽先生文集, 活齋先生文集, 晦堂先生文集, 晦齋先生文集, 陶軒先生逸稿 [岐陽世稿, 朱子語類, 勿巖先生文集, 晦軒先生實記, 正氣錄, 遜翁先生實記, 許貞簡公遺事]
사서류 [12종]	동국통감, 唐鑑,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元史, 자치통감강목, 春秋胡氏傳, 春秋胡氏大傳, 통감, 通鑑口訣, 綱鑑會要, 天運紹統
선집류 [9종]	詩解, 麗語編類[2], 文選, 分類補註李太白詩, 四佳詩集, 詩大全, 諭中外大小臣庶論音, 重刊陸宣公奏議
잡서류 [7종]	撰集辯誣錄, 闡義昭鑑, 楚辭後語, 破字冊, 皇朝名臣言行外錄, 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 紹修書院臚錄
기타 [9종]	무자식년사마방목, 韻府群玉[2], 大廣益會玉篇[2], 鄉禮合編叢書, 東醫寶鑑雜篇, 自庵書帖, 體本用書帖
타기관 소장	院中書冊置簿[계명대], 紹修書院冊錄[계명대]

한편 소수서원의 소장 책관은 총 902판 곧 『죽계지』 목판 229점, 『추원록』 목판 661점, 『육선생유고』 목판 8점, 『가례언해』 목판 4점이 현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지로 1544년(중종 39)에 편찬된 『죽계지』는 백운동서원의 창건과 제향 인물의 전기 자료, 특히 장서기록을 담고 있어 사료로서 의미가 특별하다.³⁶⁾ 1658년(효종 9) 간행된 『추원록』은 안향을 중심으로 한 순흥안씨 선대 인물의 전기서이다. 安應昌이 의성현령에 있을 당시 관각해 소수서원으로 옮긴 것이다. 印本の 전래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판목의 중요성은 크다. 『육선생유고』는 1658년(효종 9)에 박팽년의 7대손 박승고가 사육신의 遺文을 모아 만든 책이다. 판목 아래 ‘辛亥十二月二十日移送于彰節祠祥見雜錄’이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 영월의 장절사로 이관할 때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³⁷⁾ 『가례언해』는 주자의 『가례』를 申湜(1551-1623)이 언해한 책으로 서문만 전한다.³⁸⁾

IV. 소수서원 고문서의 현황과 사료적 가치

소수서원에서 작성되어 소장했던 고문서와 각종 성책류는 소실된 것도 많지만 다수가 현전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은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에 소장된 자료답게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서책과는 달리 고문서와 성책류의 경우 작성지가 뚜렷한 관계로 유출된 것 중

36) 초판이 산란되어 후에 중복되는 판이 상당수이며, 죽계지의 판본은 모두 5종이다. 육영정, 「앞의 논문」 『서지학연구』 제31집, 2005, 320쪽.

37) 배현숙, 「앞의 논문」 『서지학연구』 제31집, 2005, 284쪽.

38) 이외에도 소수서원에는 ‘文成公神道碑’, ‘鳶飛漁躍’, ‘學求聖賢’ 등이 전한다. 배현숙, 「앞의 논문」 『서지학연구』 제31집, 2005, 284쪽.

일부는 소장처가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유출된 것으로 여겨지는 상당수의 소수서원 고문서 및 성책류는 소수박물관에 기탁 또는 환수되어 집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7년 간행한 『소수서원지』에는 소수서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고문서와 성책류가 조사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자료가 소수서원에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것, 타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 소수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소수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기탁한 기관이나 문중도 명기하였다.

소수서원 고문서와 성책류로 외부로 유출되었던 자료 가운데 중요한 것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 바 있다. 가장 먼저 간행된 것은 소수서원 운영 전반에 관한 기록을 엮어 놓은 『소수서원등록』이다. 이 책은 서원 연구에 있어 그 자료적 가치가 주목되어 1937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영인본으로 간행하여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다.

소수서원이 위치한 영주시에서도 소수서원 관련 주요 성책류에 대한 국역 및 간행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2005년에 『국역 소수서원잡록』이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당시까지 소수서원이 소장하고 있던 『운원잡록』, 『잡록』, 『강소잡록』 등 3종의 잡록을 엮어 놓았다. 이 자료들은 조선시대 소수서원의 대소사를 엮어 기록해 놓은 것으로 영인본과 국역본을 함께 수록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소수서원 소장 주요 성책류에 대한 영인본 간행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물인 『조선시대영남서원자료』³⁹⁾에는 소수서원과 관련된 고문서 및 성책류에 대한 간단한 해제와 더불어 영인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서원 자료로는 『소수서원원록등본』, 『잡록[院中完議]』, 『소수서원강소잡록』, 『癸酉正月廟宇重修記事』, 『소수서원전답안(1767)』, 『주신재선생수필 흘기』, 『퇴계선생친필 흘기』 등이 있다. 현재 소수박물관에 소장된 소수서원 관련 고문서 144점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4> 2022년 소수박물관 소장 소수서원 고문서 목록

문서 유형	문서 종류
조직·운영[26점]	紹修書院 任事錄(8점), 院任題名錄, 爬錄, 入院錄(3점), 時存錄, 紹修書院 院錄謄本, 單子(3점), 望記(8점)
강 학[10점]	居齋雜錄, 居齋錄, 雲院齋錄, 通讀雜錄, 居齋雜錄, 講所雜錄, 朔望講都目, 都圈點秩, 名簿(2점)
제 향[4점]	周愼齋先生手筆 笏記, 退溪先生親筆 笏記, 道東曲, 歲謁錄,
사회관계[55점]	尋院錄(32점), 通文(23점)
경 제[3점]	紹修書院 田畝案, 紹修書院 秋收記, 紹修書院 三所田畝謄錄
장서·출판[5점]	紹修書院 書冊目錄(4점), 紹修書院 書冊都錄(1점)
시문류[3점]	廟宇重修記, 紹修書院 鄉飲酒禮詩律訓約, 梅陰羅先生丙子亂護聖行蹟
증빙류[5점]	觀察使關文, 紹修書院 立議, 牌旨(3점)
치부류置簿類 [30점]	謄錄, 雜錄(12점), 傳掌記(4점), 紹修書院 時用面分案(8점), 備品台帳, 狀況調查, 文書傳掌冊, 財產管理所(2점)
기 타[3점]	聖幀改摹時日記, 紹修書院影幀處變時史蹟, 紹修書院事蹟

① 조직·운영[26점]

39) 이수건 외, 『조선시대영남서원자료』, 국사편찬위원회, 1999.

조직·운영과 관계된 자료는 원임록인 『임사록』(8점)·『원임제명록』·『과록』, 원생안인 『입원록』(3점)·『시존록』·『원록등본』 및 기타 단자(3점)와 망기(8점) 등이 있다.

• 『원임록』은 「백운동서원규」에 의하면 원임은 원장 - 원이院貳[부원장] 각 1인이 院事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수서원의 『임사록』을 보면 서원이 ‘원장 - 유사’ 체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마다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15~16세기에는 원장 - 監官[유사], 18세기에는 일시적으로 원장 1인 - 별유사 2인 - 상유사 1인 체제, 이후 다시 원장 - 유사 체제가 유지되었다. 기존에도 별유사가 존재했으나 「임사록」에는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가 1708년(숙종 34)에 다시 기재하였다. 상유사는 1772년(영조 48) 부터는 나타나지 않는다. 소수서원에는 1542년(중종 37)부터 현대까지의 『임사록』이 온전히 남아있어 원임 구성과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명부는 서원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했던 인물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1542년부터 1900년까지 359년 동안 선임된 원장은 총 657명으로, 평균 5개월씩 재임하였다. 거주지가 파악된 원장 439명의 군현을 조사한 결과 순흥 236명, 풍기 67명, 영천榮川 43명, 안동 42명, 서울 15명, 예안 12명 등 20개 열읍에 분포했다. 한편 원장의 상위 성씨는 중복을 포함해 김 101명·이 75명·권 62명·박 61명·황 70명·서 46명·안 38명 등의 순이다.

다음으로 서원 실무를 담당하는 유사는 초기에는 1인이 유사를 맡았으나 이후 많을 때는 9명까지 서원 환경에 따라 인원의 변동이 있었다. 9명까지 두었을 때는 상유사가 있던 기간이었다. 상유사는 유사 중 으뜸으로 여겨진다. 또 서원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임시유사를 수시로 선발하기도 했다.

• 『입원록』 3점은 1543년(중종 38)부터 1888년(고종 25)대까지 346년 동안의 입원생 명부이다. 초기 입원생의 入院은 司馬 내지 초시 입격자를 우선하며, 향학열이 높고 조행이 있으나 초시입격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사문의 승인을 얻어 입원하도록 규정하였다. 1543년 첫 입원유생이 들어온 이래 약 4천여 명의 인재를 배출했는데 초기에는 상당수가 이황의 문하생을 비롯한 경향 각지에서 찾아온 유생들이 운집하여 명성이 높았다.

16~17세기의 경우 사마시 입격자는 선조 이전 16.7%, 선조 연간 14%, 인조반정 이후는 19%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생긴은 16% 뿐이고 대부분의 입원생은 유학층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입원생으로 사마시 입격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었던 당시 향촌사회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영남지역 서원에서의 입원 자격은 이황의 이산원규 이후 점차 학행 위주로 바뀌어 가자 소수서원에서도 罷格하자는 주장이 많아졌다. 이후 파격과 입격을 반복하다가 1719년(숙종 45)년 서원 당중회의에서 파격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중인·서얼의 입원에 대해서는 『입원록』 매권 앞에 ‘中人庶孽 雖大小科 勿許濫書’라 하여 이들에 대한 배타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② 강학[10점]

조선시대 서원의 핵심 기능은 ‘尊賢養士’, 곧 교육과 제향이다. 조선에 서원 제도를 보급·정착시킨 이황이 둘 중 교육을 더 중요시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소수서원은 조선시대 내내 강학이 전개된 서원으로 손꼽히는데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강학 자료가 비교적

시계열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중에는 18~19세기에 생성된 것들이 주종이다.⁴⁰⁾ 서원에서 실시된 강학의 종류에는 거접, 거재, 강회, 旬題, 백일장 등이 있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8점은 바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에 해당한다. 소수서원 강학 전말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 자료들은 조선시대 서원 교육의 다양한 형태와 절차,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들이다. 특징적인 면모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거재잡록』은 2점이다. ①은 1761년(영조 37)부터 1780년(정조 4)까지 총 19차례의 강학 기록이다. 여기에는 순제와 백일장이 각 7회, 거재 3회, 거접이 2회 개설되었다. 거재가 순제와 백일장 보다 많은 까닭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②는 1810년(순조 10)부터 1824년(순조 24)까지 거재 기록, 죽계구곡의 同遊 일기와 당시 시작詩作 등이 수록된 성책이다. 특히 부기되어 있는 「庭揖禮 홀기」와 「庭揖禮圖」는 강학의 절차와 서원 교육의 본질을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 『거재록』은 1780년(정조 4)부터 1793년(정조 17)까지의 거재에 관한 자료이다. 「居齋錄奉諭齋中」, 「거재절목[6조항]」, 「酬唱詩」, 「거재일기」, 「通讀節目識」, 「거재유생안」 등의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18세기에 오면 과업科業 위주의 강학이 거재 중심으로 바뀌고, 과업과 독서의 병행이 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거재록도 이때 처음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거재가 활성화되는 배경에는 강학 전담 재정 기구인 양사청의 설립과 1732년(영조 8) 경상도 관찰사 조현명의 「권학절목勸學節目」 반포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⁴¹⁾

- 『강소잡록』은 19세기 전반 소수서원에서 실시된 강학 관련 기록물이다. 특히 1810년(순조 10)과 1813년(순조 13)에는 ‘거재일기’를 작성하여 유생의 하루일과를 기록했고, 1826년(순조 26)에는 통독과 제술을 시험했는데 서원에서의 과거 공부에 대한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 『삭망강도목』은 소수서원에서 초하루와 보름에 강론을 시행하고 시험을 친 뒤 작성한 都目이다. 도목에는 시험과목, 시험점수, 참여자들의 숫자, 지역별 분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 『도권점질』은 1775년(영조 51) 8월 30일 소수서원에 거행된 고강의 채점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 응시자의 이름과 채점 결과만 기재되어 있다

- 2점의 『명부』는 강학에 참여한 인사 명단으로 보인다.

③ 제향[4점]

40) 김자운, 「朝鮮時代 紹修書院 講學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2쪽.

41)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書院) 강학(講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제48집, 2019, 143~144쪽.

소수서원의 제향관련 자료로는 주세붕과 이황의 흘기 2점과 도동곡과 세알록 2점이 세전한다. 이 흘기는 서원의 향사례 절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며, 도동곡은 소수서원의 제향의례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제향절차에 더하여 제향 시 가사를 부르는 것이다.

- 「주신재선생친필 흘기」는 주세붕이 소수서원 춘추 향사시 절차를 기록한 것이며, 후에 이황이 증감하여 법식으로 정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 「이황선생친필 흘기」는 기존 주세붕의 흘기가 간략하여 절차상 빠진 것들이 있으므로 이황이 풍기군수 시절 이를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향후 설립되는 서원 향사례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 「도동곡」은 성리학을 최초로 한국에 도입한 안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작곡되었다. 노래의 형식은 안향 생전에 유행했던 곡조이며, 대체로 성리학이 한국에 전래된 경위와 안향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향의례에 제향인물과 연관된 가사가 포함된 것은 한국에서도 유일한 사례이다.

- 「세알록」은 1730년(영조 6) 1월 5일 순흥부사 申弼夏를 비롯해 20명의 선비가 소수서원에 세알한 후 그 이름과 이때 지어진 여러 편의 시를 수록한 자료이다.

④ 사회관계[55점]

소수서원의 사회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심원록』과 통문이 있다. 『심원록』은 『임원록』과 함께 서원에서 중요하게 취급했던 문서로 그 등재 여부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통문은 서원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의사 결집, 집단 활동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견 수렴과 동의를 구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⁴²⁾

- 『심원록』은 소수서원을 찾은 방문자의 명부로 현존하는 서원의 『심원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자료가 본 서원에 있다. 총 33책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방문자들의 이름과 본관, 字, 생년, 방문 날짜, 방문목적,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작성 시기는 1546년(명종 원년)~1976년까지이며 방문자 수는 총 12,487명이다. 거주지는 대체로 서원과 인접한 순흥, 榮川, 풍기를 비롯하여 안동, 예천 등 경상도 북부지역이 많은 편이다.

『심원록』(28책) 「小識」에 의하면 『심원록』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서원이 창건된 1542(중종 37)부터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심원록』은 1546년(명종 1)부터 확인된다. 이후 1836년(헌종 2)에 『심원록』을 새롭게 작성하는데, 이는 그동안 유사나 서원 관련자들이 서원을 방문한 뒤 『심원록』을 작성하지 않고, 또 『심원록』이 일정한 규칙이 없어 난잡하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전임·신임·원장을 막론하고 반드시 성명·字·甲을 쓰도록 하였다.

한편 『심원록』에 기재된 주요 인사들로는 16세기에는 오건[1521~1574], 금난수[1530~1604], 정구[1543~1629] 등이 확인된다. 17세기 중·후반에는 대체로 퇴계학파의 일원이

42) 이병훈, 「앞의 논문」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48쪽.

거나 영남 남인계 인사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18세기에도 이어져 이현일 문인들의 방문이 산견된다. 이렇게 볼 때 소수서원의 『심원록』은 서원의 위상을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심원록』에 등재된 인물들의 문집에는 소수서원을 주제로 한 술한 문학작품들이 남아있어 당시의 서원 사정을 살펴볼 수 있다. 교류 및 유식공간에 위치한 경험정에도 서원을 방문한 여러 인물들의 문학작품이 걸려있어 사림의 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 소수서원이 수급한 통문의 작성 시기는 대부분 1910~1930년대로 경상도 지역 향교·서원·서당·유계·문중 등이 몰락 지원, 충효인 포장, 봉안식 참석을 요청하거나, 각종 향중 쟁단 등에 동의를 얻기 위하여 발급한 것이다. 서원 훼손령과 근대 교육 실시로 서원의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소수서원은 일제강점기까지 여전히 향촌 사회에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⑤ 경제[3점]⁴³⁾

서원의 재원은 전답·노비·院屬·屬寺·屬店 등이 있었다. 이중 서원전과 원노비는 서원경제를 구성하는 2대 경제적 기반이다. 백운동서원은 건립 직후부터 주세봉과 안현의 조치로 상당한 규모의 서원전 확보를 비롯해 인근의 공전公田의 이속, 풍기사림들의 협조를 얻어 寶米 40석 확보, 사림의 출조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경제력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소수서원의 경제력은 점점 확대되어 갔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래 3점의 자료이다.

- 『전답안』은 1767년(영조 43)까지의 전답 규모와 18세기 말까지 추가로 확보된 상황을 적어 두었다. 18세기 중반에는 약 19결 정도였고, 18세기 말에는 6결 정도가 증가되어 약 25결 정도로 나타난다. 전답의 분포는 인근 풍기·영주·안동에도 다수 소재하고 있으나, 절대다수는 본읍에 집중되어 있다.

- 『추수기』는 소수서원에서 추수한 내용을 정리한 대장으로 전답의 위치와 규모, 소작인 명단(80명), 소출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60여 곳 중 17여 곳은 강학소와 講修禊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소수서원의 안정적인 강학 제정 운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 『삼소전답등록』은 소수서원에서 서원전을 本所, 강학소, 別所 3개소로 구분하여 서원전 전체 현황을 필사해 둔 문서이다. 이러한 서원전에 대한 收稅의 기록은 『운원잡록』에 적시되어 있는데 조세율은 대체로 1두斗에 3승升씩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때때로 5승씩을 납부받기도 하였다.

⑥ 장서·출판[5점]

서원의 장서는 강학에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서원 건립과 함께 서적을 구비하는 일은 서원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소수서원 역시 건립 당시부터

43)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도 『紹修書院田畝案』, 『紹修書院田畝量案』, 『紹修書院奴婢案』, 『紹修書院秋收記』 등 소수서원 경제관련 문서 4건이 소장되어 있다.

장서를 갖추었다. 당시 주세붕이 구비한 서적의 목록이 『죽계지』에 수록되어 있는데 「백운동서원장서록」이 바로 그것이다. 서적이 귀했던 전통사회에서 다수의 장서를 소장한 서원은 도서관 역할은 물론 지식인들의 서원 출입을 유도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현재 소수서원에 소장된 장서·출판 자료는 5점이며,⁴⁴⁾ 1698년(숙종 24)부터 1959년까지 서원 소장의 서책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 『1698년~1761년 서책도록』에는 서적 168종과 책판 7종 및 추록 서적 14종이 수록되어 있다.

- 『1796년 서책목록』에는 서적 163종과 1810년(순조 10)년까지의 서적 39종이 추록되어 202종으로 증대된 사실 및 책판 3종 450판이 추록되어 있다.

- 『1875년 서책목록』은 16종이 증가된 목록으로 1876년(고종 13), 1879년(고종 15), 1868년(고종 5), 1891년(고종 28) 포쇄 시 별임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서원 장서의 포쇄는 주기적으로 시행되었다.⁴⁵⁾

- 나머지 2권은 현대까지의 소수서원 서책과 책판의 변화상이 적혀있다. 이들 문서는 소수서원이 서책관리를 원규에 적기된 장서 관리의 규칙대로 엄격하게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⑦ 시문류[3점]

시문류로 분류할 수 있는 소장 자료는 모두 3점이다. 중수기와 향음주례 문자는 서원에서 생산한 것이고, 행적은 국가에서 반포한 책을 필사한 것이다.

- 『묘우중수기』는 1813년(순조 13) 서원의 묘우를 중수한 후 그 경위를 정리해 놓은 기사이다. 자료 후반부에는 1815년(순조 15) 서원에서 거행한 ‘巡題榜目’을 첨부해 놓았다.

- 『소수서원 향음주례시율훈약』은 1818년(순조 18) 3월 3일 소수서원에서 향음주례를 시행하고 작성한 문서이다. 38명의 참석자의 詩作과 訓辭, 남전여씨향약, 참석자 명단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 「매음나선생병자난호성행적」은 조정에서 병자호란 당시 성균관내 선현 위패를 수호한 羅以俊[1602-1676]·鄭信國[1510-?]·朴潛美[?-?] 등의 행적을 현양한 자료를 필사한 것이다.

⑧ 증빙류[5점]

증빙류는 소수서원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관부가 발급한 관문關文·입의立義 각 1점과 유적 儒籍에서 삭제削籍을 통보한 패지牌旨 3점이 전한다.

44) 그 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도 院中書冊置簿, 紹修書院冊錄(1762~1785)이 소장되어 있다.

45) 임근실, 「앞의 논문」 『한국서원학보』 제4호, 2017, 82쪽.

- 「관찰사관문」은 1546년(명종 1) 12월 1일 경상도 관찰사 안현의 백운동서원에 대한 노비 급속及屬과 획급한 둔전屯田 경작과 관련된 관문이다. 안향의 후손인 안현은 인재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백운동서원에 토지와 노비 획급, 서원소용의 각종 현물의 지원 등 서원의 경제 확립에 일조하였다. 이 문서는 서원 설립 초기 관의 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자 서원이 조선사회에 안착하는 실증적인 모습을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 「소수서원 입의」는 서원 운영 규정을 기록한 것으로 작성 배경과 13개 조항을 명시해 두었다. 그 내용은 크게 임원 자격, 서원 재정, 선비와 임원간의 쟁단, 부사의 원장 겸임 등에 관한 것이다. 이 문서는 소수서원의 또 다른 특징인 관권과의 깊은 밀착성을 입증하는 문서이다.

- 「패지」 3점은 일제강점기 소수서원에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유안·명부에서의 삭제削籍을 통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⑨ 치부류[30점]

『등록』과 『잡록』은 서원 건립 당시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서원 운영의 구체적 양상과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소수서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운영의 변화를 모색하는 한편, 향촌사회의 다양한 사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었던 각종 문서들이 이들 정책에 필사되어있다.

- 18~19세기의 『면분안』은 소수서원을 출입했던 원유들의 규모와 신향과 서민층 등의 새로운 유입을 보여준다.

- 『전장기』는 19세기 소수서원의 재물 현황을 정리하여 인수인계한 것인데, 20세기 초반에는 순흥군수가 원장에게 소수서원의 제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소수서원 상황조사』가 있다. 이러한 서원 비품의 현황 조사는 20세기 중반에도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파손되지 않고 남아있던 각종 비품과 현판의 현황을 기재하여 서원의 유지·관리에 대한 노력을 보여준다.

- 『소수서원 재산관리소』 2점은 해방 후의 것으로 서원의 재산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 관리소를 설치했고, 그 운영을 위해 임원 구성·선출 방법, 역할 등을 기록해 두었다.

⑩ 기타[3점]

- 『聖幀改摹時日記』는 1815년(순조 15) 10월부터 1816년 4월까지 공자·안향·주세붕 영정의 개모과정을 일기로 기록한 것이다. 개모배경 및 진행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의미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 『紹修書院影幀處變時史蹟(1912년)』이다. 1911년 10월 5일 소수서원에서는 영정실影幀室에 있던 공자 이하 안향, 주세붕, 이덕형, 허목의 영정을 도난 당해 남아있던 구본舊本을 책실冊室로 옮겨 봉안하였다. 다음해 2월 14일 다시 도회를 열고 구본 영정은 환봉하였는데, 당시 환봉 절차 및 참석자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소수서원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문서라 할 수 있다.

• 『소수서원사적(연도 미상)』은 조선시대 순흥부 관할 내 건립되었던 서원을 정리한 것이다. 소수서원을 포함하여 총 9개소가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순흥부 관내 교육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소수서원이 한국을 대표할 만한 서원이라는 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소수서원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장서와 고문서는 한국 서원제도의 정착과 발전과정을 상징하는 기록문화이다. 이들 자료는 한국서원의 역사 그 자체를 담보한 종합 보고서라 할 만하며,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또한 소수서원의 역사적 의미와 맞물려 서원 연구에 있어서의 활용도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장서는 한국 서원 문고의 기틀은 주세붕에 의해 마련되었다. 그는 서원 창건과 동시에 서적의 중요성을 인지해 다각적인 경로로 525권에 달하는 장서들을 집적해 장서각을 설치해 이를 보존했다. 이후 기증, 구입, 頒賜 등이 이어지면서 사액을 전후해 총 620책의 서적을 소장할 수 있었다. 그 중 하사본이 21종 663책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임란 이후 소수서원 장서의 증감 추이는 1602년 작성된 『소수서원서책치부』를 비롯해 여러 종의 書目 즉 <표. 2>를 통해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대출 후 미회수 또는 타처로 유출이 되면서 분실이 심화되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임란 이전 내사본이 4종 123책으로 급감했다. 배현숙은 적어도 2,600책 이상을 분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문서는 ①조직·운영 자료는 한국 서원의 임원 조직 체제, 임원 자격과 임록 방법 등이 설정이 되어 있다. ②16~19세기까지 시계열적으로 남아 있는 강학 자료에서는 서원 교육의 형태와 절차,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도동곡’은 제향의례에 제향자와 연관된 가사가 포함된 한국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④33책의 방대한 심원록은 서원의 위상과 네트워크를 추적할 수 있으며, 가장 오래된 심원록이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⑤잡록 등 치부류에는 소수서원의 운영양상이 잘 수록되어 있다. ⑥더불어 서원의 경제 기반 확대, 서원의 도서관 역할, 관권과의 친밀성, 서원운영과 향사례, 影幀 개모 일기 등 한국서원 역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망라되어 있다.

현재 소수서원에 장관각에 소장하던 고서, 고문서, 목판 일체를 소수박물관에 이관하여 위탁 관리 중에 있다. 2001년 『소수서원소장관목』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15년 ‘한국의 유교책판’으로 세계기록유산에 포함되어 등록되었다.

끝으로 소수서원의 장서는 상당량이 망실된 상태인 반면 고문서 중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다수가 확인이 된다. 따라서 향후에 현전하는 내사본 4종과 함께 엄선된 고문서를 국가문화재 신청도 고려해 볼 만하다.

<참고문헌>

1. 원자료

『명중실록』,
『紹修書院 任事錄』, 『院任題名錄』, 『爬錄』, 『入院錄』, 『時存錄』, 『紹修書院 院錄謄本』, 『單子』, 『望記』, 『居齋雜錄』, 『居齋錄』, 『雲院齋錄』, 『通讀雜錄』, 『居齋雜錄』, 『講所雜錄』, 『朔望講都目』, 『都圈點秩』, 『名簿』, 『周慎齋先生手筆 笏記』, 『退溪先生親筆 笏記』, 『道東曲』, 『歲謁錄』, 『尋院錄』, 『通文』, 『紹修書院 田畝案』, 『紹修書院 秋收記』, 『紹修書院 三所田畝謄錄』, 『紹修書院 書冊目錄』, 『紹修書院 書冊都錄』, 『廟宇重修記』, 『紹修書院 鄉飲酒禮詩律訓約』, 『梅陰羅先生丙子亂護聖行蹟』, 『觀察使關文』, 『紹修書院 立議』, 『牌旨』, 『謄錄』, 『雜錄』, 『傳掌記』, 『紹修書院 時用面分案』, 『備品台帳』, 『狀況調査』, 『文書傳掌冊』, 『財産管理所』, 『聖幀改摹時日記』, 『紹修書院影幀處變時史蹟』, 『紹修書院事蹟』

2. 단행본

남권희, 『소수서원 소장 고서 및 고문서 해제』, 소수서원, 1998.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수건 외, 『조선시대영남서원자료』, 국사편찬위원회, 1999.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이춘희, 『조선조의 敎育文庫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1984.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정수환 외, 『소수서원(紹修書院)·병산서원(屏山書院)』,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주세봉, 『武陵雜稿』

3. 논문

김순한, 「상주 玉洞書院 소장 자료의 유형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제9호, 2019.
김윤식, 「조선조 서원 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제41집, 2008.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 講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제48집, 2019.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書院) 강학(講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제48집, 2019.
김자운, 「朝鮮時代 紹修書院 講學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배현숙, 「陶山書院 刻板活動 研究」 『한국서원학보』 제12호, 2021.
배현숙,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大東漢文學』 제46집, 2016.
배현숙, 「소수서원 收藏과 刊行 書籍考」 『서지학연구』 제31집, 2005.
옥영정, 「엄격한 서책 관리와 도서관 역할」,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2012.
옥영정, 「竹溪志」의 編纂과 版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서지학연구』 제31집, 2005.
옥영정, 「한국 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 『역사학보』 제186집, 2005.
이병훈, 「경주 玉山書院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

화』 58, 2016.

이병훈, 「도동서원 소장 자료 의 현황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제2호, 2013.

이병훈,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과 역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이병훈,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한국서원학보』 제12호, 2021.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제52집, 2012.

이수환, 「영남서원의 자료 현황과 특징」 『대구사학』 제65집, 2001.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제4호, 2017.

정만조, 「朝鮮 書院의 成立過程」 『韓國史論』 8, 1980

발표 2

남계서원 장서 수집의 내력과
소장 고문헌의 성격
: 사림시대의 기증문고

박소희(영남대학교)

남계서원 장서 수집의 내력과 소장 고문헌의 성격: 사림시대의 기증문고

박소희(영남대학교)

<목 차>

1. 머리말
2. 계서원 장서 수집의 내력
- Ⅲ. 남계서원 소장 고문헌의 현황과 성격
- Ⅳ. 소수서원 고문서 현황과 가치
- Ⅳ.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 서원은 강학과 제향이라는 2대 기능 속에서 향촌 내 지식보급의 기구로서 역할 하였다. 특히 영남 지역 서원은 퇴계가 제정한 「이산서원원규」를 모범으로 하여 사서오경과 『소학』, 『가례』 및 여러 제자백가의 글과 문집류까지 다방면의 서적들을 교재로 삼았다. 이에 서원에서는 경서류, 성리서, 문집류, 사서류 등 다양한 서적들을 구비하여 지역 내 도서관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당대 지식인들은 성리학적 학문을 보다 심화시켜 나갔다. 뿐만 아니라 서원은 직접 제향자와 관련된 책을 출판·간행하면서 지식의 확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원의 역할에 주목하여 현재 서원 장서 연구는 서지학과 역사학 등 여러 분야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에 주목하거나,⁴⁶⁾ 소수·도산·옥산·병산·남계서원 등 개별서원의 장서 수집을 다루고 있으며,⁴⁷⁾ 현전하는 서원 소장 고문서류를 종합하여 분석한 글도 일부 확인된다.⁴⁸⁾

46) 이춘희, 『조선조의 敎育文庫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1984;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 『역사학보』 186, 역사학회, 2005; 김윤식, 「조선조 서원 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서지학회, 2008; 옥영정, 「한국 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배현숙,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대동한문학회』 46, 대동한문학회, 2016;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이병훈,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47) 박현규, 「병산서원서책목록의 분석과 그 특징」, 『季刊 서지학보』 94, 한국서지학회, 1994; 배현숙, 「소수서원 收藏과 刊行 書籍考」, 『서지학연구』 31, 서지학회, 2005; 옥영정, 「『竹溪誌』의 編纂과 板本에 관한 書誌의 研究」, 『서지학연구』 31, 서지학회, 2005; 김종석, 「도산서원 고전적의 형성과 관리」, 『고전적』 4,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2008; 윤동원, 「옥산서원 소장 고전적 서목 비교 고찰」, 『경주문화』 97, 경주문화원, 2011; 옥영정, 「엄격한 서책 관리와 도서관 역할」,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이병훈, 「경주 玉山書院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최우경, 『도산서원 광명실 장서의 변천과 서지적 분석』,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배현숙, 「陶山書院 刻板活動 研究」, 『한국서원학보』 12, 2021; 윤혜민, 「서원의 전략적인 지식정보 확보와 사회적 호응-함양 남계서원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서원과 서양 중세 수도원의 아카이브적 성격의 비교연구 자료집』, 한국서원학회, 2023.

48) 이수환, 「영남서원의 자료 현황과 특징」, 『대구사학』 65, 대구사학회, 2001;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이병훈, 「도동서원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김순환, 「상주

한편 정여창을 제창하는 남계서원은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자 1552년(명종 7) 유림의 결속으로 건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향촌 유림과 지방관들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들은 서원에 기증함으로써 남계서원에는 일종의 ‘기증문고’가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기증 내역은 『부보록』으로 남아 있어 서원 장서 연구와 소장 고문헌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 자료는 16세기 중반 남계서원의 네트워크와 당대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지향했던 학문의 이상향 등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현재 남계서원 장서에 관한 연구는 『부보록』을 통해 16~17세기 장서 구축을 살펴본 연구⁴⁹⁾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남 서원 연구 속에서 일부 다루어져 왔다.⁵⁰⁾ 그러다 보니 서원 장서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남계서원 자체에서 생산한 고문서들이 다수 현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록조차 제대로 정리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원 소장 고문서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 문서들로, 그간 서원 연구가 조선시대에 집중되다보니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근래 서원 연구를 보면, 일제시기 까지 시대를 확장하여 서원의 역사적 내력을 다루고 있다.⁵¹⁾ 이에 본 발표문에서는 남계서원 장서 구축의 내력을 보다 통시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를 종합·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소장 고문헌의 사료적 가치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2. 남계서원 장서 수집의 내력

남계서원의 제창자인 정여창은 김종직의 대표 제자이자 영남 사림파의 초석을 이룬 인물이다. 함양 출신이었던 그는 연산군 대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생을 마감하고,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때는 부관참시까지 당하였다. 다행히 1506년(연산군 12) 중종반정이 일어나고 연산군이 물러나면서 정여창·김굉필 등 피화인들에 대한 신원 작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먼저 1507년(중종 2) 무오사화 희생자들에 대한 관작이 복구되었고, 정여창은 통정대부 승정원도승지 겸 경연참찬관 상서원정에 증직되었다. 1517년(중종 12) 2월에는 조광조가 김굉필·정여창에 대한 포상을 건의하였으며⁵²⁾ 같은 해 8월에는 정여창 후손에 대한 녹용이 이루어졌다.⁵³⁾ 이후 우의정에 추증, 같은 해 9월에는 예조에서 김굉필·정여창이 講道하던 곳에 사우를 세우고 치제하자는 의견을 건의하기도 했다.⁵⁴⁾ 하지만 정여창이 제자들을 모아

옥동서원 소장 자료의 유형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2019.

49) 윤혜민, 「서원의 전략적인 지식정보 확보와 사회적 호응-함양 남계서원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서원과 서양 중세 수도원의 아카이브적 성격의 비교연구 자료집』, 한국서원학회, 2023.

50) 배현숙,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대동한문학』 46, 대동한문학회, 2016;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51) 이병훈, 「19~20세기 영남지역 향촌사회와 경주 옥산서원의 동향」,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최성한, 「한말·일제강점기 영남지역 서원·사우의 건립 양상」,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조명근, 「일제 말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 실태」, 『한국서원학보』 14, 한국서원학회, 202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홍선대원군 서원철폐 이후 서원 복설의 추이와 성격』 국내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23.4.2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근대 이후 동아시아 서원의 변용과 전개』 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23.5.26.

52) 鄭汝昌, 『一蠹集』 卷2, 附錄, 「褒贈祀典」에는 중종 12년(1517) 2월 경연관 조광조가 선비의 기풍이 무너졌으니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김굉필·정여창의 포상을 건의하였다. 그런데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2월 19일 기사에서는 “廢朝 이후로 師友의 도가 끊어지고, 간혹 스승을 찾거나 벗을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화의 씨라고 지목합니다. 대법, 사우의 도가 있는 연후에 인륜이 밝아지게 되는 법이니, 임금도 역시 당시의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스승을 삼고, 그 다음 사람으로 벗을 삼아 존대해야 하는 법입니다.(생략)”라고 하여 김굉필·정여창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53)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8월 5일.

강도한 곳이 없자 봄, 가을 관청에서 그의 家廟에 치제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였다.⁵⁴⁾

한편 1543년(중종 38) 주세붕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이 건립되었다. 이 서원은 국내에 성리학을 처음 도입한 안향의 제향처라는 상징성이 있었고, 이후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에 의해 1550년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그러자 정여창의 고향인 함양에서도 1552년(명종 7) 姜翼을 필두로 다음과 같이 서원 건립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姜介庵翼이 朴公承任, 盧徙菴祿, 鄭梅村復顯, 林濼溪希茂와 논의하기를 “우리 고을은 일두 선생의 고향인데, 선생께서 세상을 떠신 지 이미 50년에 이르렀는데도 아직 서원을 짓고 사당을 세우는 일을 못 했으니, 실로 우리 고을의 수치입니다.” 하니, 모두들 그렇다고 하여, 이에 서원을 창립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서원은 오직 周武陵[周世鵬]이 竹溪에 세운 서원 이외에는 없었으므로 見聞이 익숙지 않아서 반대가 없지 않았으나, 개암이 의연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뜻을 굳혀 공역을 거행하니, 고을의 儒士들이 다투어 米穀을 가져왔고 이웃 고을에서 보내온 보조도 많았다. 군수 徐侯[徐九淵]가 마음을 다하여 도왔는데, 講堂을 세운 뒤 서후가 遞差되어 돌아가고 농사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강당에 기와를 올리지 못한 채 드디어 그 공역이 정지되었다. 남은 재화를 증식하여 넉넉해지기를 기다리면서, 공역을 마무리할 것을 기약하였다.⁵⁵⁾

강익과 함께 서원 건립을 논의했던 박승임·노관·정복현·임희무 등은 함양의 대표 유학자인 鄭熙普의 문인으로⁵⁶⁾ 이들은 당시 향안에도 임록되었거니와 사마재 건립 등을 주도하면서 향촌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위 인용문에서도 나오듯 서원 건립이 시작되자 함양과 인접 지역 유림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미곡을 가져왔다. 당시 함양군수였던 서구연도 마음을 다해 도움으로써 강당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위 인용문에서 나오듯 강당에 기와도 올리지 못한 채 군수 서구연이 체임되고, 흉년마저 겹치면서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다.

중단된 서원 공사는 1559년(명종 14) 尹確이 함양 군수로 부임하면서 재개되었다. 윤희의 적극적 지원 아래 사당이 건립되고 마침내 1561년(명종 16) 서원 건립을 완공하였다. 순창에서도 건립 초창기 도움을 주었던 서구연이 군수로 있으면서 쌀·콩·細木·화문석·白紙·화로·관노 등을 보내왔다. 이렇게 서원의 경제적 기반이 갖춰지고 1564년(명종 19) 함양군수로 부임한 김우홍⁵⁸⁾의 지원을 받아 동·서재까지 건립하였다. 그리고 1565년(명종 20) 서원의 외형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재곡과 서책도 차곡차곡 쌓여갔다. 하지만 서원 운영을 원활히 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었다. 초대 원장이었던 강익의 『介庵集』 「年譜」에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서원에 學徒들이 모여 학문을 연구하고자 했으나 서적이 없고 재곡이 부족하였다. 선생이 인재를 양성할 수 없음을 걱정하여 盧祿에게 서책 마련 책임을 맡기고, 梁弘澤에게 財寶을 모으는 책임을 맡겼다. 시종 협력하여 마침내 이일을 성취하니 서책은 모두 백여 권이 되고, 財穀은 선비를 供養하기에 남음이 있었다. 선생이 盧禎, 梁喜 두 선생과 의논하여 서원의 재곡을 경내의 서당과 洞內에 나누어 주어 혼례와 상례, 春秋講信禮를 행하는데 돕게 했다. 마침내 이

54)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9월 24일.

55) 鄭汝昌, 『一蠹集』 卷2, 附錄, 「褒贈祀典」.

56) 鄭汝昌, 『一蠹集』 卷2, 附錄, 「褒贈祀典」; 한국고전종합DB 번역문 재인용.

57) 鄭熙普, 『唐谷鄭先生實記』 下 「諸賢讚述」

58) 김우홍의 동생은 동강 김우옹으로 남명의 외손녀 사위이다.

것이 一鄉의 定式이 되었다.⁵⁹⁾

강익은 서적과 재곡이 부족하자 노관에게 서책을, 양홍택에게는 재곡을 모으는 임무를 맡겼다. 그리고 마침내 서책은 백여 권이나 모이고 재곡은 공양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확보되었다. 이러한 기부 내역은 현재 서원 소장 『을묘년서원부보록』과 『부보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⁶⁰⁾

<표 1> 16세기 남계서원 서책 기부 목록

연대	지역	직위	성명	내용
1560년(명종 15)	咸陽	郡守	尹確	『名臣言行錄』 10卷, 『書傳』 10卷, 『大全』 10卷, 『言行錄』 12卷, 『禮記』 16卷
*입기: 1561년(명종 16)~1562년(명종 17)	密陽	府使	徐九淵	『朱子語類』 50卷, 『溪志』 3卷
*입기: 1563년(명종 18)	潭陽	府使	盧禎	『十九史略』 8卷, 『心經』 1部
	咸陽	幼學	鄭業	『大學衍義』 12卷
	咸陽	幼學	朴承元	『家禮』 6卷
	咸陽	幼學	姜文弼	『左傳』 17卷
	咸陽	幼學	鄭復顯	『伊洛淵源錄』 2卷, 『小學』 3卷
	咸陽	進士	姜翼	『心經』 1卷
	咸陽	幼學	盧裸	『理學類編』 2卷
	咸陽	幼學	陳克興	『讀書錄』 1卷, 『孟浩然集』 1卷
	咸陽	幼學	梁弘澤	『通鑑小傳』 7卷
		幼學	申石潏	『小學』 2卷
		進士	崔樂壽	『春秋』 4卷
	長城	縣監	趙惟誠	『大學』 1卷 大字
	安陰	進士	金禧年	『理學類編』 2卷
*입기: 1564년(명종 19)~1565년(명종 20)	咸陽	正字	都希寧	『伊洛淵源續錄』 2卷
		幼學	李師閔	『文章軌範』 1卷
	咸陽	幼學	李維	『中庸或問』 1卷
		幼學	韓壽祿	『性理大全』 25卷
		幼學	■翼臣	『近思錄』 4卷
	咸陽	幼學	鄭乘	『陸宣公奏議』 4卷
		幼學	全大中	『後集』 4卷

59) 姜翼, 『介庵集』 下, 附錄, 「年譜」 “嘉靖四十四年乙丑. 先生年四十三歲. 院中學徒. 交集講業. 而書籍無存. 財穀不多. 先生大懼無以養育人材. 以盧徙庵祿. 掌備書之任. 以梁竹庵弘澤. 典裒之責. 終始協心. 克有成就. 書秩凡百餘卷. 財穀有裕於供士. 先生乃與玉溪. 九拙兩先生定議. 分院財. 各授境內書堂及洞內. 使之各助其昏喪. 而春秋行講信禮. 遂爲一鄉定式.”

60) 『을묘년서원부보록』은 1552년(명종 7)~1561년(명종 16)과 1891년의 기부 내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앞 시기는 약 116명의 수령 및 유림들이 재곡과 서책 일부[『名臣言行錄』 10권, 『書傳』 10권]를 기부한 내역이고, 1891년의 내용은 함양군수 金靖鎮과 하동정씨 문중을 포함한 59개 문중에서 844兩을 기부한 내역이다. 『부보록』은 크게 서책 기부 현황과 현물 기부 내역[備忘錄]으로 구분된다. 또 군데군데 서원 자체에서 구비한 목록은 院備라 하여 총 22회 기록해 놓았다. 시기는 1552년~1931년까지이며 총 238명과 3개 문중에서 서책과 재곡을 공여하였다.

연대	지역	직위	성명	내용
		都事	金啓	『近思錄』 4卷
		幼學	張汲	『晦庵文抄』 3卷, 『朱子封事』 2卷
*입기: 1563년(명종 18)~1564년(명종 19)	羅州	牧使	李俊民	『朱子詩集』 4卷, 『宋鑑』 12卷
1564년(명종 20) 추정	全羅	都事	李求仁	『論語』 7卷
	安陰	幼學	朴義卿	『韋蘇州』 2卷
		幼學	李德悅	『性理群書』 12卷
	京	進士	朴忠侃	『春秋』 13卷
		幼學	張思善	『杜詩』 8卷
	咸陽	學諭	林希茂	『孔子通紀』 2卷
	丹城	幼學	李光祖	『理學類編』 2卷
*입기: 1563년(명종 18)~1566년(명종 21)	順天	府使	李楨	『通鑑』 17卷
		教授	姜霽	『楚辭』 2卷
*입기: 1564년(명종 19)	晉州	牧使	盧禎	『醫問集』 3卷, 『性理字義』 1卷
	咸陽	學諭	林希茂	『朱子年譜』 2卷
		縣令	閔德鳳	『性理群書』 11卷
*입기: 1563년(명종 18)~1566년(명종 21)	順天	府使	李楨	『程氏遺書』 8卷
*입기: 1565년(명종 20)	慶尙	都事	趙惟誠	『唐鑑』 5卷
*입기: ?~1566년(명종 21)	光州	牧使	崔應龍	『大學或問』 3件
*입기: 1564년(명종 19)~1568년(명종 23)	咸陽	郡守	金宇弘	『春秋』 8卷
1566년 사역				
		典籍	張範	春秋 7卷
1567년(명종 22)	忠淸	監司	盧禎	儀節 4卷, 感興詩 1卷, 延平問答 2卷
		幼學	權汝謙	擊壤集 4卷
	宜寧	縣監	金淸	周易 14卷
1572년(선조 5)	咸陽	郡守	李長榮	小學 2件
1570년(선조 3)~1571년(선조 4)	慶尙	監司	朴大立	大學 1卷, 中庸 1卷, 論語 7卷
1573년(선조 6)	慶尙	監司	盧禎	性理字義 1卷
		幼學	李慶	上蔡語錄 1卷
	沙斤驛	察訪	李榮春	禮部韻 1卷
총 집계			49명	총 55종 397권

* 입기: 『부보록』 상에 연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재임기간을 명기함.

군수 윤확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밀양·장성·나주·순천 등지의 지방관들도 서책을 기부해왔다. 1560년 윤확은 『명신언행록』 10卷, 『서전』 10卷을 기부하고 연이어 『大全』 10卷, 『言行錄』 12卷, 『禮記』 16卷을 공여하였으며, 밀양부사로 가있던 서구연은 『朱子語類』 50卷과 『竹溪志』 3卷을 보내왔다. 노진은 담양부사 시절 『十九史略』 8卷·『心經』 1部를, 진주목사 시절 『醫問集』 3卷·『性理字義』 1卷, 충청감사 재임 시 『儀節』 4卷·『感興詩』 1

卷·『延平問答』 2卷, 경상감사 시절 『性理字義』 1卷을 기증해주었다. 장성현감 趙惟誠은 『大學』 1卷과 경상도사 재임시 『唐鑑』 5卷을, 나주목사 이준민은 『朱子詩集』 4卷·『宋鑑』 12卷을 보내주었다. 순천부사 李楨 역시 『通鑑』 17卷과 『程氏遺書』 8卷을 보내왔다. 이에 호응하여 함양 사족들의 전폭적인 기증도 이어졌다.

이들은 대체로 함양 출신이거나 남명학파의 구성원으로서 지연과 학연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래 서원 건립을 주도한 박승임·노관·정복현·임희무 등은 당국 문하에서 수학했던 인사들이지만 이들은 정희보 말년 남명과 교류하거나 문인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노진·강익·임희무·정복현 등이다. 특히 지례·담양·진주·충청·경상감사를 지낸 노진은 서원 건립을 주도했던 강익과는 절친한 사이로, 건립 초창기 지례현감 시절부터 米1石 8斗 太14斗를 보내며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장성현감 조유성은 아버지의 묘갈을 노진에게 부탁할 정도로 둘 사이 교분은 두터웠다.⁶¹⁾ 나주목사 李俊民은 남명의 조카였으며 김우홍은 남명의 외손녀 사위였던 김우옹의 형이다. 이정은 퇴계·남명 양 문하에서 수학했던 인물이다.

특히 이정은 16세기 지방관으로 재임할 무렵 퇴계와 논의하여 약 24종의 서적을 간행한 바 있는데,⁶²⁾ 그러한 서적들이 서원에 기증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정이 청주목사(1552~1555) 시절 간행한 『擊壤集』, 『延平問答』, 『朱子詩集』은 각각 權汝謙⁶³⁾, 노진, 이준민이 기증하였고, 경주부윤(1561~1562) 시절 간행한 『醫閭集』, 『孔子通紀』, 『伊洛淵源錄』, 『伊洛淵源續錄』, 『唐鑑』은 각각 노진, 임희무, 정복현, 도희령, 조유성이 기증해주었다. 또 순천부사(1564~1565) 시절 간행한 『程氏遺書』는 이정이 직접 기증하였고, 『朱子年譜』는 임희무가 보내왔다. 이상 16세기 남계서원에는 이정의 간행 서적을 약 16종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임고서원이 3종, 옥산서원이 6종, 도산서원이 11종을 소유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라 할 수 있다.⁶⁴⁾

통상 이정은 남명보다 퇴계 문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정은 남명의 대표 종유인 중 한명으로서, 학파 내에서도 상당한 입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다 1567년~1568년 무렵 일어난 음부옥 사건⁶⁵⁾으로 남명과 절교하면서 강우사림들에게 영향력을 상실해 갔던 것이다.⁶⁶⁾ 따라서 그 이전에 간행된 서적들은 충분히 이정과 교류하며 동문수학했던 인사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남계서원의 소장 비율이 압도적인 것은 이정과 당시 남명학파 간의 학연·지연 등 복합적 관계망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남계서원이 건립될 무렵 남명은 삼가현 뇌룡정에서 문인들을 양성하고 있었고, 1561년(명종 16) 무렵에는 진주 덕산동 산천재에 기거하고 있어 일대 많은 유림들이 그의 문인이 되었다. 이에 1563년(명종 18)에는 남명과 문인들이 남계서원에 함께 방문하여 정여창의 사당을 참배하고 강론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남계서원은 남명학파의 학문적 구심체가

61) 장성현감 조유성의 아버지 趙壽億의 묘갈을 노진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 조유성의 기부는 노진과의 관계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옥천(순창)조씨 대종회 전자족보 (www.cho.or.kr)

62) 우정임, 「退溪 李滉과 그의 門徒들의 서적 간행과 書院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219~220쪽.

63) 권여겸의 부친 權瀆은 노진의 문인이다.

64) 윤혜민, 앞의 발표문, 2023, 62쪽.

65) 진주 출신 河宗岳의 후처 함안이씨의 음행 사건이다. 하종악의 전처는 남명의 조카였고, 후처 함안이씨는 구암 이정의 첩과 인척관계였다. 이정은 함안이씨의 처벌을 주장하는 남명과 입장을 달리하면서 서로 절교하였다. 정인홍 등 남명 문인들은 함안이씨의 집을 부수고 훼손출향시켰다.

66) 김학수, 「林谷 林眞愆의 현실인식과 17세기 영남학계에서의 위상 -南冥·退溪學을 접목한 17세기 영남학계의 새로운 모색」, 『남명학연구』 54,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7, 231~233쪽.

자 거점 공간이 되었다. 이상 서원의 외형과 서책·재곡 등이 갖추어지자 강익을 비롯한 함양 유림들은 1566년(명종 21) 6월 청액소를 올리고⁶⁷⁾ 마침내 7월 濼溪로 사액을 받았다.

사액과 함께 남계서원에는 『논어』 7권, 『맹자』 7권, 『중용』 1권, 『대학』 1권이 내사되었다. 이보다 앞서 사액된 소수·임고서원에도 사서오경이 반사된 것으로 보아 사액 서원이 가장 먼저 하사받는 서적이 경서류였음을 알 수 있다.⁶⁸⁾ 이후에도 『주자대전』 95권, 『주자어류』 75권, 『국조유선록』 4권, 『정충록』 3권, 『언해소학』 4권 등을 하사받았다. 서원에는 이러한 내사본과 함께 서원 자체에서 구비한 서적들도 확인된다.

<표 2> 16세기 남계서원 서책 내사·구입 목록

분류	서적 목록	수량
내사	論語, 孟子, 中庸, 大學, 朱子大全, 朱子語類, 國朝儒先錄, 精忠錄, 諺解小學	9종
院備	詩傳, 周易, 大學講義(2件), 論孟或問, 小學日記, 家禮, 大學補遺, 儀禮圖, 二程全書, 朱子大全, 讀書錄, 朱子實紀, 朱子書節要, 夙興夜寐箴, 二程粹言, 朱子行狀, 翼傳, 童蒙須知, 皇明名臣言行錄, 通鑑前紀, 歷代要錄, 唐音, 大廣益會, 續蒙求, 紫陽集, 樊川集, 秋江集, 晦齋集, 選詩, 柳州集, 太白集, 西山集, 東文選, 陸放翁, 三蘇文, 兩山墨談	36종

<표 1><표 2>를 통해 우리는 당시 유림들이 서원에서 어떤 공부를 배우고자 했는지, 서원에서는 이들의 학문 증진을 위해 어떤 서적들을 중점적으로 구비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四書五經의 경서류와 성리서이다. 이는 서원 장서가 강학의 교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당시 성리학 보급의 주체로서 사림세력의 학문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이는 1935년에 발간된 『남계서원지』 내 院規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계축년에 제작된 이 원규는 현재까지 남계서원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오고 있는데⁶⁹⁾ 그 내용은 퇴계가 제정한 「伊山書院 院規」와 거의 흡사하다.⁷⁰⁾ 이 원규에는 제생들이 추구해야 할 학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一 제생의 독서는 四書五經을 근본으로 삼고 『小學』, 『家禮』를 입문으로 하여 국가가 인재를 기르는 방법을 따르고 성현의 친절한 가르침을 지킨다. 모든 خوبی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옛 도를 지금에도 실천할 수 있음을 믿으며, 몸소 행동하고 마음으로 체득하며 本體를 밝히고 쓰임에 맞게 하는 학문을 하는데 힘써야 한다. 여러 史書와 제자백가, 문집, 문장, 과거 공부 또한 널리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생략)

一 성균관 명륜당에는 利川선생의 「四勿箴」과 晦庵선생의 「백록동규」와 「十訓」, 陳茂卿의 「夙興夜寐箴」을 걸어두었는데, 그 의미가 매우 좋으니 서원 안에도 이것을 벽에 걸어두고 서로 바로 잡고 경계한다. ⁷¹⁾

67) 『중종실록』 명종 21년(1566) 6월 15일.

68) 윤혜민, 앞의 발표문, 2023, 60쪽.

69)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남계서원·도동서원』, 예맥, 2013, 126쪽.

70) 『남계서원지』 수록 원규는 총 13개 조항으로 11개 조항이 이산서원 원규와 같다. 다만 이산서원 원규는 12항으로 되어있는데, 3·4항이 남계서원 원규에는 3항으로 합쳐져 있다. 이외 2개 조항은 서원 보수 및 사당을 배알할 때 입는 의관에 관한 내용이다.

71) 『남계서원지』 내 「院規」, “一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源 小學家禮爲門戶 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 知萬善本具於我 信古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心得 明體適用之學 其諸史子集文章科舉之業 亦不可不爲之旁務博通…”

서원에서는 원규에 따라 사서오경의 경서류와 성리서류를 비롯하여 제자백가의 문집류, 문장, 과거공부에 필요한 각종 사서류도 구비하고 있었다. 문집류에는 중국 당나라 시인 孟浩然의 『孟浩然集』·杜牧의 『樊川集』, 북송시대 邵雍의 시집 『擊壤集』, 주자의 『紫陽集』과 조선 인물로 남효온의 『秋江集』, 이언적의 『晦齋集』 등이 확인되며, 사서류에는 『十九史略』, 『宋鑑』, 『通鑑』 등이 있었다. 이상 16세기 남계서원에서는 총 109종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으로 거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⁷²⁾

전쟁으로 인해 서원이 피폐해짐에 따라 남계서원은 1605년(선조 38) 새로운 터(羅村)로 이건을 완료하고 3월 12일 위판 봉안식을 거행하였다. 서원으로서 강학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서적의 확보가 급선무였다. 이에 『通鑑』 40권을 구입하고, 향교로부터 『논어』 7권, 『맹자』 7권, 『증용』 1권, 『대학』 1권 『소학』 4권 등을 이송해왔다. 노진의 손자 盧脊은 『晦齋先生年譜』를, 1606년(선조 39) 좌의정 奇自獻은 『德陽遺藁』 1권을 보내왔다. 『덕양유고』는 기자현의 증조부인 奇遵의 문집으로 1606년에 간행되었는데, 이 해에 바로 남계서원에 보내진 것이다.⁷³⁾ 1611년(광해군 3) 정인홍의 문인 姜縝은 『或問大學』 2권을, 1614년(광해군 6) 강린의 아들 姜渭明은 『心經』 2권을 보내왔다. 1649년(인조 27) 경상감사 李冕은 1년 전 정경세가 저술한 『주문작해』를 기증해 주었다.

17세기 서원에서 구입한 서적은 앞 시기와 마찬가지로 경서류와 성리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통감』, 『강목』 등 중국 역사서와 우리나라 역사서인 『고려사』를 구입한 것도 눈에 띈다. 또 퇴계가 저술한 『주자서절요』나 『사서석의』도 구입하였는데, 앞서 정경세의 『주문작해』를 포함하여 이러한 서적의 구비는 그간 축적된 조선 성리학의 이론 성과를 서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했던 유럽의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⁷⁴⁾

한편 1621년(광해군 13)에 구입한 『남명집』 4권은 당시 남계서원 운영 주체들의 학파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남명 조식의 문집인 『남명집』은 본래 그의 고제인 정인홍이 詩文 2권과 附錄 1권을 엮어 1604년(선조 37) 합천 해인사에서 초간하였다. 이후 해인사에 보관 중이던 목판이 화재로 불타면서 정인홍의 문인 許從善이 1606년(선조 39) 중간하였고, 1609년(광해군 1)에도 정인홍의 문인이었던 문경호가 새로 수집한 문자들을 취합하여 4권 3책으로 만든 바 있다. 남계서원에서 구입한 것은 아마도 문경호가 간행한 『남명집』으로 추정된다.

서원에서 『남명집』을 구입할 무렵 중앙 조정에서는 정인홍·이이첨을 중심으로 한 대북 세력이 남명학통의 공인화를 위해 주력하던 시기였다. 1615년(광해군 7)에는 도성에 남명 제향처인 백운서원을 건립하고 이듬해 사액까지 받았으며, 1614년(광해군 6)부터 시작된 남명 문묘종사운동은 1617년(광해군 9)부터 1620년(광해군 12)까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⁷⁵⁾ 따라서 『남명집』의 구입은 남명학의 정통성을 공인받고자 했던 시기 그들의 활동 공간이었던 서원에서도 남명의 학문과 사상을 배움으로써 당대 분위기에 조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2) 『부보록』, “已上哀儲萬曆丁酉秋八月十六日 爲倭奴所焚”

73) 『덕양유고』는 동시에 도산·옥산서원에도 보내졌다.

74) 이명훈, 앞의 논문, 2021, 190쪽.

75) 남명문묘종사운동과 관련해서는 설석규, 「선조, 광해군대 남명학파의 공론형성과 문묘종사 운동」, 『남명학연구논총』 11, 남명학연구원, 2002 참고.

<표 3> 17세기 서책 구비 목록

시기	분류	서적 목록
1604년(선조 37)	院備	『通鑑』 40卷
1605년(선조 38)	校中移送	『論語』 7卷, 『孟子』 7卷, 『中庸』 1卷, 『大學』 1卷 『小學』 4卷
1605년(선조 38)	盧育	『晦齋先生年譜』
1606년(선조 39)	奇自獻	『德陽遺藁』 1卷
1606년(선조 39)	院備	『詩傳』 10卷
1611년(광해군 3)	姜縝	『或問大學』 2卷
1614년(광해군 6)	姜渭明	『心經』 2卷
1617년(광해군 9)	院備	『綱目』 76卷, 『朱子書節要』 10卷, 『大學衍義』 12卷, 『孟子』 4卷, 『唐音』 4卷, 『近思錄』 4卷
1621년(광해군 13)	院備	『韻會』 13卷, 『三經釋義』 1卷, 『四書釋義』 1卷, 『孟子或問』 2卷, 『禮部韻』 1卷, 『南冥集』 4卷
1623년(인조 1)	刊行	『文獻公實紀』
1641년(인조 19)	院備	『高麗史』 71卷, 『家禮』 2卷, 『小學諺解』 4卷
1648년(인조 26)	院備	『禮記』 20卷
1649년(인조 27)	李冕	『朱文酌海』 8卷, 『書傳大文』 2卷
1663년(현종 4)	院備	『杜詩諺解』
1684년(숙종 10)	院備	『朱子大全』 65卷, 『心經』 2卷, 『德溪集』 4卷
수량		32종 385권

17세기 남계서원에서는 서원 제향자의 문집을 직접 간행하기도 했는데, <표 3>과 같이 1623년(인조 1)에는 정여창의 『문헌공실기』를, 1686년(숙종 12)에는 梁天翼이 별묘에 제향되어 있던 강익의 『개암집』 초간본을 간행하였다.⁷⁶⁾ 양천익은 1689년(숙종 15) 강익의 본원 승향까지 성사시켰던 인물로, 정여창과 강익의 문집 간행은 서원이 대외적으로 제향자의 학문과 사상을 전파하고, 지식정보를 공유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서원의 장서 목록은 현전하는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 다만 현재 서원 소장 고서 중 정조의 내사기가 수록된 『五經百篇』이 있어 18세기 서원에 내사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경백편』은 『주역』, 『서경』, 『시경』, 『춘추』, 『예기』의 주요 내용 99편과 주희의 저술 2편을 수록한 것으로 1794년(정조 18) 계획에 착수하였다. 이듬해 정조는 친히 영남에 서적을 내려 보내 啓書營吏로 하여금 잘 베껴쓰도록 하고 도내 유생이 이를 교정보게 하였다. 이는 영남 유생들이 經 공부에 조예가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798년(정조 22) 마침내 『오경백편』이 완성되자⁷⁷⁾ 서원에 하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도산·옥산 서원에도 『오경백편』을 하사하였는데, 정조는 자신이 편집에 관여했던 서적들을 인쇄하여 전국 향교와 사액서원에 배포하였다.⁷⁸⁾ 따라서 남계서원에도 『오경백편』 외에 정조 연간 간행된 여러 서적들이 내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외 18~19세기 남계서원의 장서현황은 목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하지만 1923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원 원규에 의하면, ‘서원 안의 서책은 서원에 와서 읽는

76) 『개암집』 초간본 권말에는 “崇禎甲申後丙寅仲春日 咸陽瀛溪書院開刊”이라 기록되어 있다.

77) 『정조실록』, 정조 20년 9월 3일 「《어정오경백편》을 베껴 쓰고 교정을 본 영리에게 상을 내리다」; 정조 22년 7월 29일 「《오경백편》을 완성하다」.

78) 이병훈, 앞의 논문, 2021, 199쪽.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빌려주지 말 것’, ‘서책은 매년 여름이 지난 뒤에 수량을 살펴서 포쇄할 것’⁷⁹⁾ 등의 규정이 있어 그전까지도 서책목록이 계속 작성되고 관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0세기 남계서원 장서현황은 다음 <표 4>와 같이 1935년에 작성된 『書冊臺帳』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 1935년 서책 목록

구분	서적 목록	수량
경서류	四書釋義, 春秋, 諺譯六書, 御定五經	4종
문집·실기류	朱子大全, 一蠹集, 濯纓集, 栗谷全書, 介庵集, 桐溪集, 鄭忠莊公集, 李月暈堂集, 楊大峰集, 林濫溪集, 曹梅庵集, 晦軒實記, 林晦軒集, 李三友堂集, 李黃江集, 李聾巖集, 李龜巖集, 李三賢紀年, 安子年譜, 李松圃遺稿, 金節孝實紀, 李桐谷實紀, 李三梧實紀, 馬晚雲遺稿, 徐孺子集, 柳敬勝齋遺稿, 閔農隱集, 松灘集, 郭定庵集, 龍城世稿, 李惠山集, 鄭薇山遺稿, 姜武山遺稿, 姜悟齋遺稿, 姜橘庵遺稿, 李梅軒集, 李惺齋集, 奇松沙集, 金江湖實紀, 晦齋別集, 許敬庵集, 許敬庵禮說, 許一寧集, 許凝川集, 李氏壽序集, 金氏闡美錄, 閔芝岡集, 閔稽樵集, 卞志齋集, 崔茅廬集, 華海師全, 金蘆溪集, 金雪齋集, 鄭梅村集, 許一寧集, 李和杏集, 禹擇窩集, 李和村集, 鄭愛日堂實記, 許肅齋實記, 許慎庵集, 鄭霞谷集	62종
사서류	綱目, 麗史, 朝鮮史, 東鑑節要	4종
성리서	徐孺子性理述集	1종
기타	東賢遺墨, 華陽誌, 淸溪書院誌, 松湖書院誌, 八溪鄭氏世稿, 達城徐氏世稿	6종

조선시대와 달리 일제 시기 남계서원은 경서·성리서보다는 개인의 문집·실기류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많은 서원이 훼철되고, 일제 강점이라는 당시 상황 속에서 서원은 강학보다 제향의 기능이 더 강화되고 있었다. 이에 강학 교재였던 경서의 보유량은 현격히 줄어들고, 대신 당시 가문의 현조를 높이기 위해 문집 발간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만큼 문집 보유량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목록에는 없으나 1919년 남계서원에는 7권 2책의 『일두유집』을 간행한 바 있다. 이상 일제시기 남계서원 소장 장서는 총 77종 확인된다.

해방 이후 남계서원의 서책은 1969년 이춘희 조사 당시 약 54종이 파악된다. 일제시기 77종에서 약 23종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1950년 6·25 전쟁의 여파와 대출 후 반납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현재 함양박물관에 기탁된 남계서원 소장 서책(2022년 기준, 고문서 제외)들이 약 180종으로 확인됨에 따라 1970년대 이후로도 발간되는 서적들을 꾸준히 수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 1969년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 내 소장 서책 목록

구분	서적 목록	수량
경서류	四書釋義, 五經百篇, 春秋左氏傳	3종
문집·실기류	良窩集, 江湖實紀, 介庵集, 敬勝齋遺稿, 敬庵集, 龜巖集, 闡美錄, 濫溪集, 蘆溪集, 聾巖集, 農隱先生實記, 大峰集, 桐溪集, 東谷先生實記, 晚雲遺稿, 晦庵先生遺稿, 梅村先生實記, 梅軒集, 茅蘆集, 三梧實紀, 三友堂集,	44종

79)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24-濫溪書院篇-』, 2006.

	三賢紀年, 徐孺子集, 雪齋集, 惺齋先生實記, 松沙集, 肅齋實記, 安子年譜別本, 愛日堂實記, 龍城世稿, 栗谷全書, 一寧先生實記, 一蠹先生遺集, 定菴逸稿, 鄭忠莊公實記, 朱子大全, 芝岡集, 濯纓集, 擇窩集, 霞谷集, 惠山集, 華海師全, 晦齋別集, 晦軒先生實記	
사서류	高麗史, 資治通鑑綱目, 朝鮮史	3종
성리서	性理述集	1종
기타	八溪鄭氏世稿, 和谷戊申日記, 華陽誌,	3종

3. 남계서원 소장 고문헌의 현황과 성격

남계서원은 소수서원에 이어 조선에서 두 번째로 건립을 시작한 서원이다. 그만큼 그 내력이 깊고 서원에서 생산한 문서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인조반정을 계기로 정치적 위기를 겪으며 몇몇 문서들은 의도적으로 소실되기도 했을 것이다. 서원의 원임을 기록한 『경임안』만 하더라도 광해군 시기부터 1682년(숙종 8)까지의 명단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남계서원이 복인계를 강하게 표방했음을 의미한다. 또 정유재란으로 많은 서적들이 소실된 것처럼 여러 전란 속에 사라지기도 했을 것이다. 이에 현재 남아 있는 남계서원 문서 약 174종 중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것은 15종에 불과하고, 일제강점기 문서들이 110종으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외 해방 이후 문서가 44종, 시기 미상이 5종이다.

하지만 적은 수량이기도 하나 조선시대 『부보록』, 『경임안』, 『원록』 등은 서원 초창기 건립과정과 서원의 인적 구성을 파악할 수 있어 상당히 가치가 있는 문서들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연구들도 그간 많이 축적되어왔다.⁸⁰⁾ 반면 일제시기 남계서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서원 연구가 조선시대에 집중되다보니 일제강점기 문서들은 연구대상에서 많이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본다면 현재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제강점기 문서들은 남계서원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좋은 사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남계서원 소장 고문서들은 인적구성, 제향, 경제, 사회상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고문서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를 각 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원 운영의 주체들_인적구성과 운용

서원의 인적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로 원생 명단인 『원록』과 원임 명단인 『경임안』이 있다. 특히 1962년에 간행된 존위록은 역대 서원 원생과 원임, 서원에 기증한 사람들의 명부인 『부보록』의 인물에 대해 각 문중으로부터 단자를 받아 자, 본관, 관직, 후손 거주지 등을 기록함으로써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경임안』의 경우 광해군 시기가 누락되긴 하지만, 시기적으로도 서원 건립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서원 운영 주체들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상량시집사록』은 1849년 풍영루를 중수할 때 분정한 집사들의 명단이다. 당시 一有司

80) 윤희면, 「경상도 함양의 남계서원 연구」, 『남명학연구』 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김기주, 『맑은 강물 같은 문화의 흐름 濼溪書院』, 경인문화사, 2015; 이정희, 「16·17세기 咸安·咸陽 在地土族의 동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재철, 「18세기 경상우도 사림과 정희량난」, 『대구사학』 31권, 대구사학회, 1986.; 강상택, 「조선 중·후기 서원 발달에 관한 연구-현 경상남도 지방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제59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 이수환, 『朝鮮後期 書院研究』, 일조각, 2001; 박소희, 「16~18세기 함양 정여창 가와 남계서원의 노론화 과정」, 『한국서원학보』 9, 2019; 윤혜민, 앞의 발표문, 2023

는 河龍圖, 二有司는 鄭煥弼이며, 成造都有司, 典有司, 都片手, 重修庫直 등을 수행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유사출무일지』는 1935년~1938년 3월까지 서원 유사들의 근무대장이다. 분향, 院會 등 서원에 入院한 사유와 자신의 이름을 적고 그 아래에는 도장을 찍어놓았다. 이 자료는 서원 유사들의 명단을 비롯하여 당시 유사들의 구체적인 업무까지 파악할 수 있다.

<표 6> 인적구성 관련 문서

번호	자료명	연도	내용
1	院錄 正單	1552년~1705년	내제는 濼溪書院尊衛錄이다. 원생 이름, 자, 본관, 관직, 후손 거주지 등이 기록
2	院錄	1651년, 1658년, 1671년	남계서원 원생의 명단.
3	院錄	1962년	표제는 미상이나 내용은 남계서원존위록에 수록된 원록의 명단임.
4	濼溪書院尊衛錄	1962년	역대 남계서원의 院生案(院錄), 經任案, 哀實錄 내 인사들의 이름, 자, 본관, 관직, 후손 거주지 등 기록
5	經任案 上	1525년~1838년	남계서원의 원임 명단
6	經任案 下	1839년~1886년	〃
7	經任案	1552년~1687년	〃
8	經任案	1777년~1795년	〃
9	經任案	1795년~1852년	〃
10	經任案	1886년~1917년	〃
11	經任案 一	1917년~1993년	〃
12	上樑時執事錄	1849년	풍영루 중수시 집사 명단
13	有司出務日誌	1935년	1935년 10월~1936년 3월까지 유사의 근무 일지
14	有司出務日誌	1936년	1936년 4월~1937년 3월까지 유사의 근무 일지
15	有司出務日誌	1937년	1937년 4월~1938년 3월까지 유사의 근무 일지

2) 선현을 기리는 의례_향사와 묘제

남계서원에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에 춘추향사를 지내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분향례를 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제록』은 춘추향사 시 제관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시기는 비교적 늦은 1846년(헌종 12)부터지만 이후 2000년대까지 꾸준히 작성되었다. 「남계서원춘추향례의절」은 춘추향사 시 의례 순서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원회결의안」은 1927년 서원에서 원회를 통해 일두 선생 묘제에 대해 유림이 이전의 규약을 회복하여 봉행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다. 이에 서원에는 1927년부터 1935년까지 묘제를 지낼 때 구입한 제수 물품 및 식상기, 『승안홀기』 등을 보관하고 있다.

<표 7> 제향 관련 문서

번호	자료명	연도	내용
1	參祭錄	1846년~1946년	춘추향례시 헌관, 대축, 집례, 집사, 도유사 등 명단
2	參祭錄 一	1911년~1919년	〃
3	參祭錄 二	1920년~1931년	〃
4	參祭錄 三	1932년~1955년	〃

	자료명	연도	내용
5	參祭錄 四	1948년~1949년	〃
6	參祭錄	1956년~1979년	〃
7	參祭錄 五	1979년~2001년	〃
8	院會決議案	1927년	일두 선생 묘제에 대해 유림이 이전의 규약을 회복하여 봉행할 것을 결의하는 문서
9	墓祀祭需冊	1927년~1928년	1927년 묘사시 제수 구입 내역과 비용 기록
10	昇安墓祭祭需記	1931년	일두 선생의 묘제시 제수 물품 구입 비용과 내역
11	一蠹先生墓祭祭需冊	1931~1932년	〃
12	昇安墓祭祭需	1932년	〃
13	昇安墓祭食床記	1928년, 1932년	1932년 일두 선생의 묘제 시 식상기와 그 뒤에 1928년 묘제 시 식상기가 있음
14	昇安墓祭食床記	1933년	일두 선생의 묘제시 제수 물품 구입 비용과 내역
15	昇安墓祭食床記	1934년	〃
16	墓祭下記	1935년	〃
17	濼溪書院春秋享禮儀節	미상	남계서원 춘추 향사시 향례 의절
18	昇安笏記	미상	일두 선생의 묘제 홀기
19	祭需記	미상	남계서원 제향시 제수에 관한 기록

3) 서원 재정의 정확성과 투명성_수입·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들

서원의 경제 문서는 약 116건으로 남계서원 소장 고문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조선시대 문서로는 『부보록』, 『을묘년 서원부보록』, 『남계서원전담양안등서』가 있다. 부보록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책목록도 수록되어 있어 장서·출판으로도 분류할 수 있으나 현물 기부 등은 재정 수입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경제 문서로 분류하였다.

『남계서원전담양안등서』는 量案에 기재된 서원 소유 전담의 내역을 謄寫해 온 문서로, 남계서원에서는 역대 수령들이 기부한 토지를 비롯하여 서원소유 전담이 다수 있었다. 그리고 관리를 위해 結數(斗落) 및 耕作者 등을 적어 관리하였다. 이 양안에 의하면, 당시 서원 전담 중 영구히 세금을 내지 않는 토지가 1결 2부, 면세지가 3결이었다. 면세지 중에는 밭이 95부 3속, 논이 2결 4부 7속이었다. 이 등서에는 1937년(영조 13)의 완의가 추가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간 서원 전담을 임원들이 바꿔치기하거나, 누락시키고 파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원에서는 전담을 감사하는 유사(查有司)를 별도로 정하여 양안을 일일이 확인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⁸¹⁾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일제 강점기 경제문서들은 상당히 세분화하여 정리되고 있었다. 1923년 제정된 10개 조항의 원규를 보면, 7개 조항이 모두 서원 재정과 관련된 정도로 남계서원은 재정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재정 관련 원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유사는 인수인계 시 재산과 물품을 반드시 대조한 뒤 인계할 것.
- － 서원의 토지세는 서원에서 담당하고 賭稅는 정해진 액수에 의거하되, 재해가 있을 경우 간평할 것.
- － 향례 경비는 賭租 가운데 봄, 가을에 각각 하나 5石으로 하는 전례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것.
- － 脯牛價는 150냥으로 정할 것.

81)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남계서원·도동서원』, 예맥, 2013, 40쪽.

- 서원 내 財用은 증빙이 없으면 시행하지 말 것.
- 유사가 공부를 행할 때 접대 비용은 45냥 이내로 확정할 것.
- 參謁 인원의 접대에 과도한 경비가 있으면 적절히 삭감할 것.⁸²⁾

이에 맞게 현전하는 재정 문서는 크게 1910~1970년대까지 약 60여 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는 소작료 및 추수기류, 1920년대 재정 출납부인 用下記, 1930년대~해방시기까지 작성된 세입세출내역부와 증빙서류들, 1930년대~해방 직후까지 작성된 현금·현곡수불부, 서원 중건 및 신도비 건립 등 서원 대소사와 관련된 수입 지출 현황 등이 있다.

<표 8> 재정 관련 문서

번호	자료명	연도	내용
1	哀寶錄	1552년~1931년	서책, 재곡 등을 기부한 사람들 명단과 내역
2	乙卯年 書院哀寶錄	1555년~1561년, 1891년	재곡 등을 기부한 사람들 명단과 내역
3	濶溪書院田畝量案臚書	1733년~1737년	量案에 기재된 서원 소유 전답의 내역을 臚寫해 온 문서
4	小作人證書	1911년	소작인 白成基와 남계서원 鄭台元의 소작 계약서
5	小作契約書	1923년	소작인 鄭在華와의 소작 계약서
6	小作契約書	1928년	소작인 許吉五와의 소작 계약서
7	濶溪書院畚案	1910년	1910년 남계서원 소유 전답안
8	辛亥秋捧記	1911년	1911년 10월 10일 추봉기
9	乙卯院畚秋收記	1915년	서원 소유 원답 추수기
10	秋捧記	1919년	남계서원 소유 토지에 대한 추봉기
11	濶溪書院 地稅分排收斂記	1920~1930년	남계서원 소유 토지에 대한 지세를 거둔 장부
12	壬戌年 院畚秋收記	1922년	남계서원 소유 원답 추수기
13	濶院地稅半額收納冊	1930년	남계서원 소유 토지의 지세 반액 수납책
14	地稅收捧冊	1931년	남계서원 소유 전답에 대한 지세 수봉 책
15	地稅收捧冊	1933년	〃
16	小作料收納簿	1935년	남계서원 소유 전답에 대한 소작료 수입 내역
17	濶院名寄帳臚草	1935년	남계서원 소유의 소작과 관련하여 소재지, 지번, 지목, 地積, 定賭, 當年소작료, 소작인성명 등 기록
18	小作料收納簿	1936년	남계서원 소유 토지에 대한 소작료 수입 내역
19	小作料收納簿	1937년	〃
20	小作料收納簿	1937년	〃
21	小作料收納簿	1938년	〃
22	小作料收納簿	1939년	〃
23	小作料收納簿	1939년	〃
24	小作料收納簿	1941년	〃
25	小作料收納簿	1942년~1944년	〃

82)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24-濶溪書院篇-』(2006) 「院規」;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남계서원·도동서원』, 예맥, 2013, 132쪽 재인용.

	자료명	연도	내용
26	小作料收納簿	1945년	〃
27	小作料收納簿	1946년	〃
28	小作料收納簿	1948년	〃
29	小作料收納簿	1949년	〃
30	濼溪書院 秋收記	1941년	신사년(辛巳年) 남계서원 추수기
31	昭和十七年 度秋收記	1944년	남계서원 소유 토지에 대한 소작료 수입 내역
32	秋收記	1946년	소재지, 지번, 지목, 地積, 定賭, 當年소작료, 소작인성명 등 기록
33	秋收記	1947년	〃
34	秋收記	1948년	〃
35	秋收記	1950년	〃
36	秋收記	1951년	〃
37	秋收記	1952년	〃
38	秋收記	1953년	〃
39	秋收記	1954년, 1960년, 1958년, 1924년	1954년 소재지, 지번, 지목, 地積, 定賭, 當年소작료, 소작인성명 등 기록, 문서 뒤에 庚子年捧賭記(1960년), 戊戌年捧賭記(1958), 秋收記(1924)를 함께 엮어 놓음
40	秋收記	1956년	소재지, 지번, 지목, 地積, 定賭, 當年소작료, 소작인성명 등 기록
41	秋收記	1957년	〃
42	濼溪書院辛丑年捧賭記	1961년	〃
43	秋收記	1964년	〃
44	秋收記	1976년	남계서원 소유 田畝에 소작한 사람들의 소작료 등 기록
45	生財用下記	1914년~1916년	남계서원의 수입 지출 내역부
46	濼溪書院出納簿	1917년~1922년	남계서원의 수입 지출 내역부 말미에 인수인계자(傳有司, 受有司)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음
47	私置簿	1923년	남계서원 제정 출납 장부
48	濼溪書院用下記	1924년~1928년	〃
49	濼溪書院用下冊	1931년	〃
50	濼溪書院歲入歲出	1935년	〃
51	濼溪書院歲出內譯簿	1935년	享祭, 管理費, 建物, 稅金, 有司費, 旅費, 接待費, 雜費, 會議費 등 서원의 지출 내역부
52	濼溪書院歲出內譯簿	1936년	〃
53	濼溪書院歲出內譯簿	1937년	〃
54	濼溪書院歲出內譯簿	1937년	〃
55	濼溪書院歲出內譯簿	1938년	〃
56	濼溪書院歲出內譯簿	1939년	〃
57	濼溪書院歲出內譯簿	1940년	〃
58	濼溪書院歲出內譯簿	1941년	〃
59	濼溪書院歲入內譯簿	1935년	소작료 등 서원의 수입 내역부
60	濼溪書院歲入內譯簿	1936년	〃

	자료명	연도	내용
61	濼溪書院歲入內譯簿	1937년	〃
62	濼溪書院歲入內譯簿	1938년	〃
63	濼溪書院歲入內譯簿	1939년	〃
64	濼溪書院歲入內譯簿	1940년	〃
65	濼溪書院歲入內譯簿	1941년	〃
66	濼溪書院歲入內譯簿	1942년	〃
67	現金出納簿	1935년	남계서원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68	現金出納簿	1936년	〃
69	現金受拂簿	1937년	〃
70	現金受拂簿	1937년	〃
71	現金受拂簿	1938년	〃
72	現金受拂簿	1939년	〃
73	現金受拂簿	1940년	〃
74	現金受拂簿	1941년	〃
75	現金受拂簿	1942년	〃
76	現金受拂簿	1946년	〃
77	現金受拂簿	1947년	〃
78	現金受拂簿	1948년	〃
79	現金受拂簿	1949년	〃
80	現金受拂簿	1950년	〃
81	現金受拂簿	1951년	〃
82	現金受拂簿	1952년	〃
83	現金受拂簿	1953년	〃
84	現金出納簿	1974년	〃
85	現穀出納簿	1935년	남계서원 현곡의 수입과 지출 내역
86	現穀出納簿	1936년	〃
87	現穀出納簿	1937년	〃
88	現穀受拂簿	1938년	〃
89	現穀受拂簿	1939년	〃
90	現穀受拂簿	1940년	〃
91	現穀受拂簿	1941년	〃
92	現穀受拂簿	1942년~1944년	〃
93	現穀受拂簿	1945년	〃
94	現穀受拂簿	1948년	〃
95	現穀受拂簿	1950년	〃
96	現穀受拂簿	1951년	〃
97	現穀受拂簿	1953년	현곡 수입 지출 내역 (正祖의 部, 白米의 部 등으로 구성)
98	證憑書類綴	1935년	서원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모음
99	證憑書類綴	1936년	〃
100	證憑書類綴	1936년	〃
101	證憑書類綴	1938년	〃
102	證憑書類綴	1939년	〃
103	證憑書類綴	1940년	〃

	자료명	연도	내용
104	食床記	1942년~1944년	서원의 식상 내역
105	食床記	1945년~1946년	서원의 식상 내역
106	神道碑用下文簿	1926년	신도비 제작 시 지출 내역 장부, 말미에 총 8,708兩 1錢 5분이 소요되었음을 기록
107	濼溪書院重修義捐金收入簿	1937년	남계서원 중수 시 의연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과 금액, 소재지 등 기록
108	濼溪書院重建時支出內譯簿	1937년	1937년 남계서원 증건시 지출 내역부
109	養眞齋遺墟豎碑願助錄	1938년	개암 강익이 지은 양진재 터에 비를 건립할 때 기부자의 명단과 내역 및 지출 내역
110	養眞齋遺墟豎碑願助錄	1939년	〃
111	土地收入簿	1950년	수량, 납부자 주소와 이름 기록
112	土地收入簿	1953년	〃
113	錢穀出納實況	1965년	남계서원 전곡 출납 기록
114	現金 現穀 白米 受拂簿	1955년, 1956년, 1966년, 1967년	남계서원의 현금과 곡식, 백미 수입, 지출 내역
115	미상(지출내역부)	해방 이후	표지 결락으로 표제는 알 수 없으나 내용상 서원의 지출내역부로 추정됨
116	미상(기부문서)	해방 이후	기부 문서, 기부자(문중), 본관, 자, 금액, 거주지 등 기록

4) 서원의 사회관계망_공문서와 통문·인명류

서원의 사회관계망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공문서·통문·인명류 등 총 15건이 있다. 이중 조선시대 문서로는 1843년 관으로부터 保人에 대한 군포 징수권을 인증받은 「완문」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일제시기 문서들이다.

일제 강점기 공문서류는 1936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수동면 탁아소 설치와 관련하여 3건, 소작쟁의 관련 2건, 대성문학원 관련 2건 및, 1938년 서원의 수·발신 문서대장이 있다. 다음 통문류로는 서원, 서당 등에서 제향자에 대한 위차 문제와 관련한 것과 李炳憲의 공교운동을 비판하는 내용의 통문들이다. 마지막으로 『지일록』은 대외적으로 서원의 사당을 방문한 사람들의 명단이며, 『일두집 분절』은 1919년 남계서원에서 일두집을 간행한 뒤 배포한 곳의 명단이다. 두 자료는 당시 서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표 9> 사회 관계 문서

	자료명	연도	내용
1	濼溪書院完文	1843년	남계서원 수호를 위해 서원 주변 10호의 保人들에게 군포를 서원이 독점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한 관의 인증 문서
2	水面 第51號	1936년 6월 5일	발급자: 水東面長, 수급자: 濼溪書院, 내용: 탁아소 설치 건과 관련하여 6월 10일 면사무소로 내방하여 줄 것을 통지
3	水面 第51號	1936년 6월 22일	발급자: 水東面長, 수급자: 濼溪書院有司, 내용:本月(6월) 10일에 협의 결정한 院坪里 탁아소 설치에 대한 개소식을 25일에 거행함을

	자료명	연도	내용
			통지하는 문서, 추이로 필요경비 20냥을 25일까지 면사무소로 보내줄 것을 요청
4	水面 第51號	1936년 6월 29일	발급자: 水東面長, 수급자: 濼溪書院有司, 내용: 본월(6월) 10일에 협의 결정한 院坪里 탁아소 설치에 대한 개소식을 25일에 거행하였는 바, 근래 농번기임으로 탁아에 경비가 필요하므로 20냥을 납부해 줄 것을 요청
5	小作權에 관한 건	1936년 4월 21일	남계서원 전답에 소작하는 鄭在奎가 소작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작권을 해제한다는 내용
6	協定調書	1936년 6월 5일	1936년 6월 5일 소작인 梁正原이 지주 남계서원을 대상으로 신청한 소작쟁의에 대한 기록
7	公函	1936년 6월	발신: 대성문학원(大聖文學院) 내용: 10월 함양군 서상면 중남리에서 모임이 있음을 알리는 문서
8	公函	1936년 6월	발신: 대성문학원(大聖文學院) 내용: 10월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에서 모임이 있음을 알리는 문서
9	濼溪書院文書收發簿	1938년	1938년 남계서원에서 수, 발신한 문서 대장
10	通文	1902년 5월 12일	1902년 동강 김우옹을 제향하는 진주 용강서당이 건립. 동강과 한강의 학문 정통성에 대해 회연서당에서 진주 용강서당에 발송한 통문
11	通文	1918년 음 10월 15일	발신: 충청북도유회소 옥천향교, 수신: 남계서원 진주 도통사에서 문성공 안향을 배향한 일과 관련된 통문
12	答通文	1923년 12월 15일	발신: 장성 필암서원, 수신: 남계서원 李炳憲의 공교운동을 규탄하는 내용
13	通文	1936년 윤 3월	발신: 흥암서원, 수신: 남계서원, 내용: 안의 영승서원에 본년 4월 경 퇴계의 위패봉안식과 사직 전공(全鞮)의 봉안식도 동일 거행하며, 동춘당 송준길의 추향을 9월에 한다고 하나 사람의 공의가 없는 것이고, 퇴계와 동춘당을 同享으로 해야 하나 퇴계와 전철의 위패를 동향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과 관련하여 4월 7일 회의 개최를 알리는 통문
14	祇謁錄	1902년~1981년	1902년 3월 송병순宋秉珣을 시작으로 1981년 임종택 24대 함양군수까지 총 99명의 방문자가 기록된 명부
15	一蠹集 分秩	미상	1919년 남계서원에서 일두집을 간행한 뒤 배포한 곳의 명단

5) 기타

이 외 소장 문서들은 시문류 3건, 장서목록 1건, 기타 5건이 있다. 이중 서책대장은 18세기 이후 서원 서책대장이 현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 서원 장서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 『남계서원지』의 경우 1935년에 간행된 것은 초간본으로, 일제시대 서적 간행에 대한 검열이 심할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치안담당관의 「출판허가」의 檢印이 찍혀있다. 또 내용 중 고조선을 칭할 때 「朝鮮國」이라 쓴 것은 「國」字를 삭제하였고, 明을 칭할 경우 「黃明」에서 「黃」을 삭제하 등 내용 중간 중간에 검열의 흔

적도 확인할 수 있다.⁸³⁾

<표 10> 기타 문서

분류	문서
시문류	濳溪書院 門樓上樑文(1849), 景一齋記(1881), 風詠樓重修記(1940),
장서목록	書冊臺帳(1935)
기타	院規(1923년), 濳溪書院誌(1935년 · 1962년), 蓮桂案(1933), 二老亭儒契咸陽人員名簿(1959), 咸陽鄉案(1969)

4. 맺음말

남계서원은 건립 초창기 함양 유림들의 결속과 지방관의 보조에 힘입어 1552년(명종 7) 건립을 시작, 1566년(명종 21) 사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많은 유림들이 서적을 기부해 주었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부보록』이라는 자료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만 하더라도 주세붕이 직접 서적을 구입한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는 16세기 사림 시대 지식인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가 무엇인지, 서원에서는 어떤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지, 평소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학문의 이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부보록』의 장서 구축 범위는 16~17세기이다.

이후 서원 장서목록은 1935년의 『서책대장』과 1969년 『李朝書院文庫目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간 남계서원 장서는 『부보록』에 집중되다보니 장서 구축의 통시적 접근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비록 일제 강점기 이기는 하지만 『서책대장』이 확인됨으로써 이 자료가 남계서원의 조선시대와 현대 장서 구축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현전하는 고서들 중 1935년 당시에 존재했던 것으로는 『사서석의』, 『오경백편』, 『고려사』 등이 있다. 이 중 『오경백편』은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조의 내사본임을 확인하였고, 『사서석의』와 『고려사』는 17세기 『부보록』에도 기록되어 있어, 같은 본인지 좀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원 소장 고문서들은 약 174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조선시대가 15건, 일제강점기 문서들이 110건으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적은 수량이지만 조선시대 고문서 중 『부보록』, 『경임안』, 『원록』 등은 서원 초창기 건립과정과 서원의 인적 구성을 파악할 수 있어 상당히 가치가 있는 문서들이다. 일제시기 문서들은 대부분 서원의 재정 운영을 살펴볼 수 있는 문서들로, 그간 남계서원 연구가 조선시대에 집중되었던 만큼 이 자료들을 활용한다면 일제시기 남계서원의 역사를 복원하는 외에도 좋은 사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1935년에 간행된 『남계서원지』 역시 일제시대 서적 간행에 대한 검열이 심할 때 만들어진 초간본으로 검열의 흔적이 남아 있어 당시 일제의 검열관을 엿볼 수 있다.

83)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24-濳溪書院篇-』(2006), 남계서원의 고문서 해제 참조.

참고문헌

관찬사료

『중종실록』, 『정조실록』

문집류

鄭汝昌 『一蠹集』, 鄭熙普 『唐谷鄭先生實記』, 姜翼 『介庵集』

단행본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남계서원·도동서원』, 예맥, 2013

이춘희, 『조선조의 敎育文庫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1984

정만조 외,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24-濳溪書院篇-』, 2006

논문

김순환, 「상주 옥동서원 소장 자료의 유형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2019

김윤식, 「조선조 서원 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서지학회, 2008

김종석, 「도산서원 고전적의 형성과 관리」, 『고전적』 4,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2008

김학수, 「林谷 林眞愼의 현실인식과 17세기 영남학계에서의 위상 -南冥·退溪學을 접목한 17세기 영남학계의 새로운 모색」, 『남명학연구』 54,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7

박현규, 「병산서원서책목록의 분석과 그 특징」, 『季刊 서지학보』 94, 한국서지학회, 1994

박소희, 「남계서원의 내력과 인적 네트워크 -남계서원 소장 『裒寶錄』을 중심으로 -」, 『대동한문학』 75, 대동한문학회, 2023

배현숙, 「소수서원 收藏과 刊行 書籍考」, 『서지학연구』 31, 서지학회, 2005

-----,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대동한문학』 46, 대동한문학회, 2016

-----, 「陶山書院 刻板活動 研究」, 『한국서원학보』 12, 2021

설석규, 「선조, 광해군대 남명학파의 공론형성과 문묘중사 운동」, 『남명학연구논총』 11, 남명학연구원, 2002

옥영정, 「한국 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 「『竹溪誌』의 編纂과 板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서지학연구』 31, 서지학회, 2005

우정임, 「退溪 李滉과 그의 門徒들의 서적 간행과 書院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부경 역사연구소, 2008

윤동원, 「옥산서원 소장 고전적 서목 비교 고찰」, 『경주문화』 97, 경주문화원, 2011

윤혜민, 「서원의 전략적인 지식정보 확보와 사회적 호응-함양 남계서원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서원과 서양 중세 수도원의 아카이브적 성격의 비교연구 자료집』, 한국서원학회, 2023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 『역사학보』 186, 역사학회, 2005

-----, 「경상도 함양의 남계서원 연구」, 『남명학연구』 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 이병훈, 「도동서원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 , 「경주 玉山書院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 , 「19~20세기 영남지역 향촌사회와 경주 옥산서원의 동향」,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 ,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 이수환, 「영남서원의 자료 현황과 특징」, 『대구사학』 65, 대구사학회, 2001
- ,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 조명근, 「일제 말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 실태」, 『한국서원학보』 14, 한국서원학회, 2022
- 최성한, 「한말·일제강점기 영남지역 서원·사우의 건립 양상」,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최우경, 『도산서원 광명실 장서의 변천과 서지적 분석』,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부록> 함양박물관에 기탁된 남계서원 소장 서책 목록(2022년 기준, 고문서 제외)

분류	서적 목록	수량
경서류	御定五經百篇, 書正文, 論語, 孟子, 詩傳, 書傳, 四書釋義	7종
문집·실기류	春睡堂集, 一蠹先生遺集, 介庵集, 松灘遺集, 松灘集, 東峰實記, 東溪續集, 濯纓文集, 桐溪集, 卞志齊集, 稽樵集, 崔良窩集, 達城徐氏世稿, 桐谷實記, 龍城世稿, 霞谷集, 崔終慕堂集, 崔愚溪集, 崔茅蘆集, 姜橘菴遺稿, 姜悟齋遺稿, 姜氏兩世實錄, 栢菴遺稿, 凝川先生實記, 三梧實記, 金雪齋集, 金蘆溪集, 鄭覺今亭文集, 李和谷集, 奇松沙集, 寒洲集, 姜武山文集, 姜木溪先生逸稿, 訥庵遺事, 臨川遺稿, 馬晚雲遺稿, 樂軒遺稿, 栢石遺稿, 聾菴遺稿, 醉隱逸稿, 松竹世稿, 郭定菴逸稿, 徐孺子集, 松庵遺稿集, 內山遺稿, 睡足堂遺稿, 壹隱遺稿, 學岡遺稿, 谷隱遺稿, 樵隱遺稿, 薇山遺稿, 芝岡集, 柳敬勝齋集, 李和村集, 松園集, 擇窩集, 申三洲文集, 大峯集, 鳳岡遺集, 飛泉集, 厲菴集, 竹醒文集, 華海師, 邵城世稿, 安子年譜, 及愚齋續集, 及愚齋集, 敬菴謀, 壽瑞詩集, 朴适拙齋實記, 三友堂實記, 一寧先生實記, 樂水先生實記, 會巖實記, 金良襄公實記, 帽巖實記, 安亭先生實記, 晦軒先生實記, 晦軒集, 松菴實記, 小松集, 鄭農圃集, 鄭農圃續集, 惠山集, 龜巖集, 崔玉潤集, 默齋集, 叅判公實錄, 孺慕錄, 蘭美錄, 秋巒先生實記, 梧泉實記, 聞巖忠義錄, 農圃先生文集, 孤雲先生經學隊伏桂苑筆耕合部, 二安亭遺稿, 蓮汀遺稿, 宋尤菴先生尊賢錄, 恭山先生文集, 蘭谷集, 愚坡先生續集, 怡雲實記, 月川先生文集, 鄭韶后先生遺墨, 鄭門(部石雲岡)兩代詩文墨, 駱峯先生實記, 松隱集, 聯芳實記, 怡雲實記, 文穆公孤青徐起先生文集, 金節孝實記, 華陰聯芳稿, 敬菴集, 菊潭追先錄譯本, 窓巖先生逸稿譯本, 國譯遜齋先生文集, 殷烈公姜先生實記譯本, 葛川先生文集國譯, 屏谷先生文集	120종
사서류	綱目, 朝鮮史, 東鑑節要, 大東要鑑	4종
성리서	理學輯要, 徐氏性理述集	2종
서원·향교·정사지	靑溪書院誌, 西岳誌, 華陽誌, 滄洲書院誌, 介川精舍誌, 杜洞書院誌, 龍巖書院誌, 景賢書院誌, 石岡書院誌, 丹邱院誌, 車山書院誌, 南岳祠誌, 高山書院誌, 栢峴書院誌, 坡山書院誌, 茅山祠誌, 岳陽亭誌, 德陽齋誌, 咸陽鄉校誌, 安義鄉校誌,	20종
지리지	天嶺誌, 咸陽邑誌(2件, 舊誌·新), 凝川微信錄, 泗川縣輿地勝覽	5종
기타	韓史繁辨, 咸陽鄉案 全, 華行日記, 靑巴日記, 海西暗行日記, 文苑, 先賢闕里圖, 二安亭公家訓, 儒教大事典, 恩津宋氏舊蹟考, 愼氏大宗報, 河東鄭氏世蹟實錄, 豐川盧氏先世實記, 密陽朴氏恭孝公派譜世德編, 咸平李氏三世稿, 獻誠錄, 淡成稷案, 湯島紀行, 最新弘字玉篇, 李朝書院文庫目錄, 儒賢笏記集,	22종

발표 3

경주 옥산서원 아카이브의 성격과
가치: 옥산진장(玉山珍藏)

이병훈(한국국학진흥원)

경주 옥산서원 아카이브의 성격과 가치 : 옥산진장(玉山珍藏)*

이병훈(한국국학진흥원)

<목 차>

- I. 머리말
- II. 옥산서원 아카이브의 형성
- III. 옥산서원 아카이브의 보존·관리 노력
- IV. 옥산서원 아카이브의 주요 유물

I. 머리말

아카이브(archive)란 어떤 장소, 조직 등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들의 모음을 의미한다. 아카이브는 원래 그리스어로 ‘관공서(시청)’라는 뜻에서 유래했으며, 고대부터 국가나 단체 등에서 중요한 문서나 유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을 일컬었다. 이러한 개념은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향촌사회기구이자 교육기구로 역할하였던 서원은 유생의 교육과 사족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중요기구였다. 그 결과 서원의 건립이래로 교육과 운영, 각종 사업에 관여하면서 생성된 자료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 자료가 전승되는 서원은 일부에 불과하다. 오랜 세월동안 전란과 화재, 도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주 옥산서원은 건립이래로 현재까지 452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당수의 자료를 보관해왔다. 그것은 옥산서원 아카이브를 보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였다.

주지하다시피 옥산서원은 李彦迪(1491~1553)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1572년 경주부윤 이제민과 향인들이 협력하여 창건하였고, 1573년 사액을 받았다. 건립 이래로 경주지역 학맥과 교육전통을 이어오면서 경상도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성장하였다. 16세기 후반 옥산서원은 경주부 유일의 사액서원으로서 致祭와 세 차례에 걸쳐 서적을 하사받고, 왕명으로 제향자인 이언적의 문집과 저서가 경주부에서 출간되었다. 그 결과 부남의 경주향교, 서악서원과 더불어 부북의 유생 교육을 담당하는 대표적 교육기구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경주향교와 서악서원은 소실되었지만, 옥산서원은 전화를 피하여 건물과 서적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언적의 문묘 중사와 양질의 장서, 강회와 거점, 출판을 통한 회재학 확산 노력에 힘입어 경주향교와 서악서원이 중건된 후에도 옥산서원은 17세기 경주부의 유생 교육을 대표하였다. 17세기 후반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였던 교육 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18세기 중반까지 강회와 거점을 안정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 교육 거점으로서 경주와 인근 지역 유생들의 옥산서원 출입이 증가하였고, 그것은 서원의 영향력 확대와 위상 제고로 이어졌다.

이처럼 옥산서원의 위상 제고를 뒷받침한 것은 건립이래로 잘 보존해온 藏書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실제 옥산서원은 초창기 건립된 건물과 장서들을 서원의 보물로 여기며 관리에 노력을 기울였다. 18세기 중반이후 장서의 망실과 강당의 소실이라는 피해가 있었지만 상당수의 유물이 현전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유물전시관에는 서원의 생생한 운영모습을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본고는 옥산서원에 남아있는 자료의 현황과 그것의 수집 경위 및 관리 노력을 확인함으로써 옥산서원 아카이브가 한국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II. 옥산서원 아카이브의 형성

옥산서원 관련 자료는 고서, 고문서(성책류 포함), 책판·편액류, 기타 자료로 나눌 수 있다. 2004년 조사에서는 독립당과 무침당 자료 일체와 서원내 국가지정문화재를 제외한 고서 943종(3,977책), 고문서 1,163점, 책판 19종 1,121장, 기타 유물 22점 등 총 3,250점이 확인되었다.⁸⁴⁾ 이들 자료는 서원의 교육과 출판(도서관) 및 행정(경제), 사회·정치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표 1〉 옥산서원 자료 현황

구분	전적 (종)	고문서					편액	책판	기타 (각석·비문)	계
		제향 의례	교육	운영 조직	출판 인쇄	향촌 사회				
16세기	77	1		1		4			3	86
17세기	15	1	1	7		20				44
18세기	38	9	3	117	7	46	10			230
19세기	32	7	7	367	1	208	2			624
20세기	107	13		57	6	166	1	127		477
미상	674			51		60	9	994		1,788
계	943	31	11	600	14	504	22	1,121	3	3,249

옥산서원의 고서 943종, 3,977책은 문집류가 300여 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서, 역사, 전기, 유가류이다. 옥산서원 고서 중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보 322-1호로 지정된 『삼국사기』이다. 이 책은 1573년 경주부가 인출하여 옥산서원에 보낸 것으로, 현재 전래되는 몇 안 되는 『삼국사기』 완질본 중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조선전기예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들이 있는데 『뽕書』, 『埤雅』, 『唐柳先生集』, 『漢書』 등의 갑인자본과 『朱子大全』 등의 율해자본이 그것이다. 또한, 『주자대전』(95책)과 『朱子語類』(75책)는 1577년에 내사된 것으로 완질을 보관중이며, 이외에도 『大廣益會玉篇』, 『翻譯小學』, 『小學集說』 등

84) 문화재청, 『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4.

의 임진왜란 이전 목판본이 귀중본으로 분류될 만한 전적이다.

또한 옥산서원에서는 『회재선생문집』, 『구인록』, 『근사록』, 『太極問辯』, 『九經衍義』, 『대학장구보유』, 『봉선잡의』, 『임거십오영』 등 제향인인 이언적의 문집과 저서의 책판을 자체 제작하여 출판하기도 했다. 2004년 문화재청과 2007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현재 총 19종, 1,121장이 남아있다.⁸⁵⁾

옥산서원 소장 고문서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서원의 인적구성과 조직·운영체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과 서원 경제 관계 및 기타 일기·부조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원초기의 경제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토지와 노비에 관한 문서, 서원의 역사, 원장·유사 등 원임(院任)의 명단, 서원을 내방한 인사가 자필로 서명한 방명록, 수입·지출 상황을 기록한 경리장부 등 서원 경제에 관계된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이들은 경제사적으로도 의의가 큰 자료이다.

1. 옥산문고의 형성 과정

서원이 존현을 통해 道學을 수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科擧를 도외시하고 순수한 爲己之學만을 위한 서원으로 존재하였다면 서원제도의 정착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서원들은 건립 이래로 經學을 중심으로 수기를 위한 성리학에 중심을 두었지만, 과거시험을 위한 詞章이나 역사 등의 교육에도 소홀하지 않았다.⁸⁶⁾ 서원에서는 이런 교육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그에 맞는 도서를 갖춰 나갔다.

옥산서원의 현전하는 자료들을 참고하여 파악되는 서적명과 수집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이를 장서의 수집 경위에 따라 기증과 내사, 구매와 등서 등의 순서로 살펴본다.

<표 2> 옥산서원 서적 수집 내역⁸⁷⁾

번호	연도	서책명	비고	전거
1	15세기	古今韻會舉要	15세기초판(50권)	印本
2	15세기	唐柳先生集	15세기중판(13권)	〃
3	15세기	大廣益會玉篇	15세기초판	〃
4	15세기	東國通鑑	龔齋(李彦适,1494-1553)印,獨樂堂印(28권)	〃
5	15세기	東國通鑑[外紀]	龔齋(李彦适)印, 獨樂堂印	〃
6	16세기	春秋四傳	16세기판(19권)	〃
7	16세기	太平廣記詳節	冊主溪齋宅, 主驪江李...家藏	藏書記
8	16세기	東萊先生南史詳節	16세기판	印本

85) 한국국학진흥원 편, 『경북지역의 목판자료(2)』,

86) 17세기에 작성된 옥산서원의 「山堂居接騰錄」, 「立學記」을 보면 유생들은 정기적으로 과거 준비를 위한 합숙을 해왔으며, 그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생활 규정도 정해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7) 이 표는 2004년 당시 조사한 보고서(문화재청·경상북도, 『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 2004.)와 옥산서원 소장 『전여기』·『서책기』·『서책전여도록』·『고왕록』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부록의 <표1>옥산서원 장서목록 대장, <표2>옥산서원 전여기 내역 참조 바람). 그 외에는 『고사촬요』(남문각, 1974)는 1585년 허봉이 속찬한 것과 『열읍원우사적』을 참고하였다.

9	16세기	東萊先生唐書詳節	16세기印	ㄴ
10	16세기	東萊先生東漢詳節	16세기印	ㄴ
11	16세기	(東萊先生)史記詳節	16세기印	ㄴ
12	16세기	(東萊先生)三國志詳節	16세기印	ㄴ
13	16세기	東萊先生西漢(書)詳節	16세기印	ㄴ
14	16세기	東萊先生隋書詳節	16세기印	ㄴ
15	16세기	東萊先生五代史詳節	16세기印	ㄴ
16	16세기	文選	16세기刊(24권)	ㄴ
17	16세기	繹譯小學	16세기刊, 玉山書院(朱印)	ㄴ
18	16세기	漢書	16세기초 刊(54권), 晦齋(朱印)	장서기
19	16세기	西涯擬古樂府	16세기 刊(3권)	인본
20	16세기	薛文清公讀書錄	16세기 刊(1권)	ㄴ
21	16세기	說文解字韻譜(蒙韻譜)	16세기 刊	ㄴ
22	16세기	伊洛淵源	16세기 刊(14권 8책)	ㄴ
23	16세기	小學集說	溪亭冊, 獨樂堂印	장서기
24	16세기	心經附註	獨樂堂印, 驪江後人, 李守天遠(2권)	ㄴ
25	16세기초	點齋亂藁(鄭士龍)	玉山書院(朱印), 權士毅所納	墨書
26	1513	正德癸酉司馬榜目	玉山書院(朱印), 筆寫本	인본
27	1520	估畢齋集	16세기刊(7권)	ㄴ
28	1527	大學衍義	16세기간(1527)	ㄴ
29	1538	埤雅	內賜弘文館應教李彥迪(5권)	장서기
30	1561	東萊先生晉書詳節	16세기印, 嘉靖四十年(1561)六月	襟接紙
31	1562	東萊先生音註唐鑑	萬曆元年(1573)八月日玉山書院上(墨書)	장서기
32	1562	二程先生傳道粹語	慶州府刊, 玉山書院(朱印)	攷事撮要
33	1562	孔子通紀	慶州府刊, 慶州府刊板(刊記)	ㄴ
34	1562	皇明理學名臣言行錄	慶州府刊	ㄴ
35	1562	庸學指南	慶州府刊, 玉山書院上(墨書)	ㄴ
36	1564	程氏遺書	嘉靖甲子秋順天府開刊(5권)	木記
37	1570	聖學十圖	隆慶四年河東開刊, 敬齋·玉山書院(朱印)	목기
38	1573	論語集註大全	收藏(慶州府刊)	고사촬요
39	1573	三國史記(三國史)	萬曆元年(1573)八月日玉山書院上(慶州府刊)	장서기
40	1573	自警編	收藏(慶州府刊)	고사촬요
41	1573	筆談	萬曆元年(1573)八月日玉山書院上(慶州府刊)	장서기
42	1573	性理大全	萬曆元年(1573)十月日玉山書院(慶州府刊)	ㄴ
43	1573(?)	宋朝名臣錄	權士毅(1552-1596)所納	ㄴ
44	1573	左傳	收藏, 옥산서원(朱印), 23책	ㄴ
45	1574	新編性理群書句解	收藏 12책	고사촬요
46	1575	續蒙求分註	萬曆乙亥三月甲子柳希春書于漢都客舍(4권)	題文
47	1575	朱子書節要	萬曆乙亥(1575) 川谷書院(20권 18책)	장서기
48	1575	晦齋先生集	慶州府刊 (宣祖3年(1570)印)	고사촬요
49	1575	兩山墨談	慶州府刊	ㄴ
50	1575	續大學或問	慶州府刊	ㄴ
51	1575	大學章句補遺	慶州府刊	ㄴ
52	1577	禮記	宣賜(30권)-2질	列邑院宇事蹟

53	1577	周易	宣賜(26권)-2질	ㄷ
54	1577	詩傳	宣賜(10권)-2질	ㄷ
55	1577	書傳	宣賜(20권)-2질	ㄷ
56	1577	論語	宣賜(14권)-2질	ㄷ
57	1577	孟子	宣賜(16권)-2질	ㄷ
58	1577	中庸	宣賜(2권)-2질	ㄷ
59	1577	大學	頒賜萬曆七年二月日玉山書院上(2권)-2질	ㄷ, 藏書記
60	1577	春秋	宣賜(10권)-2질	ㄷ
61	1577	朱子語類	宣賜(75권)-1질	ㄷ
62	1577	國朝儒先錄	宣賜(4권)-1질	ㄷ
63	1577	朱子大全	宣賜(95권)-1질	ㄷ
64	1577	秋江集	收藏(외증손 兪泓 刊行)	장서기
65	1580	東萊先生比史詳節	萬曆八年(1580)三月二十四日慶尙道寧海府	배집지
66	1581	武陵雜稿	玉山書院(墨印), 周博	印記
67	1581	武陵雜稿別集	玉山書院(墨印), 周博, 癸丑8월 改裝	장서기
68	1583	諺解小學	宣賜(1질)	열읍원우사적
69	1585	論語諺解	宣賜(1질)	列邑
70	1585	孟子諺解	宣賜(1질)	列邑
71	1585	大學諺解	宣賜(1질)	列邑
72	1585	中庸諺解	宣賜(1질)	列邑
73	1590	孝行錄	慶州府 重刊	鏤板考
74	1600	晦齋先生集	玉山 重刊	鏤板考
75	1600	櫟翁稗說	萬曆庚子廬江書院活字印出	印記
76	1600	退溪集	萬曆庚子九月玉山書院上	墨書
77	1600	孟子大文	萬曆二十八年庚子取廬江書院活字印出于難林	藏書記
78	1600	續大學或問	玉山 重刊	鏤板考
79	1602	改正大學	萬曆壬寅玉山重刊	鏤板考, 木記
80	1602	大學章句補遺	玉山 重刊	鏤板考
81	1606	德陽遺稿	收藏(1609년 奇自獻 來院)	藏書記
82	1606	詩傳	萬曆 丙午 慶州	藏書記
83	1615	唐詩彙選	萬曆乙卯暮秋海平尹暄次野書于鷄林之倚竹堂	藏書記
84	1619	忠烈錄	玉山書院上	藏書記
85	1624	晦齋先生集	玉山 重刊(14권5책)	鏤板考
86	1631	晦齋先生集	玉山 重刊(13권5책)	鏤板考
87	1631	班史(漢史)	玉山 刊(2권2책)	鏤板考
88	1631	濯纓集	崇禎四年辛未清道紫川書院刊(2권)	刊記
89	1642	西岳誌	西岳書院	鏤板考
90	1645	易學圖說	筆寫本, 傳書	보고서
91	1648	纂圖互註周禮	院上(墨書), 玉山書院(朱印), 7책	藏書記
92	1662	太極問辨	壬寅玉山書院重刊(1책)	鏤板考
93	1666	太極書撰集辨誣錄	玉山刊	鏤板考
94	1683	靜菴集	先生後裔趙渭叟(1630-1699)所送	서책기1
95	1693	益齋亂藁	慶州府 重刊	鏤板考
96	1693	櫟翁稗說	慶州府 重刊	鏤板考

97	17세기	震英粹語	3책, 玉山書院上, 17세기印	墨書記
98	17세기말	(先生點朱)大學衍義	(1696 內侍教官)孟萬擇所送	서책기1
99	1701	光國志慶錄	崔方伯(錫恒) 所送	전여기1
100	1709	佔畢齋文集	禮林書院重刊, 玉山上	藏書紀
101	1703~1709	漢陰先生手筆	河陽倅(1703~1709)李復仁所送	전여기1
102	1713	史略	新備	서책기1
103	1713	周禮	新備(院上), (7권)	전여기2
104	1713	柳文	新備(5권, 합 15권)	전여기2
105	1713	晚悔集	新備(대전 道山書院)(10권)	전여기2
106	1717	增續會通韻府羣玉	院上(墨書), 옥산서원(朱印), (21권)	藏書記
107	1728	禮記		
108	1732	退溪言行錄	新備 화산본(權斗經刊, 5권)	전여기7
109	1733	退溪言行錄	新備 선성본(陶山書院刊, 2권)	전여기7 서책기2
110	1734	奉先雜儀	李文龍傳與時失 1734(甲寅) 8월 備納	전여기6
111	1739	孤松集	新備 申震龜 刊(2권)	전여기7
112	1739	貞武公崔先生實紀	崇禎紀元後再己未季夏下浣 明川府開刊龍山書院藏, 玉山書院(印)	木記 서책기2
113	1739 以前	敬亭集	新備 (의성 藏待書院 來送, 6권)	서책기2 傳與記7
114	1740	梧峯集	新備 (의성 藏待書院 來送, 4권)	전여기7
115	1740	松隱集	新備 (의성 藏待書院 來送, 1권)	전여기7
116	1743	謙菴集	新備 柳泳 初刊(2권)	전여기7
117	1745	歷代捷錄	新備 抄史略 4卷內2卷 相換	전여기7
118	1748	炭翁集	新備自監營印送(7권), 戊午春刊板在公州道山書院(刊記), 玉山書院(朱印)	서책기2
119	1748	詩藪	新備自監營印送(6권)	서책기2
120	1753	近思錄	慶州府 刊出(4권)	鏤板考
121	1753	小學	慶州府 刊出	鏤板考
122	1755	耐齋集	新備(慶州府印送)府尹洪益三父洪泰猷(3권)	서책기2
123	1755	陰崖集	新備(監營印送-監司李彝章(李耜從後孫,3권)	서책기2
124	1755	孟子諺解	購入(7권)	전여기17
125	1755	圃隱集	新備(2권)	전여기17
126	1756	史記評林	自刊所新備(30권)	서책기2
127	1756	愚齋實記	新備 (東江書院, 1권)	서책기2
128	1756	艮齋集	新備 (榮州 汚溪書院, 4권)	서책기2
129	1756	存齋集	新備 (寧海 仁山書院, 3권)	서책기2
130	1756	貞武公實記	新備 (龍山書院, 2권)	서책기2
131	1756	三仁錄	新備 (後孫來送, 1권), 玉山書院(朱印)	서책기2
132	1757	禮記	印備(冊紙, 8권)	간소별비 책가 전전여기
133	1757	鶴峯集	印備(冊紙)	〃
134	1760	膽錄	院備(筆寫本, 1권)	전여기19
135	1761	梧里集	新備(1705 刊, 6권)	전여기20
136	1762	禮記	購買(康陵)	간소별비 책가

				전전여기
137	1762	魯史零言	印備(冊紙), 購買	〃
138	1762	漢書	印備(冊紙)	〃
139	1764	近思錄	新備(4권)	전여기21
140	1769	書傳全文	己丑十月日巡營備送玉山書院上(墨書)	藏書記
141	1769	三韻聲彙	己丑初春嶺營開板(2책)	藏書記
142	1772	通鑑節要	藏在壬辰嶺營新刊(陰刻),驪江李容天章	藏書記
143	1776	修巖集	安東屏山書院所送	전여기25
144	1779	省吾堂集	2권, 1775년 간행	전여기26
145	1779	海月集	7권, 1776년 간행(울진 明溪書院)	전여기26
146	1779	大海集	1권, 1776년 간행(울진 明溪書院)	전여기26
147	1779	黔澗集	4권(內 辰巳日錄 1권), 1707년 간행	전여기26
148	1782	禮記	10권, 前不受壬寅(1782)冬新備入藏唐板	전여기30
149	1782	太極問辨	1권, 花山本自良洞來	전여기30
150	1782	認齋集	9권, 善山(三治堂, 1778 刊)來	전여기30
151	1782	太極問辨	1권-本院 新刊本	전여기30
152	1782	鶴峯先生續集	壬寅仲春虎溪書院開刊, 玉山書院上(藏書記)	전여기30
153	1782	鶴沙集	6권 - (1776년 刊)	전여기30
154	1785	朱書講錄刊補	3권, 1785년 刊	전여기33
155	1786	白雲齋(忠毅公)實記	4권, 新寧 龜川書院印送	전여기33
156	1787	疎菴集	3권 - 豆洞來	전여기33
157	1787	貞武公實記	龍山書院	전여기33
158	1794	御製續大學或問	宣賜(御製題先生正續大學或問, 1권)	서책전여도록4
159	1794	御定朱書百選	宣賜(3권)-內賜記	서책전여도록4
160	1796以後	近思錄	玉山 重刊(4권)	木記
161	1797	鄉禮合編	宣賜(2권)-內賜記	서책전여도록4
162	1798	(新印)春秋(左氏傳)	宣賜(10권)	서책전여도록5
163	1798	書傳大全	戊午二月嶺營重刊(3질, 30책)	木記
164	1799	御製雅頌	宣賜(2권)	서책전여도록5
165	?	御定春秋四傳	宣賜(27권)	서책도록7
166	?	禮說	宣賜(10권)	서책도록7
167	1801	孝經	慶州栗谷開刊, 章山書院上	墨書記
168	1817.1	耕隱遺事	永川 龍溪書院 印來 捧置 經閣(1권)	考往錄
169	1817.1	小山集	安東 龜潭書堂 印來 捧置 經閣	考往錄
170	1819.2	松塢集	軍威 松峴祠 印來 捧置 經閣(2권)	考往錄
171	1820.8	觀感錄	寧海 九峯書院 印來 捧置 經閣(3권)	考往錄
172	1825.10	眞樂堂金先生文集	善山 坪城 金氏門中 印來 捧置 經閣(1권, 2권)	考往錄
173		久菴金先生集		
174	1827.1	敬齋洪先生實紀	義興 印來 捧置 經閣(1권)	考往錄
175	1828.6	磬漢孫先生文集	孫氏門中 印來 捧置 經閣(3권)	考往錄
176	1828.8	桐溪實紀	咸昌 臨湖書院 印來 捧置 經閣(1권)	考往錄
177		傳巖實記	光山祠 印來 捧置 經閣(1권)	考往錄
178	1831.2	韓通翁集	本孫(谷山韓氏) 印來 捧置 經閣(4권1질)	考往錄
179	1832.10	夢庵集	本孫(驪州李氏, 養拙堂) 印來 捧置 經閣(3권)	考往錄

180	1838.3	錦石集	巡營 印來 捧置 經閣(朴岐壽巡使時所送而其時忘漏故乃臆錄)(5권 1집)	考往錄
181	1838.8	川沙集	本家(安東金氏,金宗德)印送故受納經閣(5권 1집)	考往錄
182	1841.2	晚默堂集	咸安本孫家印來捧置 經閣(1권)	考往錄
183	1842.1	景賢錄(外續錄補遺)	玄風道東書院來到捧置 經閣(3권) 己亥三月道東重刊(木記)	考往錄
184	1844.6	陽坡堂記	軍威本孫家來到故捧置 經閣[己亥(1839)春來到而忘漏故追後臆錄](2권)	考往錄
185	1846.3	東湖實紀	星州本孫家來到奉置 經閣(2권)	考往錄
186	1847.3	松隱集	清道 德南書院印來奉置 經閣(1집)	考往錄
187		四禮便覽	京李判書光正家裁書印送故奉置 經閣(4권)	考往錄
188	1847.6	旅軒續集	仁同 東洛書院印來奉置 經閣(4권)	考往錄
189	1850.9	魯庵集	沙洞本孫家來(2권)	考往錄
190	1857.4	守庵集	(永川)稷川刊役所印來奉置 經閣(2권)	考往錄
191	1860.4	鄭守菴文集	來到故奉置 經閣(2권)	考往錄
192		南癡菴文集	來到故奉置 經閣(6권)	考往錄
193		南寓菴文集	來到故奉置 經閣(3권)	考往錄
194	1863.8	無忝堂先生文集	刊行事鄉會, 執事排定	考往錄
195	1866.春	龔齋集	來到故奉置 經閣(4권)	考往錄
196		龍川聯稿	來到故奉置 經閣(4권)	考往錄
197		喪祭輯略	來到故奉置 經閣(4권)	考往錄
198	1868.3	是庵集	來到故奉置 經閣(2권)	考往錄
199	1868.12	三政矯揉節目	本府來到故奉置 經閣(1권)	考往錄

1) 내사와 기증

1572년 건립된 옥산서원의 초창기 장서 수집 경위도 초창기 여타 서원들과 마찬가지로 내사본과 지방관의 기증에 의한 것이 중심이었다. 여기에는 제향자인 회재 이언적이 퇴계와 함께 동방오현의 일인으로 추존되고, 종묘와 문묘에 배향된 관료이자, 학자로서 국가와 사림으로부터 확고부동한 儒賢의 지위를 공인 받았기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추존 과정을 거쳐 동방사현의 한분으로 평가된 회재의 위상은 1570년(선조 3)에 조광조, 정여창, 김굉필 등과 함께 회재의 저서 및 사실·행장을 인출하여 반포하라는 명이 내려지면서 더욱 높아졌다.⁸⁸⁾

경주에서는 1561년(명종 16) 경주부윤 龜巖 李楨(1512-1571, 재임 :1560.9-1563.1)이 스승인 퇴계의 자문을 받아서 『孔子通紀』(1562), 『伊洛淵源錄·續錄』(1561), 『二程粹語』(1562), 『皇明理學名臣言行錄』(1562), 『唐鑑』(1562), 『庸學指南』(1562), 『皇極內篇』(1562) 등의 서적들을 간행함으로써 경주일대 文風을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⁸⁹⁾ 그 외에도 경주

88) 『선조실록』 권4, 선조3년 5월 16일(계미).

89) 이정은 순천부사 재임시에 『程氏遺書·外傳』(1564), 『(胡敬齋)居業錄』(1564), 『景賢錄』(1564), 『性理遺編·補遺』, 『朱子年譜』(1565), 『濂洛風雅』(1565) 등을 저술하고, 1564년에는 김굉필을 제향하는 玉川書院을 건립하는 한편, 함양 남계서원에 『通鑑』(17권)과 『程氏遺書』(8권)을 기증하였다.(우정임, 「퇴계 이황과 그의 문도들의 서적간행과 서원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217~220쪽 참조).

부에서 1512년(중종 7) 경주부윤 李繼福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중간하거나, 1543년(중종 38)에 『春秋胡氏傳』, 『書傳』, 『自警編』을 소수서원으로 印送한 사실이 확인된다.⁹⁰⁾ 옥산서원 『서책기』에도 이들 서적들이 기재되어 있어 옥산서원도 경주부로부터 같은 서적을 기증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2>를 보면 서원 건립 이전에 간행된 서적들이 많다. 특히 16세기 간행본들은 대부분 역사서로서 초창기 서원 교육에 활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확한 입수 경위는 알 수 없지만 ‘主驪江李...家藏’, ‘獨樂堂’, ‘晦齋’ 등의 註記가 있는 것은 회재 후손가에서 기증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구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회재가 家藏하고 있던 內賜本과 手筆稿本, 手澤本은 옥산서원 장서 중 내사본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다.⁹¹⁾ 이외에도 회재의 동생 李彦适 가장본은 그 후손들이 기증한 것으로 보이며, 문인 權士毅가 『송조명신록』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경주부에서는 『공자통기』를 비롯한 서원 건립 이전까지 간행되었던 성리서와 역사서, 문집 등을 보내왔는데, ‘玉山書院上’이라 墨記되어 있다.

1574년(선조 7)에는 경주부윤 이제민이 경상감사 盧禎에게 건의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아 『회재선생문집』을 간행하였으며, 그의 저술들도 뒤이어 간행하였다.⁹²⁾ 1575년(선조 8)에는 경주부에서 『회재선생집』, 『양산묵담』, 『대학장구보유』 및 부록 『속대학혹문』을 간행하였다. 당시 『회재집』 간행에 관찰사 노진과 경주부윤 이제민의 적극적인 부조가 있었는데⁹³⁾, 여타 서적들의 간행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즉 옥산서원은 건립 당시 경주부에서 간행한 서적들을 기증받음으로써 서원 장서의 초석을 이루었던 것이다.

사액 요청시 함께 요구한 서적의 하사도 이어졌다. 1577년(선조 10)에 사서육경 각 2질, 『주자대전』, 『주자어류』, 『儒先錄』 각 1질을 宣賜받았으며, 조정으로부터 부족한 교육용 교재의 지원 방안으로 1583년(선조 16)에는 『언해소학』 1질, 1585년(선조 18)에는 『사서언해』 각 1질을 선사 받았다.⁹⁴⁾ 이후 옥산서원에 서적이 내사된 것은 1794년부터이다. 전란 등으로 17세기에는 전란의 후유증으로 국가의 서적 편찬이 어려웠다. 이후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서적의 頒賜가 있었는데 옥산서원을 비롯한 영남지역 서원들은 숙종 이래로 이전에 비하여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영·정조 시대에서야 비로소 퇴계와 회재의 학문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서적의 반질과 치제가 이어졌다. 17세기 들어 옥산서원 장서는 자체 간행과 기증에 의해 충당되었다. 구매도 있었지만 그 수는 제한적이었다.

경주부에서 간행한 서적들의 기증은 17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 경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란 이후 국가 주도로 각 감영에 서적 간행을 명하면서 경주부에서의 간행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감영에서는 직접 간행한 경전 및 『통감절요』와 같은 역사서를 보내오거나 감사들의 개인적 기증이 있었다. 일례로 1701년에 감사 최석항은 『광국지경록』을 보내왔으며, 1748년에는 『탄옹집』과 『詩藪』, 1755년에는 감사 李彝章이 『음애집』, 1838년에는 순사 朴岐壽가 『錦石集』를 보내왔다. 1847년에는 서울의 판서 이광정

90) 남권희, 「조선시대 경주 간행의 서적」 『신라문화』 33, 2009, 7~9쪽.

91) 『전여기』 등에는 회재의 手澤稿本은 ‘儒案匱’ 등처럼 서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서적들과 함께 께에 넣어 보관했음을 알 수 있다.

92) 남권희, 「조선시대 경주 간행의 서적」 『신라문화』 33, 2009, 7~9쪽.

『선조실록』 권8, 선조7년 9월 27일(무술) ; 선조7년 11월 4일(갑술). 이언적의 『九經衍義』는 유희춘이 인출할 것을 아뢰고, 옥당에서 이를 교정하였는데, 이후 1583년(선조 16) 경주부에서 初刊되었다.

93) 『晦齋先生集』, 柳希春 跋 “...願見全集者久矣 今鷄林尹李侯齊民請於方伯盧公禎鳩材募工開板...”

94) 『列邑院宇事蹟』, 慶尙道 玉山書院.

집안에서 『사례편람』을 보내왔다.

17세기 중반 이래로 서원의 건립이 증가하면서 서원에서 간행한 서적들의 기증도 이어졌다. 1631년 청도 자천서원에서 『탁영집』, 1642년 서악서원의 『서악지』, 1709년 예림서원의 『점필재집』, 1722년 호계서원의 『학봉집』, 1733년 도산서원의 『퇴계언행록』, 1739·1756년 용산서원의 『정무공실기』, 1739~1740년 의성 藏待書院의 『경정집』·『송은집』·『오봉집』, 1748년 공주 道山書院의 『탄옹집』, 1756년 동강서원의 『우재실기』, 영주 오계서원의 『간재집』, 영해 인산서원의 『존재집』, 1801년 경주 장산서원의 『효경』, 1817년 영천 용계서원의 『경은유사』, 안동 구담서당의 『소산집』, 1819년 군위 송현사의 『송오집』, 1820년 영해 구봉서원의 『관감록』, 1828년 함창 임호서원의 『동계실기』, 광산사의 『전암실기』, 1842년 현풍 도동서원의 『경현록』, 1847년 청도 덕남서원의 『송은집』 등이 그러하다. 특히 18세기 중반 이후 문중서원의 증가와 함께 서원 간행본의 기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문중에서의 서적 반질도 이어졌다. 1606년 奇遵의 『덕양유고』가 나주의 幸州奇氏 가문에서 보내져왔는데, 기준은 회재의 狀礪文을 지은 기대승의 숙부가 된다. 또한 1609년 기준의 증손이 되는 前좌의정 奇自獻이 옥산서원에 알묘한 것처럼 행주기씨 가문과의 인연은 특별하였다. 1683년에는 조광조의 후예인 조위수가 『정암집』을 보내왔으며, 內侍敎官을 지낸 맹만택이 회재가 직접 點朱한 『대학연의』를 보내었다. 1703~1709년 사이에는 한음의 후예인 하양현감 이복인이 『한음선생수필』을, 1713년에는 대전 안동권씨 집안에서 권득기의 문집인 『만회집』을 보내왔다. 1755년에는 경주부윤 홍삼익이 그의 부친의 문집 『내재집』을 보내왔다. 이처럼 기증에 의한 것은 사적·공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었다.

옥산서원 『서책기』, 『서책전여도록』에 수록된 서적수를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장서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1758년 『서책기』에 184종 1,618책에서 1801년에는 253종 1,905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1796~1874년에는 310종 2,076책으로, 19세기말 20세기 초에는 370종 2,121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표 2>의 19세기 기증 내역에서와 같이 문중서원·사우와 개별 가문 등에서 顯祖를 현창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문집과 遺稿의 간행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표 3> 옥산서원 서책수

서명	경주교원서책 (1863-1907)	書冊記 (1713)	書冊記 (1756)	書冊記 (1758)	書冊傳與 都錄(1801)	서책전여도록 (1796-1874)	서책전여기 (1906)	서책현재도록 (1862-1945)
계	1,862 (198)	1,446 (161)	1,626 (182)	1,618 (184)	1,905 (253)	2,076 (310)	2,048 (338)	2,121 (370)

이상에서 초창기 서원들은 서원 건립과 장서 구비에 지방관의 도움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원 건립에 참여했던 향촌 유생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기증이 있기도 했으나, 서원이 해당 지역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서 면모와 권위를 갖추는 데는 사액과 함께 국왕으로부터 서적을 下賜받으면서 가능하였다. 서원의 건립 초기에는 서원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유지, 확대할 필요가 있던 시기였기에 서적의 구매에 소용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은 그만큼 서원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하여 서원의 지위를 격상하고, 경제적 보조를 받기 위해 서원의 건립과 동시에 사액을 청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갔다. 한편 조정에서는 교육을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소수서원 이래로 사액과 동시에 서책을 하사하는 것이 관례였고, 이처럼 서로의 이해가 맞으면서 초창기 서원들은 사액시에 서책을 하사받아 서원 장서를 늘려갔던 것이다.

이러한 내사본은 책 첫 면에 내려준 연도와 날짜 및 ‘內賜’를 표기하여 나라에서 특별히 하사했음을 표시하였다. 또한 서원 장서 중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하여 별도의 궤에 넣어 두었고, 서원에 따라 御書閣 등의 별도 건물을 지어 보관하기도 했으며, 열람시에는 반드시 再拜를 하는 의식을 행하였다.⁹⁵⁾ 그러나 기증과 宣賜에 의한 장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의 증가와 장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서원 자체에서 경비를 들여 서적을 구매하기도 하였으며, 원규 등을 통해 서원 장서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였다.

2) 구입과 등서(筆寫)

도서 구입은 서원에서 필요한 장서를 수집하는 방법 중 비교적 손쉬운 것이지만 자금마련이 쉽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국왕의 내사본 내지 지방 관아와 개인의 기증에 의한 서적 입수는 서원 경제에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증에 의한 것은 서원에서 필요한 서적만을 선택할 수 없기에 부득이 구매에 의한 장서 마련이 뒤따랐다. 소수서원이 건립 당시 다량의 銅器가 수습되어 그것으로 일부 도서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임고서원에서 건립 초기에 다수의 사림들이 서울에 올라가 서적을 구매하려 다녔다는 사실⁹⁶⁾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서원을 건립할 당시 장서의 수집 방법은 주로 구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사액 서원의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경제적 지원과 서적의 하사라는 것도 없었기에 더욱 서적을 구비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조선후기 서원의 남설 과정에서 많은 서원이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고, 제향의 기능만을 갖춘 것도 서적을 구매하고 교육기능을 유지할 재정의 부족이라는 측면도 컸을 것이다.

그러나 사액서원의 경우에도 형편이 좋지만은 않았다. 사액이 되면 편액과 함께 서책이 반질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조선후기 들면서 사액서원의 증가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문묘종사대헌 내지 충절인을 제향하는 사액원사에 한정해서 서적을 반질하였던 것이다.⁹⁷⁾ 일례로 경주 서악서원의 경우 1623년(인조 1) 사액되었지만 『고왕록』을 보면 ‘買藏’, ‘印藏’, ‘寫藏’ 등의 방법으로 그 이후에도 꾸준히 서적을 구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전의 구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서 사액 당시 사서오경과 성리서 등을 하사하던 이전의 특전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적 수요량이 폭증하는 상황과는 달리 공급량이 부족했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임란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파탄과 조정에 보관되어있던 서적들의 소실⁹⁸⁾ 등으로 조정에

95)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역사학보』 186, 2005, 8쪽.

96) 趙稜, 『慕庵先生文集』 권3, 「通列邑書院文(道南洞主時)」. 영천의 사림들이 포은선생의 서원을 건립할 때 서울에 와서 서적을 널리 구하였는데, 퇴계선생이 그 뜻을 가상히 여겨 內賜받은 『性理群書』 1질을 기증하였다고 한다.

97) 『영조실록』 권127, 부록 영조대왕행장.

98)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11일(정해); 권117, 선조 32년 9월 25일(신미); 권134, 선조 34년 2월 24일(계사); 권212, 선조 40년 6월 16일(정미).

서도 이를 충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왕명으로 옥산서원에서는 경전 23권을 홍문관에 진상하기도 하였다.⁹⁹⁾ 서적이 부족한 상황은 중국에서의 구입과 私家에서의 입수 및 교서관을 통한 인출로 완화되어 갔다.¹⁰⁰⁾ 하지만 사액서원의 증설로 모든 사액서원에 대한 서적 반질 요구를 조정으로서도 수용하기 힘들었다.¹⁰¹⁾ 그 결과 영조대부터 문묘중사 대현을 모신 서원만 간혹 서적을 내려주는 경우가 나타났다.¹⁰²⁾ 전란 직후 중앙정부의 서적 부족현상은 지방관 및 서원, 문중 등에도 영향을 주어서 기증에 의한 서적 입수는 줄어들게 되었고, 반면 구매가 늘어갔다.

옥산서원은 주로 기증과 간행에 의해 장서를 구비했기에 구매에 의한 사례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17세기 말 제작된 『역학도설』이 필사본이고, 1755년에 『맹자』를, 1782년에는 『예기』 당판본 10권을 구매하였다. 18세기에 경주부와 감영에서 『소학』, 『시전』, 『서전전문』, 『서전대문』 등을 간행하여 보내왔지만 강학에 필요할 경우 구매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刊所別備冊價錢傳與記』(1756-1762)는 18세기 중반의 사정을 알려준다.

이를 보면 옥산서원에서는 1756년 『사기평립』을 7냥에 구매하고, 이듬해인 1757년에 『포은집』을 1냥에 추가 구입하였다. 같은 해 겨울에는 『예기』를 서적으로 완비된 것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종이값과 謄書비, 인쇄에 필요한 墨값을 치렀듯이 등서하였다. 표지를 꾸미는 裝黃價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옥산서원에서 筆寫本을 직접 제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봉집』과 『언행통록』도 종이값만 지불한 것으로 보아서 마찬가지로 印出만 한 것으로 보인다. 1762년 정월에는 이항복이 편찬한 『노사영언』에 대해 11냥의 책값을 지불하였는데 謄寫한 글을 잘 써서 5냥의 종이값을 지불하고 그냥 두었다고 한다. 이처럼 책을 구비하는 방법으로 인출 외에도 謄書(筆寫)의 방법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같은 달에 11냥을 들여 서울 康陵에서 『禮記』를 추가로 구매하였다. 그리고 1782년에도 唐板本 『예기』를 구매한 것으로 볼 때 당시 옥산서원 교육에서 『예기』가 필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를 보면 ‘新備’로 기록된 것이 있다. 새로 갖추었다는 것인데 신간 도서를 나타낸다. 新備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문집은 기증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문집을 제외한 『史略』, 『周禮』, 『柳文』 등이 보인다.¹⁰³⁾ 이외에도 드물지만 상호 교환을 통해 필요한 서적을 구비하기도 했다. 옥산서원은 1734년에 『家禮』 2권(1질)과 『近思錄』 4권(1질)을 교환하고¹⁰⁴⁾, 1745년에는 『抄史略』 2권과 『歷代捷錄』 2권을 교환하였다.¹⁰⁵⁾

99) 『열읍원우사적』 경상도 옥산서원 고적.

100) 『광해군일기』 권19, 광해군 1년 8월 24일(임신) ; 권27, 광해군 2년 윤3월 20일(을축) ; 권27, 광해군 2년 윤3월 22일 ; 권35, 광해군 2년 11월 20일(신유), 22일(계해) ; 권54, 광해군 4년 6월 3일(병인) ; 권106, 광해군 8년 8월 4일(임인) ; 권113, 광해군 9년 3월 19일(갑신) ; 『인조실록』 권21, 인조 7년 8월 17일(기사) ; 『효종실록』 권14, 효종6년 3월 8일(기사) ; 『숙종실록』 권40, 숙종 30년 10월 13일(경진) ; 『영조실록』 권39, 영조 10년 12월 20일(신유) ; 권51, 영조 16년 6월 3일(임신) ; 권97, 영조 37년 3월 23일(임술)

101) 윤희면, 앞의 논문, 2005, 9~10쪽 참조.

102) 김윤식, 「조선조 서원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2008, 303~304쪽 참조.

103) 『전여기』에는 서적 외에도 서원 운영 과정에서 생성된 필사본도 서적의 한 종류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서책기』에는 서원에서 생성된 필사본은 제외하고 있다. 1760년 『전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臚錄』과 1745년 『전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院規』 및 서원 건립시부터 작성된 『심원록』은 『서책전여도록』에 기재되어 있다. 서원의 중요 방문객의 명단인 심원록은 서원의 대외적 인망을 증명하는 것이며, 원규와 등록은 서원 운영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4) 『전여기』 갑인(1734) 2월.

3) 출판

서적은 간행 주체에 따라 官板과 私板으로 구분하는데, 관판은 간행 주체를 중앙과 지방으로 구별하여 중앙판과 지방판으로 나눌 수 있고, 사판은 寺刹板, 書院板, 私家板으로 분류된다.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저술된 문헌의 보급을 위해서는 서책의 간행이 필수적이었다.¹⁰⁶⁾ 경주지역은 신라의 古都이자, 고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관판 내지 사찰판의 출판문화가 발달하여 많은 서적이 간행된 곳이었다.¹⁰⁷⁾ 조선전기에는 국가 정체성의 확립과 유교문화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주도의 관판이 출판문화의 중심을 이루었지만, 17세기 중반이래로 문중 의식의 고취와 서원의 증가 등에 힘입어 출판문화의 중심이 사판 그 중에서도 서원판과 사가판으로 이동되어 갔다. 경주지역의 경우 그 중심에 옥산서원이 있었다.

도서를 간행하는 일은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에 경제적 기반이 미약한 서원에서는 이의 추진이 어려웠다. 그래서 초기 서원에서 간행된 판목은 평안도 中和의 淸涼書院에서 1566년(명종 21)에 『근사록집해』, 『漢書傳抄』와 1568년(선조 1)에 『古史通略』을 간행하였고, 1574년에는 성주 川谷書院에서 『薛文淸公讀書錄要解』와 『朱子書節要』를, 1581년 서천 鳴谷書院에서는 『標題句解孔子家語』, 『新刊素王事紀』 등만이 확인된다.¹⁰⁸⁾ 이후 서원의 확산과 국가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서원제도가 확립되었듯이 서원에서의 간행 비율도 함께 높아졌다. 이것은 1796년 徐有渠의 『鏤板考』에 수록된 ‘서원판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책에는 전국 84개 서원의 185종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중 도산서원이 17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옥산서원, 논산 魯岡書院으로 7종이 수록되어 있다. 경주에서는 그 외에도 구강서원 3종, 서악서원 2종, 동강서원과 용산서원이 각 1종씩 보인다.

옥산서원에서 간행된 서적은 『전여기』와 『東京雜記』(1670), 『루판고』(1796), 『金鰲勝覽』(1936)을 통해 그 대강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⁹⁾ 옥산서원에서는 서적을 출판하기 위해 별도의 ‘刊所’를 속사인 정혜사에 두고 운영하였는데, 인출에 사용할 책판도 정혜사에서 보관하였다.¹¹⁰⁾ 1670년 『동경잡기』를 보면 당시 정혜사에는 『구경연의』·『구인록』·『金南窓所書元朝五箴及太極問辨』·『대학보유』·『梅月堂四遊錄』·『봉선잡의』·『櫟翁稗說』·『益齋集』·『抄漢書』·『태극도설』·『韓濩所書赤壁賦』·『회재문집』·『晦齋所製退溪所書十六詠及元朝五箴』·『孝行錄』 등 14종의 책판이 있었다. 이중 경주부에서 간행한 『매월당사유록』, 『역옹패설』, 『적벽부』, 『효행록』, 『익재집』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다. 1711년부터 1793년까지 작성된 『전여기』를 보면 책판의 종류가 31종에서 12종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1748년을 기점으로 옥산서원 판본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효행록』, 『심경』, 『익재집』, 『역옹패설』, 『익재화상』, 『동경지』 등은

105) 『전여기』 율축(1745) 12월 25일.

106) 박장승, 「경주 소재 서원·사에서 간행한 전적고」 『신라문화』 19, 2001.

107) 남권희, 「조선시대 경주 간행의 서적」 『신라문화』 33, 2009.

108) 천혜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2006, 240쪽.

109) 옥산서원 간행 판본과 책판 등은 박장승, 앞의 논문, 2001 및 윤상기, 「경주 옥산서원판본에 관한 연구」 『東義論集』 38, 동의대학교, 2003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110) 정혜사는 1572년 옥산서원 창건과 동시에 속사로 정속되어, 1834년 11월 화재로 소실될 때까지 옥산서원의 서적 간행 및 책판보관, 유생 공궤 등 인적·물적으로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서원에서 刊役을 시행할 때는 간소를 사찰 내에 두어 운영하였다.(『文集刊役記事』, 1744)

경주부에서 판각한 것으로 改版을 위하여 잠시 옥산서원에 보관했던 것이다. 1796년의 『누판고』에는 옥산서원에 소장된 책판으로 『구인록』·『근사록』·『대학장구보유』·『봉선잡의』·『중용구경연의』·『태극문변』·『회재집』 등 7종이 확인된다. 1936년 『금오승람』에서는 1670년 정혜사 소장 책판 14종 외에 『東史纂要』, 『晦齋別集』 등이 새로 확인된다. 이중 『동사찬요』는 1609년 경주부에서 간행한 관판본이며, 『회재별집』은 필사본으로 전해오던 것을 1934년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다. 『금오승람』에는 정혜사 소장 책판이 옥산서원으로 옮겨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1834년 정혜사가 화재로 전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옥산서원에 소장된 『전여기』 등에 보이는 책판을 모두 망라하면 『구경연의』, 『회재선생문집(구)』, 『회재선생문집(신)』, 『대학장구보유』, 『근사록』, 『구인록』, 『봉선잡의』, 『대원조오잠』, 『십육영』, 『태극문변』, 『改正大學』, 『원조오잠(구)』, 『收心良性風松寒竹』 등 회재와 그의 저술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東京誌』, 『익재집』, 『역용패설』, 『익재화상』, 『효행록』, 『심경』, 『大屏風』, 『小屏風』, 「구인당」 현판, 「해월루」 현판 등이 있었다. 『동경지』는 1669년(현종 10) 경주부사 閔周冕이 진사 李塚 등과 함께 편찬한 『동경잡기』를 1711년(숙종 37) 경주부윤 남지훈이 재간행하면서 인출을 옥산서원 측에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대학』은 1602년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었는데, 앞선 기록들에서 누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¹¹⁾

요컨대 옥산서원에서 간행된 목판은 옥산서원 경각과 정혜사 별고에 分藏하고 있었으며, 인쇄내지 개판을 위하여 수시로 옮겨졌다. 경주부에서 간행한 일부 책판도 이 두 곳에 보관되기도 했는데, 1748년을 전후한 시기에 익재와 관련된 책판은 구강서원으로 옮겨지고 옥산서원에는 회재와 관련된 책판만이 남게 되었다. 특히, 『회재집』은 1575년 경주부에서 초간한 이래 1600년에 다시 중간하였고, 이후 3刊(1624)부터 10刊(1926)까지는 옥산서원에서 간행하였다.

Ⅲ. 옥산서원 아카이브의 보존·관리 노력

옥산서원은 도산서원과 더불어 현재까지 가장 많은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 서원 중 하나이다.¹¹²⁾ 이것은 건립 이래로 도서의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썼기에 가능했다. 옥산서원에는 원임의 인수인계서나 포쇄시에 작성한 『傳與記』, 『書冊記』, 『書冊(傳與)都錄』 등의 자료가 남아있어서 장서의 수와 서책 관리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책의 『서책(전여)도록』에는 서적 관리에 대한 원칙을 적은 「임신년 9월 부윤 완문」과 「임자년 치제시 예관문」, 「임술 5월 1일 당중 완의」가 있다.

1752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임신년 부윤 완문」은 옥산서원의 서책 編囊이 많고 또 宣賜된 것도 많은 것은 서원을 건립할 초기에 ‘不出院門’ 하는 節目을 정하여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1권도 闕失하는 폐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0여 년부터 관가로부터 혹 책자를 살펴볼 것이 있다고 서원에 下帖하여 매번 輪上 왕래하는 사이에

111) ‘구인당’ 현판은 1711년 이전에 改刊하고, 原板은 經閣에 보관하였으며, 1748년 이후 대소 ‘병풍’ 판도 경주부 판목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다. 청하 ‘해월루’ 현판은 중수시에 청하 현감 鄭岐胤(재위:1692~1702) 推去해 갔다.(『전여기』, 신유(1711)).

112)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2012.

편질이 훼손되거나 혹 오랫동안 推尋하지 않아서 서실되기에 이르렀다고 당시의 사정을 말하고 있다. 이에 사림의 백년 成規를 이 해에 嚴截하니 官長 또한 인편으로 책을 빌려보는 것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다.¹¹³⁾

실제 현전하는 옥산서원 『원규』에는 반드시 책을 갖춰 책을 넣어 보관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흩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적의 점검을 강조하고 있다.¹¹⁴⁾ 부윤의 완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원규는 대체로 잘 지켜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1권의 서실도 없이 전해질 수 있었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관가에 의해 서적의 훼손 내지 서실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당시 부윤의 이런 지적은 「전여기」내의 서적 대여 및 분실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표 4>은 전여기내의 기사를 정리한 것으로 옥산서원의 경전과 성리서 및 문집 등이 경주부로 반출되고 있음을 ‘官入’, ‘入府’로 표기하고 있다. 1753년에는 대규모의 서적들을 서실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완문에서 언급한 대로 경주부에서 빌려간 뒤 오랫동안 추심하지 않아서 서원의 기록에는 누락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 이전의 대여 기록은 관명에 의해 반출되었다가 돌려받았기에 미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주부윤의 완문이 있었음에도 이후 경주부로의 서적 대출은 계속 진행되었다. 서원 운영에 필수적인 원숙, 전답, 노비 등에 대한 면역, 면세 등의 각종 혜택이 부윤의 재량에 달려있었던 만큼 부윤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전임 부윤의 명령을 후임 부윤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도 없었기에 이 완문은 사족들에게만 영향력을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도 현전하는 각종 자료에서 19세기 이전에 사사로이 서적을 빌려간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서적이 필요할 경우 서원에 공식 요청을 하면 堂中에서 회의하여 서적을 보내거나 인출하였다. 즉 서적의 반출에 그만큼 엄격했음을 알 수 있다.

완문에도 불구하고 부윤의 서적 반출 요구가 계속되자 옥산서원 측은 1792년(임자) 치제시에 예관(李晩秀)이 전달한 경연석 상에서의 국왕의 말을 부기하여 관에 의한 서적반출을 엄금하였다.¹¹⁵⁾ 즉 옥산서원에서 ‘書院書冊不出院門’이라는 원규가 이미 있으니 국왕이 책을 보고자 한다면 명을 내려 책을 가져오게 하면 되지만, 이는 원규를 어기는 것이 되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옥산서원측은 이러한 왕의 말을 「전여도록」에 부기하여 관아를 비롯한 유력자들의 서적 반출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 이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데, <표 4>에서처럼 1792년 이래로 경주부로의 반출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4> 서적 대여 및 분실 내역

번호	연도	내역	비고
1	1709	원비 : 奉先雜儀 [齋任 權慶祚失]	전여기1
2	1734	원비 : 鶴峯續集(前任李文龍(1732.2~1733.8)傳與時失)	전여기6

113) 『書冊傳與都錄』 「壬申9월일 府尹完文」.

114) 『원규』(무침당 소장), “...五曰點書...不備則必置書 不點則必散...一邑幸子弟不得留滯胎弊不得擅便書冊...”. 옥산서원 ‘院規板’은 1716년(丙申) 8월 『전여기』에서 처음 나타난다. 이 시기는 17세기 말 원입직을 두고 적서간의 향전이 치열히 전개되던 때였다. 실제 그 여파로 1697년 『關西錄』 판목을 훼손하고, 계정을 서원에 귀속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던 시기로서 서원측은 서원 입록과 운영을 규정한 원규를 새롭게 정비하여 게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115) 『서책전여도록』, “壬子 致祭時 仕臣領 筵教云玉山書院書冊不出院門已爲成規良庸嘉爲然 予欲見之則必當與之以此傳諭于士子處如有可觀 冊子卽爲齋來”

3	1753	선사 : 全失 - 주역(26권), 시전(9권), 서전(18권), 춘추(8권) 失 - 孟子(1권), 중용(2권내 1권), 예기(31권내4권)	전여기14
		院備 : 全失 - 書傳(10권), 禮記(15권), 魯史零言(14권), 大學補遺(1권), 楚辭(4권), 圃隱集(2권), 退溪言行錄(6권), 鶴峯集(5권) 失 - 周易(11권내5권), 詩傳(17권내1권), 選賦抄評(4권내2권)	
4	1755	선사 : 맹자(7권 1질)-官入	전여기17
		원비 : 詩傳(17권내 7권)-官入, 詩傳諺解(14권내7권-官入) 退溪言行錄 - 7권내 4권(1질) 在堤澄	
5	1764	원비 : 西岳誌-前任不傳	전여기21
6	1765	선사 : 入府 - 논어(7권1질), 맹자(7권1질), 중용(1질), 대학(1질)	전여기22
		원비 : 入府 - 주역(13권), 주역언해(5권), 서전(10권), 시전(10권1질), 시전언해(7권1질), 맹자언해(7권), 논어언해(4권), 대학언해(1권), 서전언해(5권), 중용언해(1권)	
7	1775	선사 : 入府- 논어(7권), 맹자(7권), 대학(1권), 중용(1권)	전여기25
		원비 : 入府(潤月11日出來) - 周易(12권), 주역언해(5권), 서전(10권), 서전언해(5권), 시전(7권), 시전언해(7권), 맹자언해(7권), 논어언해(4권), 대학언해(1권), 중용언해(1권), 史略(7권), 통감(14권), 三韻通考(1권)	
8	1779	求仁錄(2권), 九經衍義(27권 3질) 代次還江界	전여기26
9	1783	선사 : 孟子(7권 1질)-入府	전여기31
		원비 : 詩傳(7권 1질), 詩傳諺解(7권 1질)-入府	
10	1792	원비 : 奉先雜儀 - 6권내 1권 忠淸道 柳生員求請送, 1권 無忝堂 還去, 1권 龍宮 茂村 李參議宅送去 還去[1790(庚戌)2월 堂中傳與時] 太極問辨(本院新刊本)-李佐郎持去前任時	전여기34
11	1793	원비 : 奉先雜儀(6권)내 1권 迎日官求請送, 1권 忠淸道 柳生員求請送, 1권 無忝堂 還去, 1권 龍宮 茂村 李參議宅送去 還去 / 奎華名選(1794(甲寅)正月自本府來)	전여기35
12	1798	宣賜 : 孟子 2卷 戊午(1798)失	書冊傳與都錄4

이렇게 서적을 잘 보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적의 서실과 훼손은 심해지고 있었다. 1836년(丙申) 1월 15일 전여할 당시에 당중¹¹⁶⁾에서 서적을 점검해보니 卷帙이 중간에 서실된 것이 많음에도 이전의 전여시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서, 기록에는 있으나 뒤로 전수할 때는 없어서 새로운 신·구입 간에 많은 다툼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書冊傳與記中前無來抄出’ 이라 하여 권질이 누락된 19종의 서적을 부기하고 있다.¹¹⁷⁾

1862(壬戌) 5월 1일 당중 완의¹¹⁸⁾에는 서원 서책을 ‘불출원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16) 『書冊傳與都錄』(經閣所藏書冊)「丙申 正月十五日 傳與時 堂中」.

117) 『書冊傳與都錄』(經閣疏狀書冊), 「書冊傳與記中前無來抄出」. “宣賜『孟子』(6卷前無), 『儀禮經傳圖解』(14卷內1卷前無), 『의례도』(9권내1권전무), 『程氏臥書』(2권내1권전무), 『孔子通紀』(2권내1권전무), 『馬史』(3권내1권전무), 『註唐詩』(10권내1권전무), 『選賦抄評』(6권내4권전무), 『小學講譜』(2권내1권전무), 『奉先雜儀』(5권내3권전무), 『九經衍義』(3질내1질전무), 『武陵集』(8권내1권전무), 『孤松集』(2권 전무), 『瓶窩集』(9권내1권전무), 『修庵集』(3권내1권전무), 『省吾堂集』(2권내1권전무), 『孝經』(1권 전무), 『太極問辨』(新備1권전무)”

118) 『書冊現在都錄』, 1862(壬戌) 5월 1일.

이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것으로서 퇴계가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 원규를 훼손하지 않고 받들기 위해 큰 글씨로 새겨서 經閣의 門楣에 달아 경계토록 하였다고 한다.¹¹⁹⁾ 그러나 근래에 도서의 임사의 서책을 전여하는 일이 사람이 적어 혹 빌려간 것을 잊거나 오래되어 돌려받지 못하고 散失한 것이 허다하다고 하였다. 이에 금번의 포쇄를 맞이하여 서적을 일일이 점검하여 현전하는 실제 수량을 파악하여 都錄을 새로 고쳐 경각에 보관한다고 했다. 이 후부터는 마땅히 古規를 지켜서 前轍을 밟지 말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서원의 귀한 책을 보고자 하는 자는 훼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任司를 경유하여 날짜와 사람, 책명을 기록한 후 열람을 하고, 열람이 끝나면 바로 반환하도록 했다. 그런데 즉시 반환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임사가 따로 더욱 독려하고, 遞任으로 傳受시에는 打點하여 책 수를 도록에 의거하여 확인했다. 혹 책을 잃어버리면 임사가 반드시 다른 것을 구하여 돌려놓도록 규정하였다. 이 완의는 서적의 관리에 있어서 임사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명시한 것이 특징인데 인수인계시에 서실된 서적의 책임소재로 분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것은 서적의 열람을 원할 시 임사를 경유하여 날짜와 대여자, 책명을 기록하면 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서적의 문외반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 서원 운영에 유력한 가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에서 나온 고육책이었다. 또한 책의 분실 내지 훼손시 그 책임이 임사에게 있으므로 인수인계시에 책의 대출여부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으며, 혹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옥산서원 「書冊借去秩」(庚子(1900) 5월 1일)에는 宅號로 기재되어 있어서 대여자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本洞, 內洞, 守城, 上里 등 서원 인근 마을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침당, 계정과 같이 회재 후손의 종가도 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서적의 주요 대출자들은 서원 인근에 거주하는 사족들로서 회재의 후손들이 중심을 이룬다는 것과 옥산서원이 인근 사족들의 지식문화 보급소로서 도서관적 기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IV. 옥산서원 아카이브의 주요 유물

현전하는 옥산서원의 주요 전적과 고문서, 현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문집간역기사』는 회재집 간행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면면과 그들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정서등록』은 옥산서원 초창기 경제적 기반의 변화와 연혁, 중요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인당중건일기』는 재사액과 치제 절차 및 공론 형성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들 자료는 사료적 가치가 높아서 역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1. 전적(典籍)

1) 삼국사기(三國史記) : 1573, 50권 9책, 국보 제322-1호

옥산서원에 소장된 『삼국사기』는 보물 제525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한국 최고(最古)의 관찬 사서이다. 또한 후대에 편찬된 역사서의 모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119) 옥산서원내에 남았던 「書院書冊不出院門」 현판에는 1840년(庚子) 仲春에 의견을 수렴하여 적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1792년(임자)에 정조가 경연석 상에서 한 이야기를 판각한 것이다.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은 전체 50권 9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 이면에는 ‘만력원년팔월일옥산서원상(萬曆元年八月日玉山書院上)’이라는 장서기(藏書記)가 있어 1573년부터 옥산서원에 소장되어왔다.

2)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 : 1547~1553, 필사본, 1책

조선 중종 때의 유학자이며 정치가인 회재 이언적(1491~1553)이 1547년에서 1553년 사이에 직접 쓴 원고본이다. 이 책은 송의 주희가 지은 『대학혹문(大學或問)』에서 언급하지 않은 항목을 추가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의 권수에는 ‘御製題先生正續大學或問’라는 정조의 친필 머리글과 함께 ‘내가 등극한 18년 갑인년에 쓴다’는 기록이 있다. 책의 권수에는 “奎章之寶”라는 인기(印記)가 있다.

3) 국조유선록(國朝儒先錄) : 1570, 4권 4책, 내사본

이 책은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 등 사현(四賢)의 행적에 대하여 엮은 것이다. 부제학이었던 유희춘(柳希春)이 1570년에 국왕의 명령으로 편찬하게 되었는데, 유학을 숭상하고 이단을 배척한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을 모방하여 정몽주 이후로 성리학에 정진한 사현의 기록을 모았다.

4) 대학장구대전(大學章句大全) : 1579, 1책, 내사본

주희(朱熹)의 『대학장구(大學章句)』가 처음 한국에 반입된 것은 고려후기로 알려져 있고, 그 간행은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기록상 최초의 국내 간행은 1423년이며 현존하는 판본들로 미루어 조선시대 전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옥산서원 소장의 이 책은 “반사만력칠년이월일옥산서원상(頒賜萬曆七年二月日玉山書院上)”이라는 내사기(內賜記)가 있어서, 1579년에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5) 번역소학(翻譯小學) : 16세기 간, 영본 2책

1518년 통문관(通文館)의 계(啓)에 의하여 김전(金詮)·최숙생(崔淑生) 등이 왕명으로 『소학』을 알기 쉽게 번역하여 간행한 책이다. 소장본은 권3·8·10의 2책으로 현재까지 6~10권까지는 알려져 있으나 권3은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자료이다. 선조 때의 언해본이 직역이 많은 것에 비하여 의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임진왜란 이전의 한글 자료로 방점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권10의 발문에는 정사룡(鄭士龍), 소세양(蘇世讓)을 비롯한 당대의 유명 학자들 구성된 간행 참여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옥산서원(玉山書院) 소장의 이 책은 15세기 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책을 다시 번각하여 16세기에 간행된 것이다.

6) 비아(埤雅) : 16세기 초, 20권 5책, 내사본

이 책은 주공(朱公)의 『이아(爾雅)』를 증보한 유서(類書)로 편찬자는 송나라의 월주산음인(越州山陰人) 육전(陸佃:1042-1102)이다. 책의 편찬은 육전(陸佃)이 신종(神宗)의 명을 받아 이루어졌고 본문은 석훈(釋訓)·석친(釋親)·석수(釋水)·석초(釋草)·석목(釋木)·석충(釋蟲)·석어(釋魚)·석조(釋鳥)·석수(釋獸)·석축(釋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주갑인자로 인출된 이 책은 권수에 회재 이언적(李彦迪: 1491-1553)에게 내려진 내사기록과 보자가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중종(中宗) 연간 16세기 초에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7) 주자대전(朱子大全) : 1543, 95권 95책, 내사본

이 책은 남송(南宋)의 대학자인 주희(朱熹)의 시문집(詩文集)으로 95권 95책으로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1543년 왕명에 의하여 교서관(校書館)에서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주자대전』 초간본(初刊本)이다. 옥산서원 소장본은 이 초간본을 내사한 것으로서 완질로 남아있다.

8) 주자어류(朱子語類) : 16세기초, 140권 75책, 내사본

이 책은 송(宋)나라 여정덕(黎靖德)이 1270년에 주자와 문인 사이에 행하여진 문답의 기록을 분류하고 다시 편찬하여 엮은 것이다. 옥산서원 소장본은 1516년 임시로 설치된 주자도감(鑄字都監)에서 주조한 병자자(丙子字)로 이루어졌다. 옥산서원에는 현재 완질이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임진왜란의 주자어류서 간행에 참고가 되었던 것이다.

9) 한서(漢書) : 16세기 초, 영본 50책, 수택본

후한(後漢)의 반표, 반고, 반소 등이 편찬하고 안사고가 주를 붙인 책으로 전한(前漢) 고조(高祖)에서부터 왕망에 이르기까지 229년간의 역사서이다. 이 책은 16세기경에 초주갑인자로 찍었으며, 중간에 부족한 활자를 목활자로 보충하여 찍은 것이 확인된다. 권수(卷首)에 ‘회재(晦齋) “라는 인(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언적의 수택본(手澤本)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고문서

1) 제향·의례

(1) 치제시일기(致祭時日記) : 1792, 1책

정조가 이언적이 저술한 『대학장구보유』를 옥산서원에서 빌려 읽고, 그 서문을 직접 써서 돌려주면서 치제했을 당시의 사실을 기록한 일기이다.

(2) 사제운(賜祭韻) : 1781, 1건

정조가 옥산서원과 도산서원에 사제했을 당시에 작성한 것으로 남애(南厓) 이진원(李晉遠) 지었다.

(3) 홀기(笏記) : 16세기 · 1839, 2건

옥산서원 건립시 작성한 홀기와 1839년 재사액 당시에 작성한 홀기이다. 만력 연간의 홀기는 축문(祝文)과 향례시 의절에 대하여 적고 있다.

(4) 제문(祭文) : 1792 · 1781 · 1839 · 1840, 4건

1792년의 치제, 1781년의 사제, 1839년 재사액 및 1840년 강당 낙성식에 작성한 제문.

(5) 제수단자(祭需單子) : 1901 · 1905 · 1909 · 1910, 4건

1901년 11월의 회재 이언적 불천위와 1905년, 1909년, 1910년의 춘추 향사에 사용된 제수 품목을 적은 단자이다.

2) 강학

(1) 입학기(立學記) : 1649, 1책

1649년 유생들의 입학과 교육활동을 기록한 장부로 유생 30명을 5명씩 6학(學)으로 나누어 성명을 기재하였다. 입학 후에는 거제활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5일간 기숙하며 송시(誦詩)와 독서(讀書)를 했다. 또한 강회 참석과 거제 태도를 평가하여 정도에 따라 벌을 주었다.

(2) 천안(薦案) : 1734 · 1771 · 1805 · 1827 · 19세기 초, 5장

1734년부터 19세기 초까지 5장의 천안이 남아있다. 1734년 옥산서원 유생으로 천거된 32명의 명단과 천주(薦主)를 기재한 문서이다. 천주는 현관 · 원임 · 원유(院儒)들로서 각자 2~15명의 유생을 춘추 향사와 도회(道會) · 당회(堂會) · 향회(鄉會)시에 천거하였다. 천거 유생 명단 아래에는 고강(考講)과 생원 · 진사시 합격 여부를 표기하고 있다.

(3) 강지(講紙) : 1802, 1장

1802년과 1817년에 실시한 고강(考講)의 성적 기록부로서 시험 과목은 중용 · 대학 · 소학 · 가례 등으로 성적에 따라 통 · 약 · 조 · 불로 나누고 각 과목의 성적 아래에 채점자의 서압을 하였다. 당시 옥산서원의 기본 교재를 확인할 수 있다.

(4) 산당거접등록(山堂居接騰錄) : 18세기 후반, 1책

신묘년과 갑오년의 거접시에 지켜야할 생활 규범과 거접시 모금한 자금의 활용에 대하여 기록한 성책이다. 과거시에만 시행하던 거접을 매년 시행하면서 생기는 폐단을 감당하기 어려워 산당에서 거접을 실시하게 된 사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거접 유생들을 공궤하고 시중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유지를 위해 식리하여 전답을 구매했음을 알 수 있다.

3) 운영(원임 · 재정)

(1) 정서등록(呈書騰錄) : 1588~1683, 1책

1588년부터 1683년까지 옥산서원 유생들이 감영, 병영, 경주부와 여러 읍에 청원한 문서 46건을 필사하여 성책한 것이다. 내용은 노비, 전답, 속집, 속사, 선척(船隻), 염부(鹽釜), 어부(漁夫)·격군(格軍)·염간(鹽干) 등의 사급(賜給)과 면역(免役)·면세(免稅)에 관한 것으로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기반 형성과 운영 실태를 알려주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시대 각 서원에서는 이처럼 당시 생성된 많은 문서들을 보관상의 이유로 필사하여 성책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옥산서원 관노비안(玉山書院 官奴婢案) : 1578, 1책

1578년 4월 경주부에서 받은 관노비들의 명단이다. 고직(庫直) · 도척(刀尺) · 반모(飯母) 각 1구와 속공노비(屬公奴婢) 14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옥산서원 건립 초기의 노비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지방관의 협조가 서원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3) 전여기(傳與記) : 1703~1796, 56책

옥산서원 원임의 교체시에 작성한 인수인계 장부로 서책·제복·제기·유기(鑰器)·철물·신물(新物)·포진(鋪陳)·목기와 각종 문서, 책판 등의 목록이 적혀 있다. 이외에도 간소(刊所), 서책(書冊)전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전여기를 포함하여 모두 56책이 전한다.

(4) 고왕록(考往錄) : 1816~1873, 1책

19세기 옥산서원의 역사를 간략히 기록한 자료로서 연월일 순으로 주요 서원 내방자와 기부 목록, 건물의 수리 및 중건, 향사, 향회(鄉會) 등을 기록하고 있다.

(5) 구인당중건일기(求仁堂重建日記) : 1840, 1책

1839년 1월부터 1840년 3월까지 화재로 소실된 구인당을 중건하면서 일어난 일들과 중건 과정을 시간 순으로 기록한 일기로서 이해상(李海祥)이 정리한 것이다. 강당 중건을 위한 논의와 건립의 과정을 기록한 강당중건일기(講堂重建日記)와 재사액이 진행되면서 사액 의례와 관련하여 작성한 연액일기(延額日記)·치제일기(致祭日記)·계액일기(揭額日記), 그리고 낙성시의 낙성시일기(落成時日記)로 구성되어 있다. 19세기 초반 강당 중건을 둘러싼 경주부내와 도내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당시 옥산서원의 사회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6) 옥산서원강당중건시출물치부(玉山書院講堂重建時出物置簿) : 1839, 1책

1839년 2월 경주 서악서원에서 향회(鄉會)를 열어 옥산서원 강당 중건을 결의하고, 경주부내의 향교, 서원, 사우 및 54개 문중에서 건물 중건비를 분배한 장부이다. 본손들의 경우 생활 형편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뉘 30냥에서 1전까지 거두고 있음이 주목된다. 옥산서원에는 구인당 중건시에 작성된 일기 외에도 『講堂重建時鄉中出物置簿』·『重修錢冊』·『重修錢捧上記』·『鄉中錢入記』·『道內錢入記』·『賜祭時都廳下記』·『揭額時都廳下記』·『額板祇延時都廳下記』·『重修米下』 등의 각종 성책이 남아있어서 19세기 초반 향촌사회에서의 상호협력 방안과 당시 물가 경제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7) 호구단자(戶口單子) : 1762, 1장

옥산서원 수노(首奴) 석노(石老)가 1762년에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서원 소속 노비 162구의 이름, 나이, 출생년, 거주지, 부모, 혼인관계 및 매득(買得), 도망(逃亡), 환현(還現) 등을 표기하였다. 노비들은 옥산리를 중심으로 한 경주부뿐만 아니라 영천, 밀양, 울산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18세기 후반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확인할 수 있다.

4) 출판 (서적관리·인쇄·대여 등)

(1) 간역시도기(刊役時到記) : 1786, 1책

『태극서(太極書)』찬집과 변무록(辨誣錄)를 간역할 당시의 도기(到記)로서 56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2) 문집간역기사(文集刊役記事) : 1744, 1책

회재선생문집을 중간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중간 작업에 참여한 자들이 이를 기념하여

남긴 시(詩)가 부록되어 있다.

(3) 서책전여도록(書冊傳與都錄) : 1752, 2책
원임 인수인계시 작성한 옥산서원 소장 서책 목록이다.

(4) 옥산서원서책도록(玉山書院書冊都錄) : 20세기 중반, 1책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옥산서원 서책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5) 서책현재도록(書冊現在都錄) : 1863~1918, 1책
옥산서원 소장 서책을 포괄하면서 작성한 장서 목록이다.

(6) 서책차거록(書冊借去錄) : 1906, 1책
옥산서원의 장서를 빌려간 가문 명단과 반납일을 기록하고 있다.

(7) 반질기(頒帙記) : 1934, 1책
회재선생별집을 간행한 후 이를 100여 개의 문중, 서원, 사우 등에 배포한 명단이다.

5) 향촌사회

(1) 심원록(尋院錄) : 1573~1922, 106책
옥산서원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외곽 사림세력의 범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다. 이 책은 서원 내방인사가 자필 서명한 일종의 방명록으로, 기재순서는 직위(본관), 인명, 거주지, 내방일 순으로 되어 있다. 심원록은 등재 여부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기재된 인사는 당시 서원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당시 옥산서원의 인적교류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옥산서원은 심원록은 천자문(千字文)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玄·宇·荒·陽·爲·師 등이 缺秩이다. 일부는 뒷부분이 탈락된 경우도 있지만 1573년부터 1922년까지 약 37,2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현재 총 106책이 남아있다.

(2) 본향심원록(本鄉尋院錄) : 1756~1995, 58책
본향심원록은 경주부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방명록이다. 원래 서원에 따라서는 심원록에 「本府人勿許濫書」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옥산서원에서도 초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었던 것 같다. 본향심원록을 작성한 목적은 첫째, 후생들에게 본읍 인사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과 둘째, 서원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원복(院僕)들의 비리를 단속하기 위해서였다. 본향심원록은 1756년에 처음 작성되어 1995년까지 총 58책이 현존하는데, 여기에 등재된 인사는 당시 경주부내 대표적인 사족인 양동의 손이씨가 주축이 되고 있다.

(3) 통문(通文) : 19세기~20세기 초, 260건
발행처는 대체로 서원·향교 및 각 문중이었는데 그 범위는 경상좌도 전역에 집중되어 있다. 통문의 내용은 서원건립과 배향·추향문제, 道會개최, 승무운동, 중건·중수 및 문집 중간부조, 충효열에 대한 표창 문제 등이며, 19세기중반 이후에는 적서간과 사족상호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각종 시비와 관련된 것이 많다.

(4) 복제개혁반대만인소(복제개혁반대만인소) : 1884, 1건

1884년 이재교(李在嶠)를 소수(疏首)로 8—849명이 서명한 복제개혁반대소이다. 이 상소는 12월에 발발한 갑신정변으로 복제개혁 자체가 취소되자 올리지 않았다. 길이는 약 100m로 서 완전한 형태로 현전하는 만인소로서 귀중한 자료이다.

3. 책판

옥산서원 소장 판목은 2004년 문화재청과 2007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일괄 조사하여 목록집을 발간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옥산서원에는 제향자 이언적의 문집인 『회재선생집』 외에도 『구인록』, 『대학장구』, 『봉선잡의』, 『태극문변』, 『중용구경연의』, 『근사록』, 『금과집』, 『임거십오영』 등 총 19종 1,121장이 책판이 소장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無忝堂文集』, 『龜峯先生遺集』, 『蒙庵先生文集』, 『太極圖說』, 『漢史列傳抄』 등의 책판이 있었음을 문헌과 판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책판은 없다. 또한 남아있는 책판도 결락이 많다.

번호	분류	명칭	수량
1	책판	구인록(求仁錄)	79
2	책판	대학장구(大學章句)	17
3	책판	봉선잡의(奉先雜儀)	13
4	책판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	9
5	책판	어제속혹문(御製續或問)	4
6	책판	태극문변(太極問辨)	38
7	책판	회재선생유묵(晦齋先生遺墨)	12
8	책판	회재선생집(晦齋先生集)	163
9	책판	회재선생집별집(晦齋先生集別集)	79
10	책판	회재집(晦齋集)	72
11	책판	조선총독부회등실(朝鮮總督府齋藤實)	1
12	책판	구경연의(九經衍義)	208
13	책판	구경연의별집(九經衍義別集)	142
14	책판	근사록(近思錄)	130
15	책판	금과집(琴坡集)	127
16	책판	원조오잠(대)元朝五箴(大)	9
		원조오잠(소)元朝五箴(小)	4
17	책판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	12
18	책판	입춘축문(立春祝文)	1
19	책판	천자문(千字文)	1
소계			1,121

발표 4

도산서원(陶山書院) 문헌자료의
현황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언: 광명(光明)한 인간과 세상

임근실(단국대학교)

도산서원(陶山書院) 문헌자료의 현황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언

임근실(단국대학교)

<목 차>

1. 들어가며
2. 고서
3. 고문서
4. 木板類
5. 나오며

1. 들어가며

조선시대 도산서원은 영남지역은 넘어 전국의 서원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이라 할 수 있다. 도산서원의 전신은 退溪 李滉(1501~1570)이 문인들과 독서·수양·저술 등 학술 활동을 하였던 陶山書堂이었다.¹²⁰⁾ 1570년(선조 3) 12월 8일 이황이 사망한 후 그의 學德을 추송하는 서원의 건립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1574년 이황의 문인들과 유림이 중심이 되어 서원을 창건하였고, 다음 해 賜額을 받음으로써 도산서원은 국가의 공인을 받았다. 도산서원은 이황의 위패를 모시는 尙德祠, 학문을 가르치는 강당인 典敎堂, 원생들이 기거하는 동서재와 進道門 등을 건립하였다. 이후 도서를 소장하는 光明室과 책판을 보관하는 藏板閣도 건립되었다. 도산서원에서는 다량의 藏書에 기반하여 학술 활동이 이루어졌고, 자체적인 서적의 편찬과 간행을 통해 지식 생산과 유통에도 영향을 끼쳤다.

조선 후기 도산서원은 지역의 首院으로서 학술 활동을 주관하였고, 수 많은 지식인의 탐방과 기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도산서원과 관련한 문헌자료는 여타의 서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가 남아있다. 그러나 도산서원은 비교적 근래까지 광명실에서 자료를 보존하였기에 서원의 문헌자료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2003년에 이르러서 도산서원운영위원회는 향운·향습이 가능한 한국국학진흥원에 도서와 책판을 비롯한 고문헌들을 기탁하였다.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자료는 고서 4,665책, 고문서 2,152점, 목판류 4,027점, 서화류 13점, 기타 105점 등 모두 10,962점에 달하는 많은 분량이었다. 이 자료들은 도산서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¹²¹⁾

고서	고문서	목판류	서화류	기타	합계
4,665책	2,152점	4,027점	13점	105점	10,962점

표 1 도산서원 문헌자료 및 유물 기탁 현황

그리고 약 10여 년의 세월을 걸쳐 학제간의 연구를 통하여 도산서원의 문헌 중 지식 생산과 관련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물들이 나왔다.¹²²⁾ 하지만 도산서원의 방대한 문

120) 도산서당: 이황은 1560년 3칸의 서당이 완성하였고, 이듬해 문인들의 숙소인 隴雲精舍가 완공되자 ‘도산서당’이라는 현판을 걸고 후학 양성에 매진하였다.

121)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해냄, 2021.

헌자료는 현재까지도 그 전모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¹²³⁾ 이 글에선 도산서원의 문헌자료 중 현존 및 목록상의 문헌을 모두 포함하여 낱장의 고문서 및 成冊 문서, 고도서의 전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서원 자체에서 생산한 문헌 및 각관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2. 고서¹²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도산서원의 문헌자료 중 고서는 총 4,665책이다. 4부 분류법인 經史子集으로 나누면 경부 600여 책, 사부 1,100여 책, 자부 400여 책, 집부 2,500여 책으로 집부 > 사부 > 경부 > 자부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판종별로 구분하면, 목판본 2,600여 책, 금속활자본 800여 책, 목활자본 500여 책, 석익본 300여 책 등과 필사본, 신연활자본, 영인본이 일부 확인되었다. 도산서원의 고서를 실물 자료와 서책 목록인 「光明室傳掌記」를 바탕으로 구분하면 內賜本, 刊行本, 寄贈本, 求入本, 易東書院 移管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內賜本

내사본은 王命에 의해 개인 또는 기관에 頒賜한 서책을 말하는데, 조선시대 도산서원으로 반사된 내사본은 모두 30종이다. 이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내사본은 국왕 宣祖가 1585년(선조 18) 7월에 반사한 『會纂宋岳鄂武牧王精忠錄』이다. 이외에도 선조는 經書를 금속활자본으로 인출한 『小學諺解』·『大學諺解』·『中庸諺解』·『論語諺解』·『孟子諺解』를 반사하였다. 5종의 경서 한글활자본은 그 전존본이 희귀하여, 조선 전기 금속활자의 인쇄문화 및 국어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조선후기에는 英祖와 正祖가 도산서원으로 서책을 반사하였다. 국왕 영조는 1774년(영조 50) 3월 24일 목판으로 간행된 『聖學十圖』를 반사하였다. 국왕 정조는 1793년(정조 17)에 금속활자인 丁酉字로 간행된 四書三經을 반사하였다. 그리고 정조가 朱子の 詩文을 선별하여 간행한 『雅誦』을 1799년(정조 23) 10월에 반사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도산서원에 서책을 반사하였다.

이외에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도산서원의 내사본 중 개인에게 반사한 내사본이 8종이 있다. 1570년 판중추부사로 있던 이황에게 반사한 『儀禮經傳通解』와 함께 반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儀禮經傳通解續』, 1588년과 1560년 李仲樑(1504~1582)에게 반사한 『文獻通考』¹²⁵⁾와 『通典』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22)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2013; 한국국학진흥원, 『조선후기 서원의 위상-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새물결, 2015.

123) 도산서원의 문헌자료에 대해서는 서지학과 역사학에서 주로 연구되었다(裴賢淑,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大東漢文學』, 대동한문학회, 2016;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裴賢淑, 「조선시대(朝鮮時代) 서원(書院) 각판본(刻板本)의 연원(淵源) 연구(研究)」,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 裴賢淑, 「陶山書院 刻板活動 研究」,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이병훈,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최우경, 「안동 도산서원 광명실의 장서관리」, 『안동학연구』 20, 한국국학진흥원, 2021.)

124) 도산서원의 고서와 관련한 내용은 한국국학진흥원의 도록(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해냄, 2021.) 및 사이트를 주로 참고하고, 이외에도 연구논저(배현숙, 이병훈, 임근실 등)를 참고하였다.

125) 『문헌통고』: 이증량은 농암 李賢輔(1467~1555)의 넷째 아들이다. 이증량이 반사받은 서적을 이황

	서명	판종	간행시기	수량	비고
1	주자어류	금속활자본 (병자자)	1575년		-「광명실전장기」 내사본 기록 *1575년 내사 *내사인 없음
2	주자대전	금속활자본 (을해자)	1575년		
3	논어집주대전	목판본	<15~16세기>		
4	대학장구대전				
5	성리대전서				
6	시전대전				
7	예기집설대전				
8	중용장구대전				
9	춘추호씨전				
10	서전대전				
11	회찬송악악무목 왕정충록	금속활자본 (재주갑인자)	1585년	(전)6권3책	-1585년 내사 -宣賜之記
12	소학언해	금속활자본 (경자 한글활자)	<1587년>	(전)6권4책	-1588년 내사 -宣賜之記
13	대학언해			(불분권)1책	-1590년 내사 -宣賜之記
14	논어언해		<1587~1590년>	(전)4권4책	-1590년 내사 -宣賜之記
15	맹자언해			(전)14권7책	-내사본 추정
16	중용언해			(불분권)1책	-1590년 내사 -宣賜之記
17	성학십도	목판본	1774년	(불분권)1책	-1774년 내사 -宣賜之記
18	논어집주대전	금속활자본 (정유자)	1793년	(전)20권7책	-1793년 내사 -奎章之寶 -內賜七書
19	맹자집주대전			(전)14권7책	
20	대학장구대전			(불분권)1책	
21	중용장구대전			(불분권)1책	
22	주역전의대전			(전)24권14책	
23	서전대전			(전)10권10책	
24	시전대전			(전)20권10책	
25	주서백선	금속활자본 (정유자)	1794년	(전)6권3책	-1794년 내사 -奎章之寶
26	어정규장전운	목판본	1796년	(전)2권1책	-1796년 내사 -奎章之寶
27	항례합편	금속활자본 (정유자)	1797년	(전)3권2책	-1797년 내사 -奎章之寶

이 대여하였다가 도산서원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책 속에서 ‘책 주인 영천 이 공간(公幹, 이증량의 字)이 진성(眞城) 이 경호(景浩, 이황의 字)에게 보라고 주다(冊主永陽李公幹 供覽眞城李景浩).’ 라는 기록이 있었다. 이후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관련 자료를 일괄 기탁하면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관리하였다. 하지만 2022년 도산서원운영위원회와 퇴계증가는 이황이 사망하기 전에 남긴 “빌려온 책은 모두 돌려주라”는 유지를 되새기며 반환을 결정하여 해당 서적은 농암중택으로 반환되었다.

28	춘추좌씨전	목판본 (번각)	<1797~1798년>	(전)27권10책	-1798년 내사 -奎章之寶
29	오경백편	목판본	1798년	(전)5권5책	-1798년 내사 -奎章之寶
30	아송	금속활자본 (임진자)	1799년	(전)8권2책	-1799년 내사 -奎章之寶
31	의례경전통해	금속활자본 (초주갑인자)	<선조연간>	(전)37권20책	-1570년 이황 내사 -宣賜之記
32	의례경전통해속		<선조연간>	(전)27권32책	-내사본 추정
33	궐리지		<16세기 초>	(전)13권13책	-1512년 병조판서 내사 -宣賜之記
34	문헌통고	금속활자본 (갑진자)	1558년	(영본)113책	-1558년 이증량 내사 -宣賜之記
35	통전	금속활자본 (을해자)	<중종연간>	(전)200권75책	-1560년 이증량 내사 -宣賜之記
36	대명일통지			(전)90권60책	-1564년 사헌부지평 내사 -宣賜之記
37	부석음주례주소			(전)42권22책	-宣賜之記
38	효경대의	목판본(번각)	1631년	(불분권)1책	-1631년 향교 내사 -宣賜之記

표 2 도산서원 內賜本 목록

위 표에서 순번 1~10까지는 「광명실전장기」에 내사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기탁된 실물자료 가운데 내사인이나 내사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제외한 조선시대 도산서원으로 반사된 내사본은 20종 169권 94책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이황과 이증량 등 개인에게 반사된 내사본 8종 411권 356책도 확인되었다.¹²⁶⁾

2) 刊行本

조선시대 서원의 여러 기능 중 서책을 간행하는 출판의 기능은 도산서원에도 적용되었다. 도산서원은 16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다양한 서책을 간행하였다. 도산서원에서 처음 간행한 서책은 1576년 목판본으로 간행된 『宋季元明理學通錄』¹²⁷⁾이었다. 도산서원의 서적 간행은 16세기 말엽부터 진행하여 1600년에 『啓蒙傳疑』·『眞城李氏族譜』·『退溪先生文集』을 간행하였다. 이후 1732년(영조 8) 『退溪先生言行錄』, 1734년(영조 10) 『朱子書節要』, 1772년(영조 48) 『溫溪先生逸稿』 등을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19세기부터 20세기에는 1895년 『溪山世稿』, 1909년 『蒙齋先生遺稿』와 『後溪集』, 1913년 『眞城李氏上溪派世譜』, 1914년 『陶山及門諸賢錄』, 1937년 『松齋先生文集別集』 등을 간행하였다. 아래는 도산서원에서 간행하였거나, 판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적을 간행연도 순으로 정리한 표이다.

126)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2021, 10~12쪽.

127) 『宋季元明理學通錄』: 이황이 朱熹를 비롯하여 宋·元·明의 성리학자의 略傳과 語錄 등을 간략히 정리한 서적이다.

	간행시기	서명	비고
1	1576년	『宋季元明理學通錄』	-간행 -1743년 도산서원 중간
2	1600년	『啓蒙傳疑』	-간행 -1894·1915년 중간
3	1600년	『眞城李氏族譜』	-간행, 오운 발문
4	1600년	『退溪先生文集』	-간행 -1600년(경자) 복각 책판 -1725년(갑진) 중간 -1817년(정축) 보각 -1843년(계묘) 중간
5	1607년	『古鏡重磨方』	-안동부사 정구 및 문인 -도산서원 판각
6	1609년	『經書釋義』	-경상감사 崔瓘의 지원 -도산서원 판각
7	1639년	『恥齋先生遺稿』	-간행
8	1662년	『月川先生文集』	-간행 추정
9	1665년	『龔巖先生文集』	-책판 수장, 『누판고』
10	1732년	『退溪先生言行錄』	-간행 -1867년 중간 -1905년 중간
11	1734년	『朱子書節要』	-간행 -1904년 중간
12	1768년	『誣書辯破錄』	-간행
13	1772년	『溫溪先生逸稿』	-간행
14	1772년	『溪巖先生逸稿』	-간행
15	1783년	『近始齋文集』	-각판, 『누판고』
16	1895년	『溪山世稿』	-판각 추정, 識文
17	19세기	『心經』	-간행, 通文
18	1900년	『松齋先生文集續集』	-간행 추정
19	1909년	『後溪集』	-판각
20	1909년	『蒙齋先生遺稿』	-간행
21	1913년	『眞城李氏上溪派世譜』	-간행
22	1914년	『陶山及門諸賢錄』	-간행
23	1916년 추정	『文純公退陶李先生墓碣銘』	-간행
24	1922년	『嶠南賓興錄』	-중간 -1792년 경상감영 주관 판각, 도산서원 책판 수장 -1796년 증보
25	1924년	『吾家山誌』	-간행 추정
26	1937년	『松齋先生文集別集』	-간행
27	무인년	『梅花詩』	-戊寅冬陶山書院刊

표 3 도산서원 刊行本 목록

3) 寄贈本

도산서원의 기증본은 이황의 문인 또는 후학들이 중앙 또는 지방의 관리로 재임할 때 보

낸 서책들이 많았다. 먼저, 具鳳齡(1526~1586)¹²⁸은 1576년(선조 9) 湖西 監司로 재임하며 『延平李先生師弟子答問』¹²⁹·『陶淵明集』¹³⁰·『陣法』 등을 기증하였다. 沈義謙(1535~1587)은 1577년 9월에서 1578년까지 湖南 監司로 재임시 『近思錄』¹³¹·『性理遺編』 등을 기증하였다. 周博(1524~1588)¹³²은 永川 郡守로 재임시 1581년 겨울에 『武陵雜稿』¹³³를 인쇄하여 도산서원에 기증하였다. 金誠一(1538~1593)¹³⁴은 1585년에 『退溪雜詠』과 『退陶先生自省錄』을 간행하여 도산서원으로 보냈다. 이외에도 崔興源(1529~1603), 金富倫(1531~1598), 權文海(1534~1591), 尹根壽(1537~1616), 柳雲龍(1539~1601), 柳成龍(1542~1607), 沈岱(1546~1592), 金晬(1547~1615) 등 이황의 문인 또는 후학들은 도산서원으로 서적을 기증하였다.

4) 購入本

도산서원에서 구입한 서적은 「광명실전장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구입한 연도의 干支, 買得, 買 등으로 표시하거나 院買得, 院買 등으로 표기했다. 도산서원의 구입본 중 희귀본은 『新增圖像小學日記故事大全』¹³⁵, 『資治通鑑綱目集覽鐫誤』¹³⁶, 『通典』, 『闕里誌』 등으로 전존본이 드물다.

3. 고문서¹³⁷⁾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국학진흥원으로 2,152점의 고문서를 기탁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유형	수량(점)	유형	수량(점)	유형	수량(점)
----	-------	----	-------	----	-------

128) 구봉령: 1545년부터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560년 별시 문과 을과로 급제하였다.

129) 『연평답문』: 李楨(1521~1571)이 淸州 牧使로 재임시 이황의 발문을 받아 1554년 겨울에 청주목에서 간행한 서적이다.

130) 『도연명집』: 忠州牧에서 간행한 서적으로, 1522년 7월 충주 목사 朴祥(1474~1530)의 발문이 권말에 있다.

131) 『근사록』: 1519년 여름에 鳳城精舍에서 간행한 것으로, 봉성은 전라남도 구례군의 옛 지명이다.

132) 주박: 周世鵬(1495~1554)의 아들로, 1579년 10월에서 1583년 10월까지 영천 군수로 재임하였다.

133) 『무릉잡고』: 주박이 家藏 草稿를 수합하고, 이황의 質正을 구하여 1564년 盈德 郡守로 재임시 초간본을 간행하였다. 이후 초간본을 원집으로 하고, 초간본에서 지외된 시문을 別集으로 편집하여 1581년 영천에서 중간하였다. 주박이 기증한 『무릉잡고』 제4책의 뒤표지 이면에는 “1581년 겨울에 도산서원에서 인쇄하여 보낸다[是年冬印送于陶山書院].” 라는 墨書가 있다.

134) 김성일: 1583년 8월 26일부터 1586년 11월 12일까지 羅州 牧使를 역임했다. 김성일은 나주에서 五賢을 제향하는 景賢書院을 건립하였다.

135) 『신증도상소학일기고사대전』: 도산서원에서 1588년에 구입한 完帙의 『신증도상소학일기고사대전』은 중국본을 16세기에 번각한 것이다. 이 서적은 조선에서는 1566년 錦溪 四字堂에서 간행된 초간본과 16세기와 17세기에 번각한 것이 있는데 현재 초간본과 번각본 모두 전존본이 희귀하다.

136) 『자치통감강목집람전오』: 이 서적은 조선 전기 주조된 금속활자인 乙亥字로 인출하였다. 도산서원에서 1754년에 구입하였는데 전존본이 희귀하다.

137) 도산서원의 고문서는 단국대학교 퇴계연구소의 영인본과 그 해제를 주로 참고하고(단국대학교 퇴계연구소, 『陶山書院古文書』 I·II, 신양사, 1994.),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였다.

簡札	378	所志	50	族譜	1
告目	9	手標	3	座目	86
關文	12	試卷	14	牒呈	20
其他	3	詩文	9	帖	7
單子	11	完文	6	置簿記	106
望記	223	完議	5	通文	358
明文	38	日記	2	牌旨	13
上疏	1	立案	2	行狀	4
書目	6	節目	7	戶籍	2
成冊	706	祭文	59	笏記	11
합: 2,152점					

표 4 도산서원 고문서 자료 현황

도산서원의 고문서 중에서 「전장기」가 포함된 성책류가 700여 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간찰과 통문이 각 300여 점 이상이고, 망기 223점, 치부기 100여 점이 다수를 차지한다. 소지는 50점인데 대체적으로 서원 소유 노비들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처분의 시정을 관에 진정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원의 노비가 군대로 잘못 편입되면서 서원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유지하는데 지장이 생겼을 것이다. 또한 『퇴계집』의 간행을 위해 관찰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지 등이 있다. 서원의 재산 관리에는 완의, 수표, 명문 등의 고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상소 중에서는 萬人疏로 알려진 1855년 사도세자 추존상소가 주목된다. 이 추존상소는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할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李彙炳(1790~1869)을 疏首로 하고, 총 10,094명이 참여했으며 전체 길이가 100미터에 가깝다. 간찰 중에서는 『도산급문제현록』의 간행과 관련된 내용, 1901년 도산서원 상덕사에 모셔진 이황의 위판을 도난당한 변고와 관련한 간찰이 다수였다.

통문은 도산서원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다른 서원으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내용은 文集, 年譜, 族譜 등과 서적(『심경』, 『도산급문제현록』)의 간행 사업과 관련한 것이 있었다. 또한 상소 중에선 만인소의 疏頭였던 이휘병의 아들 李晩孫(1811~1891)이 1881년 위정척사 만인소의 소두였던 관계로 이와 관련한 통문이 있어 주목되었다. 이외에도 寒旅是非, 屏虎是非 등 사회적 논쟁이 되었던 주제와 訟事에 대하여 도산서원이 공정한 논의를 해줄 것을 바라는 통문도 있다. 즉, 도산서원이 경상북도의 公議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자리매김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이외에도 도산서원의 致祭 및 祭禮와 享禮 등의 의례에 관련한 사항도 통문으로 남아있어, 도산서원의 의례가 지방사회의 공적인 의식이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성책류 중 「전장기」는 도산서원의 藏書를 기록해놓은 문서이다. ‘藏書置簿’, ‘光明室書冊置簿’, ‘光明室傳掌記’ 등의 表題로 평균 7년 간격으로 새로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년에 4번까지 傳掌을 하였으며, 堂會, 曝曬, 享禮 등의 특정 사안을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서책을 전장할 때에는 서책 전체를 목록화하고 서책의 유무, 유실, 이동, 출처 등의 사항을 서명 아래에 기록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서원의 장서의 내력과 서책 관리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3-1) 書院沿革類

서원연혁류는 「書院創建年條」, 「陶山書院事蹟」의 2건이 주목된다. 「서원창건연조」는 도산서원을 비롯한 易東書院, 汾江書院, 鄉賢祠의 창건시기, 祭享(主享·從享·配享) 인물, 致祭 등의 사실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역동서원, 분강서원, 淸溪書院 등의 기록을 부기한 이유는 이황이 서원 건립에 대한 의례와 院規의 제정에 깊이 간여한 경우와 제향 인물이 이황의 조부, 부형이거나 제자, 문인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 도산서원과 관련이 깊었기 때문이다. 문서의 작성 시기는 1781년에서 1785년 사이로 추정되며 문서의 마지막에 1781년(정조 5) 李養鼎의 치제 이후에도 1785년의 賜祭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도산서원사적」은 1868년(고종 4)에 작성된 문서로 도산서원의 모체이자 이황의 강학처였던 도산서당이 설립된 때로부터 고종 연간의 致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 있으며, 이외에 이황의 부, 형, 숙부, 조부 등을 모신 啟賢祠, 청계서원, 향현사의 사실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3-2) 運營

3-2-1) 일상[院規類]

서원의 院規는 서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 강학 활동, 서원 조직과 운영 등을 조목별로 나누어 규정한 것으로 해당 서원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陶山書院規」의 경우는 이를 현판로 만들어 서원의 강당인 典敎堂에 각인하여 게시하였다. 「도산서원규」는 이황이 직접 제정한 「伊山院規」를 모태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남인계 서원의 典範으로 위치하였다. 그리고 원규에 이어서 附記되어 있는 「鄭寒岡論安東鄉校儒生書」는 1607년(선조 7) 한강 鄭述(1543~1620)가 안동 향교의 유생들에게 제시한 글이다. 그 내용은 유생들이 학문을 하면서 지키고 힘써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17세기 향교뿐만 아니라 서원, 사우에서 학업을 연마하는 諸生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도산서원의 「完議」¹³⁸⁾와 「節目」¹³⁹⁾은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과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서원의 원규가 법률이라면 완의와 절목은 서원을 운영하는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 있다. 1943년(癸未年) 완의에선 春秋享祀儀禮 및 正調, 朔望焚香, 財務, 院隸, 田畝 耕作 등의 사항이 주요한 내용이다. 壬寅年 완의에서는 「淸溪書院祭物單子式」이 언급되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도산서원에서 청계서원의 운영을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완의는 내용을 많은 부분은 서원의 경제 기반인 田畝와 院隸에 관한 조항이다. 특히 서원의 노비와 전답은 ‘公’의 소유이기에 本孫이라 하더라도 사사로이 취급할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원의 藏書도 光明室에 소장된 서책들은 본손이나 사족이 무단으로 대여할 수 없었다. 도산서원의 「式例」¹⁴⁰⁾에선 서원을 찾은 손님의 숙박, 식사, 의복(道袍), 제수비용, 南草[담배] 등에 대한 시행원칙과 금지 사항을 규정하였다.

3-2-2) 교육[講錄]

138) 「완의」: 宗中, 家門, 洞中, 契, 書院·祠宇 등에서 문제를 상의하여 그 합의된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를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139) 「절목」: 완의와 비슷한 성격의 문서이며 규약을 조목별로 간략히 나타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140) 「식례」: 조직의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약속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완의나 절목과도 유사하나 의식주에 관한 사항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講會錄」(日記)는 강회의 규정과 절차를 적은 기록으로 원생의 考講을 통해 평가하는 시험의 하나였다. 도산서원의 「강회록」은 1795년(정조 19) 2월 국왕 정조가 도산서원에 『朱書百選』 3책을 하사한 것을 계기로 실시한 강회의 경과와 참여 인원(講長, 聽講, 講生)의 명부를 수록하였다. 「강회일기」는 1854년(철종 4) 강회의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긴 鄕長들이 12월 15일 강회를 개최하고 강회의 전일부터 마친 17일까지 4일간의 사실을 일기로 기록한 문서이다.

3-2-3) 變故

「記事日記」는 도산서원에 일어난 각종 사건과 그에 대하여 기록한 고문서이다. 「從祀位改題時日記」는 1890년(순조 10) 도산서원에 중향된 趙穆(1524~1606)의 위패를 모신 櫝에서 뱀이 발견되어 위패를 새로 제작하게 된 경과를 기록한 일기이다. 「陶山書院庶類事變時日記」는 1884년(고종 21) 서얼들이 서원 운영에 참여하고, 평시에도 謁廟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며 일으켰던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다.¹⁴¹⁾ 이를 통해 조선 후기 경북 지역 서원 운영의 현실과 신분적 차별이 지속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01년 도산서원 尙德祠에 모셔진 이황의 위패를 도난당했다 환수하여 埋安한 사실을 기록한 3종의 고문서가 있다. 「陶山書院廟變時日記」는 사건의 경위와 대처방안, 군수와 관찰사의 조치, 중앙관청[掌禮院 등]의 지시, 경상도의 여러 門中과 鄕校·書院, 전국 유림의 대응과 扶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일기엔 「廟變後儀節」이 부기되어 있어 사건 후 임시 紙牌를 제작하여 봉안하는 의식 절차, 새로 제작한 위패를 봉안하는 의식 절차, 위패의 척도, 제수품 등을 알 수 있다. 「陶山書院復室時張華植在京日記」는 당시 경성에서 소식을 접한 副領 장화식이 황실과 중앙관청, 도산서원 및 관찰사의 사이에서 復室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기록이다. 「舊位版埋安時日記」는 전년도에 도난당한 이황의 위패를 발견하여 이를 埋安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였다.

3-2-4) 刊行

「及門錄營刊時日記」는 1913년 4월 17일부터 6월 13일까지 기존에 전해지던 「陶山及門諸賢錄」을 1冊으로 묶으면서 원고를 교감한 사실을 기록한 일기이다. 다만, 이 일기는 6월 13일 이후부터 결락되어 교감 이후 「도산급문제현록」의 간행 사항을 알 수 없다.

3-3) 儀禮[儀節, 笏記, 陳設圖]

서원은 「儀節」¹⁴²⁾과 「笏記」¹⁴³⁾를 제정하여 의식을 거행할 때 반드시 미리 정해놓은 격식에 따라 시행하였다. 도산서원의 의례류 고문서들은 總則, 取士, 薦望, 傳掌, 香謁, 正謁, 享禮, 堂會, 財政, 文簿, 報酬, 給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산서원은 이황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국왕이 직접 제문을 지어 학덕과 덕망을 기리는 致祭가 거행된 곳이었다. 치제는 국왕이 예조의 禮官을 보내 제사를 거행하였으나, 국왕이 직접 참석하는 의례와 같이 그 절차가 엄격하였다. 이러한 의식절차가 기록된 문서가 致祭儀,

141) 이 사건을 기록한 일기는 모두 세 책이 도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다. 「乙酉院事轉末」, 「甲申日記」, 「陶山書院庶類事變時日記」로 내용이 동일하여 초고, 수정, 정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42) 「의절」: 의식과 사무에 대하여 관장하는 주체, 일의 내용, 절차를 기록한 문서.

143) 「홀기」: 告由, 享禮, 鄕飲酒禮 등 의식의 순서를 기록한 문서.

致祭文, 賜祭文, 賜祭日記, 賜祭笏記 등이다. 도산서원의 치제는 광해군 시대부터 숙종 시대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賜祭는 덕망있는 신하가 사망한 후나 그 忌日에 국왕이 예관을 보내어 좃과 祭文을 보내 제사를 지내고 그를 추모하는 의례로 치제와 비슷하다. 다만, 사제 및 치제의 용례를 살펴보면 대개 치제는 家廟에서, 賜祭는 서원의 祠廟에서 의례가 행해질 때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산서원의 「사제일기」에는 일기 이외에도 사제문, 고유문, 흘기, 의절, 執事, 有司分定, 參班本孫錄, 진설도 등의 기록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도산서원의 「사제일기」는 ①1614년(萬曆 42, 甲寅, 광해군 6년 12월) ②1733년(雍正 11년, 癸丑, 영조 9년 12월) ③1756년(乾隆 21년, 丙子, 영조 32년 정월) ④1781년(乾隆 46년, 辛丑, 정조 5년) ⑤1785년(건륭 50년, 乙巳, 정조 9년 2월) ⑥1792년(乾隆 57년, 壬子, 정조 16년 3월) ⑦1796년(嘉慶 1년, 丙辰, 정조 20년 9월) ⑧1816년(崇禎 189년, 丙子, 순조 16년 8월) ⑨1839년(道光 19년, 己亥, 헌종 5년 12월) 등에 작성된 9종이 있다.

3-4) 修理

도산서원은 서원의 주요 건축물과 부속 건물이 끊임없이 修理, 重修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을 도산서원에서는 여러 건의 「修理日記」를 통해 남겨 후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략 15건의 「수리일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건물뿐만아니라 창건일기, 川防·道路 등을 수리한 기록도 있다. ①「廟宇修理時日記」(1753년 癸酉, 7월) ②「雲影臺川防時日記」(1826년 丙戌, 3월) ③「廟宇修理日記」(1835년 乙未, 7월) ④「典教堂重修日記」(1836년 丙申, 7월) ⑤「廟宇重修時日記」(1862년 壬戌, 11월) ⑥「廟宇修理時日記」(1901년 辛丑, 3월) ⑦「巖棲軒修理時日記」(1929년 己巳, 秋) ⑧「谷口道路修繕時日記」(1931년 辛未, 5월) ⑨「隴雲精舍重修時日記」(1932년 壬申, 정월) ⑩「講廳重建時日記」(1933년 癸酉, 8월) ⑪「東西齋重建時日記」(1934년 甲戌, 3월) ⑫「西光明室創建日記」(1939년 己卯, 2월) ⑬「廟階磚石改築時日記」(1956년 檀紀4289) ⑭「廟宇重建時日記」(1959년 己亥, 10월) ⑮「尙德祠改築日記」(1963년 癸卯, 3월) 등이다.

	일기명	작성시기
1	「廟宇修理時日記」	1753년 癸酉, 7월
2	「雲影臺川防時日記」	1826년 丙戌, 3월
3	「廟宇修理日記」	1835년 乙未, 7월
4	「典教堂重修日記」	1836년 丙申, 7월
5	「廟宇重修時日記」	1862년 壬戌, 11월
6	「廟宇修理時日記」	1901년 辛丑, 3월
7	「巖棲軒修理時日記」	1929년 己巳, 秋
8	「谷口道路修繕時日記」	1931년 辛未, 5월
9	「隴雲精舍重修時日記」	1932년 壬申, 정월
10	「講廳重建時日記」	1933년 癸酉, 8월
11	「東西齋重建時日記」	1934년 甲戌, 3월
12	「西光明室創建日記」	1939년 己卯, 2월
13	「廟階磚石改築時日記」	1956년 檀紀4289

14	「廟宇重建時日記」	1959년 己亥, 10월
15	「尙德祠改築日記」	1963년 癸卯, 3월

표 5 도산서원 修理日記 목록

이상의 수리일기를 통해 도산서원의 건물을 수리할 때 착공하는 과정 및 시행 절차, 서원의 인력, 공사 자재, 官·軍·民의 지원 등을 알 수 있다. 시행과정에선 관가에 報狀을 제출하고, 위패를 移安·還安하며 告由祭를 시행하였다. 또한 서원의 역사엔 官에선 軍丁으로 돕고, 서원 인근의 民들도 부역을 나가서 200~300명의 인원이 동원되었다.

4. 木板類

도산서원에서 고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량의 유물이 목판류이다. 목판류는 책판, 시판, 현판 등으로 모두 4,027점이다. 이 중 2015년 유교책판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고, 등재된 도산서원의 책판은 모두 31종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목판명	저자/(편자)	판각시기
1	易學啓蒙傳疑	이황(편)	1657년
2	溪山世稿	이안도(편)	1824
3	古鏡重磨方	이황(편)	1744
4	嶠南實興錄	이만수(편)	1792
5	陶山及門諸賢錄	도산서원/권두경	1854
6	陶山十二曲	이황	1601
7	蒙齋先生遺稿	이안도	1909
8	誣書辨破錄	미상	18세기 이전
9	宋季元明理學通錄	이황(편)	1576
10	松齋先生文集別集	이우	1937
11	松齋先生詩集	이우	1584
12	吾家山誌	이황/이만여(편)	1924
13	溫溪先生逸稿	이해	1772
14	雲巖逸稿	김연	1783
15	月川先生文集	조목	1666
16	朱子書節要	이황(편)	1743
17	眞城李氏族譜	진성이씨	1600
18	恥齋先生遺稿	홍인우	1639
19	退溪先生文集(甲辰重刊本)	이황	1904
20	退溪先生文集(庚子本)	이황	1600
21	退溪先生文集(庚子本)別集	이황	1732
22	退溪先生世系圖①	진성이씨	
23	退溪先生世系圖②	진성이씨	

24	退溪先生續集	이황	1905
25	退溪先生言行錄①	이수연(편)	1867
26	退溪先生言行錄②	이수연(편)	1905
27	退溪先生年譜①	류성룡(편)	1781
28	退溪先生年譜②	류성룡(편)	
29	退溪先生外集	이황	1834
30	退溪先生自省錄	이황	1585
31	後溪集	이이순	1840

표 6 도산서원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판 목록

5. 나오며

도산서원은 조선의 首院으로 학문과 교육에 있어 단연 조선을 선도하였다.¹⁴⁴⁾ 도산서원은 다량의 장서를 기반으로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자체에서 서적을 편찬하고 판각하였다. 또한 다수의 퇴계학과 문인들이 서적을 기증하였다. 더구나 서원의 운영과 관련한 여러 상황을 세세하게 기록한 고문서도 많은 양이 현존한다. 따라서 도산서원의 실상과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선 문헌자료의 전모를 확인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현재 도산서원의 문헌자료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기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도산서원의 문헌자료를 목록화하고, 주요한 자료는 이미지 촬영, 탈초 및 해제, 국역하여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¹⁴⁵⁾ 따라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중 도산서원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선 한국국학진흥원과의 긴밀한 연계가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원문(영인본)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陶山書院古文書』 I · II, 신양사, 1994.

○ 저서·도록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동아시아 서원 아카이브와 지식 네트워크』, 온샘, 2022.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해냄, 2021.

한국국학진흥원, 『陶山書院 古典籍』, 성심, 2006.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한국 정신문화를 이어오다』, 성심, 2019.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을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사』, 새물결, 2014.

144) 배현숙, 「도산서원 刻板활동 연구」, 『동아시아 서원 아카이브와 지식 네트워크』, 온샘, 2022, 138 쪽.

145) 기록유산의 총아, 고도서(<https://book.ugyo.net/>); 만인소(<https://maninso.ugyo.net/kr/index.do>);

목판아카이브(<https://mokpan.ugyo.net/index.do>);

선인들의 일상생활, 일기(<https://diary.ugyo.net/>); 스토리테마파크(<http://story.ugyo.net/front/index.do>);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https://life.ugyo.net/search.do>);

옛 일상 속 인간관계(<https://doc.ugyo.net/>).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2013.

한국국학진흥원, 『조선후기 서원의 위상-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새물결, 2015.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8.

○ 논문

裴賢淑, 「조선시대(朝鮮時代) 서원(書院) 각판본(刻板本)의 연원(淵源) 연구(研究)」,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

_____, 「陶山書院 刻板活動 研究」,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_____,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大東漢文學』, 대동한문학회, 2016.

_____, 「紹修書院 收藏과 刊行 書籍考」, 『서지학연구』 31, 한국서지학회, 2005.

이병훈,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_____,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이우진,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 연구 현황과 제언」, 『한국서원학보』 10, 한국서원학회, 2020.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전배배, 「디지털 인문학 관점에서의 서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초보적 연구」, 『한국서원학보』 7, 한국서원학회, 2018.

조국권, 「‘중문’의 시각에서 본 양송시기 서원의 도서관행에 대한 고찰」, 『한국서원학보』 5, 한국서원학회, 2017.

최우경, 「안동 도산서원 광명실의 장서관리」, 『안동학연구』 20, 한국국학진흥원, 2021.

편집부, 「도산서원 장서목록」, 『語文學』 1, 한국어문학회, 1956.

○ 사이트

기록유산의 총아, 고도서(<https://book.ugyo.net/>)

만인소(<https://maninso.ugyo.net/kr/index.do>)

목판아카이브(<https://mokpan.ugyo.net/index.do>)

선인들의 일상생활, 일기(<https://diary.ugyo.net/>)

스토리테마파크(<http://story.ugyo.net/front/index.do>)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https://life.ugyo.net/search.do>)

옛 일상 속 인간관계(<https://doc.ugyo.net/>)

발표 5

필암서원 기록유산의 현황과 가치
및 활용방안 모색: 호남도학의
연수(淵藪)

김소희(한국학중앙연구원)

필암서원 기록유산의 현황과 가치 및 활용방안 모색 : 호남도학의 연수(淵藪)

김소희(한국학중앙연구원)

<목 차>

1. 서론
2. 장서와 출판 관련 자료
 - 1) 장서의 전래와 현황 및 관리
 - 2) 기록유산의 간행과 판목의 보관
3. 운영과 기능 및 사회관계 관련 자료
 - 1) 운영 관련 자료
 - 2) 기능 관련 자료
 - 3) 사회관계 관련 자료
 - 4) 기타 낱장 문서자료
4. 결론

1. 서론

2019년에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중의 하나인 필암서원은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되었던 인물인 河西 金麟厚(1510~1570)을 주벽으로, 그의 문인이자 제자인 鼓巖 梁子澂(1523~1594)을 종향하고 있는 서원이다. 송시열이 말했듯이 김인후는 도학과 절의와 문장 세가지를 모두 갖춘 조선을 대표하는 도학자로서, 그의 학문과 사상 및 정신은 필암서원이라는 공간과 그 곳을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지금까지도 면면히 전해지고 있다.

필암서원은 1590년(선조 23)에 창건된 이래로 복설과 이건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김인후 사후 20년이 지난 1590년 그의 문인이었던 奇孝諫, 卞成溫, 邊以中 등이 장성읍 기산리에 서원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건립된지 불과 2년 만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1597년(선조 30)의 정유재란으로 서원이 소실되었다. 이에 1624년(인조 2) 서쪽으로 500미터 떨어진 甌山에 서원을 복설하였다. 드디어 1659년(효종 10) 효종에게 ‘필암’이라는 액호를 받고, 1662년에 宣額이 이루어졌다. ‘필암’은 하서 김인후가 태어난 황룡면 맥호리 맥동마을 입구에 있는 붓 ‘필’과 바위 ‘암’을 합한 붓바위에서 유래하였다. 1669년(현종 10) 김인후의 추증과 文靖 시호를 받았다가 1796년(정조 20) 文正의 시로호 고쳐 받게 되었다. 사액을 받았던 당시의 위치인 증산이 남다른 의미를 지닐 테지만, 그곳은 홍수에 취약한 저지대였던 탓에 1672년(현조 13)에 현재의 위치인 황룡면 필암리로 이건하는 한편 사액서원으로서의 규모와 위상에 맞게 서원을 정비해나갔다. 1752년(영조 2) 확연루의 보수 및 화재로 인한 1752년(영조 28)의 중건, 1786년(정조 10)의 양자정의 추배 등을 거치며, 1797년(정조 20) 김인후의 문묘 종향이라는 대업을 이뤄냈다.

필암서원의 창건과 복설, 사액과 이건 및 중건, 추배와 종향 등을 거치며 17세기 이후 호남지역 서인들의 구심점이 되는 공간으로서 중앙정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명망있는 인물들이

거쳐갔고, 이보다 더 많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원의 각종 기능, 예컨대 선현을 추송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필암서원이 만들어낸 다양한 역사를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복원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기록유산을 대상으로 그 현황과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필암서원의 기록유산과 관련해서는 1975년에 서원이 대한민국 사적 242호로 지정될 당시에 ‘필암서원 문적일괄’ (14책 64매)이 보물 제587호로 지정되었다. 1999년에는 ‘하서 선생 문집 책판’ 650여매와 ‘하서 유묵 목판’ 56판이 지방유형문화재(제215호, 제216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하서 유묵 목판’ 56매는 1568년(선조 1) 새긴 『백련초해』 13판, 『유묵』 4판, 인종이 김인후에게 하사한 ‘묵죽도’를 목판에 새긴 ‘묵죽도판’으로 1568년(선조 1)과 1770년(영조 46)에 새긴 것이 있다. 이 외에도 1610년(광해군 2년)에 새긴 『초서천자문』 18판과 『해자무이구곡』 18판이다. 1999년 필암서원 주변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에 유물전시관인 元眞閣을 개관하였고 4월에 양영재단과 하서학술재단이 유물 29종 3,794점을 기증하게 되었다. 2014년 3월 10일, 전남대학교 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고문헌 1,334종 3,760책의 디지털화를 추진했다. 당시 촬영한 이미지자료들은 현재 전남대학교 도서관 <고문헌검색>을 통해 일부 제공되고 있다.¹⁴⁶⁾

필암서원에 소장한 문헌은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배향인물의 문집책판 및 유묵판, 제향·향사관련 자료, 조직운영 자료, 경제·재정 관련 자료, 사회관계 관련 자료, 장서와 출판 관련 자료, 강학관련 자료 등등의 각 분야별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주제를 고루 보여준다는 특징을 지닌다.

2. 장서와 출판 관련 자료

1) 장서의 전래와 현황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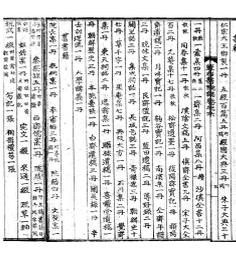
필암서원 장서와 관련해서는 1802년에 작성한 『筆巖書院院籍』(4)¹⁴⁷⁾, 1949년 『필암서원지』¹⁴⁸⁾, 1969년 『이조서원문고목록』, 1975년 『필암서원지』 권12 「장서목록」과 권2에 수록한 「장서각상량문」·「장서각기」, 1996년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제6집 - 광주직할시·전라남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6) 필암서원에 관한 그간의 연구 및 활용성과는 2012년에 김희태(에 의해 매우 상세히 정리가 되었고, 이후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7) 현재 보물로 지정된 자료 중 유물명이 「10. 필암서원원적(4)」로 되어 있는 자료이다. 『필암서원원적』은 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2책은 표제가 ‘筆巖院籍’이며, 제3-4책은 ‘筆巖書院院籍’이다. 이 중 제1-3책은 필암서원 유생들의 명부이고, 제4책은 서책, 전답, 책판, 노비 등 필암서원의 재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문헌자료의 전래와 관련해서는 ‘서책질’을 참고할 수 있다.

148) 김희태, 「필암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서원 기록문화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2. 4. 18. 서울 고궁박물관 강당 개최, 144쪽에 따르면 서적 44종 282책, 구서적(고문서) 24건이며, 서적은 일반적(적)을 구서적은 필암서원 운영관련 문서를 적은 것으로 보았다. 구서적 대부분이 1975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표 1〉 필암서원 장서 현황 관련 문헌

자료명	필암서원원지(4)	필암서원지 (서적조)	이조서원문고목록	필암서원지 (권12, 장서목록)	한국전적 종합조사목록
작성연도	1802	1949	1969	1975	1996
장서량	30종 234책	44종 282책	132종 595책	206종 777책 (고문서 포함)	54종 486책
원문					

〈표 1〉을 보면 자료에 따라 장서의 종수와 책수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필암서원지』의 경우에는 1949년도 판은 고문서를 제외한 수치이며, 1975년판은 고문서가 함께 포함된 수치이다. 그런데 『심원록』 3권 3책, 『필암서원록』 1권 1책, 『원장선생안』 1권 1책, 『원적』 4권 4책, 『문계안』 2권 2책, 『노비안』 1권 1책, 『노비보』 1권 1책, 『집강안』 1권 1책, 『참서록』, 『서재유안』 1권 1책, 『통문초』 1권 1책, 『상용축진설도』 1권 1책 등 12종 18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서는 194종 759책에 달한다. 장서를 수록하고 있는 문헌에 따른 서적의 가감을 조사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¹⁴⁹⁾

특히 1975년도판 『필암서원지』에서 문헌을 수록한 방식을 보면 내사본/서원간행본/필암서원생산문서/일반전적의 순으로 수록하여 서적의 품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개별 서적을 기술한 내용에서 미흡하나마 서지적 전문성이 드러난다. 예컨대 『주자대전』의 경우 서명 아래에 ‘(舊版)’ 이라고 부기한 후 “宋 朱熹 著 ○七十二册 ○十行十八字 ○四周大小雙邊 ○板題中 ○上下花紋魚尾 ○漢紙 ○木板 ○漢裝(七十二册中只有三十一册)” 이라고 하여 ‘서명(판상태)/저자/책수/행자수/광곽모양/판심제의 위치/어미모양/지질/판종/장정/소장본’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내사본의 경우에는 “內賜仁宗大王御製 漢紙 ○寫本 ○一卷一册 ○十行二十字 ○四周單邊 ○崇禎四甲子宋正熙跋 ○有木匣” 이라고 하여 지질을 앞에 수록했고, 서발문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였으며, 보관상태까지 기록해두었다. 『內賜五經百篇』의 경우에는 “嘉慶三年九月日內賜” 라고 하여 내사받은 일시를 적어두었다. 향후 각 문헌의 장서변화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서적의 판본을 비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한 문헌 이외에 필암서원에서 전래한 자료는 아니지만 양영재단과 하서학술재단에서 기증한 자료도 확인된다. 2016년에 발간한 『필암서원 유물관 소장 고문헌 목록』은 양영재단, 하서학술재단에서 기증한 자료를 대상으로 정리한 간략목록과 세부목록이 함께 있는 목록집이다. 기증한 총 수량은 양영재단에서는 660종 2,342책을, 하서학술재단에서는 703종 1,402책 도합 1,363종 3,744책이다. 하서학술재단 자료는 이에 앞서 1997년에 하서기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정리한 『필암서원장서』의 목록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해당 목록집의 발

149) 장서의 구체적인 현황 및 추이에 관해서는 중간발표 이후 보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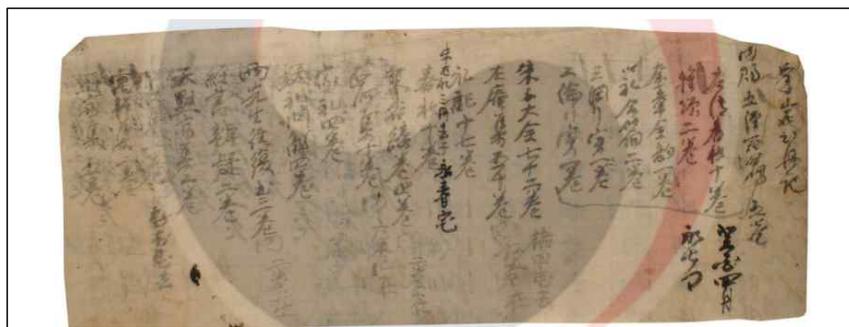
간사를 보면 “후손 相萬의 발의와 泳仲의 노고에 힘입어 제1, 2차에 걸쳐 호남 후학들의 문헌을 중심으로 1,382책의 고서적을 수집하였다” 고 밝히고 있다. 1,382책은 2016년 정리를 걸쳐 1,402책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기증 자료에 관해서는 특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들 자료를 필암서원 장서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9세기에 약 230여책을 소장하고 있었던 필암서원은 내사, 생산, 수집의 방식으로 누적된 장서를 보관하기 위해 장서각을 설립하여 서적을 보관하였고, 장서관리를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1975년판 『필암서원지』 「장서각기」를 보면, 중종조와 정조조에 『주자대전』과 『오경백편』을 하사받았고, 「인종어제」를 장서각에 奉藏했으며, 기타 經傳子史와 학자들의 문헌이 천여권이 넘었기에 장서각의 현판을 걸고 서적을 보관해왔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지붕이 낡고 협소하여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자, 경술년 가을에 재물을 모으도록 하고 관의 협조를 받아 3칸 4동을 전사청 좌측에 신축하였다. 몇 개월이 지나 준공이 이루어져서 院儒 邊時淵이나(金潤東)에게 일의 전말을 써달라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즉 역대로 장서각을 설립하여 서적을 보관해오다가 경술년인 1910년에 장서각의 노후화와 장서량의 증가에 따라 건물을 증축했던 것이다.

『필암서원원적(4)』 권두에 수록된 節目을 살펴보면 “內賜書冊 極爲重大 不可借人 如有願見者 來于院中 以爲奉翫事” 라고 하여 내사본의 가치를 되새기는 한편 관리방법 및 대출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반 서적에 관해서는 “傳與後 書冊及院中物件 如有所失 則新執綱推尋以納事” 라고 하여 분실된 것이 있으면 신임 집강이 추심해서 바치도록 하였다. 또한 경장각의 경우에는 “經藏閣開金 執綱次知 如有所考書冊 則親往開給事” 라고하여 경장각의 자물쇠를 열 때에는 집강이 담당하고 만일 서책을 살피고자 한다면 친히 가서 열어 주라고 당부하였다.

이 외에도 『필암서원원적(3)』의 마지막 장에 딸림자료 형태로 삼입되어 있는 낱장의 고문서를 주목할 수 있다. 비록 책자 형태로 제작되지는 않았지만, 서두에 「筆巖書冊記」라는 제목을 통해, 서원이 장서점검과 관리를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필암서책기」

2) 기록유산의 간행과 판목의 보관

필암서원에서 직접 생산한 서적 즉, 책판의 간행 및 보관과 관련해서는 1796년의 『누판고』, 『필암서원원적(4)』 <책판질>, 1998년 『전남서원의 목판』, 2017년 『전남지역의 목판자료(1)』를 참고할 수 있다. 먼저 『누판고』에서는 『하서집』 14권과 『하서집별집』 9권이 필암서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인출에 소요되는 종이 즉 印紙數를 12牒 9張으로 적고 있다. 『필암서원

지』 권2에는 「刊集時百有司錄」, 「장관각상량문」, 「장관각기」 등이 있다.

『필암서원지』의 「장관각기」는 임자년 가을에 權龍鉉이 작성한 것으로, 『하서집』 책판과 『목죽도』 및 하서유목 서판 등에 관한 간행과 보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즉, 문정공 하서 김선생의 문집 책판(刊板)이 전후로 여러 본이 있었는데, 하나는 宣祖 때 玉峯 白光勳이 手寫한 것이며, 하나는 正祖 때 돈을 출납하여 內閣의 글자(用內閣字)를 사용한 것이다. 하나는 속집으로 후손인 佶中이 힘써서 감영에서 간행한 것이다. 또 별도로 仁宗이 하사한 墨竹 印板과 先祖 遺墨 수 십판이 모두 필암서원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예전에는 별도의 閣이 지어지지 않아서 지난 신해년에 서원의 여러 章甫들이 모두 閣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여겨, 각을 건립해서 尊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던 것이다.

『필암서원지』의 「간집시백유사록」은 정조연간에 하서선생문집을 간행할 때 참여했던 인물들에 관한 기록이다. 즉, 發文 校官 金履禮, 校官 朴民淳, 監役 李晦祥, 傳教附 敎正有司 判書 沈煥之, 判書 閔鍾顯, 判書 趙鎮寬, 判書 金載瓚, 參判 徐龍輔, 參判 李書九, 參判 尹得孚, 參判 韓用龜, 摺紳有司 參判 李祖承, 參判 吳載紹, 承旨 金達淳, 承旨 金祖淳, 承旨 金勉柱, 承旨 魚用謙, 承旨 南公轍, 承旨 李肇源, 承旨 金羲淳, 應敎 李翊模, 應敎 沈象奎, 敎理 鄭履綏, 正言 張至冕으로부터 注書 尹命烈, 府使 李舒永, 郡守 趙厚鎮, 判官 李羲寅, 參奉 金基彦, 監役 權仲執, 都事 李源明, 別檢 尹慶曾 및 진사, 유학에 이르기까지 참여자의 관직과 이름을 기재하였다.

문헌에 실린 시기별 책판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필암서원원적(4)』 <책판질>에 수록된 책판은 6종 625립이다. 1998년 『전남 서원의 목판』에서는 하서전집 목판 258판, 하서선생전집 목판 392판, 초천자문 목판 18판, 무이구곡 목판 13판, 유목 4판, 백련초해 목판 13판, 인종필 목죽도 목판 3판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여 1999년에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서선생문집』은 1568년(선조 1)에 처음 간행되어 1686년(숙종 12)에 중간본이, 1797~1802년에 삼간본이 간행되었다. 초간본 목판 1매, 중간본 목판 258매, 삼간본 목판 391매 총 650매이다.¹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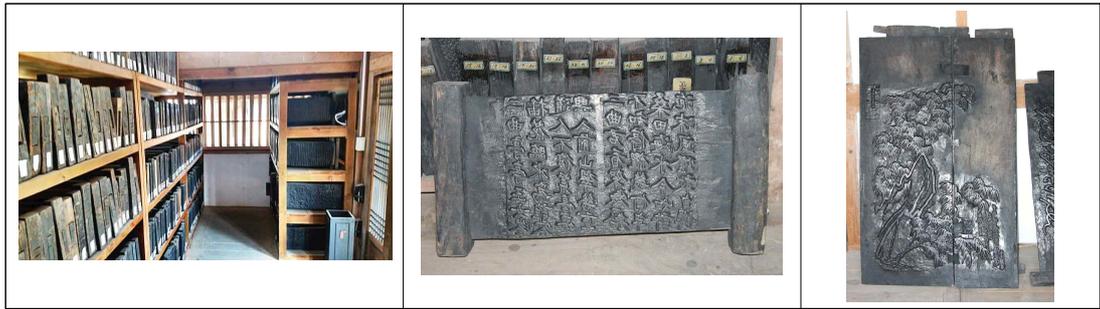
끝으로 2017년 국학진흥원에서 조사한 『전남지역의 목판자료(1)』에서는 1686년의 『하서선생집』 261판, 1802년 『하서선생전집』 324판, 1940년의 『하서선생속집』 67판, 1610년의 『무이구곡』 서판 18판, 1568년의 『백련초해』 13판, 1610년의 『초천자문』 18판, 연도미상의 壽福이 새겨진 繡板과 界線板 2판 총 703판이다.

이 중 2006년에 ‘목죽도’ 목판 3판을 포함한 34판이 도난당했다가, 최근(2021. 2.) 2021년에 회수되었다.¹⁵¹⁾ 따라서 가장 최근 조사인 703판에 회수한 목판 34판을 포함한 737판이 최종 책판수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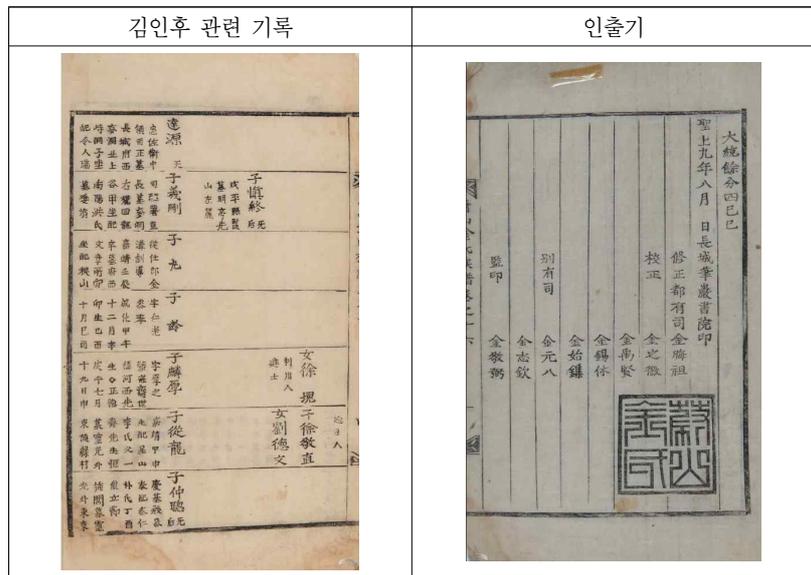
이 외에도 현전본 가운데 필암서원에서 인출한 기록이 확인되는 책자가 남아있는데, 바로 목활자본으로 인출한 『울산김씨족보』이다. <그림 3> 우측의 인출기록을 보면 “大統餘分 四己巳 聖上九年八月日 長城筆巖書院印, 修正都有司金晦祖, 校正 金之微 등 4인, 別有司 金元八 등 2인, 監印 金敬弼·金鎮東” 이라고 되어 있다. 즉 명(明)나라 대통력(大統曆)을 사용한 나머지의 나번째 기사년(1809, 순조 9) 8월에 장성 필암서원에서 인출했다는 기록이 담겨 있다. 필암서원에서 간행한 자료로 인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적 드문 사례에 속한다.

150) 김희태, 「필암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2. 4. 18. 서울 고궁박물관 강당 개최, 151쪽.

15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93680&code=61171111&cp=du>



〈그림 2〉 장관각 및 서판의 모습



〈그림 3〉 1809년에 필암서원에서 목활자로 인출한 『울산김씨족보』

3. 운영과 기능 및 사회관계 관련 자료

3장에서 살펴볼 자료들은 주로 성책류와 날장고문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2장에서 언급한 필암서원 장서 현황을 수록하고 있는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949년 『필암서원지』의 ‘구서적’ 조에 실린 15건 24건이 있으며, 1975년 『필암서원지』 권12 「장서목록」 206종 777책 중 앞부분에 인종대왕어제 및 내사본에 이어 고문서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상기한 『심원록』 3권 3책, 『필암서원록』 1권 1책 등 12종 18책이다. 이 중 1975년에 보물로 지정된 필암서원 문적일괄은 14책 65매이다. 1985년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간한 『고문서』 제2책은 첩문, 첩정, 완문, 소지, 상서, 품보, 품고, 품목, 재산문서, 간찰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시 분류하면 일반고문서는 64매(고문서 한 매에 2개의 품목이 기록된 것이 있어 내용상으로는 65건), 재산관련문서는 『노비전답안』, 『노비보』, 『필암서원원적』 (4), 노비안 등 4책이다.¹⁵²⁾ 이들 자료를 대상으로 필암서원의 경제와 재정에 관한 연구

152) 김희태, 「필암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2. 4. 18. 서울 고궁박물관 강당 개최, 1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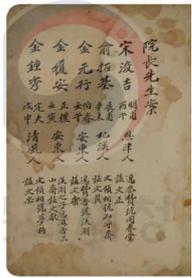
가 이미 진행되었다.¹⁵³⁾

1) 운영 관련 자료

① 조직운영 관련 자료

이와 관련해서는 ‘원장 및 운영진’ 관련 자료와 ‘유생’ 관련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원장 및 운영진과 관련해서는 <표 2>에서와 같이 『원장선생안』<필암서원문적 2>과 『필암서원집강안』<필암서원문적 3>이 있다.

<표 2> 조직운영 관련 자료 - 원장 및 운영진 관련

『원장선생안』 <필암서원문적 2>	『필암서원집강안』 <필암서원문적 3>
17~19세기	1752~1887
	
58.3cm×34.0cm	四周單邊, 全郭 55.0×32.0cm, 6行 字數不定 ; 41.8cm×32.0cm

첫째 『원장선생안』은 필암서원이 창건되어 초대 원장에 부임한 宋浚吉(1606~1672)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근 200여년간의 역대 원장 명부이다.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여 필사되었다. 전반부에는 同春堂 송준길, 知守齋 俞拓基(1691~1767), 澹湖 金元行(1702~1772), 三山齋 金履安(1722~1791), 夢梧 金鍾秀(1728~1799), 晚圃 沈煥之(1730~1802), 梅山 洪直弼(1776~1852), 淵齋 宋秉璿(1836~1905), 丹雲 閔丙承(1863~?) 등 9인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였다. 해당 인물의 성명+자/생년/본관/과거/관직/호, 시호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老論의 핵심 인물들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필암서원의 정치적 성격과 위상을 엿볼 수 있다. 후반부는 앞서 나열한 인물들 중 송준길과 민병승을 제외한 7인의 인적 사항을 앞 부분과 동일하게 기록했다.¹⁵⁴⁾

두 번째로 『필암서원집강안』은 서원의 운영진을 기재한 명부로, 院長[山長], 院貳, 摺紳掌議, 摺紳有司, 京掌議, 儒林掌議, 色掌, 直月 등의 순으로 기록하였다. 진신장의와 진신유사는 장성을 비롯하여 인근 고을의 수령이 담당했는데, 그들의 현직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인물의 성명 하단에 고을명을 기재했다. 단 장성의 경우에는 本官 또는 本倅로 기록했다. 기록이 이루어진 날짜는 '壬申年三月日'로 시작하여 '丁亥春 重修'로 끝이 나는 걸로 보아, 1752~1887년임을 알 수 있다. 1975년 『필암서원지』 「執綱案」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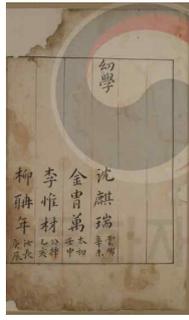
이상은 원장 및 운영진에 대한 기록이라면, 다음은 유생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필암서원원적(1)』, 『필암서원원적(2)』, 『필암서원원적(3)』 및 『

153) 전형택, 「조선후기 필암서원의 경제기반과 재정」, 『역사학연구』 11, 1997, 333-366쪽.

154) 문화재청 해제 참조. (<https://www.heritage.go.kr/>). 이하 문화재로 지정된 자료들의 경우에도 문화재청 해제를 상당부분 참조하되, 일부 오류를 수정하였다.

『筆巖書院西齋儒案書』가 있다.

〈표 3〉 조직운영 관련 자료 - 유생 관련

『필암서원원적(1)』 〈필암서원문적 7-1〉	『필암서원원적(2)』 〈필암서원문적 7-2〉	『필암서원원적(3)』 〈필암서원문적 7-3〉	『필암서원서재유안서』 〈필암서원문적 6〉
1708	1717	1742	1846
			
54.3cm×32.0cm	54.3cm×32.0cm	55.8cm×34.9cm	43.7cm×33.5cm

첫째, 『필암서원원적(1)』은 말미에 ‘戊子八月二十四日 掌議 金聲鶴, 色掌 邊致成 · 金再賢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1708년에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유학 沈麒瑞 등 146인의 명단이다. 각 유생은 먼저 유학 · 생원 · 참봉 · 直長 · 察訪 · 縣監 등으로 해당 인물의 벼슬 유무를 기록한 다음, 성명을 기록하고 그 아래에 해당 인물의 字나 출생연도 등을 기재했다.

둘째, 『필암서원원적(2)』는 표지에 ‘양권합부’ 라고 부기되어 있듯이, 서로 다른 필체로 된 2종의 성책이 묶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부는 유학 이실지로부터 박치화까지, 후반부는 유학 이유추로부터 김익환에 이른다. 모두 378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말미에 ” 丁酉二月十二日 掌議 奇灑, 色掌 朴孝根 · 申顯汝 “가 쓰여있어, 1717년에 작성한 것을 아 수 있다.

셋째, 『필암서원원적(3)』은 유학 金致瑞 등 306인의 명단으로, 문서 작성시거나 작성자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1975년 『필암서원지』에 따르면 1742년에 장의 金天民과 색장 邊宗大 · 安福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의 첨부자료로 「필암서책기」의 문서가 달려 있다.

넷째, 『필암서원서재유안서』는 말미에 “병오십일월 일 執綱 金 , 宋” 이라고 되어 있어 1846년 11월에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서재에 소속되었던 幼學 金平雲 등 30인의 서명과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서명과 거주지 사이에 간혹 서재유생에서 제적된 사유를 기록하였다. 수록된 이들의 신분은 모두 유학으로 되어 있고, 이들 가운데 8명이 “移居光州”, “以頑拒報官 充丁”, “移居羅州”, “班頃”, “老除頃”, “軍校頃”, “鄉所頃”, “物故頃” 등의 사유로 頃下되었다. 즉 지방으로 이사하여 탈하한 사람 2명, 서재 유생이 될 것을 완강히 거부하여 관에 보고한 뒤 良丁으로 충원된 사람 2명, 양반신분임이 밝혀져 탈하한 사람 1명, 향소의 임원의 되어 탈하한 사람 1명, 사망하여 탈하한 사람 1명 등이다. 신분이 일반적으로 유학을 칭하고 있지만 양반의 하층 내지는 양인의 상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¹⁵⁵⁾을 기재하여 이상의 자료는 18세기 초~19세기 중반까지 필암서원 에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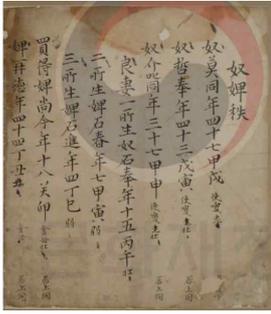
155) 전형택, 필암서원의 고문서, 광주광역시 · 향토문화개발협의회,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 1995, 231쪽.

된 유생들의 현황과 규모 및 변화양상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② 경제·재정 운영관련 자료

필암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운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서원전, 서원노비, 서원촌과 원속을 중심으로 이미 어느정도 연구가 이루어졌으며,¹⁵⁶⁾ 본 논문에서는 그 중 서원경제의 지지요소이자 본 서원자료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서원노비에 관한 자료를 소개한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표 4>에서와 같이 『장성필암서원성책(노비전답안)』(1680, 숙종 6), 『노비보』(1744~1752, 영조 20~28), 『필암서원원적(4)』(1802, 순조 2), 『노비안』(1846) 등 4종이 있다. 시기적으로는 17~20세기에 이르고 있다.

<표 4> 경제·재정 운영 관련 자료

장성필암서원성책 <필암서원문적 11>	노비보 <필암서원문적 1>	필암서원원적(4) <필암서원문적 10-4>	노비안 <필암서원문적 12>
1680	1745~	1802	1846
			
39.2cm×32.0cm	41.7cm×31.1cm	56.5cm×34.3cm	43.9cm×33.9cm
· 표제: 노비전답안(개장) · 내용:奴婢秩 + 保奴秩 + 田畚秩 · 노비질 기재방식 : (매득비+이름+年+生/몸상태(使喚, 弱)+거주지) /	· 거주지 및 방매사유 : 院債許多, 門樓重修時(1744), 門樓創建時(1752), 門樓丹青時(1764), 東西齋重修時(1759), 祭器改備事, 藏書閣成? 등등	· 구성: 상단奴秩, 하단婢秩/逃奴秩, (逃)婢秩 첨지: 告目-右	· 父名, 거주지

『장성필암서원성책』은 표지에 ‘奴婢田畚案’이 기재되어 있으며,奴婢秩/田畚秩/穀物捧上秩/己未用下秩의 네부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노비질과 전답질은 1680년(숙종 6) 2월 6일까지의 서원이 소유한 노비와 전답 내역을, 곡물봉상질에는 1679년(숙종 5) 가을의 추수기록, 기미용하질에는 1679년 8월 8일~1680년 2월까지 지출 상황을 기재하였다. 이 당시 필암서의 재정상태는 결코 여유롭지 못하여 경비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노비를 팔아 재원으로 전답을 마련하기도 하고, 재력을 남용하지 말 것, 춘추 향사시에 물력을 남용하지 말 것 등을 강조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¹⁵⁷⁾

『노비보』는 271명에 달하는 노비가 기재되어 있는데, 작성시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이견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1745년(영조 21), 1746년(영조 22) 즉 을축·병인 두 해에 작성한 자

156)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유산 1』, 도서출판 문사철, 2014, 293~297쪽.

157) 전형택, 「조선후기 필암서원의 경제기반과 재정」, 『역사학연구』 11, 1997, 363쪽.

료를 합철하여 만든 것이라는 견해¹⁵⁸⁾와, 1745년에 처음 작성하여 그 후 수시로 변동 상황을 추가 기입한 것이라는 견해이다.¹⁵⁹⁾ 기록 방식은 해당 노비의 출처에 대해 ‘傳來, 買得, 屬公’ 등과 같이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사망 여부, 생년 또는 나이, 배우자 및 그들의 신분, 도망 여부, 거주지 등을 기록했다. 이들 노비보는 재산관리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족보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계의 파악보다는 가계계승과 관련된 신분 및 소유권의 귀속을 판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¹⁶⁰⁾ 이 노비보는 18세기 이후 從母從良法 시행 등으로 국가가 노비제의 확장을 제어하려고 했던 점 등과 관련하여 그 시기의 사노비 관리의 일단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료¹⁶¹⁾라고 평가하였다.

『필암서원원적(4)』은 1802년(순조 2)에 당시 필암서원 執綱 金定休가 서원 소유 재산 관련 자료를 기록한 것이다. 수록 내용은 立議, 節目, 書冊秩, 祭器秩, 齋服秩, 冊版秩, 畚秩, 田秩, 院邸家垆秩, 奴秩, 婢秩, 逃奴秩, 逃婢秩 등이다. 마지막에는 地記를 첨부했다. 필암서원은 당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어서 경제기반을 공고히하여 재정을 튼튼히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절목을 설정하여 규정화하였다.¹⁶²⁾

『노비안』은 1846년(헌종 12)에 작성된 것으로, 노비 중에서도 외거노비 34명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였다. 노의 성명에 이어 父면의 이름과 거주지를 기록했고, 物故·逃走·頃 등으로 다른 노가 대신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노의 이름 하단에 ‘사유/代/노 성명/거주지’ 등을 적은 籤紙를 첨부하였다.

상기한 자료들을 보면 필암서원이 소유한 노비수가 1680년에는 48명이 1745년에는 16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1802년에는 28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관해 ‘18세기 노비 수의 폭증은 출산에 의한 자연증가로보이며, 이 시기 서원에서 노비안을 작성할 때 이전에 비해 좀 더 상세하게 기록했던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19세기 들어 노비가 대폭 줄어들게 된 이유는 조선후기의 사회변동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노비 인구의 감소라는 상황과 연계하여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⁶³⁾라고 보았다. 그러나 1745년에 많은 노비들이 방매가 되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상당부분이 書院債가 許多하다는 이유가 많고, 門樓를 중건하거나 단청을 다시 칠하거나 동계서재 등 강학공간을 중수하거나 제향관련 기물을 다시 구비하거나 등등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1802년의 『필암서원원적(4)』의 범례를 보면 “院中奴婢田畝 不得已放賣 則諸執綱及鄉貧院會詳議後 報于本官 稟于縉紳 受題後處決事” 라고 하여 서원 소속 노비와 전답을 부득이하게 팔 때에는 여러 집강과 향원이 院會를 열어 회의한 후에 본관에 보고하고 진신들에게 아뢰어 판결을 받은 뒤에 처결할 일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문헌자료를 토대로 재산이 탕진된 서원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 방편으로 원만한 협의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노비 및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2) 기능 관련 자료

① 제향·향사 등 의례관련 자료

158) 안승준, 「1745·6년의 筆岩書院 奴婢譜」, 『고문서연구』 4, 1993, 125~162쪽.

159) 전형택, 필암서원의 고문서, 광주광역시·향토문화개발협의회,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 1995, 225쪽.

160) 안승준, 「1745·6년의 筆岩書院 奴婢譜」, 『고문서연구』 4, 1993, 118쪽.

161) 문숙자, 「조선후기 노비 가계와 婢 - 筆巖書院 奴婢譜의 분석을 통하여」, 『여성과 역사』 11, 2009, 138쪽.

162) 전형택, 「조선후기 필암서원의 경제기반과 재정」, 『역사학연구』 11, 1997, 3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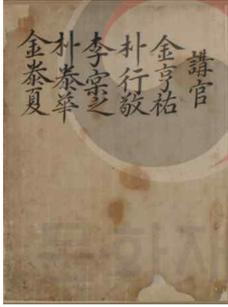
163)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유산 1』, 도서출판 문사철, 2014, 294쪽.

이와 관련해서는 『梁子徵名祝關係稟目』〈필암서원 문적 14〉이 있다. 이 자료는 1852년(철종 3) 8월 18일에 필암서원 齋會所에서 앞으로 있을 秋후과 관련해서 배향인 양자징의 축문을 주향인 김인후의 축문과 분리해서 각각을 별도로 작성해서 사용할 지의 여부를 재가해 줄 것을 당시 필암서원 搢紳掌議였던 장성부사에게 청한 내용의 문서이다. 품목을 올린 다음날인 19일에 ‘예전처럼 김인후의 축문 끝에 배향한 뜻을 기록해서 하나로 합해서 작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겠다’는 내용이 담긴 장성부사의 답신과 수결이 있다. 1975년 『필암서원지』에 의거할 때, 그 뒷부분의 내용이 기록된 한 장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¹⁶⁴⁾

② 강학·강록 등 교육 관련 자료

필암서원 講會와 관련된 자료는 <표 5>에서와 같이 『문계안』 1과 『문계안』 2가 있다.

<표 5> 강회 관련 자료

『문계안』 1 〈필암서원문적 4〉	『문계안』 2 〈필암서원문적 5〉
1678	1746
	
54.0cm×34.3cm	42.3cm×28.8cm

『문계안』 1은 표지에 “戊午五月十?” 이라고 필사되어 있어, 무오년인 1678년(숙종 4) 5월에 제작되었다. 맨 앞에 강회 주관자인 金亨祐, 朴行敬, 李宗之, 朴泰華, 金泰夏, 朴升華로 구성된 講官 6인의 명단이 나온다. 이어서 ‘講案’ 항목을 설정하여 朴行重 등 58인의 명단과 끝을 알리는 ‘際’ 자가 기재되어 있다. 58인의 명단 가운데 중간에 작은 글씨로 삽입한 경우와 부전지를 사용해서 첨부한 경우가 확인된다. 이어 한 장을 비운 상태에서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條約을 초서체로 기록했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一. 講官講員 每月朔望 會于筆院講堂 焚香參謁後 因爲設講事
- 一. 講官或有故未參 則呈單會所 而無緣不參 則厚白紙三丈 備納事
- 一. 講員各隨其力 以爲背講事
- 一. 製述之員 詩賦義疑則七首 論策則三首 製■
- 一. 音釋不通則者 甲十介事
- 一. 音釋雖通 而文義不通者 以粗施行事
- 一. 連三續通者 厚白紙五丈賞給 連三粗者十介事

164) 문화재청 해제 참조.

- 一. 製述限數若未備一首 則厚白紙十丈贖■
- 一. 講員 無緣不參 則甲十五介■削籍事
- 一. 散坐失儀 喧嘩爭競者 甲五介事
- 一. 考講時色掌 及直日門知講員事
- 一. 設講後晚到者 罰紙五丈備納事
- 一. 經書則不下一篇 雜又則 不下二十丈■{事}不備此數 則甲七介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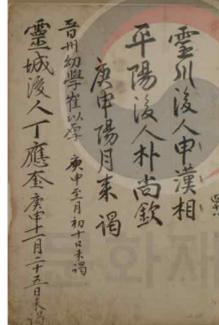
상기 조약은 강관과 강원의 임무, 불참시에 대한 처벌, 강원과 제술원의 시험방식, 평가방식 및 평가에 따른 대우, 강회 자세 등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문계안』 2은 책말에 “병인이월십일일 掌議 金承祖/ 色掌 金天德, 金世堯” 라고 되어 있어 1746년(영조 22) 2월 11일에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처음에 僉知中樞府事 沈壽泰가 나오고, 그를 포함하여 311명의 생원, 유학 등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문계안은 필암서원의 강회 운영진 및 참여자, 진행 상황과 규모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3) 사회관계 관련 자료

서원을 출입한 인사와 관련하여 <표 6>과 같이 <필암서원문적 13>으로 지정된 『봉심록』 2책이 소장되어 있다.

<표 6> 사회관계 관련 자료

봉심록 1-1 <필암서원문적 13>	봉심록 1-2 <필암서원문적 13>
1624-1680	1680-1701
	
47.4cm×30.1cm	47.3cm×30.3cm

이 책은 1624년부터 1701년까지 필암서원을 방문한 인물을 기록한 것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제2책으로 갈수록 방문일자가 상세해지고 있다. 후반부의 경우 서체로 보아 방문한 당시에 즉각즉각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책에는 표지에 ‘인조이년’ 이 필사되어 있어, 1624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1624년을 시작으로 ‘유학 南以寧, 관찰사 李溟, 유학 申尚淳, 현감 洪振文, 전현감 柳益源’ 으로부터 ‘縣監 鄭銓’ 에 이른다. 이어서 ‘효종원년경인’ 에는 ‘진사 房明燁’ 으로부터 ‘前奉事 高斗紀’ 까지 수록되어 있다. 그 뒤로는 반장의 여백을 두고, ‘유학 李惟孚’ 등이 기재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성명 하단에 자, 생년, 본관, 방문일자 등 매우 꼼꼼히 기재하고 있다. 이후 현종원년경자부터 마지막에 ‘경신구월이십칠일’ 에 내왕한 인물들까지 수록되어 있다. 즉 1624년부터 경신년인 1680년(숙종 6)까지 서원을 찾아온

방문객의 명단이다.

두 번째 책은 ‘경신양월(10월)래알’이라는 시기를 통해 『봉심록』 1-1이 끝나는 1680년 9월 20일에 이어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말미에는 ‘辛巳十月廿七祇謁’로 끝이 난다. 즉 1680~1701년(숙종 27)까지의 방문객 명단이다.

4) 기타 낱장 문서 자료

필암서원에 소장한 낱장 고문서 전체 65건 중 49건이 1864~1906년 사이에 작성되었고, 1800~1863년은 5건, 1864~1896년은 10건, 미상이 1건이다.¹⁶⁵⁾

<서원운영 및 경제기반에 관련된 문서>

- 서원 철폐 관련 및 철폐 이후 서원운영 관련 자료
- 서원전과 垡結의 면세문제 (첨정 5~9, 품목 15 등)
- 홍수로 災傷된 院田의 면세요청(소지 1, 5, 9 등)
- 院田의 소작에 따른 도조수잡, 移作, 舍音입명 등에 관한 관에의 보고, 협조 요청(첨정 10, 11, 품보 1,2, 품목 2,3, 18 등)
- 院村 村民들의 面任役價, 客舍重修役 등 잡역의 면제에 대한 문제(첨정 12~14, 완문 3, 품보 4, 품목 5, 6, 9, 11~14, 19 등)
- 원임의 체임요청(소지 2, 3)
- 향사제관의 차임에 대한 것(첨정 2, 품보 6, 품목 1)
- 서원과 稷防村(첨문 1), 서원과 院孫과의 관계를 말해 주는 문서(품보 1, 3, 품목 4, 11-14 등)
- 서원산물 보수에 대해 관에 그 대상을 요청한 것(상서 1)
- 호포법 이후 院保에 대한 保錢징수 문제(완문 2) 등

4. 결론

서원기록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의 현황과 과제 등을 중심으로 1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필암서원 기록유산의 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고문서를 중심으로 1984년과 1995년에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졌고,¹⁶⁶⁾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2012년 제 2차 서원전문가 워크숍(김희태 발표)을 통해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기록유산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향후 필암서원 기록자료의 특징과 가치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물자료를 제외한 원문이미지나 탈초본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원문이미지로 제공되는 자료들이 자료명과 부합되지 않게 뒤섞여 있거나 해제나 작성연대에 오류들이 확인되고 있다. 개별 서원의 기록유산 자료에 관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연계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서원자료의 종합화, 표준화, 목록화, 연표화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개별

165) 전남대학교 박물관, 『전남대학교 박물관 고문서조사보고』 제2책, 1984, 12쪽의 해제를 참조하였다. 고문서 원문텍스트는 51~147쪽에 수록되어 있다. 이후 전남대학교 박물관, 『전남대학교 박물관 고문서조사보고』 제2책, 1984, 13쪽 ; 51~147쪽. ; 구체적인 내용은 전형택, 필암서원의 고문서, 광주광역시·향토문화개발협의회,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 1995, 215~231쪽을 참조.

166) 전형택, 필암서원의 고문서, 광주광역시·향토문화개발협의회,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 1995, 215~231쪽.

단위 서원을 넘어 시대, 지역, 유형, 인물, 자료의 연계성을 찾아내어 연속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167)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에 앞서 개별 서원 자료의 종합화, 표준화, 목록화, 연표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료의 활용과 보급을 위해서 누가 자료를 이용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대상에 맞는 다양한 아카이브 설계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7) 김희태, 「서원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2, 23쪽.

발표 6

대출과 열람의 자율성, 공공
도서관의 역사적 모델: 도동서원

김정운(경북대학교)

지식의 자유를 향한 여정, 공공 도서관의 역사적 모델: 道東書院

김정운(경북대학교)

<목 차>	
I. 도동서원의 기록물	
1. 소장 자료의 조사현황	2. 소장 자료
II. 도동서원이 담은 지식	
1. 도서	
2. 책판	
III. 공공 도서관의 역사적 모델, 도동서원	
1. 도서 대출	
2. 藏書 경위	

I. 도동서원의 기록물

1. 소장 자료의 조사현황

1960년대 이래로 현재까지 정부기관·대학연구소·지자체·연구자 등에 의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서원 소장 자료 및 건축, 제향 의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도동서원의 소장 자료와 정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도동서원 소장자료 조사 현황

현전 자료의 수량	정리현황
1. 전적: 경현록景賢錄 외 7종 23책. 2. 성책 고문서: 도동서원증창사적 외 105종 215건. 3. 책판: 경현록 외 8종 71판. 4. 기타: 제기 30점, 현판기문 17점.	1. 『이조서원문고목록』(이춘희 편, 1969), 2. 『도동서원지』(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97) 3. 『달성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달성군, 2005) 고서, 책판, 기타유물 4. 『경북지역의 목판현황』(한국국학진흥원, 2006)

2. 소장 자료

서원이 소장한 자료는 고문서와 전적, 책판 및 현판과 기문이 있다.

<표 2> 도동서원 소장 (성책)고문서 목록

번호	자료명	작성연대	비고
1	도동서원창건사적道東書院勸建事蹟	1604~1720	서원지
2	원입안院任案	1604~1965	서원지
3	입원록入院錄	1610~1906	서원지

4	입원록	1910~1966	
5	천안薦案	1940 前後	
6	향록(상)鄉錄(上)	1621~1791	서원지
7	향록(하)鄉錄(下)	1814~1851	서원지
8	향안설립초정규등초鄉案設立初定規臆草	1786	서원지
9	봉안시제집사분정기奉安時諸執事分定記	1610~1803	서원지
10	별사봉안시제집사분정기別祠奉安時諸執事分定記	1695~1810	서원지
11	돈사록敦事錄	1720~1730	서원지
12	돈사록	1791~1848	서원지
13	참제록參祭錄(만력39~신묘 3월)	1611~1651	서원지
14	참제록(경진2월~기해8월)	1700~1719	
15	참제록(기해10월~기미8월)	1719~1739	
16	참제록(갑술12월~임신2월)	1694~1752	
17	참제록(갑오8월~병오3월)	1774~1786	
18	참제록(병오10월~병인2월)	1786~1806	
19	참제록(계미3월~임진3월)	1823~1831	
20	참제록(신묘10월~임술3월)	1831~1862	
21	분향록焚香錄(정미8월~을묘6월)	1907~1915	
22	알사록謁祠錄(임신정월~무인12월)	1692~1698	서원지
23	알사록(기묘정월~계미12월)	1699~1703	
24	알사록(갑신2월~정해3월)	1704~1707	
25	알사록(정해2월~신묘12월)	1707~1711	
26	알사록(신묘정월~갑오4월)	1711~1714	
27	알사록(갑오5월~정유2월)	1714~1717	
28	알사록(무술정월~계묘2월)	1718~1723	
29	알사록(갑진3월~무신2월)	1724~1728	
30	알사록(무신3월~정사1월)	1728~1737	
31	알사록(정사2월~신유8월)	1737~1741	
32	알사록(신유2월~경오8월)	1741~1750	
33	알사록(병자정월~임오)	1758~1762	
34	알사록(임오윤5월~계미8월)	1762~1763	
35	알사록(갑신9월~계사7월)	1764~1773	

36	알사록(계사8월~정유9월)	1773-1777	
37	알사록(정유10월~임인정월)	1777~1782	
38	알사록(임인2월~임자2월)	1782~1792	
39	알사록(임자2월~경신6월)	1792~1800	
40	알사록(경신6월~경오2월)	1800~1810	
41	알사록(병술정월~병신10월)	1826~1835	
42	알사록(정유2월~무진2월)	1837~1868	
43	알사록(정축2월~신묘8월)	1817~1831	
44	알사록(임신정월~신축12월)	1832~1841	
45	알사록(임술윤8월~경오6월)	1862~1870	
46	심원록壽院錄(병오~계해)	1606~1623	서원지
47	심원록(정해2월~기해10월)	1647~1659	
48	심원록(경자정월~병진2월)	1660~1676	
49	심원록(병진3월~을해4월)	1676~1695	
50	심원록(을해7월~경진12월)	1695~1700	
51	심원록(경진12월~정해2월)	1700~1707	
52	심원록(정해3월~임진3월)	1707~1712	
53	심원록(임진4월~병신3월)	1712~1716	
54	심원록(병신윤3월~갑진중동)	1716~1724	서원지
55	심원록(무신2월~정사2월)	1728~1737	
56	심원록(정사5월~경오9월)	1737~1750	
57	심원록(경오10월~계미2월)	1750~1763	
58	심원록(계미3월~기축10월)	1763~1769	
59	심원록(신해3월~정묘4월)	1791~1807	
60	심원록(정묘4월~갑술윤2월)	1807~1814	
61	심원록(갑술2월~계미9월)	1814~1823	
62	심원록(계미9월~기축12월)	1823~1829	
63	심원록(경인3월~계묘3월)	1830~1843	
64	심원록(기미3월~계해3월)	1859~1863	
65	심원록(신묘3월~갑진2월)	1891~1904	
66	심원록(무인3월~경술10월)	1938~1970	
67	심원록(신해8월~무진)	1971~1988	

68	각처통문등초各處通文臚草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서원지
69	묘실이건시도기廟室移建時到記	1840	
70	육영재완의절목育英齋完議節目	1787~1789	서원지
71	학계안學稷案	1854~1867	서원지
72	보원계안補院契案	기해(1899)2.1	서원지
73	보원계안	1899~1968	서원지
74	보원계補院契(수전목收錢錄)	기해(1899)~1939	서원지
75	보원계전식본안補院契錢植本案	신유(1921)3.10	
76	보원계전수봉기補院契錢收捧記	무진(1928)2.27	
77	보원계속안補院契續案	을유(1945)3.26	
78	문루계안門樓稷案	갑진(1904)~을사(1905) 12월	
79	본원수리안本院修理案	무인(1938)2월	
80	중수물력도총重修物力都摠	1803(순조3)	서원지
81	중수물력도총책重修物力都摠冊	1858(철종9)	서원지
82	중수시집사분정책重修時執事分定冊	1858(철종9)	
83	도동서원중수찬조금방명록道東書院重修贊助金芳名錄	1958	
84	도동서원보수찬조금방명록道東書院補修贊助金芳名錄	1974	
85	도동서원중수환안기념시첩道東書院重修還安記念詩帖	1967	
86	창고중수기倉庫重修記	무진2월	
87	고실중수庫室重修	무진 윤2월13일	
88	노비안奴婢案	17세기초~1702(숙종28)	서원지
89	월차철물록月次鐵物錄	병진~을묘	서원지
90	노비매매문서奴婢賣買文書	1729(정조3)	
91	도동서원원생안道東書院院生案	무진 2월	서원지
92	도동서원원생안	계유 2월	
93	도동서원원생안	무인 정월	서원지
94	도동서원원생안	을축 12월	서원지
95	도동서원원생안	병인 10월	
96	도동서원원생안	기축 11월	서원지
97	도동서원원생안	병술 10월	
98	도동서원모입안道東書院募入案	무오 2월	서원지

99	도동서원모입안	임술 4월	
100	도동서원모입안	갑자 9월	서원지
101	도동서원자비안道東書院資費案	무오 2월	서원지
102	도동서원자비안	계해 7월	
103	도동유생안道東儒生案	정묘 8월	서원지
104	도동서원전답대장道東書院田畓大帳	신축 2월	서원지
105	경자양전답안庚子量田畓案	무오	
106	원전수세기院田收稅記	임오 정월	서원지
107	전답성책田畓成冊	을축 정묘·무진	
108	도동서원토지대장道東書院土地臺帳	1932(임신)2월	
109	본원토지대장本院土地臺帳	을사~정묘	
110	도동서원대지실측평수대장道東書院垆地實測坪數臺帳	계해 12월~병자 12월	
111	도동서원전답결부대장道東書院田畓結卜大帳	계미 10월	
112	읍서부원수평답척매책邑西部員藪坪畓斥賣冊	정유 3월	
113	도동서원결부구별성책道東書院結卜區別成冊	을미 2월	
114	도동서원결부구별성책	을미 4월	
115	도동서원토지도조대금기道東書院土地賭租代金記	신사 3월	
116	본원양미도지산채합채구분기本院糧米賭地散責合責區分記	경진 정월	
117	도동서원토지도조매책道東書院土地賭租賣買冊	기묘 9월	
118	기지세태정식基地稅太定式	무진 8월	
119	서원토지계약서안書院土地契約書案	신묘 3월	
120	도동서원입금기道東書院入金記	기축 7월	
121	본원도지책本院賭地冊	임인 3월	
122	마산도지책馬山賭地冊	무술 3월	
123	마산도지책	경자 정월	
124	마산도지책	신축 정월	
125	마산도지책	기해 정월	
126	(본원)정안(本院)正案	정미정월~무신6월	
127	(본원)정안	병인5월~무진	
128	(본원)정안	무인 2월	
129	(본원)정안	갑진2월~을사	
130	(본원)정안	병신12월~정유	

131	(본원)정안	정미2월~무신	
132	(본원)정안	갑인2월~병진	
133	(본원)정안	을미 3월	
134	(본원)정안	기해12월~경자	
135	(본원)정안	정해3월~기축	
136	(본원)정안	임오10월~갑신	
137	(본원)정안	기미정월~갑자	
138	(본원)정안	갑자8월~정묘	
139	(본원)정안	갑자 8월	
140	(본원)정안	갑신4월~정해	
141	(본원)정안	갑오4월~경자	
142	(본원)정안	갑인정월~무오	
143	둔조기屯租記	갑신 10월	
144	둔조기	을유 9월	
145	둔조기	병술 9월	
146	둔조기	무자 11월	
147	둔조기	신묘 3월	
148	둔조급식상기屯租及食狀記	갑오 4월	
149	둔조급식상기	경자 3월	
150	수곡급현수지기穗穀及現收支記	신해 10월	
151	별보別補	무오2월~계해12월	
152	별보	신해 2월	
153	별보	무인 10월~기묘	
154	별보	갑인12월~을묘	
155	별보	임신10월~정축12월	
156	별보	병진12월~정사12월	
157	별보	경술 12월	
158	별보(정안책)別補(正案冊)	갑오 12월	
159	별보(정안책)	병술 11월	
160	별보(정안책)	병신 12월	
161	별보(정안책)	을미 12월	
162	(본원)춘정책(本院)春正冊	무오6월~갑자정월	

163	(본원)춘정책	병진12월~정사12월	
164	(본원)춘정책	경진 5월	
165	(본원)춘정책	갑자 정월~병자	
166	간수기看穗記	갑자 9월	
167	간수기	경인 9월	
168	간수기	무인 10월	
169	간수기	병인 9월	
170	도동서원정수기 道東書院定穗記	무신 3월	
171	전장기傳掌記	기미 2월	
172	전장기	갑술4월~계사3월	서원지
173	잡물전장기雜物傳掌記	계유(1693)8월8일~임신 (1752)5월	서원지
174	도동서원서책목록道東書院書冊目錄	정해4월~최근	
175	원중물건기院中物件記	갑자 4월	
176	원중물건기	갑진5월~경진	
177	서원물건목록書院物件目錄	정해3월	
178	··부물건목록서책목록재산수입부 ··付物件目錄書冊目錄財産收入簿	신사4월~임오	
179	경자이안원회하기庚子移安院會下記		
180	도동서원용하기道東書院用下記	기축7월~신묘	
181	고사문간중건하기靑庫舍門間重建下記冊	임자 2월	
182	경현록중간시하기景賢錄重刊時下記	기해 2월	
183	하기장부下記帳簿	정미 9월	
184	문경공종가제수절문文敬公宗家祭需節目	정유정월4일	서원지
185	도동서원전물단지道東書院奠物單子	1892(고종29)	서원지
186	회문回文	기묘 2월	서원지
187	회문	기묘 9월	서원지
188	제문祭文	1605(선조38)~1720(숙종46)	서원지
189	경상좌도현풍현유생배계서등근재목재배상서慶尙左道玄 風縣儒生裴繼緒等謹齋沐再拜上書	1664(현종 5)	
190	명문明文	신해 10월	
191	정음례庭揖禮	(최근)	
192	초록抄錄	정해(1947) 3월	

193	경현록본원보유급반질기景賢錄本院保有及頒帙記	경진 4월	
194	필재김선생문인록분책기畢齋金先生門人錄分冊記	을해12월	
195	필재문인록·하기정안책畢齋門人錄·下記正案冊	갑술 9월	
196	본원방채책本院放債冊	기유~정사	
197	통문通文		서원지
198	명문明文	1779(정조3)	
199	간찰簡札	임오 9월 2일	
200	임안록(송담)任案錄(松潭)	임자(1852)8월~정묘(1857)2월	
201	원임안(송담)院任案(松潭)		
202	송담서원알사록松潭書院謁祠錄(갑술12월~계미9월)	1694~1703	
203	송담서원알사록(계미8월~정해2월)	1703~1707	
204	송담서원알사록(임진정월~을미2월)	1712~1715	
205	송담서원알사록(병진2월~신유2월)	1736~1741	
206	송담서원알사록(임신8월~갑신7월)	1753~1764	
207	송담서원알사록(계사8월~경자8월)	1773~1780	
208	송담서원알사록(경자8월~신해2월)	1780~1791	
209	송담서원알사록(신해2월~병인10월)	1791~1806	
210	송담서원십원록(정해~임오3월)	1767~1801	
211	송담서원십원록(신유4월~임오2월)	1801~1822	
212	송담서원십원록(을묘7월~무진9월)	1855~1868	
213	송담서원원생안松潭書院院生案	무신 2월	
214	송원유전수합기松院儒錢收合記		
215	송담서원별유사전명문松潭書院別有司前明文	갑신(1824) 12월	

① 건립 창건(중건) 및 중수 자료

『도동중창사적도東重創事蹟』, 18세기 이래 도동서원 중수와 관련한 자료로는 『중수물력도총重修物力都摠』, 『중수물력도총책重修物力都摠冊』, 『중수시집사분정책重修時執事分定冊』 및 『보원계안補院稷案』 등이 있다. 『중수물력도총』은 1803년(순조 3) 시행된 서원 전체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중수 시 소요된 막대한 비용을 본손 및 본 읍과 열읍의 각 향교·서원과 문중 등의 부조로 충당한 내역을 적었다.

② 인적구성 및 운영 자료

『원임안』(1책), 『입원록』(2책) 『원임안』 1690년(숙종 16)에 중수, 1604년 중건 이래 1965년까지의 원장·유사의 명단이다. 『입원록』 입원생 명단, 1610년부터 1906년 1책과 1910년부터 1966년까지 1책이 있다. 김굉필과 정구를 봉안할 때의 현관과 제관 및 참석 유생들을 기록

한 『봉안시제집사분정기奉安時諸執事分定記』(1610-1803)와 곽승화·배신·곽을을 별사에 봉안한 1695년(숙종 21)의 봉안식과 추가로 원개를 봉안한 1706년(숙종 32) 봉안식의 헌관·집사와 참석 유생을 기록한 『별사봉안시제집사분정기別祠奉安時諸執事分定記』(1695-1810)가 있다. 이 별사는 대원군의 서원·사우 훼손 시에 훼손되었다.

이외에도 1618년(광해 10) 입비立碑시 제명록題名錄, 1677년(숙종 3) 정구의 도동서원 중향을 청원하는 곽수하 이하 70여 명의 명단과 예조의 계목啓目, 봉안시 제문, 1698년(숙종 24) 사우 중건, 1720년(숙종 46) 묘우 개수, 1721년(경종 원년) 별사 중수, 1743년(영조 19) 묘우 중수시의 이안移安·환안제還安祭때 작성된 고유문告由文, 집사분정기, 축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별사봉안시제집사분정기』에도 1676년(숙종 2) 10월 10일의 전교傳敎와 1721년 별사 개수改修, 1743년 묘우 중수, 을묘년 별사 이건 시에 작성된 이안·환안 집사분정기, 고유문이 있으며, 말미에 정종노鄭宗魯가 지은 「향사시별사용축고유문享祀時別祠用祝告由文」이 있다.

이외에도 서원의 각종 행사 등을 통하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참계록參祭錄』(8책), 『알사록謁祠錄』(24책), 『분향록焚香錄』(1책), 『돈사록敦事錄』(2책) 등이 있다. 도동서원의 사회적 활동을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19세기중반 이후의 것으로 짐작되는 일부 통문을 1책으로 엮은 『각처통문등초各處通文臚草』가 있다.

③ 재정 자료

도동서원의 경제와 관련된 자료로는 『전답안』, 『노비안』, 『원속안』 등이 있다. 『노비안』은 16세기 말부터 1702년(숙종 28)까지의 보유 노비를 기재하고 있다. 도동서원의 원속院屬 관련 자료는 『원생안院生案』 7책, 『모입안募入案』 3책, 『자비안資費案』 2책, 『유생안儒生案』 1책이 있다. 『월차철물록月次鐵物錄』 1책은 중건 초기인 1616년(광해 8)부터 1675년(숙종 원년)까지 도동서원 소속 산직의 서원에 대한 철물 납부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산직이 매달 서원 측에 납부한 낫·도끼의 철물 수량과 그것을 사용한 내역을 기록하였다. 소유한 토지에 대한 기록은 『전답안』(2책)과 『전고수세성책田庫收稅成冊』(1책), 『원전수세기院田收稅記』(1책)가 있다. 『도동서원전답대장道東書院田畝大帳』은 1661년(신축) 2월에 현풍의 21개 고을과 고령의 3개 고을에 산재한 도동서원 소유 전답 총 10결 43부 4속을 기록한 것이다. 1678년(숙종 4)에 작성된 『도동서원전답수정기道東書院田畝修正記』와 더불어 17세기 중·후반 도동서원의 전답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외에도 『정안正案』(17책), 『별보정안別補正案』(11책), 『둔조기屯租記』(7책), 『도지책賭地冊』(5책) 등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 자료는 19세기 말의 몇 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이다.

서원내의 각종 제기祭器, 식기食器를 포함한 잡물과 서책 등의 종류와 수량을 별도의 목록으로 기록하였다. 『전장기傳掌記』(2책), 『잡물전장기雜物傳掌記』, 『도동서원서책목록道東書院書冊目錄』, 『원중물건기院中物件記』(2책), 『서원물건목록書院物件目錄』, 『…물건목록物件目錄·서책목록書冊目錄·재산수입부財產收入簿』 등이 있다. 『잡물전장기』는 도끼, 숯, 식기, 수저, 젓가락, 그릇, 돛자리, 식상食床, 옹瓮 등의 생활기구와 전적책典籍冊, 노비안, 원속안 등이 있었다. 1730년(영조 6)의 『잡물전장기』 「신비」조에는 경현록책관景賢錄冊板 74판, 경자방목판庚子榜目板 11판, 『심원록』·『알사록』을 보관하는 궤櫃 1좌坐 등이 보인다. 『경현록』 판과 『사마방목』 판은 1730년 내지 그 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서원을 방문하여 알묘한 인사들을 기록한 『심원록』과 『알사록』은 이때에 이르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서 별도의 궤에 담아 동·서재에 나눠 보관하기 시작하였다.

④ 교육 및 출판 자료

교육과 관련한 자료로 『육영재완의절목育英齋完議節目』과 『학계안學契案』 등이 있다. 『육

『영재완의절목』은 1787년(정조 11) 겨울에 현감으로 부임한 조정현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거점시의 규정과 내용 및 경제적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학계안』 1책은 1854년(철종 5)부터 1867년(고종 4)까지 학계에 참여한 인사들의 명단이다.

『경현록중간시하기景賢錄重刊時下記』, 『경현록본원보유급반질기景賢錄本院保有及頒帙記』, 『필재김선생문인록분책기畢齋金先生門人錄分冊記』, 『필재문인록畢齋門人錄…하기정안책下記正案冊』 등이 있다.

⑤ 지역 자료

특별한 자료는 현풍현 『향록』 2책과 1621년(광해 13)의 향록 작성 당시에 제정된 규정과 계축년에 일부 고친 규정을 1786년(정조 10)에 등서한 「향안설립초정규등초鄉案設立初定規臚草」가 소장되어 있다. 『향록』은 1621년(광해 13)부터 1791년(정조 15)까지의 상권과 1814년(순조 14)부터 1851년(철종 2)까지의 하권으로 되어 있다. 이 향록을 통해 당시 현풍지역 사족의 분포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는 박성朴愷(1549-1605)을 제향한 송담서원松潭書院의 자료가 있다.¹⁶⁸⁾ 이 자료는 대원군 훼손 시에 이관된 것으로 짐작되는데, 『임안록任案錄』(1책), 『원임안』(1책), 『알사록』(8책), 『심원록』(3책), 『원생안』(1책), 『유전수합기儒錢收合記』(1책), 명문 1건 등이다. 특히 『알사록』은 서원건립 당시부터 19세기 초까지의 기록이 온전히 남아있다.

II. 도동서원이 담은 지식

1. 도서

〈표 3〉 1969년 조사 당시 도동서원 소장 전적

번호	서명	저(편)자	간행연대	수량	비고
1	강호선생실기江湖先生實記	김진식金鎭植	1934	5권 2책	석판본石版本
2	경암선생문집敬菴先生文集	오여벌吳汝撥	1898	1책(영본零本)	활자본活字本
3	경현록景賢錄	김하석金夏錫	1719	6권 3책	목판본木板本
4	고금당집古今堂集	노덕구盧德奎	1908	4권 3책	목판본
5	공자실기孔子實記	원영의元泳義	1921	4권 1책	현대활자본
6	괴헌선생문집槐軒先生文集	곽재겸郭再謙	1845	4권 2책	목판본
7	구거당선생일집九居堂先生逸集	정경흥鄭慶興	1933	2권 1책	목활자본木活字本
8	귀봉선생유집龜峰先生遺集	권덕린權德麟	-	2권 1책	목판본
9	귀암선생문집歸巖先生文集	이원정李元禎	1937	12권 6책	목판본
10	근사록近思錄	주희·여조검朱熹·呂祖謙	-	2책(영본)	목판본

168) 송담서원은 1694년(숙종 20)에 박성을 제향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처음에는 장현광에 의해 1634년(인조 12) 현풍 쌍계에 서원이 건립되었지만, 화재로 불안하지 못하였다. 1677년(숙종 3)에는 정구, 배신과 더불어 도동서원에 중향을 추진했지만, 윤희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향중 사림이 발의하여 박성의 묘소가 있는 대니산 기슭에 서원을 건립하였다.

11	낙천선생문집洛川先生文集	배신裴紳	1862	2권 2책	목활자본
12	남고문집南阜文集	송규필宋奎弼	1918	6권 3책	고활자본古活字本
13	농암선생문집龔巖先生文集	이현보李賢輔	1935	5권 2책	목판본
14	대계선생문집大溪先生文集	이승희李承熙	1927	36권 20책	신연활자본 新鉛活字本
15	대봉선생문집大峯先生文集	양희지楊熙止	1935	4권 2책	목판본
16	독서요어讀書要語	설선薛瑄(명명)	-	1책	필사본筆寫本
17	동강선생문집東岡先生文集	김우옹金宇顙	-	4책	필사본
18	동거집東渠集	송정환宋鼎銓	1926	4권 2책	목판본
19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이규보李奎報	1913	5책(영본)	활자본
20	동명선생문집東溟先生集	김세림金世濂	1737	6권3책(영본)	도활자본陶活字本
21	동소선생유고桐巢先生遺稿	남하정南夏正	1927	7권 4책	석판본石版本
22	동호선생문집東湖先生文集	문덕교文德教	-	2권 1책	목판본
23	망우선생문집忘憂先生文集	곽재우郭再祐	1629(?)	2권 1책	목판본
24	모계선생문집茅溪先生文集	이명배李命培	1907	2책(영본)	목판본
25	무릉잡고武陵雜稿	주세붕周世鵬	1859	2책(영본)	목판본
26	문헌록文獻錄	-	-	1책	-
27	미산문집眉山文集	정도휴鄭道休	1929	4권 2책	목판본
28	방촌선생실기龐村先生實紀	황원철黃源轍	1925	2권 2책	석판본
29	벽계문집碧桂文集	김호주金浩龜	1931	4권 2책	목판본
30	북애선생문집北厓先生文集	김기金圻	1897	4권 2책	목판본
31	사서해四書解	-	-	1책	-
32	사헌행록四賢行錄	곽승화郭承華·배신裴紳· 원개元槩·곽윤희郭[走日]	1898	1책	필사본
33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세종世宗 명편命編	-	1책	목판본
34	서애선생문집西厓先生文集	류성용柳成龍	1894	4책(영본)	목판본
35	서전대문書傳大文	-	16세기 중엽	2권 2책	을해자본乙亥字本
36	설천선생문집雪川先生文集	이봉상李鳳祥	20세기 초	4권 2책	-
37	성학집요聖學輯要	이이李珣	-	7권 4책	목판본
38	소산선생문집素山先生文集	이호우李浩祐	1959	5권2책(영본)	석인본
39	소재선생문집蘇齋先生文集	노수신盧守愼	1652	10권 8책	목판본
40	소학小學	-	-	2책	목판본
41	송강집松岡集	김성하金聲夏	1923	8권 4책	목판본

42	수구재선생문집守口齋先生文集	주맹헌周孟獻	1907	4권 2책	목판본
43	시암선생문집是庵先生文集	임화세任華世	1809	4권 2책	목판본
44	안자대전顔子大全	최종한 편	1931	5권 2책	석인본
45	암거선생문집巖居先生文集	박영로朴永魯	1931	6권 3책	석판본
46	야은선생집治隱先生集	길재吉再	1858	6권 2책	목활자본
47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정조正朝 명편命編	1796	1책(상·하)	목판본
48	여헌선생문집旅軒先生文集	장현광張顯光	19세기 말	4책(영본)	목판본
49	여헌선생성리설旅軒先生性理說	장현광	18세기	8권 6책	목판본
50	역학도설易學圖說	장현광	17세기	8권 8책	목판본
51	염락풍아濂洛風雅	김이상(원元)편	-	1책	필사본
52	영수전집潁水全集	서수석徐壽錫	1927	35권 17책	목판본
53	예기禮記	호광胡廣	-	13책	목판본
54	예의답문禮疑答問	-	-	6책	필사본
55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	정구 편	1629	12권 7책	목판본
56	오한선생문집鰲漢先生文集	손기양孫起陽	1825	4권 3책	목판본
57	전운옥편全韻玉篇	춘방春坊	19세기	2권 2책	목판본
58	외재선생문집畏齋先生文集	이후경李厚慶	1744	4권 3책	목판본
59	우재집愚齋集	손중돈孫仲墩	1935	1책(零本)	목판본
60	오졸재선생실기迂拙齋先生實記	박한주朴漢柱	20세기	2권 1책	목판본
61	음애선생집陰崖先生集	이운李耘	1754	4권 2책	목판본
62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김안국金安國	1730	1책	목판본
63	이산문집伊山文集	심상감沈相吉	1932	4권 2책	목판본
64	이정전서二程全書	주희 편	-	11책(영본)	목판본
65	인경麟經(춘추春秋)	호안국胡安國(송宋)찬 撰	1798	27권 10책	목판본 (정유자번각)
66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주희	-	81책(영본)	목판본
67	자치통감강목	주희	-	13책(영본)	목판본
68	잠와선생실기潛窩先生實紀	최진립崔震立/ 최종겸 편	1775	4권 2책	목판본
69	점필재집佔畢齋集	김종직金宗直	1917	8책(영본)	목판본
70	정암선생문집靜庵先生文集	조광조趙光祖	1892	5권, 부록6권, 속집4권: 5책	목판본
71	정안선생일고定庵先生逸稿	곽월郭越	1925	2권 1책	석판본

72	정재선생문집靜齋先生文集	이담명李聃命	1937	8권 4책	목판본
73	존재선생문집存齋先生文集	이휘일李徽逸	1694	2책(영본)	목판본
74	좌전左傳	-	-	7책(영본)	-
75	주역전대의대전周易傳義大全	호광胡廣	-	10책(영본)	목판본
76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이황李滉	1611	20권 10책	목판본
77	주자어류朱子語類	여정덕 편	-	49책(영본)	목판본
78	진서산독서기을집상대학의眞西山讀書記乙集上大學衍義	진덕수眞德秀	18세기 초	43권 12책	고활자본 (무신자)
79	진양세고晉陽世稿	추원재追遠齋	1906	4권 2책	목판본
80	창주선생문집滄洲先生文集	하정河澄	1897	5권 2책	목판본
81	춘추집전대전春秋集傳大全	호광胡廣	18세기 말	4책(영본)	임진자본壬辰字本
82	탁청헌선생실기濯淸軒先生實紀	곽황郭越	1900	2권 1책	목판본
83	택외문집擇窩文集	우진환禹震煥	1929	9권 4책	석판본
84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이황	-	32책(영본)	목판본
85	한강선생문집寒岡先生文集	정구	1841	24권 9책	목판본
86	한사계변韓史繫辨	이병선李炳善	1924	1권 1책	현대활자본
87	한음선생문고漢陰先生文稿	이덕형李德馨	1935	12권 5책	목판본
88	한재집寒齋集	이목李穆	1914	4권 2책	고활자본
89	한훤선생방목寒暄先生榜目	-	1737	1책	목판본
90	한훤선생사마방목寒暄先生司馬榜目	-	1676	1책	필사본
91	해동삼강록海東三綱錄	김성은 편	1805	6책(영본)	목판본
92	회당선생문집晦堂先生文集	장석영張錫英	1932	45권 22책	목판본
93	회재선생문집晦齋先生文集	이언적李彦迪	1926	2권, 별집2권 4책	목판본
94	훈지양선생속집損簾兩先生續集	정만양鄭萬陽·정규양鄭葵陽	1967	6권 3책	목판본
95	훈지양선생어목損簾兩先生語錄	정만양·정규양	1966	4권 2책	목판본

위 도동서원 장서 목록을 보면, 총 95종 중 문집류가 63종으로 가장 많으며, 경서 13종, 성리서 8종, 사서 7종, 기타 3종으로 나타난다. 2005년 조사 당시에는 대부분의 전적이 망실된 상태로 『경현록』·『사마방목』·『전운옥편全韻玉篇』·『어정규장전운』·『춘추』 등 5종과 1969년 조사에서 누락되었던 『경현속록보유景賢續錄補遺』(1719이전, 1책)와 『오경백편五經百篇』(1798, 내사본, 5권 5책)이 확인되었다.¹⁶⁹⁾

위 표에서 보듯이 도동서원 소장 전적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문집으로 총 63

169) 달성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도동서원·인홍서원』, 2005.

종이 있다. 이는 새로 들어온 신서新書였는데, 해당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사우나 후손들이 간행하여 보내온 것들이다. 이는 18세기 이래로 문중, 서원·사우 등을 중심으로 일기와 문집의 출판이 성행했던 당시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이 도동서원은 향촌 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문고(도서관) 역할을 담당하여 지방문화의 창달에 기여하였다.

2. 책판

〈표 4〉 도동서원 소장 책판 목록

번호	서명	완본수	현존수	결락수	비고
1	경현록(구판)	26	16	10	기탁
2	경현록(신판)	23	2	21	〃
3	경현속록景賢續錄	31	9	22	〃
4	경현속록보유景賢續錄補遺(구판)	28	10	18	〃
5	경현속록보유(신판)	26	12	14	〃
6	성화십육년경자삼월초삼일사마방목 成化十六年庚子三月初三日司馬榜目	11	10	1	〃
7	점필재김선생문도록첨간변과록 佔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	16	7	9	〃
8	점필재선생문인록佔畢齋先生門人錄	10	5	5	〃
총 계		171	71	100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경현록』(6권 3책)은 1719년 도동서원에서 신판으로 간행한 것으로서 김굉필의 8대손 졸재拙齋 김하석金夏錫(1638-1687)이 편집한 것이다. 간행 당시 3책 모두 『경현록』으로 표제 하였지만, 그 내용은 책에 따라 상책은 『경현록』(상·하권), 중책은 『경현속록』(상·하권), 하책은 『경현속록보유』(상·하권)으로 되어 있다.¹⁷⁰⁾

『성화십육년경자삼월초삼일사마방목』 판목은 1480년(성화 16) 김굉필이 생원시에 입격한 후 당시 함께 입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새긴 것이다. 『사마방목』 원본은 한훤당의 종가에 이어져오다가 중간에 유실되었다. 이후 1676년(숙종 2)에 성균관에 있는 『국조방목』을 열람 후 2권을 필사하여 본손가와 도동서원에 보관하였다. 그 뒤 김계갑金繼甲이 여러 가문의 족보와 방목을 고증하여, 그의 조부가 필사해 놓은 방목의 내용을 증보增補한 후 1737년(영조 13) 목판으로 간행하였다.¹⁷¹⁾ 또 『점필재김선생문도록첨간변과록』과 『점필재선생문인록』 판

170) 『경현록』은 6권 3책(상·중·하)으로 구성되어 있다. 1565년 李楨(1512-1571)이 순천부사 시절 이곳에 귀양살이했던 한훤당 김굉필과 梅溪 曹偉의 事蹟을 수집하여 처음 간행한 『경현록』은 퇴계의 자문을 구하여 작성하였다. 당시 이정이 작성한 것이 1719년 『경현록』 상책의 상권이며, 추후 조식이 추가한 사적과 李浚慶이 추가한 사실을 추기하여 『경현록』 상책의 하권을 이룬다. 이후에 정구가 조위의 사적을 빼고 김굉필의 사적만을 모아 여기에 자료를 더하여 『경현속록』 상·하권을 만들었다. 그 뒤 김하석이 『경현속록보유』 상·하권을 더하여 간행하였다. 1719년 도동서원에서 『경현록』을 重刊하면서 『경현속록』과 『경현속록보유』를 포함하여 3책으로 엮고 각기 중·하책으로 하였다(黃義湧, 「〈景賢錄〉解題」, 『남명학연구』 9, 2000, 427-429쪽).

171) 「金繼甲 後書」, 『成化十六年庚子三月初三日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이 있다.

Ⅲ. 공공 도서관의 역사적 모델, 도동서원

1. 도서 대출

서원에서 소장한 서책은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지금 대학의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지역 사회의 공공도서관을 기대할 수 있을까. 분명 서원은 사립 기관이었고, 공적인 성격이 있지만,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에게 개방적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서원에 소장된 책은 누가 어떻게 활용하였을까.

대체로 서원에서는 소장된 도서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서원의 원규에 도서 대출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간혹 도서의 외부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은 있기도 하였다. 책을 서고에만 보관하거나 제한된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개한다면 책의 활용은 매우 저조할 것이다. 도동서원의 경우 책을 활용하기를 장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동서원에 소장된 문서 가운데 도서대출 현황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도동서원은 서원을 출입하는 이들이 원한다면 책을 빌려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도동서원의 책 가운데 지역의 사대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은 어떤 책일까. 서원을 세우고 강학하는 기반을 마련했던 선배학자들의 학문이 후배들에게 얼마나 전해질 수 있었을까. 도동서원에 출입하는 이들은 어떤 책을 빌려다 보았고, 자주 읽히는 책은 무엇일까.

도동서원의 『서책출납치부(書冊出納置簿)』를 통해서 소장 도서 가운데 대출 빈도가 높은 책을 살펴보자. 도서목록에는 책의 제목과 수량을 기재 하였고, 대출된 책은 누가 얼마나 빌려갔는지 언제 반납하였는지 꼼꼼하게 기재하였다. 『서책출납치부』는 모두 14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면은 10행으로 기재하였고 모두 40여 개의 서로 다른 간지가 나열되어 있다. 대략 40여 년 동안 서원의 도서 대출 현황을 기재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한 해에 최소 1건에서 많은 경우에도 5건을 넘기지 않은 정도의 대출 혹은 반납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요즘 공공도서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었고, 대출은 매우 제한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도동서원의 유생들이 가장 많이 대출한 책은 역시 경서인데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의 책을 빌렸다. 책을 대출하는 경우 당일에 바로 반납한 경우도 있으며, 6개월이나 책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한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책은 3주에서 5주 사이 약 1개월 남짓해서 반납하였다. 생각해보면, 도동서원의 유생으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정도로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이 서경, 논어, 맹자 등과 같이 지금 들어도 익숙한 경서들을 도서관에서 빌려 보았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다.

그렇다면 서원이 보유한 서책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문집은 어떻게 활용되었나. 대출 대상에 이름을 올린 문집은 『퇴계집(退溪集)』, 『서애집(西厓集)』, 『한강집(寒岡集)』, 『학봉집(鶴峯集)』 매우 제한된 선배 학자들의 문집이었다. 정구(鄭逵)는 도동서원에서는 특별한 존재였다. 도동서원을 중건하고 운영을 주도하였으며, 학문적 정체성을 구축한 정구의 『한강집』은 문집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책이었다. 정구의 문집을 비롯해서 이황과 류성룡 등 영남학파의 사상적 연원이라고 할 이들의 문집 역시 도동서원에서는 인기 도서였다. 다만 경

서와 비교하면 소장된 문집의 양에 비교해서 거의 대출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문집의 대출은 소수였다.

그러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소장 도서를 대출한 사람은 누구일까. 개인과 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출 대장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개인 대출이 월등하게 빈번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도동서원 주변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은 서원 도서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 대출자들의 면면을 보면 개인 대출자는 서원의 전현직 임원과 그들과 친분이 있는 소수의 인물로 제한되었다. 책을 대출한 개인은 한두 건을 제외하면 모두 전현직 임원이었다. 서원에서 구축된 지식 체계는 위계를 가지고 주변으로 확산 되어 갔던 것이다.

서원은 지식을 담고 이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그 과정과 방법은 지역사회에서 제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지식 문화에 접근하게 하였던 것이다. 서원을 장악한 이들은 바로 지역사회에서 지식을 장악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이렇게 지식을 담아내고 가공하여 새로운 지식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해 가는데 서원을 장악한 이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가끔은 좀 특별한 대출자도 있었는데, 바로 향교(鄕校)와 관가(官家)였다. 을미년(乙未年) 6월에 관가에서 『한강집(寒岡集)』과 『시전(詩傳)』 그리고 『주문작해(朱文酌海)』를 대출하였고, 계묘년(癸卯年)에는 『소학언해(小學諺解)』, 을사년(乙巳年)에는 『주역언해(周易諺解)』를 대출하였다. 관가에서는 을미년 6월에도 『한강집』과 『시전』을 대출하였고, 4개월 후인 10월에 책을 반납하였다. 개인 대출의 경우와 비교하면 대출 기간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

향교에서도 책을 대출하였는데, 을해년(乙亥年)에는 『근사록(近思錄)』을 대출하였고, 병자년(丙子年)에는 『독서록(讀書錄)』을 대출하였다. 관가나 향교에서 책을 대출한 목적은 단정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각 지역에서 관아와 향교, 서원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만들어 갔던 것을 알 수 있다.

2. 藏書 경위

이렇게 서원을 가득 채운 도서는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였을까. 지금까지 서원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서원이 책을 소장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밝혀져 있다. 도동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인네 선행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서책의 소장 경위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었다.

첫 번째는 도동서원이 사액될 때 국가에서 내려준 '내사본(內賜本)'이다. 『도동중창사적』에 의하면 도동서원의 전신인 쌍계서원(雙溪書院)에는 1573년 사액 당시에 국왕이 내려준 서적을 포함하여 수천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건물과 함께 모두 불타 없어졌다. 이후에 서원은 1605년에 중건되었고, 이어서 1607년에 '도동(道東)'으로 다시 사액이 되었다. 전란으로 인해 많은 책이 사라져 버린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나, 서원은 다시 그 모습을 찾아갔다. 이 후 도동서원의 위상에 맞추어 여러 차례 국가로부터 책을 내려 받았는데, 문묘에 종사된 대현을 모시는 서원을 중심으로 명조, 선조, 영조, 정조대에 걸쳐 모두 29종의 책을 받았다. 이 가운데 특히 정조대에 많은 도서가 내려졌으며, 도동서원도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서원에 내려준 책은 주로 경서였는데, 사서오경(四書五經) 위주의 경학(經學) 서적이 대부분이었고, 그밖에는 성리서와 역사서를 비롯한 전기류와 주자의 문집 등도 내려주었다. 이렇게 볼 때, 도동서원에도 이와 같은 종류의 내사본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목록』에는 『오경백편(五經百編)』과 『춘추(春秋)』, 『어정규 장전운(御定奎章全韻)』의 3종만 확인된다.

두 번째는 지방관아와 감영에서 도서를 간행하여 서원에 보냈다. 이것도 크게 보면 국가에서 서적을 간행하여 보급한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지역에까지 고르게 전해져 갔다. 이런 과정에서 조선의 지식은 하나의 질서에서 체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사대부가 성장하며 그들의 문화가 만들어져 갔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책은 대체로 경서류이며, 앞서 소장 도서 목록을 보면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는 인근의 서원이나 문중에서 서적을 간행하여 보내거나, 혹은 개인이나 기관이 소장한 책을 기증한 경우이다. 1969년의 조사에서는 도동서원 소장 서적의 약 70%가 개인의 문집이었고, 이것은 문집을 간행한 이들이 보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관에서 소장한 책이 이관되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인데 고종 대에 많은 서원이 훼손될 당시에 훼손된 서원의 재산과 기물은 일반적으로 향교로 이관하면서 간혹 연고가 있는 서원으로 이관되기도 하였다. 도동서원은 이때 송담서원에서 서원 운영에 관한 자료의 일부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때 송담서원의 장서가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는 서원이 책을 소장하게 된 경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직접 책을 간행하는 것이었다. 서원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책을 간행하였고, 경우에 따라서 구입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서원에서의 구입한 도서는 소학(小學)이나 사서오경(四書五經) 등 경서(經書)가 주류를 이루었고, 간혹 역사책과 시문류(詩文類)가 일부를 차지하였다. 도동서원의 간행본은 김굉필의 『경현록(景賢錄)』과 『한훤선생사마방목(寒暄先生司馬榜目)』, 『점필재문인록』 정도이다.

도동서원은 여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소장 도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필요한 사람들은 책을 대출할 수 있었다. 서원에 담긴 지식은 이렇게 서원에 출입하는 이들과 나누었다. 이런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경서와 정호 정이 및 주희의 성리서로 구성되었던 도동서원의 서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더하여 점차 영남학과 지식인들의 문집으로 채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실 기획,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道, 東에서 꽃피다』, 2013.
 달성문화재단, 『도동서원 이야기』, 2014.
 李春熙 編, 『李朝書院文庫目錄-李朝書院文庫考-』, 국회도서관, 1969.
 이수환, 「도동서원의 연혁과 소장자료의 검토」, 『도동서원지』, 1997.
 이수환, 「도동서원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 『사학연구』 60, 2000.
 黃義洵, 「〈景賢錄〉解題」, 『남명학연구』 9, 2000.
 이수환, 「영남지역 서원의 특징과 교육활동」, 『한국의 서원과 학맥 연구』, 국학자료원, 2002.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역사학보』 186, 2005.
 김윤식, 「朝鮮朝 書院文庫에 관한 一考察」, 『서지학연구』 41, 2008.
 이수환, 「영남지역 퇴계문인의 서원건립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8, 2011.
 안현주, 「龜巖 李楨의 圖書刊行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 2011.
 김훈식, 「'道東刊本' 『景賢錄』의 편찬과 내용」 『지역과 역사』 32, 2013.

- 이병훈, 「道東書院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2, 2013.
- 김기주, 「道東書院과 寒岡學의 전개」 『한국학논집』 57, 2014.
- 옥영정, 「한국 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한국의 서원문화』, 문사철, 2014.
-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2016.
- 정수환, 「18세기 玄風 道東書院 院位田 경영의 '中正'한 가치추구: 학문적 가치의 경영원리 적용」 『민족문화논총』 67, 2017.

발표 7

병산서원 소장 고문헌 기초 연구:
서애학의 지식문화적 자취

강문식(송실대학교)

병산서원 소장 고문헌 기초 연구: 서애학(西厓學)의 지식문화적 자취

강문식(승실대학교 사학과)

<목 차>

1. 병산서원의 운영
 - 1) 서원의 운영
 - 2) 서원의 향사(享祀)
 - 3) 서원의 교육
2. 서애가(西厓家)의 역사
3. 안동의 사회와 문화

이 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발간한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제20집에 수록된 병산서원 고문서를 분류하고 각 문서의 대략적인 내용과 특징을 검토한 것이다. 기존에서 문서의 형식적인 면을 기준으로 병산서원 고문서를 분류·정리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문서 형식보다는 내용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문서들을 분류하였다. 즉 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1) 병산서원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 (2) 서애가(西厓家)의 역사에 관한 문서, (3) 안동 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문서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세 범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산서원 운영에 관련된 문서는 다시 ① 서원의 운영, ② 서원의 향사(享祀), ③ 서원의 교육 등 세 가지 소주제로 다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1. 병산서원의 운영

1) 서원의 운영

병산서원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으로는 『원안요람(院案要覽)』, 『병산서원기사(屏山書院記事)』, 『병산서원 원임록(屏山書院院任錄)』, 『정해년 병산서원 전여기(丁亥年屏山書院傳與記)』, 『원노비안(院奴婢案)』, 『원노비추쇄안(院奴婢推刷案)』, 『1851년 이계로 상소(李啓魯上疏)』 등이 있다.

『원안요람』은 서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문건으로, 모두 3종이 전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제작된 『1841년 이정모 원안요람(李貞模院案要覽)』은 1841년(헌종 7) 당시 병산서원 원장(院長)이었던 이정모(李貞模)가 주도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정모는 서애파(西厓派) 종손인 유운(柳漣)의 외종손이다. 요람의 말미에 수록된 「지문(識文)」에서 이정모는 서원이 건립된 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서원의 문서와 고적(古蹟)들이 훼손되고 멸실되어 임원들이 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잘못된 내용이 계속 전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원 관련 문적들을 수집·고열(考閱)하여 하나의 책자를 만들고 ‘원안요람’으로 명명했음을 밝혔다. 이정모는 ‘김사문 이숙(金斯文彝叔)’, ‘유사문 경협(柳斯文景協)’과 함께 요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정모가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재유사(齋有司)였던 김도재(金道在)와 유양목(柳養睦)을 가리

키는 것으로 보인다. 요람에는 병산서원 소유의 제기(祭器) 및 각종 잡물(雜物)과 서적의 관리, 전답과 노비에 대한 수세(收稅)·수공(收貢)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853년 병산서원 원안요람』은 1853년(철종 4)에 병산서원 재유사(齎有司) 김정흠(金正欽)·유우목(柳宇睦)의 주도로 개안(改案)된 것으로, 이정모의 요람에 이후 변동된 내용을 추가로 기록한 것이다. 지문은 유우목이 썼다. 『1883~1896년 병산서원 원안요람』은 1883년(고종 20)에 개안된 요람을 1896년에 한 차례 더 수정한 것으로, 1883년의 개안은 당시 재유사였던 유도진(柳道鎭)이 주관하였고, 1896년의 수정은 역시 재유사였던 유도경(柳道敬)이 담당하였다.

『병산서원기사』는 「원중가행조건(院中可行條件)」·「묘내의절(廟內儀節)」·「제축변통완의(祭燭變通完議)」·「원사절목(院事節目)」 등 병산서원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절·절목 등을 수록한 문건이다. 문건의 내용을 볼 때 작성자는 1717~1718년에 병산서원 원장을 맡았던 이협(李浹)으로 보인다. 또 문건 중에 정유(丁酉: 1717)·무술(戊戌: 1718) 등의 간지가 확인되므로, 이를 통해 본서의 작성 시기는 1717~1718년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원안요람』과 더불어 병산서원 운영의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원임록』은 원장과 재유사 등 병산서원의 운영을 담당했던 임원들의 명단이다. 현재 병산서원의 『원임록』은 모두 8종이 전하고 있는데, 제작 과정이나 내용을 볼 때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① 『1592년 이전~1640년 병산서원 원임록』, ② 『1652~1672년 병산서원 원임록』, ③ 『1592년 이전~1807년 병산서원 원임록』 등 3종이다. 이들 3종은 여러 가지 필체가 섞여 있는 것을 볼 때 최초 작성 이후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내역을 계속 추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로 원장과 재유사·고유사(庫有司)·유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는 ④ 『1592년 이전~1716년 병산서원 원임록』, ⑤ 『1717~1806년 병산서원 원임록』, ⑥ 『1807~1885년 병산서원 원임록』, ⑦ 『1887~1918년 병산서원 원임록』, ⑧ 『1955~1972년 병산서원 원임록』 등 5종이다. 이 중에서 ④와 ⑤는 1806~1807년경에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앞서 본 ①~③ 등의 기존 원임록을 바탕으로 1592년 이전부터 당시까지의 원임록을 일괄 정리한 목록이다. 또 내용 면에서도 원장과 재유사만 기록했을 뿐 고유사나 유사는 제외되어 있어서 재유사 외의 다른 유사도 포함되어 있는 ①~③의 기록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⑥~⑧은 ④·⑤의 체제를 따라서 이후 시기의 원장과 재유사 명단을 정리한 목록으로, 연도별로 임원 변동 사항을 계속 추록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한편 ⑧에 실린 서문에 따르면, 원래는 1919~1954년의 임원 명단을 정리한 원임록 1책이 있었으나 ‘경인년 병화(庚寅年兵禍)’, 즉 1950년 한국전쟁 과정에서 소실되었다고 한다.

『정해년 병산서원 전여기』는 병산서원의 임원이 교체될 때 신·구 임원 간에 주고받은 인수인계 문서이다. 본 문건에는 정해년(丁亥年)부터 무신년(戊申年) 사이에 작성된 15건의 인수인계 문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문서 작성 연도가 간지로만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첫 번째 것인 정해년 인수인계 문서에 『징비록(懲毖錄)』 103권에 51석(石) 8두(斗)의 곡식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징비록』이 간행된 것이 1647년(인조 25) 정해년이다. 또 병산서원 『원임록』에서 1646~1647년의 원장과 유사 명단을 확인한 결과 정해년 인수인계 문서에 수결을 한 전·현직 도유사(都有司: 원장)·고유사(庫有司)들과 성씨가 일치하였다. 이상을 고려할 때 본 『전여기』의 ‘정해년’은 1647년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본서에는 1647년부터 1668년(무신년) 사이에 작성된 15건의 인수인계 문서가 실려있다고 할 수 있다. 문서

에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날짜, 곡식·면포 등 인수인계 물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 내역, 그리고 전여(傳與)한 전임 도유사·고유사와 전수(傳受)한 신임 도유사·고유사의 성(姓)과 수결이 기록되어 있다.

『원노비안』과 『원노비추쇄안』은 병산서원 운영의 경제적 기반의 하나인 서원 소속 노비에 관한 문건으로, 『원노비안』이 4종, 『원노비추쇄안』이 3종 등 모두 7종이 전해지고 있다. 『원노비안』으로는 『1663년 병산서원 노비안』, 『1666~1669년 병산서원 노비안』, 『1738년 병산서원 노비안』, 『1762년 병산서원 노비안』 등이 있다. 또 『원노비추쇄안』으로는 『1739년 병산서원 원노비추쇄안』, 『1750년 병산서원 원노비추쇄안』, 『1756년 병산서원 원노비추쇄안』 등이 있다.¹⁷²⁾ 『원노비안』과 『원노비추쇄안』은 서명은 차이가 있지만, 서원 소속 노비의 이름과 출생연도, 노비 자녀의 이름과 출생연도(또는 나이), 거주 지역 등의 기록 내용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또 도망간 노비나 사망한 노비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아래에 작은 글씨로 ‘도망(逃亡)’, ‘고(故)’라고 표시했으며, ‘노(老)’·‘약(弱)’·‘장(壯)’ 등으로 노비의 신체적 상태를 기록해 놓기도 하였다. 병산서원의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1851년 이계로 상소』는 이계로가 올린, 병산서원의 사액(賜額)을 요청하는 내용의 상소로, 표제는 ‘병산서원 연액 시 사실(屏山書院延額時事實)’이다. 상소의 뒤에는 상소를 받은 철종이 의정부에 논의를 지시하고, 조두순(趙斗淳)이 의정부의 의견을 수합하여 철종에게 병산서원 사액을 건의하여 재가를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서원의 향사(享祀)

병산서원의 향사와 관련된 자료로는 『1610~1614년 병산서원 봉안록(屏山書院奉安錄)』, 『1614~1639년 병산서원 춘추향사 집사분정기(屏山書院春秋享祀執事分定記)』, 『1658~1664년 병산서원 향사집사분정(屏山書院享祀執事分定)』, 『1666~1698년 병산서원 집사록(屏山書院執事錄)』, 『1723~1735년 병산서원 집사록(屏山書院執事錄)』, 『1823~1826년 병산서원 분향록(屏山書院焚香錄)』, 『1615~1617년 병산서원 제기(屏山書院祭器)』, 『병산서원 제수물목(屏山書院祭需物目)』, 『1629년 정경세 제문(鄭經世祭文)』, 『1659년 병산서원 제문(屏山書院祭文)』 등이 있다.

『1610~1614년 병산서원 봉안록』은 1610년부터 1614년까지 유성룡(柳成龍)을 병산서원에 봉안한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먼저 1610년과 1612년에 유성룡의 봉안을 추진하고 준비한 각종 유사(有司)들의 명단을 정리한 「묘유사록(廟有司錄)」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1614년에 유성룡을 봉안할 때의 제문인 「서애유선생 봉안제문(西厓柳先生奉安祭文)」이 실려있는데, 찬자는 당시 강릉부사(江陵府使)였던 정경세(鄭經世)이다. 제문 뒤에는 1614년 유성룡 봉안 의례에서 헌관(獻官)·대축(大祝)·찬자(贊者)·알자(謁者) 등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인 「집사록(執事錄)」이 있다.

『1614~1639년 병산서원 춘추향사 집사분정기』, 『1658~1664년 병산서원 향사집사분정』, 『1666~1698년 병산서원 집사록』, 『1723~1735년 병산서원 집사록』 등은 각 시기에 병산서원에서 봄과 가을에 거행된 향사(享祀)에서 헌관·전사(奠司)·진설(陳設)·대축 등 집

172) 1738년 이후의 『원노비안』·『원노비추쇄안』에는 중국 연호(年號)가 기록되어 있어 작성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663년과 1666~1669년의 『원노비안』에는 작성연대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선행 연구에서 문건에 주기되어 있는 연도 표시 및 수록된 노비들의 친족 관계, 나이 등을 검토하여 작성연대를 확인하였다[鄭求福, 「屏山書院 古文書 解題」 『古文書集成』 2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2].

사관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다.

『1823~1826년 병산서원 분향록』은 1823년 7월부터 1826년 11월까지 병산서원에서 분향(焚香)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직역이나 관직은 쓰지 않고 분향자의 이름만 기록하였다. 분향은 기본적으로 매달 1일과 15일에 거행되었으며, 정월(正月)에는 1일 대신 4일 또는 7일에 정알(正調)을 할 때 분향도 함께 시행하였다. 또 춘추향사가 있는 3월과 9월에는 1일·15일 뿐만 아니라 향사일에도 분향을 거행하였다.

『1615~1617년 병산서원 제기』는 병산서원 임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서원에 소장된 각종 제기들을 인수인계한 내용이 기록된 문서로, 1615년과 1617년의 인수인계 문서가 한 책으로 합해져 있다. 제기의 종류와 수량, 전여한 전임 도유사와 전수한 신임 도유사의 성(姓)과 수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앞서 병산서원 문서로 검토한 『전여기(傳與記)』와 함께 병산서원 소장 물품의 현황과 인수인계 과정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병산서원 제수물목』은 병산서원에서 유성룡[정위(正位)]과 유진[종사위(從祀位)]에게 제사를 올릴 때 사용한 제수물품의 내역을 기록한 목록이다. 「정위 제수물목(正位祭需物目)」과 「종사위 제수물목(從祀位祭需物目)」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수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하였다. 또 물품 내역 아래에 개별 향사에서 발생했던 제수 관련 변동 사항을 기록해 놓은 경우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녹해(鹿醢)를 어해(魚醢)로 대체한 경우 녹해 항목 아래에 “기해년 가을 향사에서는 어해로 대신하였다[己亥秋享時 代以魚醢]”라는 식으로 기재하였다.

『1629년 정경세 제문』은 1629년 유성룡의 위패를 환안(還安)할 때에 정경세가 지은 제문으로 원제목은 ‘숭정 2년 기사 3월 1일 문충공 서애유선생 환안제문(崇禎二年己巳三月一日 文忠公西厓柳先生還安祭文)’이다. 제문 다음에는 환안 제례를 주관한 집사관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1659년 병산서원 제문』은 유성룡의 3자 유진이 병산서원에 종향된 후 작성된 제문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정위제문(正位祭文)」, 「종향제문(從享祭文)」 「병산종향 고사유문(屏山從享告事由文)」 등 여러 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책의 말미에 “기해년 9월 상순에 첩(帖)을 만들었다[己亥九月上浣作帖]”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진이 종향된 후 첫 번째 기해년이 1659년이므로, 이때 본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 서원의 교육

병산서원의 교육에 관한 자료로는 『1718년 병산서원 입원록(屏山書院入院錄)』, 『1781~1792년 병산서원 거재안(屏山書院居齋案)』, 『1789년 병산서원 강안(屏山書院講案)』 등 3종이 전하고 있다.

『1718년 병산서원 입원록』은 병산서원에 들어와서 공부한 원생의 명단을 시기별로 정리해 놓은 문건으로, 서원 건립 이전인 풍악서당 시절의 원생부터 소급해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본서에 기록된 마지막 입원 시기는 ‘무술년(戊戌年) 9월’인데, 이때 서원에 들어온 유생 중 유성천(柳聖天, 1690~1746)의 생몰년을 고려해 볼 때, 이 무술년은 1718년(숙종 44)임을 알 수 있다.¹⁷³⁾ 이를 기준으로 역산해 보면, 본서의 기록 중 입원 시기가 확인되는 1638년(인조 16) 3월부터이며, 이보다 앞선 시기의 원생들은 정확한 입원 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본서의 기록을 보면 원생의 입학은 3월이나 9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1661년과 1675년에는 1월에 입원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원생의 인적사항으로는 관직, 생

173) 정구복, 앞의 해제.

원·진사시 및 문과(文科) 급제 여부, 거주지, 생사(生死) 여부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병산서원에서 이루어진 교육의 실상을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781~1792년 병산서원 거재안』¹⁷⁴⁾은 병산서원에 기거하면서 공부했던 유생들의 명단과 공부한 서적 등을 기록해 놓은 문건이다. 본서는 「신축년 통독안(辛丑年通讀案)」, 「신축 10월 거재안(辛丑十月居齋案)」, 「임인 10월 거재안(壬寅十月居齋案)」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축년 통독안」은 1781년(정조 5)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병산서원에서 개최된 『대학(大學)』 통독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앞에 당시 병산서원 원장이었던 유종춘(柳宗春, 1720~1795)이 지은 〈병산서원통독안서(屏山書院通讀案序)〉가 있고, 이어 통독회에 참여한 유생들의 명단인 〈통독시회안(通讀時會案)〉이 실려있다. 「신축 10월 거재안」은 1781년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임인 10월 거재안」은 1782년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병산서원에서 개최된 강학에 참여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다. 1781·1782년의 강학은 각각 4개 순(巡)으로 나누어졌으며, 매 순은 15일간 진행되었다. 각 거재안에는 강학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명과 자(字), 출생연도, 강학 서적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강학 서적은 사서(四書)와 오경(五經), 『심경(心經)』,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¹⁷⁵⁾

『1789년 병산서원 강안』은 병산서원에서 개최된 경서 강론(講論)에 참여한 유생들에 관한 문건이다. 서두의 “기유 2월 초1일 설강강생(己酉二月初一日設講講生)”이라는 기록을 통해 이 강안이 기유년의 강론 기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강론에 참여한 유생의 한 명인 유성조(柳晟祚, 1769~1834)의 생몰년을 고려하면, 이 기유년은 1789년(정조 13)이다. 본서에는 2건의 강안이 수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1789년 2월 1일에 실시된 강론의 기록이고, 두 번째 것은 같은 해 4월 2일에 개최된 강론의 기록이다. 두 강안에는 강론에 참여한 유생들의 이름과 자(字), 출생연도, 강론한 경서(經書) 이름[편명(篇名) 포함], 강론 성적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강론 성적은 순통(純通), 통(通), 약(略), 조(粗) 등 4개 등급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또 유생들과 별도로 강론에 참여했던 동몽(童蒙)의 명단도 수록되어 있는데, 2월 강안에는 동몽의 성명과 출생연도만 실려 있는 반면, 4월 강안에는 동몽의 성명과 강론한 경서명, 성적 등이 기록되어 있다.¹⁷⁶⁾

2. 서애가(西厓家)의 역사

『고문서집성』 20에는 풍산유씨 서애 유성룡가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들도 일부 수록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1598~1674년 병산서원 제물 의식(屏山書院祭物儀式)』, 1634년의 『상대계첩(霜臺契帖)』 3건, 1674년 『상대계첩』 1건, 1731년 『상대계첩』 2건, 1691년 정무서(鄭武瑞) 등이 작성한 『변무록(辨誣錄)』과 17세기 중반 김응조(金

174) 기존 해제에서는 본서에 신축년과 임자년(壬子年, 1792)의 거재안이 실려있다고 하였으며(정구복, 앞의 해제), ‘1781~1792년 병산서원 거재안’이라는 서명도 이 해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문을 확인한 결과 본서에 실린 거재안은 임자년이 아니라 임인년(壬寅年)의 거재안이었다. 따라서 이 서명은 수정이 필요하다.

175) 본 거재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박종배, 「병산서원 교육 관계 자료 검토」 『교육사학연구』 18-2, 2008을 참조.

176) 본 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종배, 위의 논문을 참조.

應祖)가 작성한 『변무록(辨誣錄)』 등이다.

『1598~1674년 병산서원 제물의식』은 ‘고조고 찬성부군(高祖考贊成府君)’ · ‘조고 영의정부군(祖考領議政府君)’ · ‘종가(宗家)’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서애 종가의 제사에 관한 기록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병산서원 제물의식’이라는 서명은 수정이 필요하다. 또 ‘조고 영의정부군’은 유성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문건의 찬자는 유성룡의 손자 유원지(柳元之)일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霜臺)는 사헌부(司憲府)의 별칭이며, 『상대계첩』은 사헌부 감찰(監察)을 지낸 인물들이 조직한 계획(契會)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계획에서 주고받은 시문, 계획 장면을 그린 계획도(契會圖) 등을 수록한 문건이다. 병산서원 소장 『상대계첩』 7건은 풍산유씨 서애가의 일원인 유원지(柳元之, 1598 ~ 1648), 유성화(柳聖和, 1668 ~ 1748) 등이 사헌부 감찰로 재직했기 때문에 제작된 것이므로 서애가의 역사에 관한 기록으로 분류하였다. 1634년과 1674년 『상대계첩』에 유원지가, 1731년 『상대계첩』에 유성화가 기록되어 있다.

2건의 『변무록』은 모두 유성룡의 행적 중 잘못으로 지적받는 문제에 대해서 변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서원 기록이라기보다는 서애가에 관련된 문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3. 안동의 사회와 문화

안동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로는 『유중하 상소(柳重河上疏)』, 『1598~1607년 동안(洞案)』, 『1589년 풍산현 향록(豊山縣鄉錄)』, 『1639·1642·1646년 계약(契約)』, 『계약(契約)』, 『1804~1811년 병산서원 경로회안(屏山書院慶老會案)』, 『1897년 망기(望記)』, 『임술년 재사동완문(齋舍洞完文)』, 『갑오년 풍산서당 통문(豊山書堂通文)』 등을 들 수 있다.

『유중하 상소(柳重河上疏)』는 조정에서 추진하던 향교 액외유생(額外儒生)의 충군(充軍) 조치에 대해 일률적인 충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책을 제시한 상소이다. 본 문건은 결락된 부분이 많아 유중하가 제시한 대책이 무엇인지 잘 확인이 안 되는데, 『광해군일기』의 기사를 보면 당시 안동에서 올린 상소에는 액내·액외유생 모두를 대상을 고강(考講)을 실시하여 낙강(落講)한 유생을 충군하도록 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⁷⁷⁾ 또 이 기사를 통해 유중하가 상소를 올린 것이 1619년(광해군 11)인 것도 확인하였다.

『1598~1607년 동안』은 안동 지역에 거주하던 양반들의 동안(洞案)이다. 동안에 수록된 인물들의 인적사항을 고려할 때 본 동안은 1584년 이후 1618년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으며, 모두 5차례의 추록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안동 지역의 동계(洞契) 운영 사례와 양반들의 교유관계를 알 수 있다.¹⁷⁸⁾

『1589년 풍산현 향록』은 1589년에 작성된 안동 풍산현의 향안을 후대에 필사해 놓은 문건이다. 지문에 따르면 1589년에 제작된 향안이 병화로 손상을 입어 후대에 전하기 어렵게 되자 전 향소(前鄉所)가 이를 개서(改書)했는데, 원래 향안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177) 『광해군일기』 권147, 광해군 11년 12월 10일.

178) 김정철, 「1598~1607년 동안(洞案) 해제」 한국고문서자료관 사이트

(http://archive.aks.ac.kr/jipsung/item.do#view.do?itemId=jipsung&gubun=booknum&depth=4&upPath=20%5E2002%5E200204&dataId=G002%2BAKS%2BKSM-XG.1598.4717-20101008.B011a_020_00040_YYY)

수정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개서한 문건을 파기하고 한결같이 기존 문건에 근거하여 다시 개록(改錄)하였다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본 향록이다.

『1639·1642·1646년 계약』은 17세기 중반 안동 지역에서 결성된 동계(洞契)의 관련 문서를 모아 놓은 것이다. 계의 목적과 계원의 의무, 규약 등을 정리한 「계약」, 계의 조직 체계를 대계(大契)와 소계(小契)로 나누어 설명한 「작계(作契)」 초상이 났을 때의 규정인 「사상상조(死喪相助)」, 규약을 어긴 계원에 대한 처벌 규정인 「정벌(定罰)」, 유사를 뽑는 방식과 임기, 담당 업무를 정리한 「장계유사(掌契有司)」, 재해를 입은 계원을 도와주는 방법을 서술한 「환란상구(患亂相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7세기 중반 향촌에서의 계 운영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계약』은 17세기 후반에 안동 지역에서 결성된 동계(洞契)의 관련 문서를 모아 놓은 책이다. 항목의 구성은 위의 『1639·1642·1646년 계약』과 대동소이하며, 전후 맥락으로 볼 때 1646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804~1811년 병산서원 경로회안』은 안동의 속현인 풍산현 경로회(慶老會)에 입록(入錄)된 사람들의 명단으로, 1804년과 1807년부터 1811년까지의 경로회 입록자 명단이 실려있다. 풍산현의 『경로회안』은 2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병산서원 소장본은 그중 제2책이다.

『1897년 망기』는 경광단소(鏡光壇所)의 도유사(都有司)로 유학(幼學) 유승우(柳承佑)를 추천한 내용이 실려있다. 경광단소의 전신인 경광서원은 경북 안동시 서후면에 있었던 서원으로, 1868년에 철폐된 후 1873년에 단소가 설립되어 향사 거행을 담당하였다.

『입술년 재사동완문(齋舍洞完文)』은 안동부사가 발급하고 재사동에서 수취한 완문(完文)으로, 유성룡의 분묘(墳墓)와 재사(齋舍)가 있는 지역을 상동(上同)에서 분리하여 재사동으로 독립시키고, 분묘 관리를 위해 상동의 미포(米布) 일부를 재사동에 분정(分定)하며 재사 노비들을 다른 역사(役事)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갑오년 풍산서당 통문(豊山書堂通文)』은 풍산서당 회중(會中)에서 병산장무(屏山掌務)에게 발급한 통문으로, 병산장무가 임안(任案)을 자의적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실려있다.

발표 8

남겨진 문헌과 서원의 위상
-기호예학의 산실 돈암서원과 호남
유림의 거점 무성서원

이선아(전북대학교)

남겨진 문헌과 서원의 위상

- 기호예학의 산실 遯巖書院과 호남 유림의 거점 武城書院 -

이선아(전북대학교)

<목 차>

1. 시작하는 글
2. 기호예학의 산실, 돈암서원
3. 호남 유림의 거점, 무성서원

1. 시작하는 글

2012년 우리나라의 서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 발족되어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9개 서원을 신청하였다. 2019년에 이르러 9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한국의 서원은 보편적, 세계적 가치를 지닌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되었다.¹⁷⁹⁾ 이후 9개 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한국의 서원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원 ‘기록물’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각지에 있는 서원 자료는 차치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의 기록물도 여러 지역의 유관 기관 등에 흩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을 대상으로 서원 문헌 아카이빙(archiving)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아카이빙은 기록물을 파악, 수집, 분류, 관리하여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일련의 지속적인 활동과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아카이빙은 기록화 사업의 고정된 결과물인 아카이브를 관리하고 그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의 자산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아우른다.¹⁸⁰⁾ 아카이빙의 사전적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유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서원 자료를 집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서원 관련 문헌은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장서각,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지방 문화원 등 유관기관 등에 흩어져 있다.¹⁸¹⁾

반면에 개별적인 서원의 문헌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상당히 진척된 편이다. 『돈암서원 고문서기록화사업 보고서』(충남 역사문화연구원, 2015)와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전북연구원, 2020),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발간 용역 보고서』(전주대학교, 2020)는 대표적인 사례로 해당 서원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출간하였다.¹⁸²⁾ 본고에서는

179)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은 경상북도의 영주 소수서원·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경주 옥산서원·대구광역시 달성 도동서원, 경상남도의 함양 남계서원, 전라남도의 장성 필암서원, 전라북도의 정읍 무성서원, 충청남도의 논산 돈암서원이다.

180)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매뉴얼』, 2021

181) 본고에서 검토할 돈암서원의 자료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집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성서원의 자료는 정읍시립박물관에 이관되었다.

182)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아카이브에서는 센터 발간 자료와 타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간행서를 활용하여 돈암서원과 무성서원의 성격과 위상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세기 후반 국정(國政)을 쇄신하며 서원을 훼손할 때 충청도에서는 돈암서원과 노강서원(魯岡書院), 전라도에서는 무성서원과 필암서원(筆巖書院)이 존치되었다. 대대적으로 서원이 철폐되는 상황에서 존치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의미로 이해되었고, 그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철폐되지 않고 존치된 서원의 문헌을 통해 서원의 위상과 그 현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기호예학의 산실, 돈암서원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은 서원과 사우의 철폐를 단행하여 47개소만 남기고 훼손하였다. 충청도에는 돈암서원과 노강서원, 충주 충렬사(忠烈祠), 청주 표충사(表忠祠), 부여 창열사(彰烈祠)가 존치되었다. 이 가운데 돈암서원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이 되었다.

돈암서원은 1634년(인조 12)에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 강학(講學)하던 양성당(養性堂)에 그의 제자들이 건립하였다. 1658년(효종 9)에 김장생의 아들이자 수제자 김집(金集; 1574~1656)이 추배되었고, 송준길(宋浚吉; 1606~1672)과 송시열(宋時烈; 1607~1689) 등 호서산림의 노력으로 1660년(현종 원년)에 사액을 받았다. 1688년(숙종 14)에 송준길이 추향되고, 1695년(숙종 21)에 송시열이 추향되었다. 1696년(숙종 22)에 화양서원(華陽書院)이 건립되기 전까지 호서를 대표하는 서원으로¹⁸³⁾ 경기의 석실서원(石室書院)과 호남의 고암서원(考巖書院)과 함께 노론 서원으로서 위상을 지켰다.

돈암서원 관련 ‘기록물’은 『돈암서원 고문서기록화사업 보고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 가

장 눈에 띄는 부분은 책판이다. 책판은 고서와 고문서 등 문헌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돈암서원의 성격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연번	소장처	소재지	조사내용현황(건/점)						합계	비고
			고서	고문서	현판	책판	금석문	민속유물		
1	돈암서원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	11	76	50	1,839	2	5	1,983	
2	엽수재	논산시 연산면 고장길 250	14	1,759	4	-	-	2	1,779	
3	선독재	논산시 연산면 임1길 109	67	177	-	-	-	-	244	
4	모선재	논산시 연산면 고장길 215-23	12	94	-	-	-	-	106	
합계			104	2,106	54	1,839	2	7	4,112	

출처: 『돈암서원 고문서 기록화 사업 보고서』 17쪽.

□ 정회당과 양성당

돈암서원의 연원을 조명할 수 있는 정회당(靜會堂)과 양

성당(養成堂)에 대한 문헌이 남아 있다. 정회당은 김국광(金國光; 1415~1480)의 5대손이자 김장생의 부친 김계휘(金繼輝; 1526~1582)가 세웠다.¹⁸⁴⁾ 김계휘는 1549년(명종 4)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正字), 사관(史官), 부수찬(副修撰), 이조좌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1557

183) 이연숙, 「돈암서원의 건립과 성격」, 『민족문화의 계문제』, 우강권태원교수정년기념논총, 1994.

184) 김장생의 집안에 대해서는 지두환, 「조선전기 사족세력의 형성과 변천-사계 김장생 집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59집, 189~193쪽 참고.

년(명종 12)에 옥사에 연루되어 삭탈관직(削奪官職)과 문외출송(門外黜送)의 처벌을 받아 연산으로 낙향하여 대둔산(大屯山)에 있는 고운사(孤雲寺) 경내에 1560년(명종 15) 즈음에 서당을 건립하고¹⁸⁵⁾ 정회당이라는 편액을 내걸고 후학양성과 향촌교화의 뜻을 세웠다. 김계휘는 1562년(명종 21)에 이조 정랑에 복직되었으나 부친의 상중이어서 출사하지 않고 연산에 머물면서 삼년상을 마쳤다. 낙향 후 다시 관직에 나가기까지 정회당에서 강학에 전념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회당과 관련된 자료는 「정회당 문회계안(文會契案)」, 『정회당지(靜會堂誌)』, 「정회당 사적비 개요」(1988)가 있다. 『정회당지』에는 강규(講規)와 입의(立議)가 수록되어 있다. 강규는 「정회당 문회계안」에도 수록되어 있다. 『돈암서원지』(1958)에 「정회당 유안(儒案)」, 「정회당 유적(遺蹟)」이 수록되어 있다. 흩어져 있던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정회당지』를 편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제목	간행처/소장처	비고
돈암서원지(1958)	靜會堂 儒案	국립중앙도서관	
돈암서원지(1958)	靜會堂 遺蹟	국립중앙도서관	
정회당 사적비 개요(1988)	靜會堂 遺墟碑文	국립중앙도서관	창건428년 8월
정회당 사적비 개요(1988)	靜會堂 事蹟碑文	국립중앙도서관	
정회당 사적비 개요(1988)	靜會堂 事蹟碑 建立 趣旨文	국립중앙도서관	安相千 작성
정회당지	講規(今蹟)	국립중앙도서관	1870
정회당지	立議(今蹟)	국립중앙도서관	
정회당지	儒狀(古蹟)	국립중앙도서관	
정회당지	立議(古蹟)	국립중앙도서관	1582년 이전
정회당지	上樑文(今蹟)	국립중앙도서관	
정회당지	堂制(今蹟)	국립중앙도서관	
정회당지	靜會堂 契帖跋(今蹟)	국립중앙도서관	
정회당지	靜會堂 契帖序(今蹟)	국립중앙도서관	
정회당지	靜會堂 契案(今蹟)	국립중앙도서관	
정회당지	儒案(古蹟)	국립중앙도서관	
정회당지	重建記(今蹟)	국립중앙도서관	
靜會堂 文會契案	靜會堂 契案序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靜會堂 文會契案	講規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靜會堂 文會契案	立議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靜會堂 文會契案	座目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에서 태어난 김장생은 1596년(선조 29)에 정산 군수를 마치고 연산으로 낙향하였다. 그는 정유재란 때 소실된 아한정(雅閑亭) 자리에 1602년(선조 35)에 초가(草家)를 짓고 당호를 ‘양성당(養性堂)’이라고 지었다. 양성당은 원래 최청강(崔淸江)이 소유한 아한정을 김장생의 큰할아버지 김석(金錫; 1499~1558)이 사들인 후 연산 광산김씨 소유의 정자가 되었다.

185) 『정회당사적비개요』에 창건 428년에 편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1560년에 건립하였다.

김석에게 아들이 없어서 김장생의 작은 아버지 김은휘(金殷輝; 1541~1611)가 양자로 들어갔는데 역시 후사를 두지 못하여 그의 동생 김입휘(金立輝)의 아들 김선생(金善生; 1583~1623)이 입적하여 후사를 이었다. 이러한 혈연으로 김장생은 아한정에 출입하였을 것이다. 이곳에서 김장생은 1631년(인조 9) 84세에 영면하기 전까지 제자들을 양성(養成)하였다.¹⁸⁶⁾ 양성당에 대해서는 『돈암서원지』에 「양성당후기」, 「양성당십영」, 「양성당기」, 「양성당중수기」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김장생의 문집 『사계전서』에도 수록되어 있다.

□ 창건과 사액

김장생의 제자들은 1632년(인조 10) 스승을 배향하는 사우를 건립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출문 유사(出門有司)와 열읍 유사(列邑有司)의 발의에 송준길과 송시열 등이 앞장섰다. 사우 건립을 위해 발송한 통문(通文)은 당시 27세의 청년 송준길이 작성하였다. 1633년(인조 11)에 사우를 건립하였는데,¹⁸⁷⁾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상량문(上樑文)을 지었고, 봉안문(奉安文)은 정홍명(鄭弘溟; 1582~1650)이 지었다. 위패를 사당에 봉안할 때 작성한 유생도기(儒生到記)에는 유생 155명이 기재되어 있다. 1634년(인조 12) 8월에 문인인 장유(張維)가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완성했고, 이듬해에 김상헌이 묘지명(墓誌銘)을 지었다.

돈암서원 창건 당시에 생성된 통문, 상량문, 봉안문, 신도비명 등은 해당 문헌을 작성한 이들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1958년에 편찬한 『돈암서원지』에도 수록되어 있다.

문서명칭	작성시기	출처	작성자	비고
遯巖書院 創建通文	1632	『동춘당선생문집』 권16	송준길	한국고전번역원
創建 通文	〃	『돈암서원지』(1958)	〃	국립중앙도서관
上樑文	1634	『청음집』 제14권	김상헌	한국고전번역원
上樑文	〃	『돈암서원지』(1958)	〃	국립중앙도서관
神道碑銘	1634	『사계전서』 49권	장유	한국고전번역원
沙溪金先生神道碑銘	〃	『계곡선생집』 제14권	〃	〃
遯巖書院講堂上樑文		『노서유고』 권16	윤선거	〃
遯巖書院碑	1669	『사계전서』 권49부록	송시열	〃
遯巖書院廟庭碑	〃	『송자대전』 제171권	〃	〃
移建廟庭碑	1903	『연재선생문집』 권32 신도비	송병선	〃
移建碑文	〃	『돈암서원지』(1958)	〃	국립중앙박물관

김장생 사후에 그의 아들 김집이 유지(遺志)를 받들어 후학을 양성하였다. 1656년(효종 7) 김집이 83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그의 제자들은 1658년(효종 9)에 김집을 추배하였다. 이후 사액을 받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사액을 요청하는 장소는 송시열이 지었고, 예조에서 1658년 10월에 사액을 요청하는 계문을 올렸다.¹⁸⁸⁾ 효종이 1659년 5월에 갑자기 승하하여 이듬해 1660년(현종 원년)에 사액되었다. 이때 사액의 계문은 조복양(趙復陽)이 지었다.

186) 양성당에 대해서는 임선빈, 「돈암서원의 건립배경과 사액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5, 조선시대사학회, 156~157쪽.

187) 1634년(인조 12)에 문인 이항길(李恒吉) 등이 원근에 사는 선비들과 함께 창립하여 완성되었다. 5월 정해일에 위패(位牌)모셨다.

188) 『서원등록』 효종 9년(1658) 10월 27일

이후 김장생과 김집의 학통을 계승한 송준길과 송시열이 추향되었다. 송준길은 사후 16년이 지난 1688년(숙종 14)에 추향되었고, 1689년(숙종 15)에 사망한 송시열은 1695년(숙종 21)에 추향되었다. 송준길과 송시열의 추향은 돈암서원의 성격과 위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문서명칭	작성연대	소장처	내용
奉安時儒生案	1658	돈암서원 소장	김집 추향 참석자 명단/ 332명 수록
院中舊蹟	1688	돈암서원 소장	송준길 추향 참석자 명단/ 180명 수록

□ 제향과 강학

서원의 주요 기능은 제향(祭享)과 강학(講學)이다. 돈암서원의 제향에 대한 자료는 김장생의 문하, 송준길·송시열·이유태·조복양·유계를 비롯한 산림과 그의 후손과 후학이 남긴 자료가 많다. 주요 인물이 남긴 자료는 『돈암서원지』에 수록되었고, 『사계전서』와 개인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돈암서원 강학과 관련해서는 1646년(인조 24) 6월에 송시열·이유태·윤원거·윤선거 등이 돈암서원에 모여 10일간 강론하였으며, 김집은 1647년(인조 25)에 의례도(儀禮圖)를 강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강학을 하였다는 것은 확인되는데 원규(院規)나 학규(學規)는 전해지지 않는다. 당시 서인계 서원은 이이가 지은 「은병정사학규(隱屏精舍學規)」와 「문헌서원학규(文獻書院學規)」를 기본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돈암서원의 규정도 비슷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정회당지』에 수록된 「입의(立議)」, 「강규(講規)」, 「절목」도 유용하였을 것이다.

분류	제목	연도	수록처	간행처
規約	靜會堂立議	1582 以前	靜會堂誌/ 黃岡先生實記 4	국립중앙도서관
規約	上同春堂	1669. 10. 17	明齋遺稿 권9	한국고전번역원
規約	立議	1870	靜會堂誌	국립중앙도서관
規約	講規	1870	靜會堂誌	국립중앙도서관
規約	節目	1862. 12	靜會堂誌	국립중앙도서관
講學財政	學稷節目	1886. 4	遜巖書院誌	돈암서원
講學財政	鳩財節目	1903. 10. 1	遜巖書院誌	돈암서원

출처;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제48집, 충남대 유학연구소, 2019.

서원의 조직은 원장(院長), 장의(掌議), 유사(有司), 직월(直月)로 구성되었다. 원장은 당대에 학덕으로 칭송받는 인물을 추대하였고, 장의·유사·직월은 원생(院生) 중에서 선출하였다. 『돈암서원지』에 수록된 「원장록」을 통해 송준길, 이재(李緯), 박필주(朴弼周), 이기진(李箕鎭), 민우수(閔遇洙), 유척기(兪拓基), 송환기(宋煥箕) 등이 원장을 역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대 원장은 송시열의 학파에서 배출되었고, 돈암서원 원장과 화양서원 원장을 겸임한 인물도 4명이 걸친다. 또한 송시열의 문인 가운데 김창협(金昌協)의 학맥이 운영했던 석실서원(石室書院)에서 배출한 인물이 많다.¹⁸⁹⁾

189) 김문준, 「돈암서원의 강학 활동」 『한국철학논집』 제58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8, 171쪽.

문서명칭	작성연대	소장처	내용
遯巖書院 齋任案	1738~1846	돈암서원 소장	1738~1846 돈암서원 재임 명단
遯巖書院 齋任案	미상	돈암서원 소장	장의·유사·직월 명단 일부 확인
遯巖書院 學契案	1886	돈암서원 소장	學契 운영 규칙/ 6개조 절목
遯巖書院 齋任錄	1990	돈암서원 소장	

돈암서원 창건 직후 원장으로 재임한 송시열은 돈암서원 유생에게 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하였고, 송시열의 문집 『송자대전』에 ‘답돈암원유(答遯巖院儒)’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문서명칭	출처	작성연대	소장처	내용
答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20	1667년 정미 4월 26일	한국고전번역원	辨疑/ 刊正
答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20	1669년 기유 1월 23일	한국고전번역원	院享/ 舉子/ 碑文
答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20	1672년 임자 6월 6일	한국고전번역원	草廬愆期
答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20	1672년 임자 10월16일	한국고전번역원	古禮/ 誤引
答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20	1684년 갑자 2월 9일	한국고전번역원	示諭鄉案云云/ 左相兄弟/惹起鬧端
答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20	1686년 병인 8월 16일	한국고전번역원	家禮輯覽 °蒙此印粧以惠 惟兩先生奉安書院則皆不可 不送 °
答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20	1688년 무진 3월 23일	한국고전번역원	文元公 奉安 配位 儀節
答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20		한국고전번역원	朴上舍/ 居齋事目 道峯(서원)/ 書院基地事/ 柳黃澗土田 院中三事
答遯巖院儒	송자대전 권 120		한국고전번역원	
書示遯巖院儒	송자대전 권135		한국고전번역원	
與遯巖院儒	돈암서원지(1958)		국립중앙도서관	

돈암서원에서의 강회(講會) 기록은 1708년에 확인된다. 송시열·박세채의 문인 김간(金幹, 1646~1732)이 1708년에 연산현감으로 부임하여 수 차례 강회를 열었다. 김간은 자신이 강주(講主)가 되었고 강회에서 경사(經史)를 강독하였다. 강회 참석자는 연산 현내의 유생뿐 아니라 연산 인근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때 김간은 매월 삭망(朔望)에 강당에 나아가 제생들과 읍례를 행하고 책을 주었으며 원규(院規)도 제정하였다. 이 원규도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¹⁹⁰⁾

□ 예학과 출판

190) 김문준, 위의 논문, 195쪽.

김장생은 송익필(宋翼弼; 1534~1599)과 이이(李珣; 1536~1584)에게 성리학과 예학을 배우고 계승한 조선 예학의 대가이다. 저서로는 『상례비요(喪禮備要)』·『가례집람(家禮輯覽)』·『전례문답(典禮問答)』·『의례문답(疑禮問答)』 등 예론서와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경서변의(經書辨疑)』와 시문집을 모은 『사계선생전서(沙溪先生全書)』가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론서는 1583년(선조 16) 그의 나이 36세에 편찬한 『상례비요』이다. 『상례비요』는 신의경(申義慶)이 『가례』의 상례편(喪禮篇)을 보완하여 편찬하였는데 김장생이 여러 부분을 증보하고, 참고하기 편하게 재편집하였고, 김집이 다시 교정하여 간행하였다.

『가례집람』은 1599년(선조 32) 52세에 완성된 예서이다. ‘집람’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제가(諸家)의 설을 모아 조목별로 해석을 붙이면서 장구(章句)를 구분하고 빠진 부분을 보충해 넣어 편찬하였다.

『경서변의』는 1618년(광해 10) 김장생이 71세에 편찬하였다. 『소학』·『대학』·『논어』·『맹자』·『중용』·『서전』·『주역』·『예기』 순서로 엮여져 있는데 경서를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과 경전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학설 가운데 의심나는 부분을 메모하여 연구 자료로 삼았던 것을 책으로 엮었다.

김장생의 저술은 1680년(숙종 6)에 일어난 경신환국 이후 서인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1685년(숙종 11)부터 본격적으로 간행되었다. 숙종이 교서관(校書館)에 명령하여 『경서변의』, 『가례집람』, 『의례문해』 등이 차례로 간행되었다. 이러한 김장생의 예서는 돈암서원의 위상과 그 가치를 증명하는 주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돈암서원에서 자체적으로 책판을 제작하였고, 책판을 보관하기 위한 장관각을 지었다.¹⁹¹⁾ 1796년(정조 20) 왕명에 따라 서유구(徐有榘)가 편찬한 『누판고』에는 전국 82개 서원에 소장된 184종의 책판이 수록되어 있는데, 돈암서원은 예산 도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성주 호연서원, 니성(尼城) 노강서원 다음으로 많은 책판을 보유하고 있다.¹⁹²⁾

번호	관련인물	한글	판각연도	권책수
1	김장생 (1548~1631)	경서변의	1666	7권3책
2		가례집람	1685	10권5책+圖1책=6책
3		상례비요	1685	1책
4		사계유고	1688	13권5책
5		사계선생연보	1792	1책
6		사계전서	1922	51권24책
7		사계전서속	20세기 초	5권2책
8	김집 (1574~1656)	신독재유고	1710	15권7책
9		신독재연보	1871	2권1책
10		신독재전서	1922	20권9책
11	김계휘 (1526~1582)	황강실기	1734	5권1책

출처: 김소희, 「논산 돈암서원 책판의 현황과 활용방안」, 『서지학연구』 제87집, 2021.

□ 재정과 운영

191) 돈암서원의 장관각은 통풍이 잘 되는 위치에 자리잡고 구조적으로 습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닥을 기초면에서 이격시켜 마루를 처리되어 있다. 건물내 창은 통풍을 고려하여 설치하지만 이 건물에는 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장관각은 1974년과 1988년에 보수하였고, 1998년 국비와 도시비를 통해 해체·보수하였다고 한다.

192) 김소희, 「논산 돈암서원 책판의 현황과 활용방안」, 『서지학연구』 제87집, 2021, 133~134쪽.

19세기말 돈암서원의 재정에 관한 자료로 「학계절목(學契節目)」, 「구재절목(鳩財節目)」이 있다. 「학계절목」은 1886년 충청관찰사로 부임한 심상훈(沈相薰)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를 설치하며 작성한 절목이며, 「구재절목」은 1903년 연산 군수로 부임한 이중익(李重翼)이 추향에 참여하고 강학한 뒤, 강학 비용을 마련해 주면서 작성한 절목. 이에 대한 전말을 기록한 ‘제응도당벽우(題凝道堂壁右)’가 응도당에 걸려 있다.

이외에 『돈암서원전답양안(遯巖書院田畝量案)』, 『원중도지기(院中賭地記)』 등이 남아 있어 1880년대 돈암서원의 경제적 기반에 대해 추정할 수 있다.¹⁹³⁾

문서명칭	작성연대	내용	소장처
備品簿 遯巖書院	미상	備品原簿	
賭租記	미상	무인년 賭租記	
齋中記簿	무오 3월	돈암서원 보관 서책, 제기 목록	돈암서원 소장
節目	1892.02	제향과 강학 기반 재정비	돈암서원 소장
遯巖書院 田畝改量案	1781/ 1798	서원 전답 현황 총록	돈암서원 소장
院中賭支記	미상	무오년 賭支	돈암서원 소장

3. 호남 유림의 거점, 무성서원

조선시대 무성서원은 태인현에 소재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정읍에 편제되어 현재는 정읍시 칠보면에 위치해 있다. 신라 말에 태산 태수에 부임한 최치원(崔致遠; 857~?)과 조선 명종대 태인현감에 제수된 신잠(申潛; 1491~1554)을 비롯하여 정극인(丁克仁), 송세림(宋世琳; 1479~?), 정언충(鄭彦忠; 1491~1557), 김약묵(金若默; 1500~1558), 김관(金灌; 1549~1622)을 배향한 서원이다. 무성서원은 1968년에 사적 제166호에 지정되었고, 201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9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전국 47개소 원우(院宇)를 제외하고 훼손되었으나, 무성서원은 유종(儒宗)을 배향한 서원으로 존치되었다. 거국적인 서원철폐령에도 불구하고 무성서원이 존치되었다는 사실(史實)에 기인하여 무성서원의 역사적 비중과 무게는 달라졌다. 서원철폐 이후 1872년부터 20여 차례 강습례(講習禮)를 실시하여 호남의 유림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의 여론을 모아 공론화하는 장으로서 무성서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사변 이후 의병이 조직되는 과정에서 무성서원의 유림의 거점으로 위상이 높아졌으며, 점차 호남의 수원(首院)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이러한 무성서원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주목한 자료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었다. 무성서원 관련 자료에 대해서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의 ‘태인지역 역사문화유산 조사’와 2009년 ‘문화재청의 비지정동산문화재 조사사업’을 비롯하여 공주대산학협력단과 전북대박물관 등에서 조사하였다. 2020년 전북연구원에서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 연구』를 발간하여 무성서원의 유무형의 문화재에 대한 기초적/통계적 분석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에 전주대학교에서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발간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무성서원에 소장된 자료 및 관련 자료가 정리되었다.

193) 이철성, 「1880년 논산 돈암서원의 이건과 재원확보」, 『역사와 담론』 제88집, 43~48쪽.

□ 창건과 사액

무성서원에 배향된 최치원은 경주 출신으로 12세 나이에 당나라에 유학(遊學)하여 빈공시(賓貢試)에 장원급제하여 관리로 복무하다가 885년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신라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으나 폐쇄적인 골품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외직(外職)에 전전하게 되었다. 그의 나이 34세되던 890년에 태산군(太山郡) 태수(太守)로 부임하였다. 태산군은 백제의 대시산군(大尸山郡)이었는데 신라 통일 이후에 개칭하였다. 태수로 부임하였던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고려시대에 태산 사람들은 최치원을 모시는 사우를 성황산 서쪽 능선에 있는 월연대(月延臺) 아래에 세우고 태산사(泰山祠)라고 이름짓고, 그를 고을의 성황신으로 모셨다.

태산사가 서원의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은 1615년(광해 7)에 태산사에 모셔져 있던 최치원과 신잠(申潛, 1491~1554)을 합향하는 태산서원(泰山書院)에서 비롯되었다. 신잠의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신숙주의 증손자이며 조광조의 문인이었다. 1513년(중종 8)에 진사시에서 장원으로 입격하였고, 1519년(중종 14)에는 현량과에 천거되어 예문관 검열에 보임되었다.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신잠은 관직에서 쫓겨났다가 신사무옥(辛巳誣獄)에 연루되어 운산으로 유배되었다. 다시 장흥부로 이배되어 17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다. 1537년(중종 32)에 조정에서 경기도 양주에 옮겨 살도록 허락하여 아차산 아래에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되었다. 1543년(중종 38)에 천거로 사옹원(司饗院) 주부(主簿)에 임명되었는데 다시 고을 수령에 제수되어 태인 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유배에서 풀려나 지방관에 임명된 신잠은 향약(鄉約)을 실시하고 향학당(鄉學堂)을 건립하는 등 태인의 유학을 진작(振作)하였다. 크게 감화된 태인현 사람들은 그의 유임(留任)을 탄원하였고, 신잠은 6년 동안이나 태인 현감으로 재임하며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태인 사람들은 태수와 현감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푼 최치원과 신잠을 합향하는 태산서원을 건립하였다. 이후 1630년(인조 8)에 정극인·송세립·정언충·김약목을 추향하였고, 1675년(숙종 원년) 김관을 추향하였다.

서원이 건립된 지 80여 년이 지난, 서인이 갑술환국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1695년(숙종 21)에 전라도 유생 202명이 참여하여 청액을 위한 상소를 올리기로 발의하고, 1696년(숙종 22)에 청액 상소를 올렸다. 사액 상소의 소두는 광주 출신의 생원 유지춘(柳之春)이었다. 그해 2월에 ‘무성(武城)’이라는 액호가 내려졌다. 무성과 함께 태산(泰山), 남천(藍川)이 거론되었는데 태인의 옛 지명이 무성이었고, 공자가 정치의 본령을 밝혔다는 제자 자유(子游)의 ‘무성 일화’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액을 받은 무성서원에는 복호(復戶) 3결과 보노(保奴) 30명이 지급되었다. 또한 서원의 원생은 30명으로 정해졌다. 사액서원 20명, 비사액서원 15명과는 달리 무성서원은 단순한 사액서원이 아니고, 문묘(文廟)에 종향(從享)된 유현(儒賢)을 배향한 서원이었기에 사액서원보다 더 많은 30명이 원생의 정원으로 정해졌다.¹⁹⁴⁾

문서명	출처	작성자	소장처	비고
請額疏	무성서원지(卷之一上)	송명연(宋明淵)	국립중앙도서관	소두 柳之春 글씨 金鼎三 (198명 연명)
請額事蹟	무성서원지(卷之一上)			

194) 임선빈, 「17세기 무성서원의 건립과 운영 제향인물과 사액과정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제35집, 한국국학진흥원, 2018.

□ 제향과 강학

창건과 사액 이후 무성서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무성서원지』에 수록된 「갑을기사(甲乙記事)」, 「강습례절목(講習禮節目)」, 「강습례집사(講習禮執事)」, 「홀기(笏記)」, 「강습례도(講習禮圖)」 등을 통해 짐작할 뿐이다. 무성서원 강습과 관련하여 「갑을기사」에는 1872년 원장이었던 현감 조중식(趙中植)이 3월 3일과 9월 9일에 강습례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1873년부터 1880년까지 개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881년부터 중지되었다가 1891년과 1896년에 재개되어 총 20회의 강습례가 개최되었다.¹⁹⁵⁾

무성서원이 사액된 시기는 서인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로 무성서원이 서인 노론의 지원 아래 사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무성서원의 운영과 강학 역시 서인 서원의 예를 준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대표적인 서인 서원의 원규는 이이의 은병정사학규와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석실서원학규(石室書院學規) 등이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을 것이다.

□ 통문과 교류

무성서원 소장 자료 가운데 『심원록(尋院錄)』과 『봉심록(奉審錄)』 등에는 전현직 관리와 배향인물의 후손 등 방문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심원록』은 서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작성한 ‘방명록’으로 방문자의 거주지, 본관, 성명, 자(字), 생년간지, 방문날짜, 방문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 현재 『심원록』 5종, 『봉심록/안』 3종이 남아 있다. 서원철폐 이전에는 『심원록』으로 작성하고 이후에는 『봉심록/안』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다.

문서명칭	작성연대(추정)	소장처	비고
尋院錄	1612~1658	무성서원	태산서원
尋院錄	1738~1771	무성서원	
尋院錄	1780~1813	무성서원	1821/1828
尋院錄	1813~1831	무성서원	
尋院錄	1831~1879	무성서원	
奉審錄	1875~1915	무성서원	무성서원 참배자 명단
奉審錄	1933~1967	무성서원	
奉審案	1962~1674	무성서원	

무성서원의 『심원록』에 수록된 방문자는 1696년(숙종 22) 사액을 기점으로 평균 방문인원이 크게 늘고 있는데, 특히 1784년(정조 8) 최치원 영정을 쌍계사로부터 가져올 시기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확인된다. 다른 시기에는 서원의 대소사에 따라 조금씩의 증감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¹⁹⁶⁾ 서원철폐령 이후에는 『봉심록/안』이라는 이름으로 방문객의 기록을 남겼다. 전북지역에 유일하게 존치된 서원이었기 때문에 그 위상이 높아졌을 것이다.

서원철폐 이후 무성서원의 위상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문헌 작성시기를 거론할 수 있다. 전북연구원에서 발간한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에 따르

195) 박종배, 「19세기 후반 무성서원의 강습례에 관한 일고찰」, 『한국서원학보』 1집, 한국서원학회, 128~129쪽,

196) 한중수, 「18~19세기 영광 정씨(靈光丁氏) 문중활동 연구 -무성서원 『심원록(尋院錄)』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5권 제1호, 역사문화학회, 2022, 225~226쪽.

면, 무성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189건의 문서 가운데 19세기 후반 이후에 작성된 문서는 111건으로 58.7%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효자와 열부(烈婦) 표창과 관련한 통문(通文)이 80여 점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이외에 절목(節目)과 완문(完文) 등이 남아 있다. 서원철폐 이후 1876년 개항,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지는 구체제의 균열과 붕괴로 이어지는 격변의 시대에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호남의 유림이 지향한 가치와 이념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구분	분류	건수	합계
고문서	통고·통문	29	78
	과거·임용: 망기	12	
	소송·청원: 상서	6	
	기록류: 기타기록류: 시도기	6	
	소송·청원: 상언	6	
	기록류: 명단류: 유안	4	
	증빙·공증: 원문	3	
	기록류: 명단류: 기타	2	
	기록류: 치부류: 계문서	2	
	관혼상제: 제문	1	
근현대문서	통고·통문	54	111
	과거·임용: 망기	11	
	기록류: 치부류: 계문서	5	
	관혼상제: 시도기	5	
	명령·보고: 고육	5	
	기록류: 치부류: 회계	3	
	기록류: 기타기록류: 기타	3	
	기록류: 명단류: 계안	3	
	기록류: 명단류: 기타	3	
	기록류: 치부류: 치부	2	
	소송·청원: 상서	2	
	기록류: 기타기록류: 시도기	2	
	과거·임용: 임명장	2	
	기록류: 절목류: 절목	2	
	기록류: 치부류: 전달안	1	
	근현대시기문서: 군지	1	
	기록류: 규약류: 향약	1	
	명령·보고: 품고	1	
	근현대시기문서: 증서	1	
	사부: 지리류	1	
서간: 간찰	1		
관혼상제: 제수목록	1		
식민시기문서: 증서	1		
총 합계		189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 02쪽 개인용.

문서명	작성시기	소장처	출처	비고
통문	1874	전북대 박물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모성공회의 유생에게 보냄
望記	1899	전북대 박물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무성서원 장의에 임공기 등 3인 천거
望記	1900	전북대 박물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무성서원 유사에 임기인 등 3인 천거
통문	1902	전북대 박물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무성서원에서 임피향교에 보냄
上書	1903	전북대 박물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함열군수에게 보낸 상서
上書	1903	전북대 박물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강장에게 올린 상서
上書	1905	전북대 박물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원장에게 올린 상서
上書	1905	전북대 박물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만경군 집강에게 올린 상서
望記	1917	전북대 박물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도내 훈장에 임공기 천거

告目	1917	전북대 박물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도내 훈장 임공기 임명
통문	1922	정읍 시산 최재필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전주향교에 보냄
통문	1926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태인향교에서 보냄
통문	1927	강진 진주강씨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강진수 효행 관련 강진향교에 보낸 통문
望記	1927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김현형 도내 훈장 천거
통문	1927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전주향교에서 보냄
통문	1927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전주향교에 보냄(열부)
통문	1927	신안 하의 김해김씨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무안향교에 보냄
통문	1927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전주향교에 보냄(효자)
통문	1927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태인향교에서 보냄
통문	1928	강진 진주강씨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강진수 효행 관련 모현공회에 보낸 통문
통문	1928	정읍 시산 최재필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나주향교에서 보냄
통문	1928	정읍 시산 최재필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전주향교에서 보냄
통문	1928	정읍 시산 최재필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광주향교에서 보냄
上書	1928	강진 진주강씨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무성서원 유생이 모성공회에 보냄
통문	1928	강진 진주강씨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강진수 효행 관련 남강서원에서 보낸 통문
望記	1928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김현형 춘향제전사관 천거
望記	1929	강진 진주강씨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유림도회소에서 강대홍 도내유림장에 천거
告目	1929	강진 진주강씨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무성서원에서 강대홍에게 도내 유림 장의 임명 알림
告目	1930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무성서원 유희소에서 도내유림장의 임명
望記	1931	강진 진주강씨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유희소에서 무성서원 강대홍 도내훈장 추천
통고	1931	장흥 용산 밀양박씨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최익현 영정 봉안 제관 임명 통고
聲討文	1931			孔夫子2482
望記	1934	정읍 박산 김해김씨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서원 김현형 중수찬성장 추천
望記	1937	전북대 박물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무성서원 백성구 유사 3인 천거
통문	1938	장수 침곡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주병국 儒契 관련

		증주박씨		장수향교에 보낸 통문
稟告	1938			
통문	1941	신안 안좌도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문익수 효행 관련 나주향교에 보낸 통문
敬通	庚午 八月			
통문	경자년	강진 진주강씨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강대홍 관련 강진향교에 보낸 통문
통문	경자년 (1960)	강진 진주강씨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강대홍 관련 강진향교에서 보낸 통문
望	辛未 八月			
敬通	壬申 五月			
聲討文				

□ 운영과 재정

서원철폐령 이전의 무성서원의 운영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적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존하는 무성서원 자료는 대부분 서원철폐 이후에 작성되었다. 사액되기 이전에 태산서원의 『원생안(院生案)』(1618)과 『원유안(院儒案)』(1620), 『유생안(儒生案)』(1622), 『원생안』(1639), 『원생안』(1659) 등이 현존한다.¹⁹⁷⁾ 18세기에 작성된 무성서원 『원생안』(1740)과 『원생안』(1773)도 남아 있다.

19세기에 접어들어 1825년(순조 25)에 화재로 강당이 불탔으나 1828년(순조 28) 현감 서호순(徐灝淳)의 지원으로 대대적인 중창을 했으며, 1834년(헌종 1) 최치원의 문집인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이 다시 간행되었을 때에는 일부를 보관하기도 했다.

재정과 관련해서 일제 강점기에 서원운영 실태를 추정할 수 있는 『무성서원 모현계안(慕賢稷案)』(1932·1933)과 『무성서원 수지부(收支簿)』, 『무성서원 향수전식본기(享需錢殖本紀)』, 『추감기(秋監記)』(1922), 『무성서원 향수계안서(享需稷案序)』 등이 남아 있다.

197) 조사 보고서에 따라 그 명칭이 원유안, 원생록, 유생록 등으로 혼용되거나 작성 시기에 차이가 있다.

■ 참고논문

- 고영진, 「16~17세기 예학의 지역적 분화과정과 그 특징」 『국학연구』 13집, 한국국학진흥원, 2008.
- 권이선·박정민, 「무성서원지의 체제와 특징 - 1884년본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37집, 2021.
- 김명자, 「『심원록(尋院錄)』을 통해 본 18세기 전반 도산서원(陶山書院)의 방문과 그 의미」, 『퇴계학과 유교문화』 53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 김문준, 「기호예학의 특성과 방향」 『동양철학연구회』 39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 김문준, 「돈암서원의 강학 활동」 『한국철학논집』 58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8.
- 김상기, 「崔益鉉의 定山 移住와 泰仁義兵」, 『충청문화연구』 7집,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1.
- 김소희, 「논산 돈암서원 책판의 현황과 활용방안」 『서지학연구』 87집, 한국서지학회, 2021.
-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書院) 강학(講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48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
- 김현수, 「기호예학의 형성과 학풍 - 울곡, 구봉의 특징과 전승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25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1.
- 도민재, 「기호학파의 『주자가례』 수용양상」 『국학연구』 16집, 한국국학진흥원, 2010.
- 박정민,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활용방안」, 『인문과학연구』 66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 박종배, 「19세기 후반 무성서원의 강습례에 관한 일고찰」, 『한국서원학보』 1집, 한국서원학회, 2011.
- 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19집 2호, 교육사학회, 2009.
- 배상현, 「기호예학의 성립과 발전」 『유학연구』 2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94.
- 안다미, 「‘私設’ 논의를 통해 본 서원철폐령의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제97호, 조선시대사학회, 2021.
- 유철노, 「기호학의 특성과 전망」, 『동양철학연구』 39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 윤희면, 「고종대의 서원 철폐와 양반 유림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10, 1999.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 정책과 서원의 설립 실태」 『역사학보』 181, 역사학회, 2004.
- 이경동, 「조선시대 논산지역 서원의 운영과 특징 - 遯巖書院, 魯岡書院, 竹林書院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81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 이연숙, 「조선시대 논산지역 재지사족의 동향과 서원건립」 『민족문화논총』 81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 이철성, 「1880년 論山 遯巖書院의 移建과 재원확보」, 『역사와 담론』 88집, 호서사학회, 2018.
- 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한국서원연합회
- 이해준,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집, 한국국학진흥원, 2007.
- 임선빈, 「17세기 무성서원의 건립과 운영 - 제향인물과 사액과정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 임선빈, 「遯巖書院의 건립배경과 賜額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5집, 조선시대사학회, 2018.
- 진성수,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원규」, 『유학연구』 49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
- 한문중, 「전북 지방의 서원·사우에 대한 試考 -『전북원우록』을 중심으로」, 『전라문화논총』 5, 전라문화연구소, 1992.
-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향사례 비교연구- 9대서원 향사의절을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20집, 영남퇴계학연구원, 2017.
- 한재훈, 「조선시대 예학의 난제들과 학과간 교섭을 통한 예학의 생태계 형성」 『동방학지』 19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0.
- 한중수, 「18~19세기 영광 정씨(靈光丁氏) 문중활동 연구 -무성서원 『심원록(尋院錄)』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5권 제1호, 역사문화학회, 2022.
- 황의동, 「기호유학에서 金長生, 金集의 성리학적 위상」 『대동철학』 53집, 대동철학회, 2010.

주제 2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 방안

발표 1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설계와 운영방안

김하영(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설계와 운영방안

2023. 08. 30.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강당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하영

목차

1. 정의
디지털 + 문헌 + 서원 아카이브의 성격-보편성과 특수성 ●
2. 선행연구
국내 · 국외의 대표적인 사례 ●
3. 준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및 학술포럼
4. 전개
원문자료 및 관련 연구성과의 DB화 & 아카이브 정보시스템 구축
5. 확산
관련 콘텐츠 기획 및 웹서비스 고도화
6. 향후 발전방안
심화연구 지원 역할 및 세계화 방안 모색

목차

- 정의
- 선행연구
- 준비
- 전개
- 확산
- 향후 발전방안

서원. 문헌. 디지털.

아카이브.

- 전통적 의미의 아카이브(Archives)
 - 기록관 記錄館.
 - 현용 現用 기록물의 보존·관리.
- 라키비움(Larchiveum).

목차

- 정의
- 선행연구
- 준비
- 전개
- 확산
- 향후 발전방안

서원. 문헌. 디지털.

라키비움(Larchiv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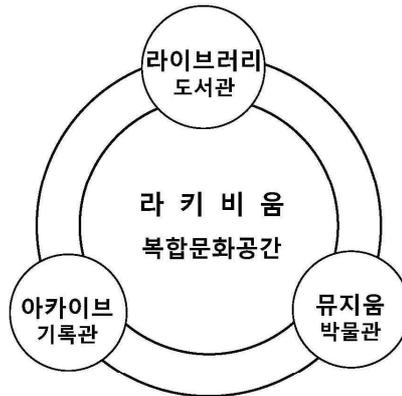
- 라이브러리 Library + 아카이브 Archives + 뮤지움 Museum
 - 라이브러리 : 도서관 圖書館, 출판도서 중심의 열람·대출
 - 아카이브 : 기록관 記錄館, 현용기록물의 보존
 - 뮤지움 : 박물관 博物館, 수집·보존·연구·전시

목차

- 정의
- 선행연구
- 준비
- 전개
- 확산
- 향후 발전방안

서원. 문헌. 디지털.

라키비움(Larchiveum).



목차

- 정의
- 선행연구
- 준비
- 전개
- 확산
- 향후 발전방안

서원. 문헌. 디지털.

디지털(Digital) 아카이브.

- 디지털 정보의 특징
 - 자료의 이용 · 집적에 공간 · 시간 제약이 없음.
 - 사물의 디지털 전환, 원본原本의 재현.
-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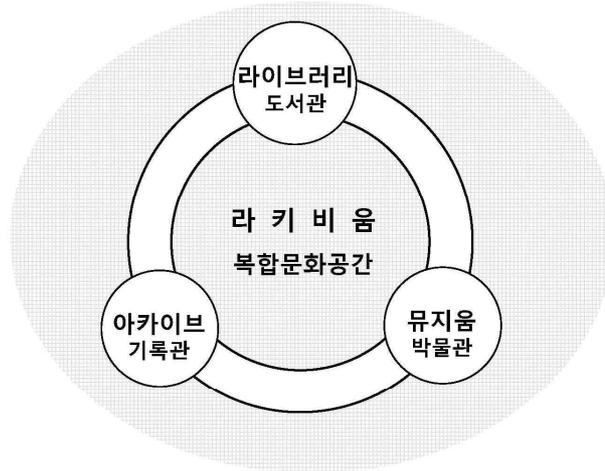
목차

- 정의
- 선행연구
- 준비
- 전개
- 확산
- 향후 발전방안

서원. 문헌. 디지털.

디지털 아카이브.

- 라키비움의 아카이브
- +
- 디지털 기술·환경



목차

- 정의
- 선행연구
- 준비
- 전개
- 확산
- 향후 발전방안

서원. 문헌. 디지털.

서원 문헌 아카이브.

- 일반성 vs. 특수성
 - 일반성 : 문헌 아카이브
 - 특수성 : 서원 아카이브

목차

- 정의
- 선행연구
- 준비
- 전개
- 확산
- 향후 발전방안

서원. 문헌. 디지털.

서원 문헌 아카이브.

- 일반성 vs. 특수성
 - 일반성 : 문헌 아카이브
 - 특수성 : 서원 아카이브



목차

- 정의
- 선행연구
- 준비
- 전개
- 확산
- 향후 발전방안

서원. 문헌. 디지털.

서원 아카이브.

- 특수성
 - 서원의 구성요소
 - 서원의 목적 · 기능



목차

- 정의
- 선행연구
- 준비
- 전개
- 확산
- 향후 발전방안

서원. 문헌. 디지털.

서원 아카이브.

- 특수성
 - 서원의 구성요소
 - 서원의 목적 · 기능



목차

- 정의
- 선행연구
- 준비
- 전개
- 확산
- 향후 발전방안

서원. 문헌. 디지털.

서원 아카이브.

- 특수성
 - 서원의 구성요소
 - 서원의 목적 · 기능



목차

- 정의
- **선행연구**
- 준비
- 전개
- 확산
- 향후 발전방안

서원 문헌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연구.

- 일반성 vs. 특수성
 - 일반성 : 문헌·종교(교육기능) 아카이브
 - 특수성 : UNESCO 문화유산

목차

- 정의
- 선행연구
- **준비**
- 전개
- 확산
- 향후 발전방안

서원 문헌 디지털 아카이브

아카이브 구축방안.

- 준비단계 : 연구사업
 - 목록 확정(메타정보)
 - DB 설계
 - 자료별 구성요소를 식별, DB구조 설계
 - 원문이미지 ID체계(9개 서원 ID 부여한 파일명 규칙 도출)
 - 예산수립
 - 전체 자료 규모 및 소장처 파악
 - 이미지 DB구축 계획 수립

목차

- 정의
- 선행연구
- 준비
- **진개**
- 확산
- 향후 발전방안

서원 문헌 디지털 아카이브

아카이브 구축방안.

■ 1단계

- 원문이미지 DB구축
원문이미지 촬영 및 업로드 완료
- 서비스 시스템 개발
원문이미지 파일 열람 및 관리 시스템
편찬시스템(서지사항, 해제, 원문텍스트 및 번역 포함)

목차

- 정의
- 선행연구
- 준비
- **진개**
- 확산
- 향후 발전방안

서원 문헌 디지털 아카이브

아카이브 구축방안.

■ 2단계

- 문헌 연구성과 DB구축
서지해제 및 내용해제 작성
원문텍스트 및 번역 대상 선별
- 서비스 시스템 개발
서비스 기획(소개 및 이용안내)
시스템 고도화(디렉토리/검색엔진/이미지뷰어)

목차

- 정의
- 선행연구
- 준비
- 전개
- 확산
- 향후 발전방안

서원 문헌 디지털 아카이브

아카이브 구축방안.

- 3단계
 - 문헌 연구성과 DB구축
DB고도화(내용해제 및 원문텍스트의 지식정보 추출)
원문텍스트 및 번역문 작성(편집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 서비스 시스템 개발
9개 서원 기획 콘텐츠 및 부가서비스

목차

- 정의
- 선행연구
- 준비
- 전개
- 확산
- 향후 발전방안

서원 문헌 디지털 아카이브

아카이브 확충 · 확산 전략.

- 1단계
 - 온라인에서 서원 관련 문헌의 메타정보 수집, DB의 지속적 양적 확충
- 2단계
 - 관련 연구논문 정보를 수집 · 연계, DB의 질적 확충
- 3단계
 - 대표적인 국내외 아카이브 및 고문헌 아카이브 연계

목차

- 정의
- 선행연구
- 준비
- 전개
- 확산
- 향후
발전방안

서원 문헌 디지털 아카이브

지식정보 아카이브 & 연구지원 플랫폼.

-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 연구방법론.
 - 안정적인 아카이브 플랫폼 운영을 근간으로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 방법론을 적용, 지식정보 연계 확장.
 - 서원 구성요소인 인간 · 공간 · 문헌에서 전근대 · 근대, 인물 · 학파 · 정파, 인문지리 · 역사적 사건 등 분야를 망라하는 지식정보 연계
 - 지식정보 아카이브이자 연구지원 플랫폼으로 기능.

목차

- 정의
- 선행연구
- 준비
- 전개
- 확산
- 향후
발전방안

서원 문헌 디지털 아카이브

아카이브의 세계화.

- 세계화를 통한 UNESCO 문화유산의 가치 구현
 - 세계 문헌 아카이브와의 연계 추진
 - 비교연구 활성화의 장場 제공
 - 동종同種 UNESCO 문화유산과 협력을 통한 홍보
- UNESCO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전범典範 목표

한국의 서원

문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학술포럼

2023년 8월 30일 (수) 13:00~18:00

한국학중앙연구원 강당 (소강당)